언론사: 경향신문-2-201.txt

제목: “잃어버린 애완견, 앱으로 찾았어요”···공공데이터 활용 앱의 재발견  
날짜: 20170814  
기자: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4154250001  
ID: 01100101.20170814154250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서울에서 활동하는 가수 후니아(본명 김태훈)는 지난 1일 오전 전북 전주의 부모님 댁에 반려견 ‘땅콩(포메리안 암컷 4살)’을 맡겨놨다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 슬픔에 잠겨 있던 그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반려동물 검색용 스마트폰 앱인 ‘포인핸드(Paw in Hand)’의 실종·보호 코너에 땅콩의 사진과 정보를 자세히 올렸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튿날 ‘기적’이 발생했다. 우연히 땅콩을 발견한 사람이 포인핸드 앱의 정보를 보고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br/><br/><br/>그러나 가수 후니아가 겪은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정부·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앱의 ‘힘’이었다. ‘포인핸드’는 수의사인 이환희씨가 만들었다. 이씨는 주인을 잃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연간 9만여 마리나 발생하고, 그 중 절반(49.9%) 정도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인 유실·유기동물 정보에 길 잃은 개·고양이 등을 본 일반인 등의 정보를 더해 이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은 물론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얼마전 이 앱을 통해 유기견(말티즈 숫놈 3살) 1마리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지원씨(31)는 “유기견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개와 다른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만족해 했다.<br/><br/>정부·지자체 등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있는 ‘국민 체감형 농식품 데이터 활용 앱 7선’을 선정, 14일 발표했다. <br/><br/>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수앱’으로 꼽히는 포인핸드의 경우 32만명이 내려받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앱은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기도 했다.<br/><br/>농촌지역 빈집으로의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빈집정보 전용 앱인 ‘전원일기’을 내려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앱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br/><br/>빈집의 현재 상황은 물론 주변 환경,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간편하게 검색해볼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정보와 공시지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서비스다.<br/><br/>이밖에 전국 도매시장의 농수축산물 경락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아삭’, 소가 태어나 성장하고 도축되는 전 과정을 정부의 축산물 이력정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소고기이력조회’, 암 환자들을 위한 명양 및 식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키니케어’, 전국 1300여 산의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대한민국명산’ 등의 앱도 관심을 끈다.<br/><br/><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02.txt

제목: 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노동자 유방암 산재 판결…‘유해물질 인과성’ 첫 인정  
날짜: 20170813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3170041001  
ID: 01100101.20170813170041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고온 납땜을 할 때 환기가 너무 안 돼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아프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건 그런 것들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같이 암에 걸려도 내가 몸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재해’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번 산재인정으로,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무엇이 몸에 해로운 지 제대로 알고, 아프지 않게 일할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삼성반도체 유방암 피해자 김경순씨)”<br/><br/>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장시간 노동 등을 이유로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br/><br/>13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 김경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r/><br/>김씨는 2006년 9월 삼성반도체 하청업체 ‘큐티에스’에 입사해 5년3개월 동안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등에서 납품받은 불량 반도체 칩을 화학물질을 이용해 떼어내고, 이를 씻어낸 뒤 고온의 설비로 재가공하는 일을 했다. 안전장비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김씨는 2011년 11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20여명 중 김씨를 비롯해 4명이 유방암에 걸렸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span class='quot0'>업무 환경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span>”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10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r/><br/>이번 판결은 법원이 작업장 유해물질과 유방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은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지워진 문제도 지적했다. <br/><br/>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 거부의 이유로 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 역학조사의 한계도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 역학조사를 산보연에 의뢰했는데, 재판부는 “<span class='quot1'>(역학조사는)2009년 이후 자료만을 전제로 이뤄진 한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결국 원고(김씨)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2006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 등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span>”고 했다. <br/><br/>재판부는 또 “산보연 역학조사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산화에틸렌’의 존부에 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 측에서 “<span class='quot1'>산화에틸렌 가스 노출량의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를 다시 의뢰해 달라</span>”는 회신까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span class='quot1'>이러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부실하게 된 역학조사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span>”라고 판시했다. <br/><br/>반올림은 성명을 내 “반도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들을 병들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사업장 환경 관리 감독기관은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원·하청 모든 반도체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03.txt

제목: 일본, 혈액 채취만으로 13종류의 암 진단...3년 후 실용화 목표  
날짜: 20170813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3104322001  
ID: 01100101.20170813104322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혈액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13종류의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법을 일본 연구팀이 개발해 이달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br/><br/>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등의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암 검사법은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만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13종류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br/>NHK에 따르면 인체 내의 세포에선 혈액에 ‘마이크로RNA’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다. 하지만 간 세포는 종류에 따라서 분비하는 마이크로RNＡ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br/><br/>이 검사법은 아주 작은 양의 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br/><br/>임상연구는 이번달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암이라고 새로 진단받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 등 모두 합해 3000명 이상으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각각의 마이크로RNA의 종류나 양을 측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검사가 가능한 지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임상실험을 거쳐 3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br/><br/>오치야 다카히로(落谷孝廣) 국립암연구센터 분자세포치료연구분야장은 “간단하게 암 검사를 받을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r/><br/><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04.txt

제목: [MBC몰락 10년사⑥] 블랙리스트 …MBC장악 마지막 퍼즐  
날짜: 20170813  
기자: 김재영 PD (PD수첩 등 연출, 현재 송출실 근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3102643001  
ID: 01100101.20170813102643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지난 8일 밝혀진 MBC판 블랙리스트는 충격적이었다. 문건에 의하면 65명의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충성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개인 한 명 한 명을 ‘충성’, ‘회유 가능’, ‘회색분자’, ‘강성이고 격리가 필요한 전복세력’이라는 표현으로 분류했다. 이 문건에 등장한 카메라기자들은 “<span class='quot0'>우리가 등급으로 나누는 고깃덩어리였느냐</span>”며 절규했다. MBC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MBC 사측이 언론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문건의 사실 여부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문제지만, 사실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소문이 파다했다. MBC 구성원들은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경영진의 폭압적인 관리체계를 생각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br/><br/>MBC 사측은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거치는 동안 10명을 해고했고, 110명을 징계했으며, 157명을 ‘유배’시키는 등 꼼꼼한 폭력을 자행했다. 그들은 각종 승진·전출·인사고과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은 정리된 블랙리스트가 없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다. 폭로된 블랙리스트는 일종의 마지막 퍼즐 같았다. <br/><br/>MBC 경영진은 지금까지 90여건에 달하는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징계와 인사조치들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다. 독재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들은 ‘반바지는 입지 말라’는 복장의무, 업무 위치까지도 강제 보고하라는 인사관리를 도입했고, 드디어 블랙리스트까지 폭로되었다. 언론사 MBC가 최악의 노동탄압 현장이 된 것이다. 10년 전까지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사였던 MBC가 어떻게 블랙리스트로 인간을 분류하고, 근거도 없이 해고를 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 될 수 있었을까. <br/><br/> <br/> MBC 사태의 공범자들 <br/>권력자들은 MBC에서 벌어진 희대의 언론자유 침해사태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span class='quot1'>언론의 자유는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할 이유도 없습니다</span>”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그들은 MBC에서 멀쩡한 사장이 쫓겨나가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김미화·신경민 등 진행자들이 마이크를 빼앗겼으며, 4대강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불방되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했고, 그런 태도로 사실상의 가해자가 되었다. 권력자들에게 질문하는 언론은 없었고, 그들의 일방적 진술만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br/><br/>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공적 기구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파업과 해고, 징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MBC 사태는 노사 양측 간의 갈등일 뿐이고, 언론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했다. “<span class='quot2'>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span>”고 스스로 발언한 ‘백종문(현재 MBC 부사장)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출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2심까지 해고 무효가 되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MBC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논의조차 거부했다. MBC의 이사회 격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했는데, 방송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써가면서 가진 회동에서의 발언을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며 역시 논의를 거부했다. 언론인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데, 그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그들의 뻔뻔한 논리 앞에 해고자들은 무력했고 MBC 경영진은 미소를 지었다. <br/><br/>또 다른 공범자들의 주장은 “보수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정권 때도 그랬다”는 것이었다. 찬찬히 따져보면 역시 거짓말이다. 비교적 MBC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여기에 가담했다. 정작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국제기관들의 언론자유지수가 보수정부 9년 사이 두 배 넘게 악화되었다는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MBC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던 황우석 박사의 불법 난자 매매와 논문 부정행위를 밝혔고, 참여정부의 한·미 FTA, 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증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br/><br/>공범자들은 언론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이렇게 정의했다. “<span class='quot2'>MBC에서 언론 탄압이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노사관계일 뿐이며, 이런 갈등은 진보정권 시절에도 있었다</span>”는 거대한 거짓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궤변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br/><br/><br/><br/> 거래는 계속된다 <br/>한때 MBC의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있었다. 2012년 당시 MBC의 170일 파업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한도전>의 불방이 6개월간 계속되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span class='quot3'>파업이 해고사태에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span>”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냈고,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MBC 정상화’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 합의를 근거로 노동조합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긴 파업을 풀었다. 당시 MBC 김재철 사장과 임원들은 멘붕에 빠졌다. 정상화란 그들의 퇴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br/><br/>경영진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일단 MBC 뉴스는 박근혜 후보와 박빙으로 경쟁하던 안철수와 문재인에 대한 대형 오보를 만들었다. 안철수의 박사 논문 표절, 노무현 NLL 녹취록 보도 등이었다. 불공정보도가 횡행했다. 실질적 책임자는 당시 김장겸 정치부장, 현 MBC 사장이었다.<br/><br/>결국 ‘MBC 정상화’ 약속은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고 불공정보도의 과실은 달콤했다. 선거 당시 임원이었던 안광한·권재홍·김장겸 등은 이후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등으로 영전했다. 경영진은 무서울 게 없었다. 자기들을 한때 위기로 몰아넣었던 강력한 노동조합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월급사장이어서 임기만 마치면 자연인이 되는 경영진들이 후배들에게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심지어 암 투병 중인 해고자를 외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r/><br/>박근혜 권력은 탄핵되었지만 아직도 그 일부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MBC 구성원들이 김장겸 퇴진을 외치며 제작 거부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도 MBC 뉴스 책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정책, 고소득자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까라’는 오더를 경제부 기자들에게 남발했고,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라는 창의적(?)인 발상의 역정을 내고 있다. ‘공범자들’ 사이의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br/><br/> 김재영 MBC PD(PD수첩 등 연출, 현재 송출실 근무) <br/><br/> <br/><br/>\*참고문헌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스탠리 코언 지음, 조효제 옮김, 창비<br/><br/><김재영 PD (PD수첩 등 연출, 현재 송출실 근무) 기자>

언론사: 경향신문-2-205.txt

제목: 대장암 전이•재발 억제하는 면역암치료 눈길  
날짜: 2017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1173345002  
ID: 01100101.2017081117334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84개국 대장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국민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내 대장암 환자는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과 비만·음주 등이 증가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발병 후 2년 내 5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하지만, 조기발견 시 90%가 완치될 수 있다.<br/> <br/>하지만 대장암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어, 병기가 상당수 진행됐거나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될 때가 많다. 특히 수술 및 항암치료가 끝난 후에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 세포로 인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전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꾸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br/> <br/>대장암 치료는 암세포가 대장에 국한돼 있는지, 아니면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대장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1기와 재발 위험이 없는 2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정기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하지만 대장암 3기 이상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진행하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br/> <br/>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으로 인해 대장암 환자들의 면역력과 기력은 급속도로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때 구토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치료는 환자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치료에도 견딜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br/> <br/>이와 관련 최근 각광받는 치료법이 한방 면역암치료다. 강남푸른숲한의원의 경우 양방치료에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하는 ‘이중병행암관리법’을 환자들에게 적용한다.<br/> <br/>이중병행암관리는 면역암치료의 일환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항암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으며,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과 면역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br/> <br/>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제제 치종단은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암 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이중병행암관리가 항암제의 유효반응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면서, 한방요법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찾을 치료와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br/> <br/>이어 “암 세포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전이와 재발이 쉬운 대장암은 이를 효과적이면서 빠르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06.txt

제목: [속보]MBC 보도국 기자 80명 11일 오전 8시 제작중단 돌입  
날짜: 20170810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0230540001  
ID: 01100101.20170810230540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MBC 보도국 취재기자 80여명이 11일부터 제작중단에 돌입한다. 시사제작국과 콘텐츠제작국 기자·PD들,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에 이어 보도국 취재기자들까지 제작중단에 동참하면서 MBC ‘방송 정상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br/><br/>MBC 보도국 기자들은 10일 저녁 총회를 열고 11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작중단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보도국 취재기자 중 80명 가량이 제작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보도국 카메라기자를 포함한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 59명 중 50명이 제작을 중단한 상태다. 영상기자회는 카메라기자들을 성향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이 발견된 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MBC 총파업이 기자회 제작거부에서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중단 결의가 이번에도 총파업 등 또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중단 사유를 설명할 계획이다.<br/><br/>기자들의 제작중단으로 MBC 내에서 제작중단에 동참하는 부서는 보도국까지 3개 국으로 늘었다. 지난달 21일부터 PD 10명이 제작중단에 들어간 〈PD수첩〉은 3주째 결방 중이다. 지난 3일에는 시사제작국 소속 PD와 기자 22명이 제작진과 함께 제작중단에 나섰다. <사람이 좋다> 등을 제작하고 <출발 비디오여행> 등 외주 프로그램 10여개를 관리하는 콘텐츠제작국 PD 30명도 아이템 검열 등에 항의해 9일 제작을 중단했다. <br/><br/>제작거부 이외에도 MBC 조직 내 균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MBC 뉴미디어뉴스국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에 이름이 오른 기자들의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MBC 사측이 블랙리스트와 경영진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br/><br/>2012년 파업에 동참한 아나운서 11명이 떠났던 아나운서국에서는 이날 김소영 아나운서가 퇴사했다. 김나진 MBC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pan class='quot0'>김소영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국에 있지만 방송을 못하게 해 회사를 떠난 12번째 아나운서</span>”라며 “<span class='quot0'>어두운 곳에서 고초만 겪다 떠났기에 더더욱 미안하다</span>”고 적었다. <br/><br/>정치권 등 MBC 바깥에서도 MBC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휴가기간을 이용해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의 자택을 찾았다.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오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07.txt

제목: 법원 “한국타이어 ‘폐암 사망’ 유족에 배상”  
날짜: 20170810  
기자: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0215605001  
ID: 01100101.2017081021560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ㆍ“충분한 안전배려 안 해”…잇단 사망 ‘사측 책임’ 첫 인정 <br/>ㆍ‘작업과정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인과관계 사실상 인정<br/><br/>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출신 노동자는 최소 36명이다. 하지만 이는 특수건강진단에 따라 질병 유소견자 등으로 기록된 이들만 추적해 나온 수치로 비공식적으로는 관련 질병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br/><br/>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안씨 부인에게 1466만원, 안씨 자녀 3명에게 2940만원씩 모두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br/><br/>안씨는 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둥글게 타이어 모양을 잡는 공정에서 일하다 2009년 폐암이 발병했고 2015년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안씨의 유족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성 먼지인 ‘고무흄’ 등 유해물질을 한국타이어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폐암 발병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br/><br/>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span class='quot0'>한국타이어 측은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타이어 제조 공정이 발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름철 40도 이상의 환경에서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준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배려 의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br/>정 판사는 작업 과정과 폐암의 인과관계도 사실상 인정했다. 정 판사는 “<span class='quot0'>여러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씨는 상당 기간 고무흄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흡연자이고 가족력이 없는 등 폐암을 일으킬 다른 원인도 없다</span>”고 했다. 정 판사는 “<span class='quot0'>다른 근무자들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수십명이 숨진 사실이 2007년 알려지면서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등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2007년 한 해에만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사망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상 재해 판정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피해자들 모임인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최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다.<br/><br/><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08.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7년 8월 11일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0201310001  
ID: 01100101.20170810201310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 영화 ■ 해피 홀리데이(씨네프 오후 1시30분) = 이혼 위기에 놓인 더그와 아비는 암에 걸린 더그 아버지의 생일파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별거 사실을 숨기고 스코틀랜드로 향한다. 부부는 차 안에서 삼남매의 입단속을 철저히 하지만 천방지축 삼남매의 입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는 삼남매 때문에 언제 비밀이 폭로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더그와 아비는 마음 졸이며 생일파티를 준비한다.<br/><br/>■ 예능 ■ 술로 라이프(skyENT 오후 11시) = 배우 이종혁, 오대환, 구성환이 조지아의 우다브노 마을로 떠난다. 우다브노 여행자들의 쉼터인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세 사람은 드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여유를 만끽한다. 그런데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던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설거지, 양파 썰기, 말 돌보기 등 게스트하우스의 온갖 잡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언론사: 경향신문-2-209.txt

제목: 윤영찬 수석 휴가 중 이용마 MBC 해직기자 방문  
날짜: 20170810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0154135001  
ID: 01100101.2017081015413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휴가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br/><br/>이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수석이 오늘 다녀갔다. 언론계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 개인적인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나들이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윤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br/><br/>이 기자는 “<span class='quot0'>오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정상화 시기 역시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감을 이루었다“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공영방송을 이루는 방향으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기자 자택을 방문해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0.txt

제목: 단일통로 복강경맹장수술, 의료진 숙련도가 중요해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10130959001  
ID: 01100101.201708101309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병의 정확한 병명은 충수염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을 거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게 된다.<br/>여기서 소장과 대장을 잇는 곳에 맹장이라는 기관이 있고, 맹장 끝에는 6∼9cm 정도의 작은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를 충수(충수돌기)라고 한다.<br/>우리가 급성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이다. 맹장이라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맹장에 붙어 있는 충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맹장염보다는 충수염이 더 맞는 표현이다.<br/>충수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원인에 의해 충수돌기 입구가 막혀 문제가 생기게 된다.<br/>충수염의 대표적인 초기증상은 식욕 떨어짐과 울렁거림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br/>맹장염 치료의 대부분은 수술로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복을 해서 충수돌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흉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다.<br/>하지만 최근의 충수염 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한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복부 주위에 구멍 3개 정도를 뚫고 이 구멍으로 수술장비를 넣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개복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br/>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바로 단일통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다. 이 수술은 일반 복강경 수술처럼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뚫어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br/>이렇게 단일통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상처가 적게 남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매우 우수하다.<br/>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인 안산 한사랑병원 이천환 병원장은 “충수염을 단일통로 복강경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 기간은 평균 2박3일 정도이며, 수술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 단일통로 복강경은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수염뿐만 아니라 담낭수술을 비롯해 다양한 외과수술에서 단일통로 복강경을 활용, 미용적인 부분과 치료적인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 한사랑병원은 10개 특성화센터(단일통로복강경, 당일수술, 화상, 유방‧갑상선, 담낭, 암, 유방성형, 위‧대장‧항문, 치료내시경, 비만 센터)가 구성돼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211.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뇌혈관 수술·입원비 2041만원서 567만원으로 72% 줄어  
날짜: 20170809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9221112001  
ID: 01100101.201708092211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의료비 어떻게 달라지나<br/><br/><br/>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개선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시 환자들이 얻을 이득을 계산해봤다.<br/><br/>■ 치매 의심·틀니 <br/><br/>최근 건망증이 심해진 김모씨는 치매일 수도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span class='quot0'>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된다</span>”고 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김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정밀 신경인지검사를 받았다. MRI 검사비 60만원에 신경인지검사비 40만원, 총 100만원이 들었다. MRI 검사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번 대책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MRI 검사비는 21만원, 신경인지검사비는 18만원으로 총 40만원만 들이면 된다.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br/><br/>■ 전립선암 <br/><br/>전모씨는 전립선암으로 ‘다빈치’라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30일 동안 입원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수술 자국 등이 적게 남는다는 이유로 로봇수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로봇수술비 1000만원 등 의료비 1612만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1202만원을 지불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씨의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br/><br/>■ 상급병실 <br/><br/>김모씨는 운동하다 발목이 골절됐다. 상급종합병원에 간 김씨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을 하려 했다. 그런데 4인실에는 빈 침대가 없어 2인실에 10일(1일 병실료 20만원) 동안 입원했다. 김씨는 상급병실 차액 150만원, 6인실 기본입원료의 20%인 10만원을 합쳐 병실료로만 총 160만원을 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원 2인실이 급여화돼 10일간 병실료 200만원의 40%인 80만원만 내면 된다.<br/><br/>■ 충치 예방 어린이 <br/><br/>10세인 박모군은 치과에서 충치 예방을 위해 어금니 2개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받았다. 진료비용은 7만180원이 나왔다. 박군의 아버지는 이 가운데 30%인 2만1050원을 진료비로 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전체 진찰료의 30%, 치아 홈 메우기 비용의 10%인 9710원만 내면 된다. 18세 이하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부담률이 10%로 완화돼 1만1340원(54%) 줄어든다.<br/><br/>■ 뇌혈관 수술<br/><br/>하모씨는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 109일 동안 입원한 하씨의 총진료비는 7745만원이 나왔다. 연소득 1700만원으로 소득 10분위 중 5분위에 속하는 하씨의 본인부담금은 2041만원(급여 205만원+비급여 1836만원)이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72%가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우선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두경부 초음파 검사 등 필수 검사가 급여화되고, 수술 재료에 예비급여가 적용돼 비급여 비용은 1836만원에서 1002만원을 뺀 834만원(예비급여 538만원+비급여 296만원)이 된다. 이 중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돼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하씨의 본인부담은 비급여 417만원에 본인부담금 150만원을 더한 567만원이 된다.<br/><br/>■ 자궁근종<br/><br/>이모씨는 복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 자궁근종이 의심된다고 해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자궁초음파 검사비용은 비급여라 이씨는 7만5200원 전액을 냈다. 이번 대책으로 자궁근종·자궁암·자궁내막증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씨는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br/><br/>■ 장애인<br/><br/>뇌병변 장애인인 윤모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한다. 오랫동안 이용하면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욕창 예방 방석을 25만원에 구입했다. 욕창 예방 방석은 지체장애인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보조기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윤씨는 구입금액과 기준금액(욕창 예방 방석은 25만원) 중 낮은 금액의 10%인 2만5000원만 내면 된다.<br/><br/>■ 간병 <br/><br/>조모씨는 수술을 받고 10일간 종합병원에 입원해 간병을 받았다. 입원료는 하루 9670원, 간병료는 하루 7만원으로 총 79만6700원을 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조씨는 하루 2만1240원인 입원료만 열흘치로 21만2400원을 내면 된다. <br/><br/>■ 암<br/><br/>대장암 환자 장모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화학요법치료제와 표적치료제를 통한 치료에 실패했다. 이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3차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4590만원(4주는 약 353만원)을 약제비로 내고 있다. 해당 3차 치료제는 위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선된 건강보험은 이 경우에도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장씨가 지급할 돈은 연간 1377만원(4주는 106만원)으로 3213만원이 줄어들게 된다.<br/><br/>■ 목디스크<br/><br/>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로 추간판제거술을 한 박모씨는 21일간 입원한 것까지 포함해 총진료비가 886만원 청구됐고 이 중 본인부담으로 203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78만원(38%) 감소한 1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MRI·시술재료 등 비급여 부분에서 104만원이 대폭 줄고, 대신 급여 본인부담금은 26만원(예비급여 3만원 포함)이 늘어났다.<br/><br/><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2.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난적 의료비 지원제 상시화…하위 50%는 모든 질환에 적용  
날짜: 20170809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9220910001  
ID: 01100101.2017080922091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의료비 파산’ 대책<br/><br/>정부는 가족이 중증질환을 앓을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9일 함께 내놨다.<br/><br/>저소득 가구의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본인부담의 50~60%(연간 최고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된다. 이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돼왔다. 이번에 상시적 제도로 만들고 대상도 소득하위 50%이면 모든 질환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하위 80%를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연 소득의 30% 이상이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길도 열린다.<br/><br/>아울러 환자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대형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기로 했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r/><br/>정부는 또 동네병원 등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가격을 뜻하는 ‘수가’의 체계를 개선한다. 1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br/><br/>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수가 인상도 함께 진행한다.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매겨왔던 비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가격이 고정돼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항목의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br/>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4000원→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3.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사례로 본 ‘문재인 케어’  
날짜: 20170809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9184424001  
ID: 01100101.2017080918442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보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가상의 사례로 정리했다.<br/><br/>■치매 의심·틀니 환자<br/><br/>최근 건망증이 심해진 김모씨는 치매일 수도 있다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span class='quot0'>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된다</span>”고 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김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정밀 신경인지 검사를 받았다. MRI 검사비 60만원에 신경인지검사비 40만원, 총 100만원이 들었다. MRI 검사비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번 대책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MRI 검사비는 21만원, 신경인지검사비는 18만원으로 총 40만원만 들이면 된다. 틀니 비용도 기존에는 127만원 중 50%인 6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38만원만 내면 된다. <br/><br/>■전립선암 환자<br/><br/>전모씨는 전립선암으로 ‘다빈치’라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30일 동안 입원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수술 자국 등이 적게 남는다는 이유로 로봇수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총 로봇수술비 1000만원 등 의료비 1612만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1202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전씨의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br/><br/>■상급병실 환자<br/><br/>김모씨는 운동하다 손가락이 골절됐다. 상급종합병원에 간 김씨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을 하려 했다. 그런데 4인실에는 빈 침대가 없어 2인실에 10일(1일 병실료 20만원) 동안 입원했다. 김씨는 상급병실 차액 150만원, 6인실 기본입원료의 20%인 10만원, 병실료로만 총 160만원을 냈다.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원 2인실도 급여화돼 10일간 병실료 200만원의 40%인 80만원만 내면 된다.<br/><br/>■충치 예방 어린이 환자<br/><br/>10살인 박모군은 치과에서 충치까지는 아니지만 충치 예방을 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어금니 2개에 했다. 진료비용은 7만180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30%인 2만1050원을 진료비로 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전체 진찰료의 30%, 치아홈메우기 비용의 10%인 9710원만 내면 된다. 18세 이하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부담률을 10%로 완화해 본인부담금이 1만1340원(54%) 감소하게 된 것이다.<br/><br/>■뇌혈관 수술 환자<br/><br/>하모씨는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 109일 동안 입원한 하씨의 총 진료비는 7745만원이 나왔다. 연소득 1700만원으로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하씨의 본인부담금은 2041만원(급여 205만원+비급여 1836만원)이다.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72%가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우선 선택진료 폐지와 함꼐 두경부 초음파 검사 등 필수 검사가 급여화되고, 수술 재료에 예비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836만원에서 1002만원(예비급여 538만원+비급여 296만원)이 된다. 여기에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하씨의 본인 부담액은 20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br/><br/>■자궁근종 환자<br/><br/>이모씨는 복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 자궁근종이 의심된다고 해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자궁초음파 검사비용은 비급여라 이씨는 7만5200원 전액을 냈다. 이번 대책으로 자궁근종·자궁암·자궁내막증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씨는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br/><br/>■장애인 환자<br/><br/>뇌병변장애인인 윤모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한다.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욕창예방방석을 25만원에 구입했다.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보조기 급여대상이 확대되면 윤씨는 구입금액과 기준금액(욕창예방방석은 25만원) 중 낮은 금액의 10%인 2만5000원만 내면 된다.<br/><br/>■간병 필요한 환자<br/><br/>종합병원에 입원한 조모씨는 수술을 받고 10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을 받았다. 입원료는 하루 9670원, 간병료는 하루 7만원으로 총 79만6700원을 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조씨는 하루 2만1240원인 입원료만 열흘치로 21만2400원을 내면 된다. 이전보다 58만4300원(73%) 줄어든 셈이다.<br/><br/>■암 환자<br/><br/>대장암 환자 장모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화학요법치료제와 표적치료제를 통한 치료에 실패했다. 이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3차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4590만원(4주는 약 353만원)을 약제비로 내고 있다. 해당 3차 치료제는 위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이 경우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장씨가 지급할 돈은 연간 1377만원(4주는 106만원)으로 연간 3213만원이 줄어들게 된다.<br/><br/>■목디스크 환자<br/><br/>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로 추간판제거술을 한 박모씨는 21일간 입원한 것까지 포함채 총 진료비가 886만원 청구됐고 이 중 본인부담으로 203만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78만원(38%) 감소한 1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MRI·시술재료 등 비급여 부분에서 104만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대신 급여 본인부담금은 26만원(예비급여 3만원 포함)이 늘어났다.<br/><br/><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4.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범위도 확대  
날짜: 20170809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9163013001  
ID: 01100101.201708091630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span class='quot0'>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br/><br/>정부는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범위도 소득 하위 50%의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br/><br/>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br/><br/>정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을 감안해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그동안 대다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서비스로 보전해왔다. 정부는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br/>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4000원→ 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5.txt

제목: 한국당, ‘알쓸신잡’ 유시민·정재승 발언 방송심의 신청  
날짜: 20170806  
기자: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6104301001  
ID: 01100101.20170806104301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자유한국당이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대한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br/><br/>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쓸신잡’ 6월30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심의를 신청했다</span>”고 밝혔다.<br/><br/>한국당은 “<span class='quot0'>해당 방송의 출연진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이거나 정설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span>”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br/><br/>한국당은 유 전 장관과 정 교수가 “<span class='quot1'>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명이며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발언(했다)</span>”면서 이를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span class='quot0'>체르노빌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는 50여명이며 4000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해당 사고와 암 발병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span>”고 했다.<br/><br/>이들은 이어 유 전 장관이 방송에서 “<span class='quot2'>원자력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2016년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발전원 별 구입단가는 kwh 당, 원자력 68원, 석탄 74원, LNG 121원</span>”이라고 반박했다.<br/><br/>한국당은 “<span class='quot0'>탈원전 논란이 불거지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관련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점에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span>”고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span>”이라고 했다.<br/><br/><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6.txt

제목: [이주민 토크 - 낯선, 날선]“한국, 생활물가 너무 높아 최저임금 많이 오른 편 아니에요”  
날짜: 20170804  
기자: 정리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4205747001  
ID: 01100101.20170804205747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ㆍ최저임금과 물가 <br/>ㆍ독일 출신 다니엘 “<span class='quot0'>텐들러최저임금 외 복지 확대 않으면 암 환자에 내과약 처방하는 격</span>” <br/>ㆍ베트남 출신 레티마이투 “<span class='quot1'>같은 집세 내는데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제외 주장 ‘답답’</span>” <br/>ㆍ일본 출신 세키네 치에 “<span class='quot2'>일본은 한국 알바와 개념 달라…최저임금만 받는 사람 없어요</span>” <br/>ㆍ함경북도 출신 박영철 “<span class='quot3'>16년 한국 살면서 급여 안 올라…맞벌이해도 저축하기 어려워</span>” <br/>ㆍ터키 출신 알파고 시나씨 “<span class='quot4'>최저임금 안 주면 임금 격차로 내국인 일자리 되레 줄어들 것</span>”<br/><br/><br/>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잠시, 이후 진행되는 논란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해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체감 물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임금이 그 정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만 쏟아냅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br/><br/>여러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이 본 한국 사회의 민낯을 이야기하는 코너 ‘낯선, 날선’ 여섯번째 토론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저임금과 물가’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레티마이투(한국 거주 12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박영철씨(16년·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대표), 어머니가 한국인인 독일 출신의 다니엘 텐들러(8년·건축사무소 운영), 터키 출신의 알파고 시나씨(14년·지한통신사 특파원), 일본에서 온 세키네 치에(9년·프리랜서)가 참여했습니다. <br/><br/><br/><br/>“<span class='quot5'>비싼 한국 물가 비하면 최저임금 높은 거 아닌데…</span>” <br/><br/>토요판팀 =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진 후 연일 최저임금이 화제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나요. <br/><br/>다니엘 텐들러(이하 텐들러) = 독일은 비교적 늦게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어요. 원래 독일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정하는 시스템이라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굳이 못 느꼈는데,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 말고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됐어요.<br/><br/>레티마이투 = 베트남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요. 한국과 다른 건 최저임금 금액을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 정도죠. <br/><br/>세키네 치에(이하 세키네)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런데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본도 베트남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도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32엔(약 9400원)이거든요. 하지만 대학생만 해도 그보다 많이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일부 대도시에서는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시급이 1400엔(약 1만4000원) 정도 돼요. 교통비는 따로 나오고요. <br/><br/>박영철 = 북한은 사회주의라 임금을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 개념이 아예 없어요. <br/><br/>알파고 시나씨(이하 알파고) = 터키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이 8% 인상됐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안돼 바로 물가가 15% 정도 뛰었어요. 한마디로 바가지를 씌운 셈이죠. 터키 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br/><br/>토요판팀 = 알파고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은 절대금액이나 인상폭만 볼 게 아니라 물가와 함께 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br/><br/>텐들러 = 맞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최저임금에 비해 생활물가가 너무 높아요. 독일은 최저임금이 8.9유로(약 1만1898원)인데 거기서 30% 정도를 사회보험으로 떼가기 때문에 독일도 넉넉하지는 않죠. 그래도 물가가 한국보다 싸서 생활은 해결이 돼요. 얼마전 오랜만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한국보다 식료품 물가가 너무 낮아서 새삼 다시 놀랐어요. 독일에선 재료 사다가 집에서 해먹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한국에선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독일보다 낮지만, 기본 물가는 훨씬 비싸요. <br/><br/>레티마이투 = 베트남도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자체는 한국보다 압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베트남과 한국의 생활을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순 없지만, 한국은 월세도 비싸고 통신료도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게 그만큼 많잖아요. 커피 한 잔만 해도 4000~5000원 가까이 하니까요. <br/><br/>세키네 = 저도 한국 온 후 사람들한테 일본은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서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본 식재료는 일본이 훨씬 더 싼 게 많아요. 일본에선 할인할 때 사면 고등어 반 토막이 50엔(약 500원)밖에 안 하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일본에선 ‘물가의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계란도 한국에선 너무 비싸요. 조류독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값이 오를 순 있지만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돼도 가격은 쉽게 안 내려가요. <br/><br/>토요판팀 = 다들 이번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물가와 비교해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네요. <br/><br/>박영철 = 그렇죠.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건데, 체감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16년 전 한국에 왔는데, 그동안 급여는 별로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장에 5만원 들고 가면 남자 둘이서 2~3주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10만원은 써야 해요. 그런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굉장히 힘들어요. 맞벌이를 해도 저축 하기가 어렵고요. 이해가 안되는 게 일반 노동자와 임원의 급여 차이가 수십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br/><br/>텐들러 =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저임금만 올리는 건 암 환자에게 내과약 주는 격 아닐까요.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물가를 끌어올리는 독과점 체제, 부동산값, 의료비, 교육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독일은 의료보험부터 시작해 실직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보험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해서 부담되긴 하지만, 생활 안정감이 훨씬 단단하다고 할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치과를 갔는데 치료비가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기본의료보험비 150유로(약 20만원)만 내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 한국에선 임금이 낮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br/><br/><br/><br/>“<span class='quot5'>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제외하라는 주장, 너무 충격적</span>” <br/><br/>토요판팀 =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프리터(freeter)족’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후생이 과도해져서 저임금 노동력이란 메리트가 사라지니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br/>세키네 = 일본처럼 프리터족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일본 사회를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일본과 한국은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달라요. ‘프리터족’이 나쁜 이미지도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진짜 사회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아르바이트로 오랫동안 일하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아르바이트가 한국처럼 일회성 노동력이 아니에요. <br/><br/>토요판팀 = 최저임금 인상과 프리터족 간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네요. <br/><br/>세키네 =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실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요. 그건 일본이 고령화사회가 된 것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프리터족이 늘 거라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 같아요. <br/><br/>레티마이투 = 저는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 발표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서 이주민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앞으로 월급이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지 계산하면서 기대에 부풀었고요. 각자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는 건데 당연히 줘야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제외하면 안되죠.<br/><br/>알파고 = 이주노동자만 임금을 안 올리면 내국인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져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고용을 더 안 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한 주장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br/><br/>텐들러 = 그래서 독일에서는 거꾸로 동유럽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철저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이들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그래야 독일 자국민들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은 이들이 한국인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장에 가둬서 싼값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논리밖에 안되잖아요.<br/><br/>박영철 = 이주노동자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제대로 주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도 잘 못해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쥐고 흔드니까요.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갈취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br/><br/>레티마이투 = 저희 단체에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신청이 여전히 많이 들어와요. 체류권이 사장에게 달려 있으니 임금이 체불돼도 항의를 제대로 못해서, 개선이 잘 안돼요. 최저임금 인상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해요. 어려운 나라에서 왔으니 이 정도면 잘 해주는 거라는 식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br/><br/>박영철 = 특히 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 처우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한국 물정 잘 모를 때 데려와서 가둬놓고 일 시키려고 고용주들이 한국에 막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을 공항에서부터 바로 승합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지저분한 컨테이너에 거주하게 하면서 수확기 3개월 동안 12시간 넘게 일을 시킨대요. 먹이고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적게 주면서 부려먹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했어요.<br/><br/>텐들러 = 사실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전 놀라워요.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주장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br/><br/>레티마이투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월급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좋아지는 효과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주노동자도 한국에서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먹으면서 소비를 하는데, 그런 차별적인 생각은 사라졌으면 합니다.<br/><br/><정리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7.txt

제목: 면역암치료, 대장암•폐암 생존율 높이는 지름길  
날짜: 2017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4173357001  
ID: 01100101.201708041733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5대 암 중에서도 대장암과 폐암의 발병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서구적으로 변한 식습관과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미세먼지와 같은 다양한 환경오염이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흡연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자주 나타난다. 그렇다보니 대장암, 폐암과 같은 질병에서 남성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br/> <br/>하지만 그런 만큼 대장암, 폐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발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담배는 폐암과 대장암에 있어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연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br/> <br/>한편 대장암, 폐암에 걸린 환자 대부분은 3~4기로 진단된다. 모든 암이 그렇듯 초기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발견하면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하더라도 재발률이 20~50%로 높고,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전신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다.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 또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완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이다.<br/> <br/>이처럼 초기발견에 실패한 환자 대부분은 수술이 힘들어 항암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사멸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 강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가 낮아지기도 하고 환자의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br/> <br/>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의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장암과 폐암은 재발할 경우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와 같은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이중병행암관리는 면역암치료의 일환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의 부작용 완화시키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br/> <br/>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더 높은 항암 유효반응률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옻나무제제 치종단과 같은 한방제제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전이와 성장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의 김보근 박사는 “암세포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전이와 재발이 쉬운 대장암, 폐암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빠르게 적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18.txt

제목: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3종’ 환자도 호스피스 케어 받는다  
날짜: 20170803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3222521001  
ID: 01100101.201708032225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오늘부터 달라지는 ‘연명의료결정법’ Q&A <br/>ㆍ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대상 실시 후 확대 예정 <br/>ㆍ일반병동·가정 진료 가능, 내년 2월엔 요양병원도 포함<br/><br/><br/>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에 호스피스 서비스가 4일부터 시작된다. 호스피스가 암 경계 밖으로 넓어지는 게 특징이다. 희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존엄사’ 요건을 규정한 연명의료 분야는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된다.<br/><br/>현재 호스피스가 적용되는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앞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자문형)이나 가정(가정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교육·훈련과 연구,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것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되나.<br/><br/>“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활동을 가리킨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체적·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상담 등을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제도는 원래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부분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됐고, 관련 제도도 확대되는 것이다. 호스피스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생기고, 호스피스 대상은 이제 말기 ‘비암질환’까지 늘어난다.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호스피스 제공 기관은 요양병원까지 확대된다.<br/><br/>-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 대상을 남은 수명 6개월 정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 질환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암 이외에 법에 명시된 비암질환 3종인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호스피스 모델과 수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r/><br/>- ‘말기 환자’를 진단하는 기준은.<br/><br/>“말기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지, 약물 투여나 시술에 따라 개선되는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br/><br/>- 비암질환도 말기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중지되나.<br/><br/>“‘말기’의 개념은 질환마다 다르다. 에이즈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의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는 더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암질환에는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하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성모병원·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기관이다.”<br/><br/>- 언제부터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br/><br/>“요양병원은 내년 2월부터 호스피스 제공 기관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19.txt

제목: 다가온 CCTV 1000만대 시대 ‘명과 암’…EBS1 ‘다큐 시선’  
날짜: 20170803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3201708001  
ID: 01100101.20170803201708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EBS 1TV <다큐 시선>에서는 ‘나를 보는 은밀한 눈, CCTV’를 다룬다. <br/><br/>수도권 시민들은 1인당 하루 평균 80회 넘게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 공공기관의 CCTV는 80만대를 넘어섰고, 민간 설치 기계까지 합치면 ‘CCTV 1000만대 시대’가 코앞이다. <br/><br/>김예진씨(34)는 최근 아이들 방에 홈 CCTV를 설치했다. 그러던 중 홈 CCTV가 혼자 회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기계는 아기 침대를 찾아, 그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관음증 환자를 집에 들인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br/><br/>지난 4월 경북 경산농협 건물에서 총기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을 추측할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 농협에서 3㎞가량 떨어진 도로에 설치된 CCTV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최승혁 경감(50)을 통해 CCTV의 활약상을 알아본다. <br/><br/>사회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CCTV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br/><br/>방송은 4일 오후 8시50분.<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0.txt

제목: [뉴스 Q&A]에이즈, 만성간경화에도 호스피스 서비스...‘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달라지나  
날짜: 20170803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3120417001  
ID: 01100101.2017080312041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분야가 4일부터 시행됩니다. ‘존엄사’ 요건을 규정한 연명의료 분야는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br/><br/>▶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존엄사’ 법으로 허용 <br/><br/>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또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자문형)이나 가정(가정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br/>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br/><br/>▶[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1)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뭐냐”…환자의 연명보다 평온을 선물 <br/><br/>▶[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사람답게 죽는 건, 권리다 <br/><br/>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이고, 내일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br/><br/>■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요<br/><br/>우선 말기환자의 통증 완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상담 등을 합니다. <br/><br/>■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 기존 호스피스 제도와 비교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br/><br/>2006년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제도는 원래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내용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되었고 제도도 확대됩니다. 호스피스 연구·계획수립·정보분석·제공 등을 수행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생기고,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늘어납니다.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요양병원까지 확대됩니다.<br/><br/>■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계속 늘어나나요<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 대상을 여명 6개월 정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질환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확대하도록 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암 이외에 법에 명시된 비암질환 3종(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호스피스 모델 및 수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br/><br/>■‘말기환자’의 진단기준도 만들어졌다는데<br/><br/>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지, 약물 투여나 시술에 따라 개선되는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로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이 기준을 반영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br/>■비암질환도 말기진단을 받으면 암처럼 치료가 중지되나요<br/><br/>말기의 개념은 질환마다 다릅니다. 후천선면역결핍증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인 경우, 말기로 진단된 후에는 더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암질환에는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기관입니다.<br/><br/>■언제부터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br/><br/>요양병원은 내년 2월부터 호스피스 제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1.txt

제목: 담낭용종, 담석증 단일통로복강경으로 제거수술 가능해  
날짜: 2017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3105524001  
ID: 01100101.2017080310552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복부초음파 검사 빈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남에 따라 100명 중 10명 꼴로 발견되는 질환이 있으니 바로 담낭용종(쓸개 혹)이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담낭용종의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한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담낭용종의 증상과 치료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br/><br/>쓸개의 용종은 크기가 작아서 주로 건강검진 시 우연히 발견이 되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낭용종은 악성화가 될 가능성에 따라 위험도가 결정되는데, 초음파나 복부 단층촬영(CT) 소견만으로는 암과 관련이 없는 콜레스테롤 용종과 악성 병변의 정확한 감별이 어렵다.<br/><br/>담낭용종은 담석을 제외한 담낭 내부의 혹을 의미하며, 진성용종과 가성용종으로 나뉜다. 진성용종 중 선종이 가장 흔하며, 선종이 악성화되면 선암이 된다. 가장 흔한 담낭용종은 악성화 가능성이 없는 가성용종, 즉 콜레스테롤 용종이다. 하지만 초음파나 CT등의 검사를 통해서 진성용종과 가성용종을 100% 구분해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담낭용종 치료권고안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br/><br/>2010년 한국 간담췌 외과학회에서 발표된 담낭용종 치료권고안에 따르면, 용종의 악성 위험도는 담낭용종 크기가 주로 판별 기준이 되는데 1cm 이상 용종의 경우 악성화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게 된다. 그러나, 1cm 미만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용종의 크기변화가 어떠한 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담낭용종이 악성일 가능성은 전체의 약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는 것이 담낭암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br/><br/>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수술 중점병원인 담소유병원은 현재까지 1644례의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169례의 담남용종 수술 중 담낭암 확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기의 담낭암은 담낭절제수술이 치료법이므로 추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담소유병원 측은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법은 여러모로 수술 전후의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수술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으며, 배꼽에 1.5cm 정도의 구멍을 통한 수술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22.txt

제목: [동서남북인의 평화 찾기]망망한 초원을 달리는 꿈  
날짜: 20170802  
기자: 서승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고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2211200002  
ID: 01100101.20170802211200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몽골이라는 울림에 마음이 설레었다. 마음 한구석에 한 번은 가야겠다는 짐이 자리하고 있었다. 몽골의 한 가운데 아르한가이(Arkhangai)의 수도, 체체를레그(Tsetserleg)시와 교류하는 윤봉길기념사업회의 방문단에 편승한 초행길은 험난했다.<br/><br/>나는 7월8일, 일행에 하루 앞서 떠났다. 오후 2시30분발 몽골항공 DM0301은 울란바토르에 부는 큰바람 때문에 5시로 출발시간이 늦춰졌다. 탑승 후에도 비행기는 한동안 뜨지 않다가 6시에 출발했고, 자정 다 돼서야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다.<br/><br/>다음날 일행을 만나 오후 2시에 아르한가이로 떠났다. 600㎞, 8시간의 길이라고 한다. 13명의 일행과 가방을 잔뜩 실은, 한국 유치원에서 쓰던 17인승 미니버스는 위태로워 보인다. 몽골 유일의 횡단고속(?)도로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자 파도치듯 울퉁불퉁했고,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여 있다. 동자같이 둥그렇게 살이 붙은 기사는 닳아서 골이 없어진 타이어를 살펴본다. 가끔 펑크가 난다고…. 가다가 주유소나 길가 가게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분뇨가 너무 쌓여있어 사람들은 여성을 포함해서 들판에서 볼일을 본다.<br/><br/>날은 어두워지고, 저녁 식사 자리가 예정된 카라코룸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들판에 시트를 깔고 물을 끓여 컵라면과 햇반, 김치로 식사한다. 왼편에 해가 지고, 오른편에 달이 오른다. 약초로 촘촘히 덮인 넓은 초원은 향기가 그윽한 짙은 수박빛으로 저물어 간다. 풀밭에 사지를 뻗고 누우려고 보니 초원은 소, 말, 낙타, 양의 똥으로 가득 찼다. 눈에 삼삼한 푸른 아르한가이에 다다른 유목민들은 저절로 엎드려 신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그 아르한가이에 우리는 새벽 2시에 도착했다.<br/><br/>다음날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마, 활쏘기, 씨름의 세 가지 전통 경기와 갖가지 노래, 음악이 펼쳐지는 몽골 최대의 민족축제, 나담이 시작된다. 시 경기장에서 개회식이 시작됐다. 주석단에 오른 우리에게도 큰 청화백자 항아리에 담은 마유주와 달콤한 치즈 과자가 돌아왔다. 미지근하고 비릿한 마유주는 역겨웠다. 오전 행사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오니,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호우가 쏟아졌다. 비는 한두 시간 만에 그쳤고, 저녁에 냇가의 게르(천막 집)에서 연회가 열렸다. 해마다 윤봉길축제에 참가하고 체체를레그시에 윤봉길거리를 만든 남질도르지(Namjildorj) 전 시장은 손질한 돼지 한 마리와 양고기를 들고 게르를 찾았다. 날카로운 몽골 칼로 돼지를 넓적하게 포 떠서 불판에 구워 소금 뿌려 먹었다. 어둑어둑한 천막 안에서 여러 사람이 집어 먹느라, 제대로 구워졌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식욕도 없어서 몇 개 집어먹다 말고 호텔로 돌아가서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했다. 설사가 계속돼 다음날은 호텔에서 누워 지내야 했다. 6박7일의 여정은 비행기 왕복에 하루, 버스 왕복에 하루, 식중독으로 하루가 소진되는 처참한 결과였다. 게다가 마지막 날 겨우 찾아간 코리아나 호텔은 폐허였다.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고 방 안 화장실엔 변좌도, 물탱크의 덮개도, 물 내리는 손잡이도 없었다. 도대체 공짜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 최악의 몽골 여행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br/><br/>칭기즈칸이 이루어낸 몽골제국의 자취는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는 와중에 사라지고, 1924년 소련에 이어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고 하나 실제는 소련의 위성국이었다. 소련 붕괴 후 1994년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몽골국으로 새 정체성을 모색하여 오늘에 이른다. 내가 몽골에 도착하기 전날 있었던 대선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당 후보를 이겼다. 외교적 다변화가 전망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끼여 있는 나라는 양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성의 강화를 위하여 부심해왔다. 1992년 구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발표된 ‘비핵화선언’은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리라. 인구 300만명, 군대 9100명의 나라에서 힘에 의한 안전보장은 거의 의미가 없다. 가을에 개최될 ‘동북아 평화회의’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만난 바산자흐 하가와(Baasanjav LKHAGVAA) 교수의 명함에 ‘코리아 통일을 위한 몽골 포럼’ 회장이라고 찍혀 있어서 물었다. “<span class='quot0'>한반도 통일이 몽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span>” 그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span class='quot0'>이웃 나라가 잘돼야 우리도 잘되지요, 몽골과 남북한은 초강국들의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외교적 환경 속에서 몽골과 남북한 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굳건한 협력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 <br/><br/>고독한 유목민은 나그네를 환대하지만 가족 단위로 독립적이고, 서로에게 냉담하다고 한다. 같이 몰려다니면 가축이 먹는 풀이 금방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유목민이 갈증난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찾아오면 두말 없이 물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자기들도 언제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보를 힘의 논리에 따른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고, 서로 상생적으로 이어지는 ‘공통의 안보’ ‘공공의 안보’로 보는 사고와 가깝다고 하겠다. <br/><br/>하가와 교수는 김일성대학을 나와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에 근무하고, 서울에서도 오래 근무했다. 우리말에 능통하고 논문도 쓴다. 2년 전에 ‘통일포럼’을 만들어 몽골에서 통일 여론 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특단의 이해관계가 없고, 남북을 다 잘 아는 유목민의 시각이 매우 흥미롭다.<br/><br/>나에게는 몽골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더 있다. 암수술 후 1979년 가을, 어머니가 대구 감옥에 면회를 오셨다. “<span class='quot0'>어머니,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어요?</span>” “<span class='quot0'>몽골에 태어나서 말 타고 들판을 달려볼까.</span>” 전혀 뜻밖의 대답이다. “왜요?” “사람도 없고 넓으니까 좋지 않아?” 통통한 어머니가 말을 타고 벌판을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습다. 그러나 시대와사회제도와 여성이라는 틀에 짓눌린 어머니의 평생을 생각하면, 결코 기발한 생각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다시 조선에 태어나서 너희들과 살고 싶다”고 하는 모범답안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인기척 없는 망망한 초원을 달리는 꿈….(<옥중 19년> 제4장)<br/><br/><서승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고문>

언론사: 경향신문-2-223.txt

제목: “산삼 줄기세포 신약 맞으면 완치된다”···가짜 약으로 말기 암환자 등친 일당  
날짜: 20170802  
기자: 정희완·김찬호 기자 ros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802120151001  
ID: 01100101.2017080212015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말기 암환자 등을 상대로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을 맞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br/><br/>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6)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br/><br/>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해 1월 간암 말기인 ㄱ씨에게 “<span class='quot0'>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포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를 투약하면 2~3개월 안에 암이 완치된다</span>”고 꼬드겨 서울 유명 호텔 객실에서 돈을 받고 약을 투여했다.<br/><br/>지난해 6월에는 유방암 환자 ㄴ씨에게 ‘세포재생 신약’을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불법이니 베트남에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한 뒤 미리 빌려둔 베트남 하노이의 아파트로 ㄴ씨를 유인해 약을 놨다. 김씨는 의사 자격증도 없다.<br/><br/>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을 투여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약 3개월 안에 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 및 난치병 환자 13명으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김씨를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br/><br/>이들이 주장한 ‘세포재생 신약’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진통제·국소마취제·항생제·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모씨(50·구속)가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가짜 약을 공급받았다.<br/><br/>김씨는 한의사 신모씨(45·구속)와 오모씨(45·불구속)를 고용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짜 치료약의 주사 투여량을 결정한 뒤 이들이 주사토록 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내 명문의대 졸업하고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 수여했으며 중국 유명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의학 박사’라고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의자들은 말기 암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span>”고 밝혔다.<br/><br/><정희완·김찬호 기자 rose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4.txt

제목: 알바 뛰며 작품…독립 다큐 감독은 아프다  
날짜: 20170730  
기자: 최미랑·유혜진 기자 ra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30172417001  
ID: 01100101.20170730172417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활동가들 생계 위기 속 수상금·후원금으로 제작비 충당<br/><br/><br/><br/>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등 한국 사회 주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온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아프다.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에서 지난해 위원장을 맡은 박종필 감독(향년 49세)이 암으로 지난 28일 세상을 떠났고, 올해 위원장을 맡은 김일란 감독(45)은 최근 암 수술을 받았다. 두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br/><br/>‘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는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인 <두 개의 문>을 제작한 김 감독이 지난 27일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감독은 독립 다큐 감독 5명의 모임인 연분홍치마 소속으로 올해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 기록 작업을 이끌어왔다.<br/><br/>김 감독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8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박종필 감독이 간암 투병 중 별세했다. <br/><br/>박 감독은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을 담은 다큐 영화 <인양>을 찍었고, 간암 진단을 받기까지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작업을 기록했다. 박 감독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세가 악화돼 면회가 힘든 상황에서도 연분홍치마 소속 활동가 5명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성사된 면회에서 박 감독은 활동가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span class='quot0'>참 맑은 사람들, 활동도 잘하고 다큐도 잘해서 참 좋아한다</span>”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br/><br/>독립 다큐 감독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4년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 알리는 일을 해온 연분홍치마는 김 감독이 암 판정을 받은 이달 초부터 재정 위기를 외부에 알리고 후원계좌를 늘리기 위한 ‘당기다6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은 ‘연분홍치마 활동가 5명의 생존을 위해서는 월 600만원이 필요합니다’이다. <br/><br/>김·박 감독이 활동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미디어팀에서 팀장을 맡았던 넝쿨 감독은 30일 “<span class='quot1'>활동가들은 회사원처럼 4대 보험이 된다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삶을 충분히 돌보면서 일하기에는 어려운 조건</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안정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자 후원회원 모집에 나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그동안 연분홍치마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제작지원금과 각종 영화제 수상금, 후원회원이 매달 보내는 후원금으로 제작비를 마련해왔다. 넝쿨 감독은 “<span class='quot1'>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비는 그동안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해 충당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을 받은 김 감독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쉬면서 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잘돼 김 감독에게 유급휴가를 꼭 줄 수 있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br/><br/>연분홍치마는 최근 2년간 세 편의 다큐를 완성해 내놓았다.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을 해고 노동자 아들의 시선에서 담아낸 <안녕 히어로>는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 용산참사 생존자들의 삶을 담아 지난해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을 받은 <공동정범>은 개봉 시기를 논의 중이다.<br/><br/> SK브로드밴드 케이블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플레이온>도 공동체 상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 성소수자부모모임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새 작품도 촬영에 들어갔다.<br/><br/>박래군 인권운동 ‘사람’ 소장(56)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연분홍치마의 감독들, 아니 현장을 뛰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라고 썼다. 그는 “<span class='quot1'>알바 일거리는 주로 주말에 있는데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은 지난겨울을 (촛불집회 기록을 위해) 광화문에서 꼬박 났다</span>”며 정기후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br/><br/>장애·빈민운동 활동가와 독립영화 제작자, 4·16연대 소속 인사들은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고 박종필 감독 인권사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박 감독은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20년이 넘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30일 ‘삶으로 만나는 박종필’이라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고, 영결식은 31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br/><br/><최미랑·유혜진 기자 ra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5.txt

제목: [김지연의 미술 소환]너무 걱정 마  
날짜: 20170728  
기자: 김지연 전시기획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8211822002  
ID: 01100101.20170728211822002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얼마 전 암투병 끝에 75세로 별세한 정강자 작가의 생전 인터뷰에서 “작품을 하는 동안 필요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는 문구를 보았다. 유년기 이후 50년 넘는 세월을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늘 ‘죽음’을 각오했다는 고인은 발병 이후에도 하루 12시간 작업에 매진했다고 했다.<br/><br/>한국 미술계에서 정강자의 등장은 센세이셔널했다. 1968년, 당시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던 무교동 세시봉에서 열린 퍼포먼스 ‘투명풍선과 누드’ 무대에 작가는 블루머와 흰 머플러만 걸친 채 등장했다. 사람들은 투명풍선을 불어 작가의 몸에 붙였고, 작가가 일어서면 관객이 달려들어 풍선을 터뜨렸다. <br/><br/>한국 최초 페미니스트 문맥의 퍼포먼스로 평가받는 이 작업은, 가부장적 사고에 둘러싸인 경직된 사회에 문화적 해방구를 여는 신호탄 같은 시도였다. 구태의연한 방법론을 강요받던 시절, 새로움을 꿈꾸었던 작가는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에서 창작의 가치를 발견했다. 20대 시절 그는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다. <br/><br/>그가 말년에 집중했던 것은 ‘반원’이다.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는 그 형태에서 작가는 한복의 선, 한옥 처마의 선, 우리 강산의 선처럼 ‘한국적인 선’의 정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직선과 곡선의 앙상블이 끌어내는 에너지를 화폭에 담으며 세상의 질서를 들여다보았다. <br/><br/>반원과 인체를 연결하는 조형적 시도가 눈에 띄는 ‘너무 걱정 마’는 일종의 자화상 같은 작업이다. 암 덩어리를 안고 있지만 담담함을 잃지 않았던 작가의 선명한 눈빛과 온화한 손짓이 화면에 고요한 동세를 만든다. 죽음을 또 다른 창작의 계기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작업에 집중한 작가는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구름처럼 세상에 스며들었다. 고인의 일평생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br/><br/><김지연 전시기획자>

언론사: 경향신문-2-226.txt

제목: 김관홍 잠수사 그린 영화 <잠수사> 제작한 박종필 감독 별세  
날짜: 20170728  
기자: 최미랑·이재덕 기자 ra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8192244001  
ID: 01100101.201707281922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다큐멘터리 영화 <잠수사>, <거리에서> 등을 제작한 박종필 독립 영화 감독이 2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9세.<br/><br/>4·16연대는 이날 “<span class='quot0'>세월호 싸움을 함께 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박종필 감독이 오후 4시10분 강원도 강릉의 요양원에서 운명했다</span>”고 밝혔다. 고인은 그동안 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다.<br/><br/>고 박종필 감독은 빈민문제, 장애 인권 문제에 천착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영상 제작에 뛰어들었다. 박 감독은 세월호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잠수사>를 제작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기록 영상을 찍었다.<br/><br/>고인은 지난 4월 KBS <추적60분>이 자신이 촬영한 세월호 관련 영상을 허락없이 사용하자 다른 독립 영화 감독들과 함께 “<span class='quot1'>독립 PD들이 제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span>”며 연명서를 작성해 돌리는 등 독립PD의 권리향상에도 앞장서왔다.<br/><br/>고인은 1996년 다큐멘터리 영화 <빈민청소년의 해방구-공부방>으로 데뷔했다. 경기 평택의 청각장애인 생활시설인 ‘에바다 농아원’의 비인간적 행태와 재단 비리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끝없는 싸움-에바다>와 노숙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거리에서> 등도 찍었다.<br/><br/>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9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br/><br/><최미랑·이재덕 기자 ra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7.txt

제목: 전이, 재발율 높은 대장암·담도암 초기치료가 중요  
날짜: 2017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8145428001  
ID: 01100101.2017072814542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지나친 음주나 흡연 등이 주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대장암 주요 발병 연령층은 잦은 회식과 직장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는 50대 이상 장년층이나 노년층 남성사이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은 물론, 여성들의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전 연령층에서 대장암은 안심할 수 없는 질환으로 떠올랐다.<br/> <br/>담도암의 경우 국내 발병률이 특히 높은 암 질환이다.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진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위험 원인으로 나이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담도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br/> <br/>일반적으로 대장암과 담도암은 병기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지만 3기 이상 진행된 병기에는 생존율이 떨어지고,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아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br/> <br/>이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좋으련만 두 암 모두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초기발견이 쉽지 않다. 이때 소화불량이나 체중감소,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으면 이미 3,4기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담도암은 간질환 증상과 비슷해 오인하기 쉬워 초음파 등의 정기적인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br/> <br/>대장암과 담도암은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 치료다. 하지만 3,4기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br/> <br/>수술이 힘든 환자 대부분은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항암제는 암세포 제거 효과와 고통스런 치료과정을 동반한다. 항암제의 강한 독성은 구토, 탈모, 어지럼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암이 재발하게 되면 항암내성이 생겨 치료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br/> <br/>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의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장암과 담도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와 같은 한의학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한편 강남푸른숲한의원의 ‘이중병행암관리법’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한방의학의 기본인 면역체계의 재정비를 토대로 부작용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통합의학적 암관리법이다. 이는 한방암치료의 일환으로 양방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항암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으며,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전이와 성장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228.txt

제목: ‘오바마케어 좌초 위기’, 국내 바이오 복제약 업체 춤추게 한다?  
날짜: 20170727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7070041001  
ID: 01100101.20170727070041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죽이기가 한국 바이오 제약사 주가를 춤추게 한다?<br/><br/>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법안을 폐기하려 표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당내에서 9명이 반대표를 던져 43대 57로 부결됐다. 하지만 약값을 규제하던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트럼프 정부,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br/><br/>바이오 복제약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달러에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20년에는 55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미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장이 급속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바이오 복제약을 들여오는 걸 주저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이후 미 정부는 약제비(조제료 등 수가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보험약품의 비용)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 복제약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 처음으로 백혈병, 암 치료용 바이오 복제약 ‘작시오’의 자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br/><br/>따지고 보면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오 복제약 시장은 열렸다. 하지만 아예 약값 규제를 폐지하고 가격을 자유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회의 문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과 효능이 같은 값싼 복제약이 시장에서 더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저가 의약품을 더 많이 수입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br/><br/>오바마케어 폐기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국내 바이오 복제약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뛰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은 26일 코스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5% 오른 11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날 코스피에서 0.52%포인트 떨어진 28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연초 16만1000원에 비하면 77%나 뛰었다. 특히 셀트리온이 속한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헬스케어 부문 비중이 24%로 높다.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 복제약 업체들이 계속해서 미국,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면 코스닥 상승장을 이끌 수도 있다. 국내 바이오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오리지널 제조업체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셀트리온의 복제약 램시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에서만 1940만달러를 벌었다. 오리지널 류머티즘·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엄여진 신영증권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램시마는 현재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약 42%로 연내에는 50%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미국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레미케이드 복제약 렌플렉시스를 24일부터 미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상용화를 위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br/><br/>미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케어 폐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트럼프의 폐기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에 반대해왔던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의원마저 찬성표를 계속 독려하고 있어 국내 바이오 제약업계와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29.txt

제목: 기립박수 받은 '돌아온 노병'...뇌종양 투병 매케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불씨 지펴  
날짜: 20170726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6164253001  
ID: 01100101.20170726164253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2주 전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뇌종양 치료로 입원 중인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의사당으로 돌아왔다. “<span class='quot0'>상원은 분열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span>”고 질타하는 80세 노병에게 민주·공화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인사했다.<br/><br/>매케인은 25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논의를 위한 표결에 참석했다. 애리조나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그는 이날 표결을 위해 미국을 가로질러 동부 워싱턴까지 날아왔다. 오후 3시쯤 매케인이 의사당에 들어서자 양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았다. 매케인은 양 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화답했다. 왼쪽 눈 위로 붉은 수술 자국이 뚜렷했다. 매케인은 “<span class='quot1'>보기에는 별로 안좋지만 괜찮다</span>”고 말했다. <br/><br/>매케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해 토론할지를 묻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등 양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그에게 다가와 포옹하고 악수했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2000만 국민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75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도 매케인을 끌어안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사람의 어색한 포옹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전했고, 영국 가디언은 “샌더스와 매케인은 서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었다. 즉석 왈츠였다”고 적었다.<br/><br/>투표 직후 매케인은 자리에 서서 15분간 연설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끔찍하다. 공화당은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매케인이 ‘성난 설교자’ 같았다고 보도했다.그는 양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헛수고만 해왔다. 복도 건너편(상대당)의 도움 없이 이길 방법만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매케인이 소위원회 청문회나 다른 절차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 붙이려 한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매케인은 지난 10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내세운 ‘트럼프케어’에 대해 “사실상 사망했다”면서 “<span class='quot2'>민주당 도움 없이 공화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하다</span>”고 말한 바 있다.<br/><br/>상원 6선 의원인 매케인은 “<span class='quot1'>내가 기억하는 어느 때보다 지금 상원은 더 당파적, 부족적으로 변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우리를 뽑은 유권자들에게 더 훌륭하게 봉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라디오와 TV,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중단하자”면서 “그들은 공공의 선을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의 무능이 곧 그들의 생계”라고 소리 높였다.<br/><br/>매케인은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대로의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했다. 이날 투표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토론에 찬성하는 것이지 공화당 법안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br/><br/>이날 표결은 찬성·반대 50 대 50을 기록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가결됐다. 매케인의 한 표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케어’ 좌초 위기에 우왕좌왕하던 공화당도 구심점을 찾은 분위기다. 취임 후 숱하게 매케인과 충돌해 온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span class='quot3'>매케인이 투표하러 온다니 정말 대단하다</span>”면서 “미국의 용감한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매케인은 이날 연설에서 “<span class='quot1'>의회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span>”라면서 다시 한번 백악관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지난 19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불러 “<span class='quot4'>내 책상에 법안이 올라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선 안된다</span>”, “<span class='quot4'>상원의원으로 남고 싶지 않으냐</span>” 등 협박성 경고를 날린 트럼프에 대한 비판으로 들린다.<br/><br/>뉴요커는 워싱턴까지 날아와 표결에 참가하고 양당의 협력을 강조한 메케인을 칭찬하며 “공화당의 많은 다른 의원들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매케인이 말로는 양당 협력을 촉구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허핑턴포스트는 “<span class='quot5'>매케인은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덕으로 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5'>그런 그가 설령 대폭 수정이 된다 해도 미국인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빼앗아 버릴 법안을 위해 병상을 나섰다</span>”고 적었다. 더애틀랜틱은 “매케인의 말처럼 지금 건강보험은 엉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대체법안은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면서 “매케인의 연설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0.txt

제목: [경제와 세상]현명한 보험 가입을 위한 6가지 팁  
날짜: 20170726  
기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6111601001  
ID: 01100101.20170726111601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휴가철이고 하니 뜨거운 시사 이슈보다는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과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려면 우선 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보험이 무엇인지 알면 불필요한 보험을 안 들거나 과도한 보험을 드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다. 다음 중에서 보험의 원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단어 두 가지를 골라보라. 1)수익 2)보장 3)저축 4)비용 5)투자<br/><br/>답은 2번 보장과 4번 비용이다. 보험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가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병이나 사고 또는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 상품이다. 보험료는 그런 보장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자동차보험을 생각해보면 쉽다. 자동차사고가 날 위험에 대비해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든다. 자동차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내가 낸 보험료를 굴려서 수익을 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br/><br/>그런데 많은 이들이 보험을 저축상품이나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 상품처럼 알고 있다. 이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을 저축상품이나 수익상품처럼 포장해서 그렇다. 하지만 보험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br/><br/>따라서 첫째, 보험을 저축상품이나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 상품처럼 파는 경우는 피하라. 특히 ‘변액’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들은 경계하라. 보장도 해주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은 보장도 제대로 안되고 수익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업체는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10~15%가량을 사업비로 떼고 투자한다. 웬만큼 잘 운용해서는 다른 투자 상품이나 저축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다. 더구나 보험업체들은 다른 전문 투자기관들에 비해 전문성도 떨어진다. 보험은 보장에 집중해서 들고, 저축을 하고 싶다면 저축상품에,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수익상품을 잘 선택해서 따로 드는 게 현명하다. <br/><br/>둘째,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들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간 보험료 비중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높다. 대체로 너무 과도하게 든다. <br/><br/>보험업체들 광고는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가장의 사망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사례들을 연출해서 보여준다. 그런 부풀려진 공포마케팅에 속지 마라. 노후자금으로 ‘10억원이 필요하다’는 등 보험회사들이 제시하는 과장된 수치에도 속지 마라. 노후비용으로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험에 든다고 노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부 보험업체들은 소득의 10%를 보험료로 쓰라고 하는데, 이건 지나치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게 적정할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험료가 소득의 5%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좋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답시고 현재의 생활이 쪼들려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보험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속 납입할 수 있을지 따져야 한다. <br/><br/>셋째, 보험업체의 무료 재무설계를 받지 마라. 보험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모집인의 상담을 받게 되면 향후 필요한 노후비용을 부풀리는데, 그에 비해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은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생각지도 않던 보험을 덜컥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더구나 보험모집인이 ‘무료 상담’까지 해줬는데, 보험을 들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런 심리까지 노리고 ‘무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코 무료가 아닌 셈이다.<br/><br/>넷째, 자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많다면 자신도 같은 종류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질병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드는 게 좋은데, 이에 대한 보장은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든다고 암 보험을 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br/><br/>다섯째, 돈 버는 사람에게 보장을 집중해야 한다. 가정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할수록 가정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진다. 한 가정에서 보험에 할애할 자금이 한정돼 있으니 가급적 가장 등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보장을 집중하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들까지 보장대상으로 삼아서 보험을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br/><br/>여섯째, 가급적 보험모집인의 설명 내용을 녹음해두라. 보통 보험모집인은 보험의 좋은 내용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당 보험모집인이 허위나 과장을 했어도 증거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br/><br/>가급적 보험모집원에게 녹음을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서 녹음을 하면 과장이나 허위 발언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br/><br/><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언론사: 경향신문-2-231.txt

제목: [특집]SK(주) C&C - 에이브릴, 정확한 암 치료법 제시 등 서비스 영역 넓혀  
날짜: 20170725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5214259002  
ID: 01100101.20170725214259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K(주) C&C의 왓슨 기반 인공지능 ‘에이브릴(Aibril)’이 이미 바꿨거나 1~2년 내에 변화시킬 우리의 일상 속 인공지능 세상의 모습은 엄청나다.<br/><br/>SK(주) C&C는 에이브릴이 병원에서 암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개인의 일상 속 건강관리를 챙기며 영어와 수학 교사로 변신하기도 하고 개인의 다정한 벗이자 일상 속 비서로 활약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br/>에이브릴의 활약상을 처음 알린 곳은 건강 분야다. 지난 4월 오픈한 건양대 병원의 ‘왓슨 포 온콜로지’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방대한 의학 논문과 관련 치료 자료들을 빠르게 분석해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의사들의 정확한 암 치료법 제안을 도우며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과 안심을 주고 있다. <br/><br/>고려의료원과 함께 개발 중인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는 입력된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생제 처방 방법, 주기, 추천 근거를 보여주고, 항생제 처방 시 부작용과 주의사항, 보험 적용 여부 등의 정보를 알려줘 의료진의 처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또 AIA생명과 진행 중인 개인 맞춤형 디지털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에이브릴이 개인의 건강 지킴이로 활약할 예정이다. 에이브릴이 개인의 신체 특성과 생활습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방법을 추천한다. 가령 걷기보다 스쿼시를 좋아하는 개인에게는 오늘의 활동량을 체크한 후 필요한 열량 소모를 위해 주변 헬스장 이용을 안내하는 식이다. <br/><br/>이외 금융 콜센터에서는 상담원이 지루해하는 단순 질의 응답을 대체하고 고객의 계약상 실수를 잡아내 알려주는 에이브릴 상담원도 곧 등장할 예정이다. <br/><br/>한편 SK(주) C&C는 에이브릴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에이브릴의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2.txt

제목: [특집]신한생명 - 보험료는 싸면서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 신상품  
날짜: 20170724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4214711002  
ID: 01100101.20170724214711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일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신한내게맞는착한보장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br/><br/>이 상품은 일반형과 무해지환급형으로 구성돼 있다.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약 33% 저렴하다(40세 남자, 20년 납입, 100세 만기, 가입금액 1억원 기준).<br/><br/>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기간 이후에는 일반형의 50%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무해지환급형은 일반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br/><br/>이 상품은 주계약은 물론 주요 특약의 보장기간을 최대 100세까지 설정할 수 있어 장기생존에 대비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암진단, 5대질병, 상해보장, LTC보장,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정기특약이다. 또 한 상품으로 고객 맞춤형 보장설계를 할 수 있도록 29종의 다양한 보장성 특약을 탑재했다. 특히 암진단, 5대질병, 상해보장, LTC보장, 정기특약을 기존에 볼 수 없던 ‘100세 만기·비갱신·무해지환급형’으로 새롭게 개발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범위와 기간을 크게 강화했다. 이 밖에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3.txt

제목: 밥 안 차려준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행유예  
날짜: 20170723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3114345001  
ID: 01100101.2017072311434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자신을 무시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r/><br/>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쯤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br/>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라며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4.txt

제목: [책과 삶]질병을 통해 비로소 삶과 대면하다  
날짜: 20170721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1204006001  
ID: 01100101.2017072120400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ㆍ아픈 몸을 살다 <br/>ㆍ아서 프랭크 지음·메이 옮김 |봄날의책 | 256쪽 | 1만3000원<br/><br/><br/>“<span class='quot0'>미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span>”<br/><br/>삶을 당연하지 않게 가정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달라진다. 내일이라는 하루는 낯선 것이 되고 현재의 나는 의문투성이가 될지도 모른다. 저자는 서른아홉에 심장마비를 마흔에 고환암을 진단받는다. 몇 차례의 수술과 화학요법을 통해 회복했지만, 그는 목숨을 위태롭게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질병의 의미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질병을 앓는 나날 역시 삶의 연속이지만, 그에게 이전과 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이제 생활은 일터와 집이 아닌 병원을 위주로 돌아간다. 온전한 의미의 보호자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점령군처럼 자신의 몸을 지배한 의사와의 관계는 낯선 경험이다. 항암치료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보며 ‘대머리’가 된 자신을 바라보는 기분 도 새롭다. 이때 그는 암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또는 희생자’가 된다.<br/><br/>모든 사람이 편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온몸이 조각나는 듯한 통증을 겪을 땐, 자신이 세계와 분리됐다는 고독감마저 느꼈다. 그러나 내디딘 한 발로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벼랑에서 작가는 “<span class='quot1'>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살아왔을까</span>”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마주 보게 되는 죽음의 직전에서 역설적으로 그는 삶의 본질과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다. 책이 단순한 투병기를 넘어서는 이유다.<br/><br/>“<span class='quot0'>암을 앓고 난 후에는 예전에 있던 곳으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span>”는 말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은 물론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5.txt

제목: 치료 까다로운 육종암, 면역암치료에 주목하는 환자들  
날짜: 2017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1175541001  
ID: 01100101.2017072117554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전히 국내 사망률 1위는 ‘암’이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발견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온 몸에 퍼졌을 경우엔 이미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종류만 해도 희귀암을 포함하면 100여 종에 이른다.<br/> <br/>뼈와 근육에서 발생하는 ‘육종암’ 역시 생소한 암이다. 팔다리 뼈와 근육, 지방조직 등 연부조직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흔히 생각하는 내장기관에서 생기는 암과 달리 종양세포가 생기는 조직이 근육과 지방이라 육종이라고 불린다. 육종암은 암 진행속도가 빠르고 폐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전이해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br/> <br/>육종암의 증상으로는 근력 약화나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 등이 있으며, 혹이 만져지기도 한다.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상당 기간 진행된 뒤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발생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과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br/> <br/>이처럼 치료가 까다로운 육종암은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항암내성이 발생하여 암이 재발하거나 치료효과가 지극히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된다. 이는 항암제의 강한 독성이 환자의 조혈모세포에 영향을 미쳐 혈액 내 백혈구나 혈소판 등의 수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br/> <br/>이와 관련 치료가 까다롭고 재발 및 전이가 쉬운 암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의학업계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br/> <br/>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남푸른숲한의원의 면역암치료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환자의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해준다. 물론 면역암치료 만으로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시행한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의 이중병행암관리는 면역암치료의 일환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는 물론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신생혈관 차단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육종암의 경우 폐로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항암제 부작용이 많아 한방의학의 도움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span>”며“<span class='quot0'>무엇보다 암은 초기치료가 중요하며,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36.txt

제목: 매케인 미 상원의원, 뇌종양 제거 수술  
날짜: 20170720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0205806001  
ID: 01100101.20170720205806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ㆍ트럼프·오바마 “쾌유 기원”<br/><br/><br/><br/>베트남전 포로로 혹독한 고문을 겪고, 미국 공화당의 ‘이단아’로 평생을 ‘투쟁’해 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80·사진)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쳤다.<br/><br/>CNN은 20일(현지시간) 매케인이 치료를 받는 애리조나주 메이오병원 의사의 말을 인용해 “<span class='quot0'>매케인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난 14일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span>”고 보도했다. 주치의는 매케인에게 2주간 움직이지 말고 요양할 것을 권했다. 이후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한다. 그는 악성 뇌종양의 하나인 아교종 진단을 받았다. 2008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같은 병을 진단받고 15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br/><br/>매케인 측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그는 일에 빨리 복귀하려 의욕을 보이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매케인은 2000년 진단받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다.<br/><br/>2008년 대선에서 경쟁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매케인은 미국의 영웅이자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전사”라며 “암은 지금 누구와 맞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존, 암을 지옥으로 보내버려라”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쾌유를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다.<br/><br/>매케인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격추당해 5년간 악명 높은 하노이의 감옥에서 포로로 지냈다. 격추 당시 입은 부상과 포로 시절 고문으로 매케인은 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br/><br/>매케인은 1987년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공화당 내에서 특유의 소신과 ‘독자 노선’ 때문에 매버릭(이단아)으로 불렸다. 1994년 당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협력해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를 주도했고 빌 클린턴 정부의 담뱃세 정책을 지지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내며 의회 조사에 적극적이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7.txt

제목: '불굴의 전사' 존 매케인, 악성 뇌종양도 이겨낼까  
날짜: 20170720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0171242001  
ID: 01100101.20170720171242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베트남전 포로로 혹독한 고문을 겪고, 공화당의 ‘이단아’로 평생을 ‘투쟁’해 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80)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쳤다.<br/><br/>CNN은 20일(현지시간) 매케인이 치료를 받는 애리조나주 메이오 병원의 의사를 인용해 “<span class='quot0'>매케인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난 14일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span>”고 보도했다. 주치의는 매케인에게 2주간 움직이지 말고 요양할 것을 권했다. 이후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한다. 그는 악성 뇌종양의 하나인 아교종 진단을 받았다. 2008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같은 병을 진단받고 15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br/><br/>매케인 측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불굴의 의지로 정평이 난 그는 일에 빨리 복귀하려 의욕을 보이며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매케인에게 병마가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 진단받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은 얼굴에 흉터를 남겼다. <br/><br/>2008년 대선에서 경쟁한 ‘정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존 매케인은 미국의 영웅이자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전사”라며 “암은 지금 누구와 맞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존, 암을 지옥으로 보내버려라”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쾌유를 기원한다”고 올렸다. <br/><br/>매케인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격추당해 5년간 악명 높은 하노이의 감옥에서 포로로 지냈다. 격추 당시 입은 부상과 포로 시절 받은 고문으로 매케인은 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해군사령관이던 매케인의 아버지는 게 월맹군의 조기 석방 제안을 거절하고 아들이 있는 하노이 폭격을 명령했고 매케인 본인도 먼저 잡힌 포로가 나갈 때까지 석방을 거부했다. 그는 귀국 후에도 힘든 재활을 이겨내고 다시 전투기 조종대를 잡았다. <br/><br/>매케인은 1987년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공화당 내에서 특유의 소신을 고집하는 ‘독자 노선’으로 매버릭(이단아)으로 불렸다. 1994년 당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협력해 베트남과 관계정상화를 주도했고 빌 클린턴 정부의 담뱃세 정책을 지지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내며 의회의 조사에 적극적이다. 매케인은 8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span class='quot1'>매케인이 올해에만 15개 국가를 다니며 12만㎞를 여행했다</span>”고 보도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38.txt

제목: 대장암의 씨앗 ‘용종’, 대장내시경으로 쉽게 제거한다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20164021001  
ID: 01100101.201707201640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2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주의가 요구된다.<br/><br/>조기 대장암은 증상이 없으며, 대한 소화기학회에서는 50세 이상인 경우 대장암 선별을 위해 이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장한다. 이상 증상(대변습관의 변화, 혈변, 원인불명의 복통 등) 이 있는 경우 50세 이전이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대장 검사를 통해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기에 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인 만큼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br/><br/>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용종을 찾아 낼 수 있다.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된 병변을 말한다. 대장용종은 점막이 있는 곳 어디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br/><br/>대장에서 용종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뉘는데 종양성 용종, 즉 선종의 경우 대장암의 씨앗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br/><br/>최근에는 대장내시경과 동시에 용종 제거가 가능해 졌다. 용종의 크기가 작다면 올가미나 생검용 겸자로 제거가 가능하고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 제거한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내시경으로 치료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br/><br/>수원 내과 버팀병원 김인성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의 원인인 선종성 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한다면 대장암의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39.txt

제목: [100대 국정과제]국정기획위 활동의 명과 암  
날짜: 20170719  
기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9165144001  
ID: 01100101.201707191651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국정기획자문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 5월17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정부부처와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현안에 대한 섣부른 공론화를 시도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br/><br/>청와대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정기획위에 힘을 실었다. 당·정·청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기획, 경제 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에 30여명의 자문위원이 나눠 배치됐다. ‘국정비전 및 프레임 태스크포스(TF)’와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주제 별로 5개의 TF도 운영됐다.<br/><br/>국정기획위는 이후 60여일동안 90여차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200여차례, 분과별 회의를 500번 가량 열어 정책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 비전 아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다.<br/><br/>특히 국정기획위는 ‘고용·성장·복지의 황금삼각형’ 등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각인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이나 일제고사 폐지,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국정과제로 확정·발표하면서 집권 초기 국정에 힘을 실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적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반기를 든 재계를 비판하는 등 악역도 했다. <br/><br/>하지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공약 후퇴 논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의 섣부른 공론화 등으로 비판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 대통령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구체화하겠다고 TF를 구성했지만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19일까지 원칙을 내놓지 않고 있다. <br/><br/>이전 정부 인수위와 달리 청와대가 출범한 후에 활동하다보니 생긴 어려움도 있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기존 인수위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와 정부 조직 구성에서의 결정권이 없다보니 인수위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부처에서는 청와대와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br/><br/><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0.txt

제목: [기고]신개념 꼰대  
날짜: 20170718  
기자: 이인재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8211218002  
ID: 01100101.20170718211218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꼰대’란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다. 어원을 찾는 것도 꼰대의 특징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늙은이나 선생님’을 뜻하는데 보통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 주름이 많다는 의미로 번데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꼰데기’가 어원이라는 주장과 프랑스어로 백작인 ‘콩테’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완용 등 친일파가 자신을 ‘꼰대’라고 자랑스럽게 칭했다는 얘기도 있다. <br/><br/>요즘은 남자 꼰대를 ‘아재’라는 약간 비굴하고 순화된 명칭으로도 부른다. 소통을 하면 ‘아재’, 소통을 하지 않으면 ‘꼰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재라 불러주기를 바라는 꼰대의 애절한 심사일 뿐 그게 그거다.<br/><br/>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는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판별법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내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이렇다. 첫째, 나와 다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고 말하는 자식에게 섭섭함이 들 때, 둘째, 회식에서 고기를 제대로 굽지 않아 결국 내가 나설 때, 셋째, 엘리베이터에서 버릇없는 아이가 인사 안 하고 빤히 쳐다볼 때 쥐어박고 싶으면 꼰대라고 봐도 무방하다.<br/><br/>꼰대는 변화에 둔감하고,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조직에 암적 존재이며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꼰대의 연령기준은 없으나 일단 40세가 넘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 꼰대라 불리는 50~60대는 자기 아버지 세대를 꼰대라 부르면서 자랐다. 전쟁과 기근, 농경, 산업, 정보사회를 모두 겪고 살아남은 괴력의 아버지 세대를 닮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이 진화된 꼰대가 되었다.<br/><br/>사실 지금의 꼰대들은 서럽다. 내가 왜, 언제, 어떻게 꼰대가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꼰대질이 주위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르는 게 꼰대의 속성이다. 모르기 때문에 고치려는 생각도 없다.<br/><br/>꼰대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표정 관리를 한다. 소셜미디어보다는 자기가 보는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최소 9명 이상의 대통령을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는다.<br/><br/>꼰대는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잘 알고 있다. 집착도 강하지만 체념도 빠르다. 꼰대는 ‘산은 높낮이가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다’ 같은 말을 좋아한다. 조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br/><br/>그리고 꼰대는 사무엘 울만(Samuel Ullman)의 ‘청춘’이란 시를 사랑한다.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br/><br/>하지만 이제는 나이로 결정짓는 꼰대에 동의할 수 없다. ‘젊은 꼰대’도 있고 ‘늙은 꼰대’도 있다. 늙은 꼰대는 대들면 일단 주춤한다. 냉온탕을 다 겪어봤기에 눈치가 백단이다. <br/><br/>진짜 무서운 것은 ‘젊은 꼰대’이다. 젊은 꼰대는 권위적 조직문화에 태생적 금수저를 겸비했기에 통제 불능이다. 꼰대는 나이 먹어 낙인찍히는 주홍글자가 아니다. 꼰대 꿈나무, 꼰대 유망주란 말처럼 어린아이도 꼰대가 될 수 있다. 이제 꼰대의 의미는 나이와 성별과 시대를 초월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br/><br/><이인재 |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언론사: 경향신문-2-241.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안내서 발간  
날짜: 20170718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8074637001  
ID: 01100101.2017071807463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센터장 안진석 교수) 완화치료클리닉이 암교육센터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안내서 <돌봄> 을 발간했다.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책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방법, 사전대비, 완화의료에 대한 오해 불식 등 정보가 담겨 있다. 완화의료 사례자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엮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br/><br/>해당 책자는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와 암교육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책의 삽화를 소재로 오는 8월 31까지 병원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손수건을 제작, 판매한 수익금은 불우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br/><br/>암교육센터는 ‘환자는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교육용 도서 시리즈(희망의 앎) 책자를 펴내고 있다. 지금까지 암환자 가족을 위한 <나도 힘이 되고 싶어요>, 소아암 환자를 위한 <너도 할 수 있어>, 암환자 외모관리를 위한 <당신은 여전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등 ‘희망의 앎’ 시리즈 6권을 발간하며 암환자들에게 올바른 암정보를 제공해 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2.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폐이식 환자 3명 중 2명, 5년 이상 생존  
날짜: 2017071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7152858001  
ID: 01100101.201707171528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 폐이식팀(박승일·김동관·심태선·홍상범 교수)은 17일 “<span class='quot0'>2008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폐이식을 받은 환자 41명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 65.5%를 기록해 국내 폐이식 생존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였다</span>”고 밝혔다.<br/><br/>병원 측은 “1년, 3년 생존율도 각각 81.4%, 76.9%로 그동안 간이나 심장 등 타 장기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 이식수술을 망설였던 말기 폐부전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외국 유수 센터의 성적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국내 폐이식 환자들은 수술 전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체외막형산화기(ECMO·에크모)를 사용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 중증 환자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이다. 누적된 수술 경험과 수술 전후 상당 기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수준 높은 중환자실 집중관리가 서울아산병원 폐이식팀의 높은 성적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퇴원 후 환자 관리 등 폐이식 환자를 위한 다학제간 진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br/><br/>서울아산병원 폐이식 환자들은 남성이 27명, 여성이 14명이었다. 나이는 50대가 11명, 40대가 9명, 60대와 30대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원인 질환으로는 폐가 딱딱하게 변해 폐 기능을 상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특발성폐섬유증 환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br/><br/>박승일 교수(흉부외과)는 “<span class='quot1'>간이나 심장 등 타 장기 이식 생존율은 이미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 폐이식 성적은 지금까지 저조했던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 폐이식 생존율이 세계 유수센터들과 대등한 것으로 분석돼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span>”고 말했다.<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이식 생존율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수술 후 출혈이나 합병증을 크게 줄였고,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감염내과 등 폐이식 환자를 중심으로 한 폐이식팀의 팀워크와 유기적인 다학제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환자들의 질 높은 통합관리가 가능했기 때문</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심태선 교수(호흡기내과)는 “모든 환자들은 이식수술 후 야기되는 거부반응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이식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면역억제제의 적절한 조절과 꾸준한 호흡재활 등 원칙에 따른 정확한 관리를 통해 폐이식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br/><br/>폐이식은 말기폐질환 즉, 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고혈압, 골수 이식 후 폐에서 발생한 숙주반응 등으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완치되지 않은 암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병든 폐를 절제하고 뇌사자로부터 얻은 폐를 이식하는 폐이식은 가급적 양쪽 폐를 동시에 이식한다. 간 이식의 경우 간은 재생능력이 있어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는 뇌사자의 양쪽 폐를 이식하는 것이 폐 기능의 회복이나 장기 생존에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3.txt

제목: 이란의 '히잡 금기' 깨뜨린 천재 여성수학자 미르자카니의 죽음  
날짜: 20170717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7114201001  
ID: 01100101.20170717114201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이란 신문들이 요절한 천재 여성 수학자의 소식을 전하며 히잡을 쓰지 않은 그의 얼굴을 크게 실었다. 승용차 내부도 공공장소라며 히잡을 벗고 운전하는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는 이란에선 ‘금기’가 깨진 것이다.<br/><br/>현지 일간 함샤리 등 16일(현지시간) 신문 1면 표지에 전날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숨진 수학자 마리암 미르자카니(40)의 소식을 전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일부는 희잡이나 모자를 쓴 사진이나 히잡을 그려넣은 얼굴 그림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미르자카니의 짧은 머리를 그대로 기사와 함께 담았다. <br/><br/>테헤란에서 태어난 그는 영재를 위한 특수 고등학교에 다니던 1994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이란 여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해 42점 만점에 41점을 받아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듬해 대회에선 금메달을 2개나 땄다. 1999년 샤리프기술대학을 졸업한 뒤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갔고, 2004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클레이수학연구소를 거쳐 프린스턴대 교수가 됐고, 2008년부턴 스탠퍼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br/><br/>4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을 하던 그는 2014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다. 기하학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모듈라이 공간을 해석한 ‘리만 곡면의 역학·기하학과 모듈라이 공간’을 주제로 한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1936년 필즈상을 수여하기 시작한 이후 첫 여성 수상자였다.<br/><br/>이후 체코에서 태어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계속 외국에서 지내온 인물이긴 하나, 히잡을 쓰지 않은 자국 여성의 사진을 지면에 싣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필즈상 수상 소식의 경우 현지 언론들은 스카프를 합성하거나 얼굴만 싣는 방식으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감췄다.<br/><br/>이 같은 변화는 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2013년 집권한 뒤 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집회·결사의 자유, 남녀 평등을 중요 정책으로 다뤄 이란의 젊은층과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로하니는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했다.<br/><br/>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히잡을 쓰지 않은 미르자카니의 사진과 함께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탁월한 이란 출신의 수학자인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통탄할 일</span>”이라며 “몹시 슬프다”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br/><br/>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된 이란에선 최근 운전 중 히잡을 착용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최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히잡을 머리가 아닌 어깨에 느슨하게 두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탓이다. 이에 이란 여성들은 승용차 내부는 집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br/><br/>개방의 바람이 분 이란에서 미르카자니의 사망을 계기로 금기를 깨기 위한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br/><br/>외국인과 결혼한 이란 여성의 자녀들이 이란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란은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아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자녀들이 이란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란 하원의원들은 이날 미르카자니의 아이들이 이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4.txt

제목: 첫 여성 필즈상 ‘이란 수학천재’ 미르자카니, 유방암으로 40세 요절  
날짜: 20170715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5205000001  
ID: 01100101.20170715205000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의 첫 여성 수상자인 마리암 미르자카니(40)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요절했다.<br/><br/>미르자카니는 1977년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다. 영재를 위한 특수 고교로 진학해 17세 때인 1994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42점 만점에 41점을 받아 금메달을 수상했다. 1995년에도 이 대회에서 만점을 받아 금메달 2개를 땄다.<br/><br/>1999년 테헤란 샤리프기술대학에서 수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 2004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클레이수학연구소 연구원,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교수를 지내다 4년 전 암이 발병해 투병해왔다.<br/><br/>미르자카니 교수는 기하학 분야 전문가다. 2014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필즈상을 받았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곡선을 포함한 공간인 ‘모듈라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의 연구는 10차원의 우주 시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인 초끈이론의 토대가 될 것으로 수학계는 물론 물리학계의 관심을 모았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경향신문-2-245.txt

제목: 폐암, 재발전이 방지하는 한방암치료 주목  
날짜: 2017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4173513001  
ID: 01100101.201707141735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녀 통틀어 국내 폐암 발생률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폐암은 암 중 사망률 1위라는 점. 5년 생존율이 25%로 매우 낮은 편인데다가 말기로 진단받으면 1% 이내로 뚝 떨어진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 폐암이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br/> <br/>또한 폐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많고, 완치율이 낮아 기타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꼽힌다. 실제 폐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55~80%까지 처음 진단 당시에 이미 국소전이가 일어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해도 20~50%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br/> <br/>이처럼 폐암은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면역력에 좋은 음식섭취 등을 실천하면서 폐암 예방에 힘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br/> <br/>한편, 폐암 환자 대부분은 수술이 힘들거나 수술 후 재발방지를 위해 항암치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환자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탈모, 구역질, 구토, 전신쇠약, 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동반하게 된다.<br/> <br/>이에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제시해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암 치료에 힘쓰고 있다. 한방암치료의 일환인 이중병행암관리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 및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과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특히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 차단과 함께 항암치료 중 손상되는 백혈구, 혈소판 등의 재생을 돕는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 한방제제를 통해 환자의 암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br/> <br/>옻나무추출물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방제제의 항암효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SCI급 논문에 등재되어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와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 이어 “폐암은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므로 초기부터 한방암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46.txt

제목: 민주주의 외치다 '조국에 갇혀 떠난' 류샤오보  
날짜: 20170713  
기자: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3224422001  
ID: 01100101.20170713224422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경제대국,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 2010년 중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조국’은 그에게 가혹했다. 공산당 일당체제를 끝내자고 외쳐온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는 8년간의 투옥과 암 투병 끝에 13일 61세로 고단한 삶을 마쳤다. 역설적이지만 그를 중국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체제 변화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지식인을 가두고 탄압한 중국 당국이었다.<br/><br/>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61세를 일기로 13일 숨을 거뒀다. 랴오닝(遼寧)성 선양(瀋陽)시 사법국은 선양의 중국의대 부속 제1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아온 류샤오보가 13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류샤오보는 전날 병세가 악화돼 호흡 곤란이 시작됐으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삽관을 거부했다. <br/><br/><br/><br/>그는 지난 5월 수감 중이던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교도소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23일 8년 만에 가석방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미국, 독일 의료진까지 투입돼 치료에 나섰으나 최근 신장과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패혈성 쇼크와 복부 감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고통을 겪었다. 류샤오보는 서방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독일 정부 등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고, 가혹한 탄압 속에 살았던 지식인은 끝내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br/><br/> <br/><br/>류샤오보는 빼어난 문학비평으로 이름을 날리던 문학도였다. 1955년 12월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나 지린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1982년 베이징사범대에서 문학 석사를 받은 후 강단에 섰다. 그러나 1989년 6월4일 일어난 톈안먼 사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방문 학자로 미국에 머물던 류샤오보는 소식을 듣고 귀국해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 미국 명문대에서 일할 기회까지 포기했다. 그는 시위대 유혈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br/><br/>사태 후 시위 지도부는 대부분 미국 등 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는 중국에 남았다. 고초가 시작됐다. 반체제 활동을 이어가는 사이 네 차례 체포·구금됐다. 당국에 억류돼 감시를 당하고, 노동교화형으로 탄압받으면서도 ‘심미와 인간의 자유’ ‘알몸으로 하느님에게’와 같은 비판적인 글들을 발표했다. 그에게 결정적 시련을 안겨준 것은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운동이었다. 류샤오보는 이듬해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체포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br/><br/>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중국의 인권을 위한 오랜 비폭력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span>”며 그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상식은 ‘빈 의자’로 치러졌다. 중국은 수감 중인 류샤오보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노벨상 수상은 중국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이 중국 정부에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했고 학자, 변호사, 인권운동가들의 서명운동도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노벨상 선정에 격분해 노르웨이와 관계를 단절했다.<br/><br/> <br/><br/>류샤오보가 감옥에 드나들기를 반복하는 동안 첫번째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류사오보는 ‘사회질서교란죄’로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던 1996년 류샤(劉霞)와 옥중 결혼했다. 남편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수감 중 300여통의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 그는 “<span class='quot0'>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한 여인에게서 본다</span>”며 류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류샤에 대한 감시도 심해졌다. 2011년부터 남편의 메신저 역할을 해오던 류샤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을 겪었다. 류샤오보가 “<span class='quot1'>죽더라도 외국에서 죽고 싶다</span>”며 출국을 원했던 것은 뒤에 남겨질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류사오보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서방의 압력은 더 거세지고,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하는 중국과 서방의 신경전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부터 인권운동가들을 더욱 강경하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현재 최소 16명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가 투옥돼 있다. 국가권력을 전복하려 선동했다거나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는 혐의다. 이들도 대부분 류샤오보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갇혀 있다. 또 올해부터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더 강도높게 통제하는 ‘NGO관리법’이 시행돼 지난달까지 7000여개 단체 중 1%인 82곳만 등록이 허가됐다. <br/><br/>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span class='quot0'>류샤오보가 말기 병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국 정부는 그의 조기 사망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영국 가디언은 “<span class='quot2'>더 심각해지는 중국의 통제 속에서 류샤오보를 대체할 인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그의 사망과 함께 중국 개혁에 대한 희망도 죽어갈 것</span>”이라고 보도했다.<br/><br/><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7.txt

제목: 한국 ‘형이상학 소설’의 대가, 박상륭 소설가 별세  
날짜: 20170713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3220453002  
ID: 01100101.20170713220453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지난 1일 영면, 부인이 알려와…이민지 캐나다에서 암 투병<br/><br/><br/><br/><죽음의 한 연구> <칠조어론> 등의 작품을 남긴 박상륭 소설가가 이달 초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7세.<br/><br/>13일 문단에 따르면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작가는 지난 1일 캐나다에서 별세했다. 1969년 캐나다로 이주한 고인은 종교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간이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일년에 한번쯤 국내에 들어와 문단의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곤 했다. 별세 소식은 고인의 부인이 국내 지인들에게 e메일로 부고를 전하면서 알려졌다.<br/><br/>1940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서 김동리 작가(1913∼1995)로부터 수학했으며, 졸업 후 경희대 정외과에 편입해 다니다가 중퇴했다. 서라벌예대 동창생이었던 이문구 소설가(1941∼2003)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1963년 ‘사상계’에 소설 <아겔다마>가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고, 한때 이 잡지의 편집자였다가 간호사로 전직한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 1969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캐나다 정착 초기에 병원의 시신 안치실에서 청소부 등으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소설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고인은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를 주로 다뤘다. 죽음과 삶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고행적인 소설은 일반 독자가 읽기에 난해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고인이 구사했던 문장은 길었고, 하나의 문장 속에 괄호와 쉼표가 빈번히 등장하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다. 그 복잡한 문장 속에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신화와 민담, 의식과 무의식이 뒤섞였다. 그래서 생전의 고인은 자신의 소설에 대해 “잡설”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br/><br/>서사적 사실주의가 대세였던 한국 문단에서 고인의 독특한 작품 세계는 일부 평자들의 극찬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죽음의 한 연구>가 꼽힌다. 김현 평론가(1942~1990)는 1996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이 소설에 대해 “<span class='quot0'>이광수의 <무정> 이후 쓰인, 가장 좋은 소설의 하나</span>”라고 평했다. 김사인 시인은 고인을 생전에 인터뷰하면서 “<span class='quot1'>40년 가까이 존재의 근원에 맞서, 글쓰기의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박상륭의 고투는 가히 영웅적</spa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br/><br/>고인은 <죽음의 한 연구>에 이어지는 속편 격으로 <칠조어론> 3부작을 1994년 완간했고, 2008년에는 장편 <잡설품>을 발표했다. <죽음의 한 연구>에는 중국 선종의 육조대사 혜능을 등장시켰고, <칠조어론>에서는 선종의 칠조대사를 가상으로 내세워 그의 설법을 담아냈다. <잡설품>에서도 가상의 인물인 팔조대사를 등장시킨다. 고인은 환갑을 맞던 무렵의 한 인터뷰에서 “(내 잡설들은) 전대인들이 흘린 그 이삭줍기 짓”이라면서 “그것을 빻아 죽 끓이기로 문학이라는 것을 해왔다”고 말했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8.txt

제목: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오진 많아  
날짜: 20170713  
기자: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3171234001  
ID: 01100101.201707131712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병원과 의원의 오진 피해 중 10건 중 6건은 암 오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오진이 가장 많았다. <br/><br/>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58.0%)으로 가장 많았다.<br/><br/>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19.0%(71건)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오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br/>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되었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br/><br/>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br/><br/>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br/><br/>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br/><br/>한국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span>”며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br/><br/><br/><br/><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49.txt

제목: 퇴원환자 15만명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날짜: 20170713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3135500001  
ID: 01100101.201707131355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가 환자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묻는 ‘환자경험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암 등 개별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있었지만 병원의 서비스를 묻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자는 퇴원환자 15만여명이다. <br/><br/>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span class='quot0'>상급종합병원 등 500병상 이상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총 95곳)에 1일 이상 입원했던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심평원이 환자 경험조사를 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설문조사는 연령·성별·진료과목에 따른 표본을 선정해 전화 설문방식으로 이뤄진다.<br/><br/>조사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수집한다. 만약 본인의 전화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입원 시 병원 측에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br/><br/>이번 조사 내용은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보장 등과 연관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br/><br/>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며,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포스터·리플릿·배너 등을 배포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br/><br/>복지부는 이번 평가가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로부터 직접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승은 사무관은 “<span class='quot1'>환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1'>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0.txt

제목: <헬스 게시판> '아름다운 죽음' 호스피스 교육,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발매 등  
날짜: 2017071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3084433001  
ID: 01100101.2017071308443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령바이오파마,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액트에어 설하정’ 출시<br/><br/>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가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액트에어 설하정 초기치료단계, 유지치료단계 2종’을 출시했다. 아메리카집먼지진드기 정제추출물과 유럽집먼지진드기 정제추출물 성분으로 처방된 집먼진진드기 알레르기성 비염 면역치료제다. <br/><br/>액트에어는 IgE(면역반응이 나타나면 만들어지는 항체) 매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특이면역요법으로 생기는 증상의 면역 기전을 변화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약물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br/><br/>입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혀 밑에 놓고 녹여(설하투여) 1일 1회 투여하는 것으로 복용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비염 치료 2개월부터 유의한 유효성이 입증됐다. <br/><br/>■부천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실시<br/><br/>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은 오는 8월 9일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한다. <br/><br/>호스피스는 죽음을 앞 둔 말기암 환자가 최대한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고통 없이 남은 삶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통증, 증상의 조절 및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한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의 개념이다. 즉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r/><br/>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암이란 무엇인가?, 호스피스 윤리, 자원봉사자의 역할, 가정호스피스의 이해, 암환자의 증상관리, 암 환자의 영양관리, 내면을 살펴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별가족 돌봄, 호스피스 환자와의 대화기법, 봉사자 체험 나누기, ▲나의 죽음에 대한 나눔 등으로 구성됐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길 원하거나, 말기암 환자가 주변에 있는 보호자가 들으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br/><br/>금번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특히 종교와 상관없이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고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이 제공된다. 예수회 CPE연구소 소장인 정무근 신부가 호스피스 환자와의 대화기법에 대해,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김보경 강사가 연민의 대화라고 불리는 비폭력대화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 8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변화된 사항에 대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지영현 신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br/><br/>교육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국내에서는 수료증이 있어야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8월 2일까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으로 등록하면 된다. 교육비는 교재와 중식비를 포함하여 5만원이다. <br/><br/>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1993년 분산형 호스피스로 오픈, 2016년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24년간 함께 하고 있다. (032)340-2435/2530<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1.txt

제목: 붉은박쥐 유전체 최초 분석…장수 관련 연구에 도움  
날짜: 20170712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2214845001  
ID: 01100101.201707122148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박종화 울산과기원 교수팀<br/><br/>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12일 게놈연구소 박종화 교수(사진) 연구팀이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붉은박쥐의 게놈(유전체)을 세계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인 붉은박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유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유니스트는 설명했다.<br/><br/><br/>박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장수 생물인 박쥐의 긴 수명, 비행능력, 초음파 감각, 낮은 시력에 관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팀은 박쥐의 유전자가 인간의 수명과 질병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br/><br/>국내에 450~500마리뿐인 붉은박쥐는 멸종위기 1급 생물이고, 천연기념물(제452호)로 지정돼 있다. 연구팀은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서 죽은 채 발견된 붉은박쥐에서 DNA 시료를 얻어 게놈을 해독했다. 이어 그 결과를 다른 박쥐 7종과 육상 포유동물 6종의 게놈과 비교해 붉은박쥐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했다.<br/><br/>특히 연구팀은 붉은박쥐의 게놈에서 맹독으로 알려진 ‘비소(As)’에 강한 특성 등에 관한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이는 붉은박쥐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진화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br/><br/>연구팀은 또 붉은박쥐의 개체수가 마지막 빙하기 후반부터 감소한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생명체의 게놈은 과거 진화의 역사와 개체수에 대한 기록이 저장된 생물체의 ‘역사책’이다. 연구팀은 1만~5만년 전부터 붉은박쥐가 속한 애기박쥐과 박쥐들의 개체수가 급감했고, 붉은박쥐가 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박종화 교수는 “<span class='quot0'>박쥐는 인간에게 귀중한 생물자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런 생물자원의 유전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고, 박쥐 게놈에서 장수 관련 유전정보를 더 깊이 연구해 궁극적으로 암 치료와 수명 연장에 활용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 박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지난 5일자로 발표됐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2.txt

제목: [김창길의 사진공책]탱크맨 찾기 캠페인  
날짜: 20170712  
기자: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2133422001  
ID: 01100101.20170712133422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2010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가 위독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일 류사오보 형제들에게 문병을 허락하면서 류사오보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br/><br/>류샤오보의 삶을 짧게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생활하던 류사오보는 1989년 6월 4일 톈안먼 사태가 발생하자 고국으로 귀국해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며 반체제 인사의 길을 걷는다. 톈안먼 사태 당시에는 단식농성에 동참했고, 시위를 진압하던 군과 협상도 펼치는 등 톈안먼 사군자로 불리기도 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2008년 그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철폐와 직접선거 등 중국의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08 헌장’을 작성했다. 이를 빌미로 중국 정부는 그를 국가 전복선동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8년간 옥중생활을 하다 지난 6월 23일에 가석됐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br/><br/>텐안먼 사군자로 불리웠던 1989년의 젊은 류샤오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톈안먼 광장을 돌진하는 탱크부대를 혈혈단신 맨 몸으로 막는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br/><br/>1989년 6월 5일 톈안먼 광장의 시위대를 향해 18대의 탱크가 몰려온다. 시위대는 몸을 숨겼다. 오직 단 한명만 빼놓고. 검은 바지에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선두에 오는 탱크를 막아섰다. 탱크 행렬은 멈췄다. 잠시 후 탱크는 방향을 바꾼다. 탱크를 막았던 남성도 방향을 바꿔 다시 탱크를 막는다. 사람과 탱크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남성은 급기야 탱크 포신에 오른다. 잠시 후 해치가 열리고 탱크 조종사가 머리를 내민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까? 탱크 조종사는 뒤따르는 탱크를 향해 무언가 지시를 한다.<br/><br/>탱크와 남자의 대결을 포착한 건 외신기자들이었다. 광장에 탱크 행렬이 나타나자 외신 사진기자들은 톈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베이징 호텔로 달려갔다. 그리고 탱크와 남자의 대결 장면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남자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탱크맨’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다음 네 장의 탱크맨 사진들을 바라본다. <br/><br/>AP통신 제프 와이드너(Jeff Widener)의 사진이다. 탱크가 등장하자 그는 미국 대학생이 묵던 베이징호텔 6층에 잠입했다. 이런, 그러나 그의 카메라에는 필름이 없었다. 호텔방에 있던 학생은 사진기자를 위해 호텔 로비로 나가 한 관광객에게 후지필름 한 통을 얻어 그에게 건넸다. 그의 사진에는 탱크 조종사도 있다. 탱크 포탑 해치 위로 몸을 내민 조종사는 뒤따르는 탱크 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촬영된 후지필름 한 통은 다시 학생 손에 건네졌다. 탱크맨 필름을 속옷 안에 숨긴 학생은 미대사관을 향해 달려갔다.<br/><br/>세계적인 사진가 그룹 매그넘(Magnum) 소속 사진가 스튜어트 프랭클린(Stuart Franklin)도 같은 호텔 5층에서 탱크맨을 목격했다. 그의 사진에는 탱크 조종사는 없지만 길가에 불타버린 버스 한 대가 보인다. 스튜어트 프랭클린의 필름도 호텔에 있던 프랑스 학생에게 건네졌다. 그의 필름은 차(tea) 상자 안에 숨었다.<br/><br/>뉴스위크 사진기자 찰리 콜(Charllie Cole)도 5층에서 탱크맨을 포착했다. 찰리 콜의 카메라는 탱크맨뿐만아니라 부상당한 시위대를 필름에 새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필름 전달책이 없었다. 급기야 호텔에 있던 중국 공안들에게 필름을 빼앗겼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그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담은 필름 한 통을 미리 화장실에 숨겼다. 훗날 찰리 콜의 탱크맨 사진은 2003년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0장에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br/><br/>호텔 밖에서 탱크맨을 목격한 기자도 있다. AP통신 리포터 테럴 존(Terril Jones)이다. 그의 사진에는 쉽게 탱크맨을 찾기 어렵다. 멀리 보이는 탱크를 뒤로하고 달아나는 시위대의 모습이 더 크게 포착돼 있다. 당시에 그도 자신이 찍은 사진에 탱크맨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실토했다. 한 달이 지나 사진을 인화한 후 그의 사진에도 작게 탱크맨이 나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왼쪽 나무 뒤로 보이는 남성).<br/><br/>톈안먼 사태를 전 세계에 알린 탱크맨의 행방은 묘연했다. 결국 탱크에 깔려 숨졌다, 당국에 체포돼 감옥에 있다, 타이완에 살고 있다는 등 소문만 무성했다. 텐안먼 사태 1년 후인 1990년 장쩌민 주석은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그 청년의 체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사살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밝히기도 했다.<br/><br/>소문만 무성했던 탱크맨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6년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을 비롯한 10여개 해외 인권단체들은 톈안먼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의 하나로 탱크맨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탱크맨과 운전병, 그리고 톈안먼 사태. 세계일보. 2016.5.31.) 탱크를 멈춘 탱크맨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탱크 행렬을 멈추게 한 탱크 조종사, 이 두 명의 탱크맨을 찾는 캠페인이다. <br/><br/>캠페인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탱크맨은 살아 있었다. 온갖 추측과 소문과 달리 탱크맨은 중국에 살고 있다고 ‘공민역량’은 밝혔다. 탱크맨은 자신의 용감했던 행동이 외국에 알려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외국에 나가 유명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탱크맨 살아있다지만. 한겨레 2017. 6. 5.)<br/><br/>그렇다면 탱크 조종사는 어디 있을까? 아직도 군대에 있을까? 28년이 지난 지금, 탱크 포신 위로 올라온 탱크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 두 탱크맨이 재회한다면 어떤 영웅담이 펼쳐질까?<br/><br/>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다. 아직 중국 정부는 반체제인사들의 영웅담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기 암 치료를 위해 미국이나 독일행을 원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마지막 바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br/><br/><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3.txt

제목: 유니스트 박종화 교수팀 멸종위기 ‘붉은박쥐’ 게놈（유전체）세계 첫 해독  
날짜: 20170712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2090424001  
ID: 01100101.2017071209042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니스트는 12일 게놈연구소 박종화 교수연구팀이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붉은박쥐’의 ‘게놈(유전체)’을 세계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붉은박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유전적 토대가 마련됐고, 장수하는 붉은박쥐의 유전변이에 관한 분석 연구는 인간의 장수 등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유니스트는 설명했다.<br/><br/>몸 크기 대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인 박쥐는 이번 연구에서도 긴 수명, 비행능력, 초음파 감각, 낮은 시력에 관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박쥐의 유전자가 인간의 수명과 질병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br/><br/>국내에 450~500마리 뿐인 붉은박쥐는 멸종위기 1급 생물이고, 천연기념물(제452호)로 지정돼 있다. 연구팀은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서 죽은 채 발견된 붉은박쥐에서 DNA 시료를 얻어 게놈을 해독했다. 이어 그 결과를 다른 박쥐 7종과 육상 포유동물 6종의 게놈과 비교해 붉은박쥐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했다.특히 연구팀은 붉은박쥐의 게놈에서 맹독으로 알려진‘비소(As)’에 강한 특성 등에 관한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이는 붉은박쥐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진화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br/><br/>연구팀은 또 붉은박쥐의 개체수가 마지막 빙하기 후반부터 감소한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생명체의 게놈은 과거 진화의 역사와 개체수에 대한 기록이 저장된 생물체의 ‘역사책’이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1~5만년 전부터 붉은박쥐가 속한 애기박쥐과 박쥐들의 개체수가 급감했고, 붉은박쥐가 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박종화 교수는 “<span class='quot0'>박쥐는 오래 살고, 인간에게 귀중한 생물자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가적으로 이런 생물자원의 유전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고, 박쥐 게놈에서 장수 관련 유전정보를 더 깊이 연구해 궁극적으로 암 치료와 수명연장에 활용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br/><br/>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지난 5일자로 발표됐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4.txt

제목: [기고]전기 없는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의사  
날짜: 20170711  
기자: 김영구 | 연세스타피부과 원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1205643001  
ID: 01100101.2017071120564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요즘 의사들은 각종 첨단 장비로 병을 진단하고, 수술 등 치료를 한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전기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특히 진단의 장비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끼리도 “<span class='quot0'>이제 명의(名醫)는 없고, 명장비(名裝備)만 있다</span>”는 농담을 할 정도다.<br/><br/>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30대 환자를 119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77분간 8000번의 흉부 압박을 해 살려냈다는 내용이다. 의사들은 심정지가 온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에서 30분을 ‘심리적 장벽’으로 본다.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 계속된 의료진의 집념이 멈춘 심장을 깨우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생명을 구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인간의 ‘비합리성’에 주목한다.<br/><br/>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이 의료계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이 의사를 대체한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국내 일부 대학병원에도 이미 도입돼 암 진단 등에 활용되고 있다. 첨단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합리성 또는 정확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의사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면 심장발작 환자가 살아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로봇은 30분이 넘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을 것이다.<br/><br/>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움직임도 시사점을 준다. 의료 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교육 혁신을 논의하면서 ‘전기 없는 곳에서도 진단, 치료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도 청진기와 주사기, 메스 등 기본적인 장비와 약만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의 합리성, 효율성에만 매몰된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숨소리, 맥박, 말소리를 듣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미래에 더 필요할 것이라는 미국 의대의 ‘반성문’인 셈이다.<br/><br/>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첨단의학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을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첨단 기술만이 능사는 아니다. 의료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에 현장 상황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궁극의 정답이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로 정량화되기도 어렵다. 의학 발전 계획을 짤 때 이런 의료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 특성이란 쉽게 심폐소생술을 포기하지 않는 의료인들의 비합리성, 그리고 ‘전기 없는 곳에서도 진단, 치료하는 의사’를 말한다.<br/><br/><김영구 | 연세스타피부과 원장>

언론사: 경향신문-2-255.txt

제목: <헬스 게시판> 여름 장마철 대상포진, 암, 당뇨병 등 건강강좌  
날짜: 2017071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1095851001  
ID: 01100101.2017071109585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남병원, 대상포진과 예방접종·영양 건강강좌<br/><br/>이화의료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조영주)은 7월 18일 오후 2시, 병원 2층 이화홀에서 ‘찌릿한 통증, 이게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한다.<br/><br/>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피부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이다.<br/><br/>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이 발열, 근육통 등 감기와 흡사해 방치하기 쉬운데,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합병증 발생 등 위험이 높아진다.<br/><br/>가정의학과 김형욱 교수가 대상포진의 이해 및 치료, 일반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약제팀 김가은 약사가 ‘올바른 영양제 복약지도’에 대래 강의한다. (☎1566-6688)<br/><br/>■국제성모병원, 암 환자와 지역주민 맞춤 건강강좌<br/><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건강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암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암 관리, 골다공증, 당뇨병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br/><br/>11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장소-다학제진료실) 골다공증을 위한 영양관리(검단보건지소), 13일 암 환우의 피로완화를 위한 스트레칭(다학제진료실), 17일 당뇨환자의 당질식품 선택(3세미나실), 18일 마음의 힘 회복하는 치유 상담(다학제진료실), 20일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다학제진료실), 25일 소도구를 이용한 암 환우 근력 강화 운동(다학제진료실), 27일 마음의 힘 회복하는 치유 상담(다학제진료실) 등이다. <br/><br/>김영인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무더위와 장마로 시름하고 있는 암 환자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맞춤형 건강강좌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암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span>”이라고 (문의: 032-290-2548).<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6.txt

제목: “악성 뇌종양, 주변의 면역세포가 항암치료 방해”  
날짜: 20170711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11010129001  
ID: 01100101.2017071101012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ㆍ삼성병원 남도현 교수팀 규명…세포 발현 억제 땐 치료 도움<br/><br/><br/><br/>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의 남도현 교수(사진)팀이 종양 주변 면역세포가 종양의 진화 및 항암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뇌종양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br/><br/>보건복지부는 10일 남 교수팀이 미국 잭슨랩의 로엘 버락 교수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의 에릭 술만 교수팀과 협력해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암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캔서셀(Cancer Cell)’ 인터넷판 10일자에 우선 게재된다고 밝혔다.<br/><br/>남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뇌종양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암인 교모세포종의 암조직, 종양 단일세포의 유전체 정보 등을 비교해 종양 세포와 주변 미세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교모세포종은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해도 진단 뒤 기대생존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br/><br/>연구진은 종양의 진화와 면역세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91쌍의 원발암-재발암 환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 55%의 종양은 재발 후에도 원발암의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45%의 종양은 재발 뒤 형태가 변화했다.<br/><br/>특히 종양이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뒤 항암내성을 획득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양 주변 면역세포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종양 주변 미세환경의 면역세포 중 ‘M2대식세포’의 발현이 많아질수록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이 높아졌고, ‘CD8+세포’의 발현이 많아지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했다. 즉, 면역세포의 발현을 억제하면 항암내성 발현 역시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향후 4~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남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의 종양 진화와 관련한 유전체 기반 표적치료에 면역 미세환경 조절 치료제를 병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난치 질환인 뇌종양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7.txt

제목: [커버스토리 - 탐정이 된 의사들]“산재 조사과정서 느낀 ‘그들의 억울함’ 나도 트라우마 생길 정도”  
날짜: 20170707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7222718001  
ID: 01100101.20170707222718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ㆍ“투자와 관심 없으면 산재·직업병은 사회적으로 유전되고 진화”<br/><br/>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의 공저자인 류현철·공유정옥·이혜은·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보고 겪은 생생한 산재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직업환경이 점점 나아지리란 믿음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파편화되면서 재래형, 산업국가형, 60년대형 산재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등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br/>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br/><br/>-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란 말이 아직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br/><br/>공유정옥(이하 공유) = 우리 사회가 직업병에 겨우 관심을 갖게 된 때가 문송면군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사태가 알려진 1988년 무렵부터였다. 산업의학 전공이 처음 생긴 게 불과 22년 전이었으니까. 내가 전공의였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의 산업의학 전공의를 다 합쳐도 50명이 채 안됐다. 우리 부모님도 한동안 계속 물어봤다. ‘네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심지어 같은 의사들 중에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다. 산부인과, 성형외과 하면 무슨 과인지 바로 알듯이 직업환경의학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요샌 가습기 살균제, 삼성 백혈병이 이슈가 되면서 ‘그런 사건의 원인을 찾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면 감을 잡으시더라. 한편으론 슬픈 일이다.<br/><br/>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일종의 ‘탐정’ 같은 역할을 한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시신과 차트만 보고 사망원인을 판단할 때 이들은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때론 진술해 줄 동료 노동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까지 내건다. <br/><br/>2014년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23살 젊은 하청노동자의 죽음도 류현철 전문의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돌연사로 묻혀버렸을 사건이었다. 청년은 태양이 작열하는 8월의 한낮,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곧 사망했다. 담당 의사는 사망원인으로 심근경색을 의심했다. 국과수 부검까지 거쳤지만 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나왔다. 오전까지도 멀쩡했던 20대 초반 청년의 급작스러운 죽음. 가족들은 그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br/><br/>류현철(이하 류) = 이런 경우 일단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측이 거부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시엔 다행히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들어가더라도 그때 그 시간이 아니면 의미 없는 경우도 많다. 내가 간 게 가을이었는데 실제 사건은 한여름에 일어났으니까.<br/><br/><br/>최민(이하 최) = 맞다. 막상 사업장에 들어가보면 미리 싹 청소해놓고, 평소 닫아놓던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켜놓고, 작업량을 그날만 잠깐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br/><br/>류 =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단서들을 놓고 조각난 퍼즐을 맞춰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고인이 했던 일을 확인해보니 선박 내부에서 철판을 물샐틈없이 용접하는 작업이었다. 한여름의 열기를 고스란히 품은 강철 구조물에 100~120도의 열을 가하고, 온갖 거추장스러운 보호구와 장비를 걸친 채로 몸을 쪼그리고 비틀어야만 하는 환경. 기상청에 그날, 그 시간의 기온을 체크했다. 사망 직전 간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응급실 소견서 등 실마리를 하나하나 맞춰본 결과 열사병을 의심하게 됐다. 결국 그 청년은 열사병으로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심에 먹은 라면이 기도를 역류해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산재로 인정이 됐다. <br/><br/>- 처음 간 병원에서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소견을 말하면 대부분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묻혀버리는 산재 사망이 많을 것 같다. 왜 응급실 의사도, 담당 의사도, 부검의도 그 청년의 진짜 사망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걸까. <br/><br/>류 = 부검의나 병원 의사가 의학적으로 틀린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다만, 그분들의 자리에서는 보이는 게 그만큼인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 지점이 있거든. 우리는 현장과 과정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못 보는 걸 찾을 수 있다. 요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은 건강검진만 하지 현장을 다니는 의사는 많지 않다. 자리에 앉아 반나절 만에 100~200명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의사들이 굴뚝에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데, 연기밖에 못 보게 되는 거다. <br/><br/>- 수없이 많은 직업병 환자들을 만났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다면. <br/><br/>류 = 지난해 70대 중반의 노인 한분이 지인 소개로 우리 센터에 찾아오셨다. ‘이것도 상담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었다.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산의 고무공장에 취업해 알뜰히 돈을 모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나중엔 그 공장을 인수하셨다. 그런데 50대 중반 무렵, 외환위기로 공장이 도산한 거다. 결국 60대에 다시 공장노동자가 됐고, 주물공장에서 쇳물을 부어 중자 만드는 일을 하셨다. <br/><br/>그런데 어느 겨울날, 공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거다. 동료 노동자가 떨어진 중자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정리하는 일을 그분이 다 하셨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며칠 쉬다가 다시 출근했는데, 일을 할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들더란 거야. 자기가 만든 중자에 맞아 동료가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 돈으로 절에서 고인의 천도재까지 지내주셨다고 했다. 그분 잘못도 아닌데. <br/><br/>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공장을 나오셨지만, 먹고 살려면 일을 안할 수가 없잖아. 다른 공장에 다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또 산재사고가 발생한 거다. 자기를 그 공장에 소개해 준 동료가 지게차에 깔려서 과다출혈로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공황장애가 생기셔서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산재 인정을 받으시긴 했다. <br/><br/>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다. 매해 2000여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그분은 1년 새 두번이나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거다.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안전 조치 없이 불안 불안하게 크레인, 지게차 일을 해야 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br/><br/>공유 = 내 경우엔 너무 많은 얼굴들이 떠올라서 기억에 남는 한분을 고르기 어려운데…. 일단 반올림 활동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보자면, 반올림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열차 기관사들이다. 2003~2004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기관사들과 함께 치료 모임을 한 적이 있다. 그 모임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만 했다.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하고 체격도 좋은 30대 중반의 남성들이었는데,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길을 못 다니시거든. 본인이 기관사면서 지하철도 무서워서 못 타고, 사고 뉴스를 보면 증세가 악화돼서 TV도 못 본다. 광장공포증 때문에 마트나 극장도 못 가고. <br/><br/>- 기관사들이 당장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이나 장시간 노동보다 사고 트라우마를 더 힘들어한다는 게 일반인들은 잘 짐작이 안 갈지도 모르겠다. <br/><br/>공유 = 그냥 언뜻 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철도 화물차를 얻어타고 가면서 기관사·부기관사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들 얘기가 밤에 시골길을 달리다가 ‘뭘 친 거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열차를 세운대. 그리고 어두컴컴한 시골길에 손전등만 들고 나가서 철도 아래, 양옆을 뒤지는 거다. 아무것도 안 보이길 바라면서. 보통 열차에 치인 사체는 옆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어서 수풀 속도 뒤지고. <br/><br/>뒤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지.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생각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대답이 뭐였는지 아나? ‘발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뒤진다는 거야. 저쪽에서 “여기 뭐가 있다”고 소리치면 서로 빨리 뛰어간대. 먼저 발을 잡으려고. 훼손된 시신 중 그나마 덜 끔찍한 게 발이니까. 얼굴을 보면 그 잔상이 잊혀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사체를 발견하면 사체 조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뒷자리에 태운 후 다음 정거장까지 간다는 거다. 어릴 때 공포영화 한편 본 것도 평생 각인되는데 그런 경험을 직접 겪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br/><br/><br/>이혜은(이하 이)= 나는 10년 전 전공의 시절, 한 수녀님의 제보로 알게 된 필리핀 이주 여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스티븐존슨증후군에 걸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독성 간염이 심해서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간 상태였다. 일하면서 유독물질을 다뤘다고 하더라. 교수님과 함께 사업장 주소만 달랑 들고 무작정 공장으로 찾아갔다. 옛날 폴더형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트리클로에틸렌(TCE)을 가득 부은 수조에 휴대폰 케이스를 흔들어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몽땅 이주 여성들이더라. 그분은 결국 얼마 안 가 임종하셨는데,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가 시신을 확인하고 임종을 지켜야 했다. 전신에 발진이 퍼져 이국만리에서 끔찍한 몰골로 돌아가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직업병 조사하는 기관에 취업해 평생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때의 기억 때문인 것 같다. <br/><br/>공유 = 나도 반올림 활동 하면서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종을 지킨 노동자만 세분이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분, 12년 동안 투병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피를 쏟아가며 죽어간 31살 노동자, 골수이식 치료받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분. 나는 투병 초기 그분들의 예쁘고 멋있었을 때 모습을 아는데,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혹한 거다. 세분 모두 살아생전 회사로부터도, 정부로부터도, “당신의 병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직업병입니다. 치료를 도와줄게요. 설령 잘못되더라도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될 테니 걱정마세요”라고 약속을 받기는커녕, 배신감과 죄책감, 비통함에 싸여 돌아가셨다. 시신이 누워있는 병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병실을 떠돌던 한, 그 옆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유족들.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나중에 나도 치료를 받으려 한다. <br/><br/><br/><br/>직업병이 사회적으로 유전 되는 사회 <br/><br/>- 일반 시민들은 ‘산재사고로 누가 사망했다’는 한 줄의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한 줄에 담긴 무게를 쉽게 가늠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 시신의 모습까지 가까이서 목격해야 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은 정신적 고통과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다. <br/><br/>류 = 산재 승인을 받아내면 그나마 덜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특히 그렇다. 조선소 열사병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처음에 “23살 청년이 작업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청년의 사진을 보고, 가족들이 보내준 카톡 캡처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니 나도 절박해지는 거다. <br/><br/>고인이 작업반장과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연차를 내고 쉬고 싶습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테 정말 미안하고 반장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반장이 ‘엿 먹어라 이기네?’라고 대꾸하자 그는 바로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답한다. 직영(원청) 추천을 받기 위해 온갖 것을 감내하면서도 자기가 쉬면 이주노동자 동료인 ○○○의 일이 많아질까봐 미안해하던 사람인데, 산재 승인을 못 받아내면 두고두고 그 휴대폰 문구가 떠오를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숱한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답답하다. <br/><br/>최 = 이런 사고가 특히 파견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계속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노동자들은 환기구가 고장나면 고장났다는 걸 바로 알고, 동료들이 하나둘 비슷하게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산재를 의심할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현장에 투입되는 파견 노동자들은 알 길이 없다. 파견 노동자끼리는 워낙 자주 바뀌니까 서로 이름도 잘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한다. 서너달은 일해야 말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누가 언제 왔는지, 누가 아팠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일한다. 아프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일 때가 많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비자를 연장해도 한국에서 10년 이상 일할 수 없다. 사실 알려지는 산재사고는 급성 독성사고 같은 극히 일부이지만,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10년 후 암에 걸리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옛날식, 재래형, 산업국가형, 60년대형 산재사고가 다시 21세기에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전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br/><br/>류 = 직업성 질환과 일반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 여부다. 투입 대비 예방 가능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유전적 질환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직업성 질환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 막을 수 있으니까. <br/><br/><br/>공유 = 근데 안하지. 왜냐면 한국에선 목숨값이 더 싸니까. <br/><br/>류 = 앞으로는 직업성 질환도 유전될 거 같다. ‘사회적 유전’ 말이다. 사회적 틀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식세대도 지금과 비슷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거고, 결국 직업성 질환이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사회적으로 유전되면서 진화해 나갈 거다. <br/><br/>- 그럼 지금의 사회적 틀을 바꾸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뭘까. <br/><br/>공유 = 한국만 이런가 싶어서 미국의 광산법 역사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역사가 18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광산 노동자가 1년에 2000명 넘게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그래서 그 후 10년 동안 매해 2000명씩, 다 합치면 2만명이 죽은 거다. 그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다 죽으면 사회가 뒤집어지고 특별법이 제정될 텐데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죽으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1977년에야 처음으로 광산안전보건법이 제정돼서 포괄적 대책을 만들고, 광산에 들어가서 현장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시작한다. 그다음부터 사망자가 285명으로 줄어들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죽지 않아도 됐을 수만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br/><br/>그걸 보면서 ‘한국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상한 위안을 받은 것과 동시에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실제로 가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조직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다. 법을 어긴 사업주가 처벌받지도 않고, 임상의사들은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파견 노동자들은 병 걸려도 이미 다 그 사업장을 떠나고 없고. <br/><br/>제 생각은 법 강화보다 먼저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주고, 조합원 2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병으로 아프다고 하면 노조가 산재 의심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다. 사람들이 작업환경 안전을 위해 뭘 바꿔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때마다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부터 풀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br/><br/>최 = 맞다. 산재 사고는 무조건 점수에 반영되니까 사고가 나면 사측이 ‘공상 해줄게 신고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노조 힘이 약해지면서 질병판정위원회 승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근골격계 같은 직업병은 ‘그래, 어디 한번 산재 가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 <br/><br/><br/>류 = 의학적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산재 여부를 판정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다.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게 단적인 예다. <br/><br/>공유 =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아직도 ‘간첩신고 112’ 스티커가 붙어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산재가 의심되면 ○○○’ 이런 식으로 딱 10년 만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런 캠페인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학교 급식실 노동자 전원이 5년 이상 ‘괴질’에 시달렸다. 식기세척기 당번을 하는 날이면 이상하게 눈이 아프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다. 처음엔 세척제 문제인가 싶어서 세척제를 바꾸고, 온도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나았다. <br/><br/>근데 우연찮게 우리 센터와 연결이 닿게 됐다. 면담을 시작했는데 한시간 만에 바로 감이 오더라고. ‘아, 이건 자외선으로 인한 증상이다!’ 현장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식기세척기 주변에 자외선이 없어. 이거 뭐지, 망했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바로 뒤에 곤충 잡는 램프가 보였다. 조사해 보니 거기 자외선 C램프가 붙어있었던 거다. 원래 곤충 잡는 건 A램프를 껴야 하는데 잘못 낀 거지. 이거 정말 연구사례다. 해외에서도 몇달이면 몰라도 몇년씩 자외선에 그렇게 노출된 경우가 없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진작 상담했으면 바로 1시간 만에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게 5년이 걸렸다. 그 급식조리원들은 자기들이 귀신들린 거 같다고, 굿을 해야 하나, 5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더라. <br/><br/>류 = 눈 아프고 피부 질환 생길 때마다 여러차례 병원도 가봤을 텐데 어느 의사도 산재 관련성을 조언하지 않았던 거네. 연고 바르란 말만 하고. <br/><br/>공유 = 일반 의사들도 직업병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환자에게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고, 퇴근한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직장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만도 하잖은가. 그럴 때 의사들이 직업환경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br/><br/><br/><br/>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하나<br/><br/>- 최근 들어 메탄올 실명사고부터 구의역 김군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해지기도 한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지 않나. <br/><br/>류 =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급박’이란 표현이 너무 축소해석되고 있다. ‘급박’을 단순히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로만 해석해선 안된다. ‘이 냄새를 계속 맡으면 10년 후에 암 걸릴 것 같아’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br/><br/>그런데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냐면, 작업거부권을 행사해 대피하면 사측이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건다. 재계는 이 법이 ‘남용’되면 실질적인 파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 그럼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다. 남용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자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해갈 것이냐, 아니면 남용이 무서우니까 ‘사람 몇명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죽으면 산재로 보상해주면 되지’하고 금지할 것이냐. 안전과 생명에 가치를 둔 사회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br/><br/>최 =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서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한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span class='quot0'>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하겠어요</span>”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span class='quot0'>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span>”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한 경우만 아니면,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이 폭넓게 보장된다. <br/><br/>-막상 산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들은 ‘우린 몰랐다’는 말만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삼성·LG 휴대폰 부품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다 메탄올에 중독돼 6명이 실명하거나 실명 위기에 빠졌는데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br/><br/>공유 = 자동차로 인명사고를 내놓고 ‘사람이 죽을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용서해주지 않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산재는 다른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다. <br/><br/>최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도 6명이 숨진 인재인데 현장 노동자만 구속되고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거다. 만날 ‘안전문화’ 강조하는데, 그 안전문화는 노동자 한명 한명이 조심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거다. 작은 사고는 노동자들이 조금 주의하면 줄일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캠페인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펜스도 없이 고공작업하는 노동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떨어질 수 있나. <br/><br/>원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도 산재율이 높으면 공개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산재 발생한 하청업체랑 계약을 안 맺는다. 그러고선 자기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홍보하는데, 사실 안전은 공정속도를 늦추거나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서 접근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원청이다. 근데 원청이 그런 건 손대지 않고 사고 없애라고 하청을 쥐어짜면 사고를 숨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다. <br/><br/>이 =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극단적인 케이스들도 많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도 산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마찬가지다. 많게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건강이 일터와 떨어질 수 없다.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 무력감을 느낀다. “콜레스테롤 높으니 운동 좀 하시고요”라고 말하면 “저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예요. 어떻게 운동을 해요”란 답이 돌아온다. <br/><br/>최 = 현장실습 고등학생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산재가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이 안전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나 안전해야 청소년도 안전한 거다. 예전에 나이 많은 진폐증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 아버지가 탄광 광부셨다. 진폐증 걸린 동료들을 많이 봐서 아들한테 “너는 절대 광부하지 마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광부 대신 석공일을 하셨는데 그분도 결국 진폐증에 걸리신 거다. 그런 걸 보면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다. 판사, 의사, 사무직, 누구든 일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같이 건강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 나도, 귀한 내 자식도 건강하게 일할 수 없다는 말이다.<br/><br/><br/><br/> <br/>온도계 공장 취업 후 두 달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문송면군<br/><br/>낮에 일하고 밤에는 야간중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고향인 충남 서산을 떠나 서울 영등포의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수은중독에 걸렸다. 공장은 치료를 거부했고 정부는 공장 편을 들며 산재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그의 사연은 언론에 보도됐고 야당 정치인들이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산재를 인정받은 지 사흘 만인 1988년 7월2일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됐다. <br/><br/><br/><br/>원진레이온 노동자 800명 ‘독가스’ 중독 사태<br/><br/>1988년 인조비단실을 만드는 국영기업 원진레이온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196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기계에서 나온 독가스를 마신 노동자는 800명이 넘었다. 피해자들은 똘똘 뭉쳐 싸웠고 공장은 5년 후 문을 닫았다. 노사 합의를 통해 피해자 배상은 물론 직업병 전문병원과 연구소가 생기는 등 원진레이온은 국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시발점이 됐다.<br/><br/><br/><br/>참혹한 산재로 희생된 산재 예방 활동가 49세 남현섭씨<br/><br/>한양대를 중퇴하고 산업 현장에 투신해 공장 일을 하다 25세이던 19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네 개를 잃었다. 이후 자신의 산재보상과 재활치료를 도운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서 15년 동안 산재노동자 권익운동을 했다. 뒤늦은 결혼으로 얻은 두 아이를 위해 다시 생업에 뛰어든 그는 2016년 3월 파쇄기에 상반신이 압착되는 사고로 49세를 일기로 숨졌다. 산재 예방 활동가마저 산재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그의 죽음이 증명한다.<br/><br/><br/><br/>삼성 반도체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22세 황유미씨<br/><br/>고교 3학년이던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3년 뒤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법원은 2011년 그의 죽음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아버지 황상기씨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을 상대로 10년째 싸우고 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결성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는 그동안 80여명의 또다른 삼성 직업병 사망 사례가 접수됐다.<br/><br/><br/><br/>에어컨 실외기 수리하다 추락사 한 하청업체 노동자 42세 진씨<br/><br/>2016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애프터서비스(AS) 기사 진모씨(42)는 빌라 3층에서 안전장치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다. 바로 전 해에도 안산에서 LG전자 AS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터였다. 동료들은 처리 건수만큼 돈을 받는 ‘건당 수수료’ 임금 체계와 위험한 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돌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석 달 뒤엔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오는 날 전신주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졌다.<br/><br/><br/><br/>지하철역에서 생을 마감한 19세 청년노동자 김군<br/><br/>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 김모씨(19)가 달려오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이었다. 2013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2인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하청업체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맺은 불리한 계약 탓에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등 사고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br/><br/><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58.txt

제목: ‘옻나무추출물’, 폐암 장기생존율에 기여  
날짜: 2017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7172454001  
ID: 01100101.201707071724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원로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보도된 후, 폐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폐암은 대체로 치료가 까다롭고 경과가 좋지 않은 암으로 피하고 싶은 질환 중 하나이다.<br/> <br/>지난 1998년부터 19년 째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 폐암이다. 다른 암에 비해 그 세포가 작아 이렇다 할 초기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도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가래 등이 대부분이라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이 어려운 3~4기에 발견되며, 이 경우 5년 생존율은 약 20%에 불과하다.<br/> <br/>이처럼 치료가 힘든 암 일수록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면역력에 좋은 음식섭취 등을 실천하면서 폐암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br/> <br/>한편, 폐암 환자 대부분은 수술이 힘들거나 수술 후 재발방지를 위해 항암치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구토, 오심, 탈모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br/> <br/>이러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폐암 환자들은 면역력과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재발 된 환자의 경우 항암제내성으로 인해 치료법과 치료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br/> <br/>이런 가운데 항암부작용을 극복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시켜주는 한방제제 옻나무추출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옻나무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성분들은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 여러 저널지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의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가 바로 옻나무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이다. 이는 '항암 활성 증진용 한약재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옻나무추출물 한약으로, SCI급 저널인 에 게재가 확정된 'Activation of caspases and inhibition of ribosome biogenesis mediate antitumor activity of Chijongdan in A549 non-mall lung cancer cells'라는 논문을 통해 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br/> <br/>폐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더불어 한방치료를 선택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남푸른숲한의원의 이중병행암관리법은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는 물론 높은 항암치료 효과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은 신생혈관 차단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와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은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이 만났을 때 치료 효과가 배로 증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59.txt

제목: 오십견 30대, 40대도 예외 아니다  
날짜: 2017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7133135001  
ID: 01100101.201707071331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어깨통증이 오면 제일 먼저 ‘오십견’을 떠올리곤 한다. 전체 어깨 환자의 5~20% 정도를 차지하는 오십견은 주로 50대에서 잘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30~40대에서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오십견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40대와 30대 이하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오십견은 특별한 외상없이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관절의 굳으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오는 질환이다. 정확한 의학용어로는 ‘동결견’ 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영상의학적 검사상 어깨 관절막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한쪽이 온 경우 20%에서 반대쪽에도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발생하는 원인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인 경우와 뚜렷한 원인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발성의 경우 알려진 선행 요인으로 주로 노화가 꼽히나,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뇨나 갑상선 질환, 암이나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나 담배, 약물 등도 연관성이 높다. 이차성인 경우에는 관절 내 병변이 있거나, 골절 등의 외상, 수술 후 장시간의 고정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br/> <br/>오십견이 발생하면 일상 생활에서 뿐 아니라 야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 되는 대표적인 증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 힘들고, 이후에는 팔을 앞으로 들기 힘들어하며, 세수나 머리 빗을 때, 옷입고 벗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된다.<br/><br/>오십견에 대한 흔한 생각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환자들은 단계를 거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동안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함께 어깨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br/> <br/>KS병원 양석훈 원장은 “<span class='quot0'>오십견은 진행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오십견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나 직업활동에 불편함을 크게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 및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 고 고 말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60.txt

제목: 국내 항암치료 선구자 김노경 서울대 교수 별세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4213556001  
ID: 01100101.201707042135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항암치료의 선구자였던 김노경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7세.<br/><br/>김 명예교수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 외에 암 치료법이 없던 1970년대부터 약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특히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국내 1호 항암신약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br/><br/>그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1996년), 국립암센터 이사장(2004∼2006년)을 맡으면서 암 정복을 위한 국가계획에 참여해 한국인 암환자 5년 생존율을 70%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모란장(1988년)과 옥조근정훈장(2005년) 등을 수상했다. <br/><br/>서울대병원에서 내과 교수, 교육연구부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1986~1988년에는 대통령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한경희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6일 오전 7시. (02)2072-2011

언론사: 경향신문-2-261.txt

제목: [부음] 항암치료 세계적 권위자, 김노경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날짜: 2017070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4144657002  
ID: 01100101.201707041446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항암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노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혈약종양내과)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8세.<br/><br/>고인은 수술과 방사선치료 외에는 암 치료법이 거의 없던 1970년대에 약물로도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항암요법을 국내에 도입해 암 치료의 신기원을 연 주인공이다.<br/><br/>국내 1호 항암신약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후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임상시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과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맡아 암 정복을 위한 국가계획에 참여했다.<br/><br/>“<span class='quot0'>우리나라 종양내과의 창시자이신 김노경 선생님은 진료와 연구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셨고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신 교육자이셨으며 영국신사와 같은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에 따뜻하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었다.</span>”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예방의학)은 김노경 교수를 이렇게 추모했다.<br/><br/>1940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4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서울대병원 내과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1986~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다.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내과학연구지원재단 이사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등을 맡았다. 1988년 국민훈장모란장, 2005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한경희 여사와 아들 김지수, 며느리 김자영, 딸 김지연, 사위 김범준 씨가 있다. 의학자이자 교육자로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한심석 전 서울대 총장(작고)의 사위이다.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정룡 교수(작고)와는 동서 사이다.<br/><br/>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02-2072-2011)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 오전 9시, 장지는 곤지암 소망동산이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2.txt

제목: 144번째 도전 끝에 부른 ‘사부곡’  
날짜: 20170703  
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3210747001  
ID: 01100101.20170703210747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ㆍ대니얼 강,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생애 첫 우승<br/><br/><br/><br/>“<span class='quot0'>아빠가 우승 장면을 보셨더라면….</span>”<br/><br/>재미동포 대니얼 강(25)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 필즈CC 북코스(파71·658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1타차 우승을 차지한 뒤 어머니(그레이스 리)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 4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녀의 뜨거운 눈물이었다.<br/><br/>그의 아버지 강계성씨는 2013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15살이던 2007년 US여자오픈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재능을 보인 대니얼 강의 캐디백을 메고 2010·2011년 US여자 아마추어 선수권 우승의 기쁨을 함께했던 아버지는 딸이 LPGA 2년차이던 2013년 여름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br/><br/>대니얼 강은 기대와 달리 프로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다. 데뷔 첫해 딱 한 번 3위를 한 것을 제외하곤 지난해까지는 10위 안에 든 적도 없었다. 올 들어 4번 톱10에 들며 상승세를 타던 그는 데뷔 후 6년, 아마추어 시절을 포함해 144번째 LPGA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하는 감격을 누렸다. 우승상금은 52만5000달러(약 6억원).<br/><br/><br/><br/>대니얼 강은 우승 인터뷰에서 “우승이 늦었다고 아쉬운 것은 없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아빠가 이 장면을 보지 못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는 선수가 얼마나 되는가”라며 “이건 분명히 아빠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강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투 온에 성공한 뒤 투 퍼트로 버디를 낚아 디펜딩 챔피언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1타 차로 따돌렸다. 1m 남짓한 우승퍼트를 하는 순간 대니얼 강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영혼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br/><br/>“마지막 퍼트 때는 떨리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가 전에 US여자 아마추어에서 우승할 때 1m 퍼트를 앞두고 ‘이걸 성공시키면 TV를 사줄게’라고 하신 말이 떠올랐다.”<br/><br/>강계성씨는 대니얼 강과 오빠 알렉스 강을 골퍼로 키웠다. 알렉스 강은 현재 미국프로골프(PGA) 2부인 웹닷컴 투어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대니얼 강은 이번 대회 내내 스마트폰으로 코스 사진을 보내며 오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됐다. 199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대니얼 강은 4살 때까지 부산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닌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효림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했다.<br/><br/>일간 USA투데이는 대니얼 강이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너가 되라’는 부모의 조언에 따라 17살 때 오른손 검지에 ‘just be’라는 문신을 새겼고, 부친상 이후인 2014년에는 오른쪽 손등 측면에 ‘아빠’라는 한글 문신을 한 사연을 전했다. 대니얼 강은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한편 아버지 캐디와 함께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했던 최운정(27)은 10언더파 274타로 3위에 올랐고 김세영(24)과 양희영(28), 이미향(24) 등이 9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br/><br/><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3.txt

제목: [금지를 금지하라](7)‘낯선 것’을 마주하기보다 격리·감금해온 사회, 정상적일까  
날짜: 20170702  
기자: 김성환 | 문화연구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2221124001  
ID: 01100101.2017070222112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정신병에 대한 편견<br/><br/><br/><br/>작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조현병 병력이 살인의 기원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인천 여아 살인사건에도 어김없이 아스퍼거증후군이란 진단이 뒤따랐다. 피의자가 정신병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를 만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br/><br/>정신병력이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병을 들춤으로써 정신병은 곧 범죄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선고가 내려진 낙성대 살인미수사건도 그렇다.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꾸던 이가 좌절 끝에 조현병에 걸려 행려병자로 지내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완성되면 정신병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정신병 환자는 괴물이 된다.<br/><br/>그래서 정신병, 정신병자라는 말은 매우 모욕적이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쓸 경우 욕을 했을 때와 비슷한 격한 반응을 돌려받을 게 분명하다. 굳이 써야 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정도로 에둘러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례이다.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바꿔 부른다고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이란 감기 같은 것, 즉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느 질병처럼 정신병을 다양한 범주로 나눠 진단하고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해도 정신병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기 그 자체가 비난을 받거나 감기 환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지만 정신병은 언급조차 안될 만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br/><br/>수전 손택은 질병을 사회적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은유라고 말했다(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예컨대 암이나 에이즈 등은 의학적 병증을 넘어 윤리적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정신병은 이런 은유로 해석될 여지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왔다.<br/><br/>정신병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정신병 환자의 격리를 정당화하는 편리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신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며, 반인륜적 범죄자들이 죄다 정신병 환자인 것도 아니다. 멀쩡한 정신에 저지른 살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정신병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면 이는 정신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br/><br/><br/><br/>■ 질병과 신화 사이에 놓인 정신병<br/><br/>정신병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판단과 대중적 인식은 시대가 만든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정신병의 규정과 치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지금 우리가 믿는 정신의학은 시대의 여러 구조들이 중층적으로 겹쳐진 결과이다. 미셸 푸코를 위시한 계보학적 문화사 연구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정신병의 풍경을 세밀하게 보여준 바 있다. 푸코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정신병 환자는 르네상스 때까지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대감금 시대’인 17세기에 들어 비정상으로 몰려 이내 병원이라는 이름의 감호소에 감금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텅 빈 수용소가 정신병 환자를 만들어냈다고 할 만큼 의학의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그 변화는 20세기 들어 더 극적이었는데, 정신병에도 짧은 주기로 유행이 생길 만큼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다중인격장애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 유행처럼 급증했지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자 정신병 통계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줍음의 다른 이름인 사회공포증 같은 새로운 증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앨런 프랜시스,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br/><br/>이런 상황을 보건대 정신병을 다루는 의학적, 과학적 태도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br/><br/>새로운 병증이 수시로 생겨나는 요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정신병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신병은 의학의 발명품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되며, 해석을 기다리는 문화현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된다. 앨런 프랜시스는 정신병을 ‘지속적인 불편을 가져오는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정신병은 질병과 신화의 중간쯤에 놓인 셈인데, 무엇보다 정신병 진단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신병의 증상이 존재한다면 당사자의 고통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며, 정신병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고통의 실체를 더 교묘히 은폐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정신분열에 가까이 근접한 이들이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세금과 같은 존재’(나카이 히사오, <분열병과 인류>)라는 해석은 문화인류학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정신병의 현실과는 무관하다. 정신병을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라도 정신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br/><br/><br/><br/>■ 낯선 정신병과 친숙한 이야기들<br/><br/>정신병을 둘러싼 임의적인 해석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정신병은 계속 은폐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다. 오래지 않은 과거엔 광인, 혹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불린 이들이 동네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보통의 일상과 겹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에게도 삶의 가치가 엄연히 존재했을 테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문학이나 영화에서도 그들에게 무관심했다. 사이코패스, 다중인격이 단골 소재로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시계태엽 오렌지> 등 몇몇 작품만이 정신병에 주목했다. 한국 문학에서도 정신병은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 정신병동의 실상을 상세하게 묘사한 정유정의 <내 심장을 쏴라>나, 편도체 이상이라는 장애를 소재로 삼은 손원평의 <아몬드>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두 작품 모두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판단에 대해 회의를 던지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괴물로 낙인찍히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 묻는다.<br/><br/>그렇지만 이 작품들이 정신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내 심장을 쏴라>를 읽다보면 주인공이 탈출에 성공하기를 가슴 졸이며 응원하지만 그 심정이 정신병을 향한 사회적 공포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환청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완치될 때까지 ‘환자’일 수밖에 없다. <아몬드>에서 ‘귀여운 괴물’이라는 말로 애틋함을 표한다 해도, 소년이 우연히 태어난 괴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비정상을 바로잡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정상성의 논리는 소설의 근저에서 여전히 작동한다. <아몬드>가 뇌기능 장애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한 소년의 성장 서사로 갈무리된 것은 그 영향처럼 보인다. 여기에 감상적인 심성이 겹쳐지더라도 정신의학의 놀라운 과단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외수의 <꿈꾸는 식물>에서 포악한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를 여의고 광인이 되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은 깊은 동정과 공감을 자아내지만, 거기서 정신병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을 찾는 것은 무리다. <br/><br/><br/><br/>■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신병을 격리하다<br/><br/>권력의 층위에서 정신병은 줄곧 반사회적 현상으로 매도되고, 심지어 우생학적 처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신병을 비롯한 온갖 ‘비정상’들은 법률로써 격리되기 시작했다. 1973년 시행된 모자보건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은 비정상적인 존재,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증세가 있는 이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기획을 내포했다. 대통령이 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강제 불임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강제 불임시술 명령은 1975년 보호시설의 여성 9명에게 처음 내려졌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우수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강제 불임은 당연한 조치”(경향신문 1975년 3월12일)라거나 “본인에게도 다행”(경향신문 1975년 7월2일)이라고 대응한 고위관리의 발언은 서구의 ‘대감금 시대’나 나치의 우생학을 연상케 한다. 범죄 소탕과 더불어 불순분자, 정신분열 환자에 의한 난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질서와 안녕을 지키겠다는 관계 장관의 업무보고는 철마다 등장한다. 정신분열증 범죄의 특징이 살인, 방화와 함께 반복적 절도, 매춘(경향신문 1976년 1월28일)이라니 권력이 요구하는 올바름이 아니라면 모두 정신병자요 범죄자다. ‘대감금 시대’ 수용소에 감금된 이들 대부분이 극빈자나 행색이 이상한 자, 혹은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기록을 떠올리면 우리의 국가정책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br/><br/>이런 사정들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찬드라 구마리 구릉. 음식값을 치르지 못해 경찰에 넘겨진 뒤 행색이 초라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7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가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의 이름이다. 찬드라의 삶을 모질게 파괴한 폭력은 여럿인데, 정신병의 격리를 정당화한 정신의학과 이를 법과 제도의 틀로 강제한 국가권력을 맨 먼저 꼽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병 낙인찍기에 동조했거나 반성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일반화된 사고 또한 빼놓으면 안된다. 돈을 내지 못했으니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한 것일까. 정신병원에 끌려가기까지 누구 하나 찬드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다.<br/><br/>최근의 변화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사람이 풀려날 예정이다. 우려도 적지 않은 줄 안다. 위험한 정신병자들을 내보내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런 우려는 합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퇴원 이후에도 ‘관찰’과 ‘보호’는 그대로이니 감금의 형태가 느슨해졌을 뿐, 정신병에 대한 공포와 격리의 메커니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지를 걱정해야 한다.<br/><br/><br/><br/>■ 광기와 더불어 살기<br/><br/>정신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정신병에 대해 더 많이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앨런 프랜시스는 진단의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검토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라고 권한다. 의사와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병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심장을 쏴라> <아몬드>에서 주인공의 생활공간이 낡은 서가였다는 설정은 정신병 환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br/><br/>주인공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독자에게 이해를 요구했던 것이다. 정신병은 이처럼 스스로 말할 때 병증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 맺기로 나아간다. <br/><br/>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만나본 ‘광인’들이 원한 것은 말할 상대였던 것 같다. 그들의 정신적 고통은 명백했다. 시공을 넘나드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언어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긴 대화 끝에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은 더 이상 광기의 언어가 아니었다.<br/><br/>정신병의 고통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 그 고통은 낯설어 보이기에 두렵다. 그러나 그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우리 삶에서 분리한다면,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정신병은 범죄의 멍에를 쓴다. 정신병은 실체이지만 괴물의 이미지는 분명 권력이 만든 공포의 산물이다. 그 공포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침묵을 멈추고 비정상과 정신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광기와 더불어 살 때 우리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br/><br/> <br/><br/> ■필자 김성환<br/><br/>한국 현대소설을 전공했으며, 비교문화학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현상 속에서 현재 우리 삶의 기원과 미래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1960~70년대 노동과 소비의 주체화 연구’ 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 <1970 박정희 모더니즘> 등이 있다.<br/><br/><경향신문·인문학협동조합 공동기획><br/><br/><김성환 | 문화연구자>

언론사: 경향신문-2-264.txt

제목: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공동성명’  
날짜: 20170701  
기자: 워싱턴|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701095146001  
ID: 01100101.20170701095146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결과문서인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br/><br/>‘한·미 동맹 강화’,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등 6개 합의 항목이 담긴 이 문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 한·미 관계를 좌우할 밑그림이다. <br/><br/>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 핵 동결에 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br/><br/>아래는 한·미 공동성명 전문.<br/><br/><br/><br/><br/><한·미 공동성명>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br/><br/><br/><br/>#한·미 동맹 강화<br/><br/>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br/><br/>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br/><br/><br/><br/>#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r/><br/>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br/><br/>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br/><br/>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br/><br/>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br/><br/><br/><br/>#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br/><br/>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br/><br/><br/><br/>#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br/><br/>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br/><br/><br/><br/>#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br/><br/>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br/><br/><br/><br/>#동맹의 미래 <br/><br/>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br/><br/>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br/><br/><br/><br/>/끝<br/><br/><워싱턴|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5.txt

제목: 국내 남성 위협하는 대장암·위암, 면역암치료로 재발 및 전이 막는다  
날짜: 2017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30175521001  
ID: 01100101.201706301755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민국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암 질환에 더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40~50대 남성들의 경우 잦은 회식과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상태지만 바쁜 업무 속에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br/> <br/>게다가 암 발병에 가장 치명적인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남성들은 암에 시름 중이다. 국내 남성 암발병률 1~2위를 차지하는 암이 대장암과 위암이라는 사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이 건강관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방증한다.<br/> <br/>문제는 대장암과 위암 모두 발병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초기에 진단하기 쉽지않다는 점이다. 몸에 이상이 발견돼도 국내 남성들의 경우 단순 피곤함과 소화불량 정도로 치부한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 병원을 찾지만 이때는 이미 3~4기로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라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br/> <br/>두 암의 생존율을 살펴봐도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장암과 위암 모두 1기에는 생존율이 90%에 달하지만 4기에는 5~10%로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br/> <br/>이에 국내 40대 이상의 남성의 경우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br/>한편 위암과 대장암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위암과 대장암 환자는 재발로 인해 절반 정도가 생명을 잃는다. 암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면 초기에라도 암을 발견해 재발 위험성을 줄이는 치료가 필요한 셈이다.<br/> <br/>초기발견에 실패한 위암과 대장암은 수술이 힘들어 항암치료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항암제의 강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br/> <br/>또한 항암치료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는 점점 떨어지며 환자의 기력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 치료법과 치료제가 제한적이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장암, 위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위해서는 면역체계를 높여주는 면역암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새로운 암 면역치료로 관심이 집중되는 병의원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면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근본적으로 암 발생을 막는 치료를 시행 중이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면역암치료는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해준다"며 "물론 면역암치료만으로 완치는 어렵다. 이때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특히 이 치료법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이 눈길을 끈다. 이 한방제제는 다양한 성분들이 위암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266.txt

제목: [2017 경향포럼]“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면 혁명이 아니다”  
날짜: 20170628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8222638001  
ID: 01100101.20170628222638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ㆍ 데이터과학이 가져올 새 세상 <br/>ㆍD J 파틸 전 미국 최고데이터과학자<br/><br/><br/>“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면 그것은 급진적인 것도 혁명적인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사람이 우선돼야 합니다.”<br/><br/>2015년 2월 미국 백악관 최초의 ‘최고데이터과학자’로 지명된 D J 파틸은 “기술보다 사람”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br/><br/>파틸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향포럼 ‘4차 산업혁명-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에 참석해 데이터과학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강연했다. 파틸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 정부 최초의 ‘최고데이터과학자’로 지명돼 기후변화, 의료보험, 국가안보 등의 정책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정립하고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이베이, 링크드인, 페이팔, 스카이프 등의 기업에서 최고데이터과학자를 역임했다.<br/><br/>미국 정부는 2012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정책적으로 챙겨왔다. 18개 연방정부기관이 참여한 ‘국가 연구개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정책 전반에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에 최고데이터과학자를 두고 국가 빅데이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데이터의 힘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한국형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수학 박사 출신으로 데이터과학의 선두주자인 파틸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우리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기술혁명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0'>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물인터넷,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이 앞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span>”이라고 진단했다. 파틸은 “<span class='quot0'>모든 사람이 기술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면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분야별로 막혀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예를 들면 경찰 데이터를 공론화하거나, 혹은 의료와 사법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서 출동할 만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곧장 구치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기관리 시설이나 치료시설로 향할 수 있게 된다. 파틸은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공유만으로 구치소 하나를 폐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1000만달러 상당)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br/><br/>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대중들을 토론의 장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정밀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과학을 접목해 솔루션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암 정복이 인류의 달 착륙에 비견된다는 의미에서 ‘문샷(Moonshot)’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본격 추진했다. 미국 내 주요 암 전문병원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암 환자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 환자 맞춤형 항암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각지에 산재한 병원들의 데이터를 한데 끌어모아 더 나은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br/><br/>막대한 데이터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면서 기술 윤리나 사생활 보호와 같은 문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br/><br/>파틸은 “<span class='quot0'>각종 사이버 공격이나 러시아의 미국 선거개입 이슈 등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술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기술이 인간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나의 3대 원칙은 사람이 언제나 데이터에 우선한다는 것, 데이터는 사람들이 가진 힘을 승수처럼 급격히 쌓아 올려줄 것, 그것을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span>”이라고 말하면서 “<span class='quot0'>데이터과학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span>”며 강연을 마무리했다.<br/><br/><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7.txt

제목: 현대차 미국법인 ‘소아암 기금’ 20주년…미 지도층 인사들 “암 퇴치 활동에 감사”  
날짜: 20170628  
기자: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8221614001  
ID: 01100101.20170628221614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ㆍ‘호프 온 휠스’ 성과 설명회 성황<br/><br/><br/>20년 동안 미국 소아암 환자 치료를 지원해온 현대자동차가 미국 지도층 인사와 환자들로부터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달받았다.<br/><br/>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27일(현지시간) 소아암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바퀴에 희망을 싣고)’ 운영 20주년을 맞아 미국 여야 의원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에게 프로그램 취지와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행사를 열었다.<br/><br/>워싱턴 현지 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과 현대차 딜러 출신인 마이크 켈리, 데이나 로라바커(이상 공화당), 테리 스웰, 주디 추(이상 민주당) 하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전·현직 정·관계 인사, 소아암 병원 관계자,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br/><br/>현대차는 1998년부터 호프 온 휠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미국 현지 현대차 딜러들이 신차를 판매할 때 대당 14달러를 적립하고, 현대차 미국 법인이 기부금을 추가해 소아암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호프 온 휠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소아암 관련 민간기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br/><br/>올해에만 68개 소아암 치료 연구 프로젝트에 1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연말까지 20년간 누적 기부금이 1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총 163곳의 소아암 병원과 연구 기관이 기금을 지원받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현대차는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 있는 의료기관 5곳과 소아암 치료 연구자들을 초청해 기부금 100만달러를 전달했다.<br/><br/>이 밖에 소아암 연구 지원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선 마라톤 대회 같은 이벤트도 열고 있다. <br/><br/>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span class='quot0'>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가 기업시민으로서 운영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행사에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현대차의 소아암 퇴치 활동에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해왔다</span>”고 말했다.<br/><br/><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8.txt

제목: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다음달 13일부터 289편 상영  
날짜: 20170625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5211007001  
ID: 01100101.20170625211007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개막작에 한국영화 ‘7호실’…고 홍기선 감독 유작 첫 공개<br/><br/><br/><br/>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청 및 영화관 일대에서 7월13~23일 열린다.<br/><br/>58개국 289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제작자인 최용배 집행위원장 체제로 일신한 뒤 열리는 두번째 행사다. 해당 지자체장이 조직위원장을 겸하는 한국 영화제들의 관행에서 탈피해 지난해 처음으로 정지영 감독이 조직위원장이 되기도 했다.<br/><br/>2012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이용승 감독의 <7호실>이다. 쇠락한 DVD방을 운영 중인 남자 두식(신하균)과 아르바이트생 태정(도경수)이 ‘7호실’에 각자의 비밀을 숨긴 뒤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span class='quot0'>신자유주의 시대의 약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스릴러와 액션을 가미한 블랙코미디로 풀어냈다</span>”는 평이다. 폐막작은 일본영화 <은혼>(감독 후쿠다 유이치)이다. 일본의 인기 개그만화가 원작으로, 사무라이 활극, SF, 만담 등을 오가는 코미디다.<br/><br/>올해도 전 세계 장르 영화를 마니아용의 ‘레드’와 초심자용의 ‘블루’로 나누어 상영하는 ‘월드 판타스틱’ 부문이 눈에 띈다. 레드 부문에는 유혈낭자한 액션, 무시무시한 호러, 숨막히는 스릴러 영화들이 다수 포진됐다. 암에 걸린 중년 샐러리맨이 몸에 외계생명체를 받아들이면서 회생한다는 내용의 <미트볼 머신: 고토쿠>(감독 니시무라 요시히로), 강렬한 록음악과 함께 70년대 호러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는 <싸이코패스>(감독 미키 키팅), 채식주의자 여성이 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한 뒤 겪는 일들을 그린 <로우>(감독 줄리아 뒤쿠르노) 등이 상영된다.<br/><br/>상대적으로 온화한 블루 부문에는 히치콕의 전설적인 영화 <싸이코>의 샤워장면을 분석한 <78/52>(감독 알렉산더 오 필립),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감독 미키 다카히로) 등을 볼 수 있다. 금기에 도전하는 가장 극단적인 영화들은 ‘금지구역’ 부문에 모여 있다. <항문남녀>(감독 피터 백), <빌로우 허 마우스>(감독 에이프릴 뮬렌), <동정의 밤>(감독 로베르토 산 세바스티앙), <쿠소>(감독 플라잉 로터스) 등이 상영된다.<br/><br/>특별전의 주인공은 스크린 데뷔작 <접속>(1997) 이후 20년간 한국영화계의 핵심 여배우로 활동했던 전도연, 스페인 장르 영화의 마스터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홍기선 감독이다. 특히 80년대 독립영화 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홍기선 감독의 <수리세> <파랑새> 등 8㎜로 촬영된 다큐멘터리가 디지털 리마스터링돼 공개된다. 홍 감독이 작고 3일 전 촬영을 마친 유작 <일급기밀>도 처음 공개된다.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 부문에선 문화계 뜨거운 화두인 페미니즘과 관련해 살펴볼 만한 영화들이 상영된다. <더 빨리, 푸시캣! 죽여! 죽여!>(감독 러스 메이어), <이어도>(감독 김기영), <글로리아>(감독 존 카사베츠), <오디션>(감독 미이케 다카시)같이 ‘악녀’가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br/><br/>개·폐막식은 27일부터, 일반상영은 29일부터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영화제 홈페이지(www.bifan.kr) 참고.<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69.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7년 6월 26일  
날짜: 2017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5200644001  
ID: 01100101.201706252006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 영화 ■ 꾸뻬씨의 행복여행(씨네프 오후 5시25분) =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헥터는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헥터는 모든 걸 제쳐두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갑부, 죽음을 앞에 둔 말기암 환자 등 헥터는 여행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행복수첩’에 적으며 행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br/><br/>■ 교양 ■ 리틀빅 히어로(tvN 오후 7시20분) =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무료 영어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강사 박기범씨를 소개한다. 국내 유명 어학원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그는 돌연 학원을 그만두고 무료 영어 강의를 시작했다. 2011년부터 ‘한마디로닷컴’이라는 영어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무료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언론사: 경향신문-2-270.txt

제목: 흡연자 사망원인 1위 폐암, 후두암…한방암치료가 뜬다  
날짜: 2017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3175636001  
ID: 01100101.201706231756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흡연자인 성인 사망위험이 가장 높은 암 질병은 후두암과 폐암으로 조사됐다. 보통 흡연을 하게 되면 폐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폐암 외에도 흡연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암이 바로 후두암이다. 흡연과 더불어 과음 등 음주도 후두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r/> <br/>폐암과 후두암은 국내 흡연자 중에서도 사망률 1위로 생존율이 낮은 암 질환으로 꼽힐 정도로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 또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기 힘들어 실제 암 진단 시, 환자의 2/3 정도는 수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속하며, 수술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상태로 진단된다.<br/> <br/>이처럼 치료가 힘든 암 일수록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이며,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br/> <br/>한편 폐암과 후두암 모두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후두암 초기에 해당하는 1기와 2기에는 방사선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3기 이후에는 수술요법 또는 수술과 방사선요법을 병용하게 된다.<br/> <br/>반면 폐암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진행하여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 구토, 오심, 탈모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항암부작용으로 인해 폐암 환자들은 면역력과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항암내성으로 인해 치료법과 치료제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재발암의 경우 항암제 내성으로 인한 치료제 사용이 제한되어 치료가 어렵고, 그만큼 생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br/> <br/>이에 최근 환자의 면역력 증강을 통해 암과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길러주는 한방 면역암치료가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br/> <br/>환자들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한방치료를 선택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br/> <br/>이와 관련해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통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br/> <br/>이중병행암관리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는 물론 높은 항암치료 효과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신생혈관 차단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와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폐암과 후두암 모두 초기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므로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71.txt

제목: 제6회 광동 암학술상, 김정선 이혁 임명철 교수 수상  
날짜: 2017062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2105420001  
ID: 01100101.20170622105420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혁 교수,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임명철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제6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상한다고 22일 밝혔다.<br/><br/>광동 암학술상은 2016년 동안 국제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기초와 임상 부문의 책임저자와 다수 논문을 게재한 책임연구자들이 받게 된다.<br/><br/>광동제약 측은 “<span class='quot0'>광동 암학술상은 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의학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내 암 연구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활동 등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 상은 지난 2012년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공동 제정했다. 대한암학회 이사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 태평양 암학회 및 제43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정기총회 석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2.txt

제목: 홍삼은 억울하다?  
날짜: 20170622  
기자: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2104659001  
ID: 01100101.2017062210465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자료를 보면, 홍삼이 6943억원 어치를 생산해 전체 생산액(1조8230억원)의 38.1%(6943억원)를 차지했다. 홍삼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식품인 것이다. <br/><br/>홍삼하면 떠오르는 것은 “몸에 좋다”이다. 홍삼의 원료인 인삼의 학명이 ‘만병통치(Panax)’인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게다. 하지만 이런 홍삼도 ‘억울한’ 오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span class='quot0'>열이 많은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안된다</span>”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복용하면 암도 키운다</span>” 등이다. 홍삼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는지 또 그 진실은 무엇인지를 고려삼의 전통을 이어가는 KGC인삼공사를 통해 알아봤다. <br/><br/> <br/><br/><br/><br/><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3.txt

제목: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차세대 유전자 분석 통한 정밀 암치료 시대 오고 있다"  
날짜: 2017062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2101315001  
ID: 01100101.20170622101315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대한항암요법연구회, ASCO 최신 임상결과 발표<br/><br/>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강진형, www.kcsg.org)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ASCO에서 주목받고 향후 국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NGS 기반 맞춤형 암치료’와 ‘표적치료제의 재조명’ 두 가지이다.<br/><br/>강진형 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은 “<span class='quot0'>2017 ASCO는 ‘암 치료의 변화를 가져오다’ 주제로 전 세계 3만명이 넘는 종양내과 전문의가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2150개 이상의 초록이, 온라인에서는 2890여개의 초록이 발표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span>”고 말했다.<br/><br/>손주혁 홍보위원장(연세대 의대 종양내과)은 “<span class='quot1'>NGS는 올해 국내에서 선별 급여가 돼 이번 ASCO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으며, 표적항암제는 ASCO 4개 전체 세션 중에서 2개가 표적치료제 임상에 관한 것이어서 재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첫번째 발표에서 경희대병원 맹치훈 교수(종양혈액내과)는 “<span class='quot2'>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맞춤 정밀의료는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는 세계적인 추세</span>”라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의료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 이에 따른 비용 감소 등에 따라 개인 맞춤 암 치료 시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r/><br/>NGS 검사는 환자의 종양 조직 및 혈액을 분석해 수 십에서 수 백개의 유전자를 확인, 암을 유발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찾는 진단기술이다. 암 치료에 관련된 표적을 찾는데 있어서 NGS 검사가 활용되기 전보다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국내에서 올해 3월부터 선별적으로 급여를 받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지원하에 약 6000명의 환자가 등록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r/><br/>맹 교수는 “<span class='quot3'>NGS가 각광받는 것에 비해 그 결과가 맞춤치료 선택에 실제 활용되는 비율은 적은 것이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3'>NGS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양한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두번째 발표인 ‘표적치료제의 재조명’에서 서울백병원 김정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BRCA1/BRCA2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 설명하고, BRCA1/BRCA2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와 전림선(샘)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표적치료제 ‘올라파립’의 임상을 소개했다. 또한 새로 진단된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표준요법인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여기에 아비라테론/프레드니손을 추가한 요법을 비교하는 임상연구 결과도 발표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4.txt

제목: NK뷰키트 활용한 NK세포치료, 면역력 강화-각종 암치료에 도움  
날짜: 2017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1104821002  
ID: 01100101.20170621104821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오랫동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이름 그대로 워낙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코나 구강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쌓여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br/><br/>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역성질환인 아토피나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폐암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만성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면역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br/><br/>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능동적으로 찾아 자멸사 또는 괴사를 유도하는 세포로,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NK면역세포의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NK면역세포의 수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br/><br/>실제로 5대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살펴보면 정상인의 1/3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 면역세포수 역시 30대에 100%였다면 60대에는 6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br/><br/>본격적인 면역력 치료에 앞서 대표적인 NK세포 활성도 측정 방법인 ‘NK뷰키트’(세포활성도 검사)를 활용해 혈액 속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면역력을 수치화하게 된다. 검사 후 NK세포가 부족하다면 NK면역세포 활성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br/><br/>NK면역세포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치료를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혈액에서 NK세포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혈액에서 분리한 NK세포는 2주간 배양하며 최대 2,000배까지 증식하게 된다. 이 후 배양시킨 NK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된다.<br/><br/>반에이치클리닉 이재철 원장은 “<span class='quot0'>NK세포의 활성화는 암진단의 역할을 강화해주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암세포 공격 능력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극대화 하는데 효과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NK뷰키트는 적은 비용으로 NK세포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치료병원에서는 항암치료 전후 면역력이 매우 낮은 환자에게는 NK세포치료를 권장하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75.txt

제목: 보험사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료 인하’  
날짜: 20170620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0173152001  
ID: 01100101.20170620173152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ㆍ업계 “근본 원인인 과잉진료부터 손대야”…국정위, 결론 못 내<br/><br/>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자 보험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근본적 원인인 비급여 항목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를 손대지 않고 보험사만 탓하는 건 무리란 것이다.<br/><br/>국정기획위는 이전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r/><br/>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료 인하 필요성의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들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2013년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2013~2017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손보험료는 매년 인상돼 왔으며 24개 보험사 상품의 올해 평균 인상률은 17%에 달한다.<br/><br/>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급여 항목 전환은 이미 보험료를 계산할 때 반영됐으며 손해율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반사이익을 보기는 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조정된 부분은 매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손보험료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 관리되지 않으면서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게 더 큰 문제</span>”라고 말했다. <br/><br/>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수익률을 따지는 지표는 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나간 보험금 비율로 100%가 넘으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109.9%이며 한화손보는 149.7%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당국에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체계를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당국은 손해율 통계를 세밀하게 공개하거나 과잉진료를 막도록 비급여 관리 체계 손질 등을 제안하고 있다.<br/><br/>하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인하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미뤄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span class='quot1'>금융당국, 업계와 논의해 매듭이 지어지면 발표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6.txt

제목: 뉴프라이드 미국 주정부 이어 라스베이거스 시정부 승인  
날짜: 2017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0171912001  
ID: 01100101.20170620171912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가 지난 5월, 미국 주정부에 이어 라스베이거스 시정부 승인을 최종 획득했다고 밝혔다. <br/><br/>뉴프라이드는 “<span class='quot0'>이미 재배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허가와 동시에 재배가 가능하다</span>”고 발표했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네바다 주에서 기호용 대마 관련법 제정 이전까지 대마 사업에 대해 최소 18개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 <br/><br/>이에 미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 내 대마초 관련 시장의 매출이 현재 약 65억 달러 (약 7조3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300억 달러 (약 33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br/><br/>최근 미국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 총 29개주까지 확대되는 한편, 호주 역시 오는 6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찬반양론 속에 말기 암 환자들의 의료용 접근을 완화시키는 발의안을 연방 상원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2001년부터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합법화 중이며 미국, 유럽 등을 넘어 올해부터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 중에 있다.<br/><br/>현재 극히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의 오락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역시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말기암, 간질, 치매 등의 중증 환자 중 기존 마약류 또는 화학 약물에서 부작용을 얻었던 일부 환자들에게 대체 약물로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의료용 사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생기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유튜브 등 해외 SNS 에서는 간질, 말기 암환자의 통증 완화 및 진정 등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는 환자들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br/><br/>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마초 자체는 의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THC 기반 약품 2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한 상태이다. 또한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특히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험과 약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br/><br/>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확대하자는 측은 중증 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측면에서 기존 아편류 약물의 처방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치료 목적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아직 장기적인 임상 실험 결과가 부족한 데다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은 물론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등 문제도 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br/><br/>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의 오락용 사용 등까지 전면 합법화를 확대 또는 추진하는 추세라 앞으로도 당분간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확대는 전세계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글로벌 제약기업과 의료용 대마 재배 시장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시장 역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경향신문-2-277.txt

제목: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홈쇼핑 불완전 판매 광고 절반 감소  
날짜: 20170620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0150226001  
ID: 01100101.20170620150226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56)는 암보험 TV홈쇼핑 광고를 시청하면서 ‘일반암 진단금 4000만원’이라는 쇼핑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6개월 후 위암 1기 진단을 받은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후 1년이내 진단을 받은 경우라 50%인 20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br/><br/>이같은 불만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자 생명험협회는 홈쇼핑 보험 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씨의 사례처럼 쇼핑호스트가 보험금을 음성으로 안내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횟수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br/><br/>생명보험협회는 이처럼 홈쇼핑 보험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지난해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판매비율이 0.56%로 2015년(1.02%)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20일 밝혔다. <br/><br/>그동안 생보사들은 홈쇼핑 광고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등의 과도한 시선 끌기식 표현을 사용했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부족했다.<br/><br/>생보협회는 지난해부터 쇼핑 쇼핑호스트가 보험에 대해 안내할 때 보장내용과 지급제한사항을 동일한 횟수로 안내하도록 바꿨다.<br/><br/>또 과도한 경품 홍보와 상황극 패러디 방송 등도 금지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엄격하게 심사했다.<br/><br/>광고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이나 시정사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br/><br/>생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은 경품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8.txt

제목: 의협 종합학술대회 30일 팡파르...국민건강 선언문 발표  
날짜: 2017062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20113413002  
ID: 01100101.20170620113413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3년마다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대회장 추무진, 조직위원장 이윤성, 사무총장 이원철)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간 서울시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br/><br/>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윤성 조직위원장(대한의학회장, 서울대 의대 법의학)은 20일 “<span class='quot0'>금연, 절주, 균형식, 적절한 신체운동, 규칙적 수면, 긍정적 사고방식, 정기적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스트레스 관리, 미세먼지, 신종감염병, 모바일 기기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수칙과 구체적인 근거 및 방안을 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미래의학과 건강수명’이다. 인공지능과 의료의 접목, 디지털 헬스케어의 과제와 전망, 건강수명을 위한 정밀의료와 의료정책 등 주요 의료 현안과 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한의학회 산하 여러 학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19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도 함께 개최된다.<br/><br/>김진우 홍보위원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은 “<span class='quot1'>3D 프린팅 기술과 다양한 로봇기술의 임상 적용 현황과 미래 전망, 암 정복과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과제, 암·대사질환·류마티스질환·희귀질환 분야에서 정밀의학 실현의 최신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이 집중 소개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사랑나눔 걷기와 공연 등 일반인을 위한 행사도 준비했다. 제16회 의인미술사진전람회, 의과대학 진학 박람회, 희귀난치성 환우들과 함께하는 2017 사랑나눔 걷기축제, 사랑나눔 콘서트, 토크쇼(의사들은 이렇게 산다), 젊은의사 포럼 등이 학술대회장을 비롯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br/><br/>이원철 사무총장(의협 부회장,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은 “<span class='quot2'>이번 종합학술대회는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학과 건강수명을 대주제로 다루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추무진 의협 회장은 “<span class='quot3'>앞으로 국민 건강과 밀접한 주제와 현안들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다각도로 가동해 올바른 의학 정보와 실천 지침을 빠르게 내놓겠다</span>”고 말했다. 참가 문의 1566-4637<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79.txt

제목: [황대권의 흙과 문명]GMO와 방사능 ‘닮은꼴 위협’  
날짜: 20170619  
기자: 황대권 | 생명평화마을 대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9205232001  
ID: 01100101.2017061920523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지금 이 시점 인류문명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그림자가 무엇일까? 전쟁일까? 아니면 질병, 기아, 자연재해? 모두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인류는 이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문명을 발전시켜온 측면이 있다. <br/><br/>그러나 아예 극복 자체가 불가능한, 이로 인해 인류가 끔찍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GMO(유전자변형식품)와 방사능이다.<br/><br/>아, 참으로 난감하고 또 막막하다. 결말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도무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 말이다. 혼자만 알고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에 가득 차면 좁은 지구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세상에 만연해도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br/><br/>몇몇 선각자들이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실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자료를 뒤지다가 러시아에서 만든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이라는 영화와 프랑스에서 만든 <모두가 모르모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둘 다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울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핵 관련 영화는 이미 많이 제작되었고 또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근래에 지진이 빈발하는 데 놀라 탈핵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br/><br/>그러나 GMO와 관련된 영화나 문서가 공인된 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는 별로 없다. 아직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GMO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기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실제로 정부는 모든 식품에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자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br/><br/><모두가 모르모트>는 GMO와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품이다. 실험용 쥐(모르모트)에게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였더니 거의 모두가 암에 걸리고 불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300만유로나 들여 행한 실험이지만, 내용이 발표되자 GMO 관련 회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실험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세계 식품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GMO 관련 회사의 로비력이 워낙 막강한 데다 이미 유전자조작 식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중은 그 실상을 알 도리가 없다. 핵발전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GMO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다는 선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br/><br/>GMO와 원자력은 인구증가에 따른 지구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낸 과학적 쾌거였으나 거꾸로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 GMO는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그리고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에너지 자원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취지는 곤경에 처한 인류를 구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식량자원과 에너지를 독점하여 세계를 손 안에 넣고 흔들겠다는 패권주의가 숨어 있다. <br/><br/>이 패권주의 세력은 실험실에서 만든 식량과 에너지를 전 세계에 값싸게 공급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기반을 장악한다는 원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들은 값싼 식량과 에너지를 받아먹는 대신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GMO와 방사능은 인간의 몸과 지구환경을 점진적으로 오염시켜 결국 모두가 멸망하고 마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GMO와 방사능은 분야가 다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br/><br/>첫째, 자연상태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인공합성물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다. 방사능의 위해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GMO는 매일 먹는 식품 속에 들어 있어 함부로 위해성을 얘기하기가 몹시 조심스럽다.<br/><br/>둘째, 공기처럼 무색무취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값싸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실상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br/><br/>셋째,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이다. GMO는 특정 작물의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공식품의 원료로 들어가 있어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이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들판에서는 다른 식물들과 교배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방사능 역시 한번 유출되면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br/><br/>넷째, 이들의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다. GMO는 생물이므로 재생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며, 방사능은 반감기가 긴 것은 45억년이나 되니 겨우 1만년 된 인류의 문명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br/><br/>다섯째, 이들은 바깥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위험하다. 방사능의 경우 대기를 통한 오염에 비해 내부피폭(오염된 식품을 먹는 것)이 10만배나 더 위험하다고 한다.<br/><br/>여섯째, 한번 유출되면 주워 담지 못한다.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회수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런 경우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br/><br/>GMO와 인공방사능은 인류가 결코 건드려서는 안되는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옛날로 치면 ‘터부’의 영역이다. 그런데 터부가 사라진 현대에 들어와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있는 한 터부는 있을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터부를 까부수기 전에 문명이 먼저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br/><br/><황대권 | 생명평화마을 대표>

언론사: 경향신문-2-280.txt

제목: 홍준표 "홍석현, 신문·방송 갖다 바치고 청 특보 얻어"···중앙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  
날짜: 20170619  
기자: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9110316001  
ID: 01100101.20170619110316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공개 비난했다가 19일 소송 위기에 처했다. 홍 전 지사가 전날 “<span class='quot0'>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span>”라고 비난하자,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이날 법적 대응을 경고한 것이다.<br/><br/>홍 전 지사는 전날 대표 경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5년도 못간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봤다”며 “그러나 언론은 영원하다. 정권은 5년도 못가지만 언론은 영원한데도 지난 탄핵이나 대선과정에서 보니까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자리 겨우 얻은 언론, 나는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br/><br/>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홍 전 회장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지사 발언은 홍 전 회장이 일련의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환심을 사고, 그 결과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됐다는 뉘앙스로 비쳤다.<br/><br/>이에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이날 “<span class='quot1'>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편 데 대해 홍석현 전 회장과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쳤다는 홍준표 전 지사 주장은 어불성설</span>”이라고 반박했다.<br/><br/>이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직과 관련해선 특보 지명 발표 당일인 2017년 5월21일 홍석현 전 회장이 미국 특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이며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곧이어 특보직을 고사하겠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br/><br/>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span class='quot1'>발언의 공식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홍석현 전 회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중앙일보·JTBC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span>”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br/><br/>앞서 홍 전 지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span class='quot0'>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span>”, “다 때려 잡겠다”고 했다가 전교조와 민주노총으로부터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br/><br/><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81.txt

제목: 안치환 “내 음악 뿌리에 대한 확인이자 성찰”  
날짜: 20170618  
기자: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8182449001  
ID: 01100101.20170618182449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ㆍ기타 한 대만 들고 ‘혼자 부르는 노래’ 콘서트 열어<br/><br/><br/><br/>기타는 가수 안치환(52)의 음악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악기다. 그의 음악적 뿌리는 ‘포크’이기에 이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악기는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안치환은 다음달 5~8일 서울 성수동 성수아트홀에서 콘서트 ‘혼자 부르는 노래’를 연다.<br/><br/>‘혼자 부르는 노래’는 안치환이 오로지 기타 한 대만 들고 2시간 동안 무대를 채우는 공연이다. 밴드와 세션, 반주음악(MR)도 없이 무대에 선다. 최근 서울 연희동 자택 지하 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는 “어느 공연 때보다 연습을 ‘많이’하고 있다”고 했다.<br/><br/>진달래의 다른 이름 ‘참꽃’. 안치환의 스튜디오 이름이다. 누군가 한 시절 배고픔을 달랬다는 그 꽃의 사연을 들으며 인터뷰가 시작됐다. ‘혼자 부르는 노래’의 공연 방식은 최근엔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는 왜 이러한 공연을 하게 됐을까.<br/><br/>“저 역시 ‘안치환과 자유’라는 밴드 활동도 오래했고, 음악이라고 하면 악기의 완벽한 조화, 꽉찬 사운드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포크 음악은 기타 하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번 공연은 제 음악적 뿌리에 대한 ‘확인’이고 ‘성찰’과 같은 것입니다.”<br/><br/>안치환의 ‘혼자 부르는 노래’ 콘서트는 2002년,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그에게 이 무대는 “오랫동안 음악활동을 하면서 쌓인 것들에 대한 ‘정화’의 시간이며 ‘수행’의 시간”이기도 하다. 9년 만에 공연하는 것에 대해 그는 “상업적인 성과를 따지면서 이 공연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며 “이 공연은 마치 안치환만의 시리즈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br/><br/>“<span class='quot0'>아무나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서</span>” 이 공연은 더 특별한 듯했다. “두 시간 동안 관객은 가수에게 집중하면서 가수의 목소리가 내는 의미를 듣잖아요. 이런 무대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건 가수의 특별한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관객이 무엇을 느낄지는 저도 알 수 없지요.”<br/><br/>이번 공연에서는 ‘광야에서’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잎 다시 살아나’ 등 저마다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노래들, ‘수선화에게’ ‘너를 사랑한 이유’ 등 안치환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노래들, 그리고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밴드의 꽉 찬 연주로 듣던 노래들을 담백한 기타 연주로 들을 수 있다. 안치환은 “<span class='quot1'>9년 전과 공연 형식은 같지만 그동안 신곡도 냈고, 유튜브 보면서 기타 퍼포먼스도 연습하고 있으니 공연의 레퍼토리는 새로워질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br/><br/>가장 최근에 선보인 앨범은 지난해 11월 나온 디지털 싱글 앨범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다. “<span class='quot0'>늘 권력의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했다</span>”는 그는 “<span class='quot0'>일상의 아주 작은 권력부터 최고권력까지, 권력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으로 만든 곡</span>”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에 관한 곡이다. 그보다 앞선 정규 앨범 <50>(2015)에는 ‘천국이 있다면’이라는 노래가 실려 있다. “<span class='quot0'>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행복하여라</span>”라고 말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다. 안치환은 유난히 ‘추모’의 자리에 많이 섰노라고 말한다. “<span class='quot0'>분노와 슬픔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가수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span>”<br/><br/>지난 촛불정국 때 광화문광장 무대에 선 경험은 그에게도 각별했다. “<span class='quot0'>100만 관중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뮤지션으로서는 대단한 경험</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겠다는 소명의식·소망을 가지고 모였다는 생각에 더 특별한 자리였다</span>”고 했다. 촛불정국을 지나며 그는 “<span class='quot0'>30년 음악을 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겪었는데, 누군가는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땅이 늘 ‘무슨 노래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터전이었다</span>”고 했다.<br/><br/>안치환은 ‘386세대’를 대표하는 가수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9일 ‘고 이한열 열사 추모 문화제’에서 노래했고, 그가 불렀던 ‘광야에서’가 6·10 민주항쟁 30주년 공식 기념식에서 불렸다. 6월항쟁 30주년을 맞는, 안치환의 소회는 어떨까.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품격이라든가 인간다움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계속 고민하는 화두입니다.”<br/><br/>직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지 2년 반. “요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보기’라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놓아보자고요. 그런데 인간이란 참 어려운 것이 예전처럼 술도 마시고 싶고 그리워지곤 합니다.(웃음)” 그렇지만 안치환에게 음악은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프면 아프면서 노래합니다. 앨범 <50>에는 ‘나는 암환자’라는 노래도 들어있습니다. 천상 ‘딴따라’죠. 요즘은 노래 자체가 삶의 구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br/><br/>공연과 마찬가지로 새 앨범을 기다리는 팬들도 있을 터. 안치환은 앨범을 발표하는 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브 무대로 노래를 알리는 사람인데, 노래를 충분히 불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보여줄 게 많이 있습니다.”<br/><br/><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82.txt

제목: [별별시선]너그러운 사회  
날짜: 20170616  
기자: 이병철 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6211207002  
ID: 01100101.20170616211207002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공연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자폐성장애인이 갑자기 무대로 올라 피아노 건반을 누른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음악여행’ 공연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돌발 행동은 예상했어도 무대 난입은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 옆에서 건반을 치는 지적장애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내원이 그를 객석으로 인도할 때까지 온화한 얼굴로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공연을 마친 일흔의 거장은 “무대에 오른 지적장애인과 같이 놀 수도 있었는데 음악회라서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객석이 소란스럽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리를 지르는 건 그 아이들의 표현”이라며 지적장애인들을 감쌌다.<br/><br/>탈권위적 자세, 친절과 매너, 무대에 난입한 지적장애인과 관객 양쪽 모두를 배려하는 아량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를 더 빛나게 한 것은 ‘당연한 권리를 방해하는 간섭’에 대처하는 자세다. 온전히 자기 것인 무대 일부를 타인에게 내어주면서, ‘건반 위의 구도자’는 희생과 관용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었다.<br/><br/>어린 시절, 아버지에 관한 추억 중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강원 원주 섬강으로 온 가족이 피서를 갔다. 자갈밭에 텐트 치고 삼겹살과 라면 만찬을 즐기는 중이었다. 행색이 남루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한 사내가 다가오더니 가족들이 앉은 돗자리에 진흙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채 올라왔다. 땀 냄새와 온갖 악취가 진동했다.<br/><br/>어눌한 말투로 “배가 고프다”고 했다. 지적장애인으로 보였다. 모처럼의 가족 여행이 불청객에 의해 방해받는 상황, 손짓이나 험한 말로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라면을 새로 끓여주었다. 한 개로는 부족하다며 두 개를 끓여서 고봉밥, 김치와 함께 내어주었다.<br/><br/>분식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 때 일이다. 낯선 주소로의 배달이라 한참 헤맸다. 도착한 곳은 쪽방촌,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찬 계단을 올라 단칸방 문을 두드렸다. 한눈에 보기에도 기력이 쇠약한 여자가 문을 열었고, 그녀 남편은 가래 기침을 뱉으며 비쩍 마른 몸을 이불에서 막 일으켰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방바닥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나는 머리를 숙였다. 쫄면과 짬뽕라면이 불어터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미안함과 고마움, 안쓰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눅눅한 계단을 내려왔다. 몇 시간 후 그릇을 찾으러 갔을 때, 나는 울었다. 깨끗하게 설거지 된 그릇이 계단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br/><br/>내 권리가 타인에 의해 방해받을 때, 완전하게 계획된 어떤 순간이 계획된 바 없는 우연한 간섭에 의해 헝클어질 때 백건우씨와 아버지, 가난한 쪽방 부부는 자신의 것 일부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불청객의 방해를 반가운 방문으로, 간섭을 뜻밖의 기쁨으로 바꿨다. 불편을 감수하는 희생, 약자에 대한 배려, 실수를 용서하는 관용은 더불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위엄은 거기서 비롯된다.<br/><br/>충격적인 일이다. 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어버렸다. 작업 밧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과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의 행복이 매달린 생명줄을 끊은 것이다.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잠을 방해받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미친 짓이다. 분노조절장애나 폭력성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내 권리가 간섭받을 때 한 발 양보하는 것에 인색한 사회 풍조를 돌아보게 된다.<br/><br/>약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기득권과 ‘갑’의 놀부 심보가 사회 전체에 암처럼 퍼져 있다. 강자에게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을’과 약자에게는 내 것 일부를 양보해 함께 풍요로워지는 ‘너그러운 사회’를 기다린다.<br/><br/><이병철 시인>

언론사: 경향신문-2-283.txt

제목: 대장암, 위암 재발방지 핵심은 ‘면역암치료’  
날짜: 2017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6165819001  
ID: 01100101.2017061616581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성은 상대적으로 암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여성에 비해 더 불규칙한 식습관과 흡연, 음주 등이 잦은 국내 남성의 경우 대장암과 위암이 발병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br/> <br/>문제는 두 암 모두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장암과 위암은 발병이 되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면 이미 3~4기 정도로 병이 악화된 상황이 발생한다.<br/> <br/>전문가들은 두 암의 예방 및 완치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라고 조언한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대장암과 위암은 평소 일생생활에서 금연, 절주, 정기검진 등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두 암 모두 1기에는 생존율이 90%에 달하지만 4기에는 5~10%로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span>"고 밝혔다.<br/> <br/>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수술을 해도 재발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위암 환자의 40~60%는 재발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고 대장암은 20~50%가 재발 및 전이되는 위험이 있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치료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br/> <br/>한편 두 암의 초기발견에 실패했다면 수술치료 자체가 힘들어 항암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듯 항암제의 강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는 환자의 면역력 저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br/> <br/>항암치료로 인한 내성도 문제다. 지속적인 항암치료는 환자 신체에 내성을 만들어 치료효과를 떨어뜨린다. 결국 환자의 기력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치료법과 치료제가 제한적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암을 초기에 발견해 빠른 치료를 진행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 <br/>최근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며 암을 치료하는 면역암치료가 각광받는다. 면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br/> <br/>하지만 단순히 면역력 만을 높인다고 해서 치료효과까지 높이기는 힘들다. 여기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더 긍정적인 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br/> <br/>이중병행암치료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다양한 성분들이 위암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와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과 위암 모두 발병률이 높은 만큼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84.txt

제목: 김풍 “요리방송 그만하고 웹툰 쓰라지만, 작품 구상이 일과”  
날짜: 20170615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5211123002  
ID: 01100101.20170615211123002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ㆍ뮤지컬 ‘찌질의 역사’ 원작자 웹툰작가 김풍씨 <br/>ㆍ뮤지컬 제작은 전혀 뜻밖…배우들 덕에 관객 반응도 좋아 <br/>ㆍ많은 일 해 봤으나 난 작가…연내 ‘재밌는 식당’ 개업 예정<br/><br/><br/>오랜 자취생활을 통해 터득한 ‘야매요리’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쟁쟁한 셰프들과 음식 조리 대결을 하는 김풍씨(39·본명 김정환)를 요리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의 본업은 웹툰 작가다. <br/><br/>김씨가 글을 쓰고 심윤수씨가 그림을 그린 <찌질의 역사>는 2013년 네이버에 연재를 시작해 지난 3월 마친 인기 웹툰이다. 청춘들의 지질한 연애담을 적나라하게 그려 ‘발암툰’이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에피소드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br/><br/>최근 <찌질의 역사>는 단행본으로 시즌1이 출간됐고, 뮤지컬로도 제작됐다. 지난 3일 개막해 8월27일까지 대학로 수현재씨어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찌질의 역사> 원작자인 김씨를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북카페에서 만났다.<br/><br/>“<찌질의 역사>가 뮤지컬로 제작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해봤어요. 제작자들이 첫 미팅 때 초고를 들고 왔는데 <찌질의 역사>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단번에 승낙했습니다. 뮤지컬을 본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요. 만화 팬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뮤지컬 배우들의 팬덤이 형성돼 있어서겠죠.”<br/><br/><찌질의 역사>의 주인공 ‘민기’는 문자로 사랑 고백을 하고, 첫사랑 ‘설하’를 못 잊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자와 사귀는 대책없이 지질한 인물이다. 작품 속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는데에… 너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지?” “내가… 처음이야?” 등 민기의 말은 ‘암 유발’ 대사로 불린다. 시즌3에서 어느덧 서른넷이 된 주인공은 기자가 돼서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멀쩡한’ 어른이 됐지만, 여전한 지질함을 지녔다.<br/><br/>“<span class='quot0'>시즌1은 대학에 들어와서, 시즌2는 군대를 갔다 온 후, 시즌3는 사회인이 된 남자들의 지질함을 그린 거예요.</span>” <br/><br/>그렇다면 시즌을 거치며 민기가 성장했듯이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지질하지 않을까.<br/><br/>“나이 들수록 용기를 잃어버리니 서로 바닥까지 보여줄 일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지질함이 사라지진 않아요. 티내지 않고, 쿨한 척하는 노련함이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해요.”<br/><br/>그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짜증날 정도로 지질한 남자들의 얘기를 꺼냈다. “영화 <우리 선희>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등에 나오는 남자들은 어디까지 지질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들이 왜 지질한지 몰랐거든요. <찌질의 역사>는 20~30대 나이에 맞는 지질함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죠.”<br/><br/>사람들이 그를 만화가보다는 요리인쯤으로 여기는 것은 왕성한 방송 활동 덕분이다. 김씨는 <찌질의 역사> 휴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송하지 말고 웹툰이나 쓰라’는 비난 섞인 소리도 숱하게 들었다. 지난해 8월 연재를 재개했을 때는 항의 댓글만 몇 백개가 달렸다고 한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만큼 팬들이 기다렸다는 얘기니까 상처를 받진 않았다</span>”고 했다.<br/><br/>그는 자취를 하면서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한 음식이 방송 제작진의 눈에 띄면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그 여세를 몰아 <냉장고를 부탁해>에 합류한 지도 3년이 됐다. <br/><br/>김씨는 음식 조리 실력만 놓고 보자면, 전문 셰프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영양보다는 맛 위주의 정체 모를 음식으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작가의 감으로 게스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주요했다</span>”고 말했다.<br/><br/>방송에서 그는 셰프들과의 조리 경쟁에서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유니셰프’로 불리면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허풍’ 캐릭터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직접 만나본 그는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달랐다. <br/><br/>억지스럽지도, 큰소리를 늘어놓으며 허풍을 떨지도 않았다. 행여 카페의 음악소리가 인터뷰에 방해되지는 않는지 마음을 썼다.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르다고 하자 김씨는 “<span class='quot1'>낯을 가려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방송 스케줄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요. 개인 트레이닝도 받고 필라테스도 합니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책 보거나 웹서핑을 하면서 작품 구상을 하는 게 일과예요.”<br/><br/>2003년 <폐인 가족>으로 데뷔하자마자 스타 작가가 된 그는 20대 내내 영화기자, 연극배우, 방송, 사업 등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살았다. 그는 “<span class='quot1'>모든 게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웹툰 작가로 돌아왔다</span>”고 말했다. <br/><br/>“서른 살이 되면서 만화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이후 백수로 보낸 5년 정도의 잉여의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꿔놨다고 할 수 있죠. <찌질의 역사>로 힘들게 작가로 돌아왔으니 작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죠.”<br/><br/>김씨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군인 출신의 장인과 유약한 사위가 등장하는 장르물이다. 그리고 올해 안에 분식과 정식의 중간쯤 되는 식당을 낼 계획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1'>가게 인테리어 공사부터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할 생각</span>”이라면서 “ ‘재밌는 식당’이 모토”라고 했다.<br/><br/><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85.txt

제목: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봤다  
날짜: 20170614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4220844003  
ID: 01100101.2017061422084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건강보험공단, 2016년 분석<br/><br/>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정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을 납부했다면 병원비나 약값으로 18만원어치를 돌려받았다는 의미다. <br/><br/>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695만가구 385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으로 전년(월 9만9934원)보다 월 4128원 많았다. 받은 보험급여는 월 18만3961원으로, 낸 보험료의 1.77배였다. <br/><br/>소득이 적을수록, 중증질환일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졌다. <br/><br/>보험료 순으로 5개 소득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내고 월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였다. 상위 20% 가구는 월 24만833원을 내고 월 27만2041원(1.1배)의 혜택을 받았다. <br/><br/>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가구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암 3.7배, 심장질환 8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난치질환 4.1배였다. 소득구간별로 비교하면 심장질환의 경우 하위 20%는 30.8배, 상위 20%는 3.5배의 혜택을 받았다. 암은 하위 20%가 14배, 상위 20%가 1.5배의 혜택을 받았다. <br/><br/>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가구는 46.3%였다. 반면 의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86.txt

제목: [미래의 눈]헬센서  
날짜: 20170614  
기자: 곽재식 화학자·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4212559001  
ID: 01100101.2017061421255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영란 선배가 근사한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번에 또 내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져서 위로하려는 것이라고 미리부터 짐작했다.<br/><br/>“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 바닥에 끌어들였는데. 이렇게 ‘헬센서’가 통째로 망하는 판이니까, 진짜 도리가 없네. 3년 전만 같았어봐. 너 정도면 벌써 한참 위 직급일 텐데.”<br/><br/>짐작대로였다.<br/><br/>“괜찮아요. 안 잘리고 회사 오래 다닐 수 있으면 됐죠. 정리해고된 사람도 많은데요, 뭘.”<br/><br/>“<span class='quot0'>그래도, 예전에는 헬센서 직원이면 곧 갑부될 줄 알았던 사람도 많았잖냐.</span>”<br/><br/>영란 선배는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듯이 헬센서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br/><br/>나도 그 시절을 대강은 알고 있다. 집 안 곳곳에 온갖 센서와 카메라를 달아 놓고,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컴퓨터가 지켜보게 하면서, 건강에 나쁠만한 일은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상품은 시작부터 괜찮게 팔려 나갔다. 성능도 봐줄 만했다. 창문 바깥에서 스며드는 매연을 감지해서 알려주거나, 해로운 독한 세제 냄새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움직이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잠은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까지 해석해 주었으니,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br/><br/>그런 건강관리용 센서를 달아 놓고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웰빙 하우스’라고들 불렀는데, 우리 회사는 헬스라는 말과 센서라는 말을 합쳐서 헬센서라는 제품명으로 팔았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했다. 헬시스, 헬스페이스, 헬AI, 헬컴, 그런 이름들이 유행했다.<br/><br/>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웰빙 하우스에서 관리해 준다는 항목의 가짓수는 늘어났고, 달아준다는 센서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났다.<br/><br/>무엇보다 발암 물질을 감지해주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았다. 센서가 페인트에서 나오는 벤젠이 있을 가능성을 감지하면 백혈병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센서가 금속제 가구의 불순물로 카드뮴이 있을 가능성을 감지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센서가 창밖 매연에 디젤 배기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감지하면 방광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튀김을 먹으면 무슨 암, 고기를 먹으면 무슨 암,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무슨 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렸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을 받고 있으면 피부암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렸고, 고소한 고등어구이 냄새가 나면 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렸다. 암이라는 말,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가? 그 무게와 부담감은 그대로 지갑에서 돈을 빨아 당기는 블랙홀 같았다. 한 세대 전에 보험업계가 암으로 잔치를 벌이던 그 꿀단지 같은 사업에, 전자업계가 몰려들고 있는 것이었다.<br/><br/>나는 이것이 명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실제로 우리 회사 제품으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조금 더 병원에 돈을 쓰고, 조금 더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제품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었다. 나 스스로 “과로는 간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를 맨날 컴퓨터에서 보면서도 밤낮으로 일에 매달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br/><br/>그러나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업계 사람들은 점점 더 센서 감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겁에 질려 병원을 자주 찾게 하고, 신제품을 많이 팔수록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본 회사들이 사소한 일에도 경보를 울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꾼 것이다. 잡다한 센서를 점점 더 많이 설치하게 만들기도 했다. 온갖 사소한 일에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무작정 울어대는 센서를 100개, 200개씩 잔뜩 달아 놓고, “다른 회사 제품은 센서 숫자가 적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잡는 위험을 다 놓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선전하는 회사들도 나타났다.<br/><br/>그렇게 되면서 업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센서들이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무너지는 것은 걷잡을 수 없었다. 센서도 기계인 이상 낡으면 고장 날 수밖에 없었는데, 집 안에 몇 백개씩 센서를 달아 놓으니 한 몇 년 지나고 나자 그중 매일 한두 개씩은 계속 교체해야 했다. 어떤 얼간이는 “이제 AS 비용도 계속 벌 수 있겠다”면서 좋아했지만, 매일 센서 수리공을 집에 들여야 하고 하루에 세 번씩 “너 암 걸린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br/><br/>결국 웰빙 하우스는 한때의 열풍으로 지나갔다. 우리 회사는 이제 훨씬 더 정확한 센서로 꼭 필요한 위험만을 알려주고, 더 튼튼한 설계로 고장도 아주 적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광고를 해도 사람들은 업계 전체를 믿지 않는다. 그저 순간의 열기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던 조잡한 사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br/><br/>“자, 한잔 하라고. 정말 미안해.”<br/><br/>당장 나조차 마찬가지였다. 영란 선배가 술을 따라 주었을 때, “과도한 음주는 위암 가능성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전화기에 표시되었지만, 나는 그 잔을 단번에 들이켰다.<br/><br/>\*\*\*\*\*\*\*\*\*\*\*\*\*\*\*\*\*\*\*\*\*\*\*\*\*\*\*\*\*\*\*\*\*\*\*\*\*\*\*\*<br/><br/>자동화 장치가 통제하는 주거환경 관리 체계, 건강 관리 체계 등은 많은 IT 기기의 복합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기기 하나가 고장 날 확률이 일정하다고 하면, 기기의 개수가 늘어나고, 기기 간의 연결이 늘어날수록, 체계가 오류를 가질 확률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br/><br/>따라서 미래의 자동화 체계에 대해서는 전시회장에서 한눈에 선보일 수 있는 화려한 성능보다는, “그 성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 <br/><br/>또한 이러한 유지 보수의 문제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br/><br/><곽재식 화학자·소설가>

언론사: 경향신문-2-287.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7년 6월 14일  
날짜: 2017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3204517002  
ID: 01100101.20170613204517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당뇨병 있으면 암 발생률 높아요<br/><br/>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당뇨병과 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이 암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라고 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암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암 발생에 당뇨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치고 당뇨병과 암이 공유하는 위험인자를 알아본다.<br/><br/><br/>■밴드 Y2K 리더 고재근 출연<br/><br/>라디오 스타(MBC 오후 11시10분) = 19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한·일 합작 밴드 Y2K의 리더 고재근이 15년 만에 지상파 토크쇼에 출연한다. 고재근은 과거 Y2K 멤버들과 헤어지면서 심각한 슬럼프를 겪었음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당시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있었던 사연을 전하며 눈물 흘린다. 이후 고재근은 Y2K 활동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언론사: 경향신문-2-288.txt

제목: 아픈 아들 걱정에 홀로 암 수술 받은 엄마  
날짜: 20170612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2200516001  
ID: 01100101.2017061220051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EBS1 ‘메디컬 다큐 - 7요일’<br/><br/>EBS 1TV <메디컬 다큐-7요일>은 질병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들의 사연을 다룬다.<br/><br/>김기현씨(39)는 폐 조직이 굳어지면서 호흡이 불가능해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폐섬유화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유일한 치료법인 폐이식 수술을 끝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가족 앞엔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다. 그의 어머니 김말숙씨(63)가 간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이다. 폐 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김씨는 끝내 아들에게 자신의 병을 숨긴 채 홀로 수술대 위에 누웠다.<br/><br/>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긴급 이송돼 온 50대 여성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의 회의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검사 결과 뇌출혈로 판명났으나, 더 큰 문제는 뇌압이 너무 높아 뇌사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수술 중 확인된 뇌출혈의 원인은 뇌혈관이 점차 막히면서 아지랑이처럼 비정상 혈관이 발생하게 되는 모야모야병이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투혼이 이어진다. 방송은 13일 오후 11시35분.<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89.txt

제목: "우리는 일회용 컵처럼 버려졌다"...삼성전자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유엔 연설  
날짜: 20170611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1234603001  
ID: 01100101.20170611234603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 다수가 삼성이나 엘지의 핸드폰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만들며 시력을 잃고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br/><br/>지난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김영신씨(29)가 약 2분간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 하청업체에서 일한 지 3주만에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br/><br/>김씨의 연설이 시작되자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다.<br/><br/>“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5명의 젊은이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일회용컵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제조업 파견이 불법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메탄올이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보상을 해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한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br/><br/>김씨는 이날 연설을 위해 한글로 큼직하게 적어놓은 영문 발음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는 종이를 코 앞에 갖다 대야만 글이 보였다. 김씨는 긴장했지만 끝까지 해냈다. <br/><br/>“저는 삼성과 엘지의 핸드폰을 만들다가 실명을 했는데 삼성과 엘지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성과 엘지가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 사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br/><br/>김씨와 동행한 노동건강연대의 활동가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0'>(김씨의 연설이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옆에 있던 활동가들의 두 손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모두가 울면서 영신씨를 끌어안고 손을 잡았다</span>”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br/><br/>이들은 이어 “오후 토론회에서 영신씨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했으며, 어느 누군가는 영신씨에게 ‘브레이브 맨! 존경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br/><br/>앞서 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사회 산하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씨가 겪은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메탄올 실명사건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1000여명의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LCD 디스플레이 공장에서의 백혈병·뇌종양 및 난소암 등 직업병, 탄소배출율 증가폭이 전국 대비 4.5배에 달하고 주민들의 암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충남 당진 지역의 석탄발전소·현대제철소 문제,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탄압, 울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부상사고 등이 언급돼 있다.<br/><br/>‘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삼성, 엘지 등 원청기업의 책임에 대해 거론했다. 이들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기업들(lead companies)이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 등 93가지의 권고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했다.<br/><br/><br/><br/>‘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두답변까지 덧붙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왔다.<br/><br/>노동건강연대와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NGO 모임)은 논평을 내고 “<span class='quot1'>한국 정부의 답변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왜곡을 포함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span>”면서 정부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br/><br/>NGO 모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고 밝히면서, 유성기업 사안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현대차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계속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br/><br/>NGO모임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수사를 포기해 온 작금의 관행을 고려해볼 때 구두발언에서 힘주어 강조하기까지 한 ‘무관용 원칙’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r/><br/>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일부기소’는 노조파괴의 핵심 사실관계가 아닌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이며, 현대차의 부당개입은 201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추가 수사 없이 묵혀두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NGO모임은 또한 “정부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원청 회사가 계약해지 등의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조 활동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무슨 근거로 그러한 답변을 제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br/><br/>이들은 “원청에 의한 하청노조의 약화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지난 달 광화문 고공 농성을 한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지회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아사히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사측이 11년간 갱신을 반복해 온 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2년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br/><br/>NGO모임은 또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철도노조 파업(403억 청구), 엠비씨 파업(195억 청구) 등에서 보듯 여전히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나아가 나아가 정부가 주장하는 폭력, 파괴행위란 쟁의행의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압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할 권리가 아주 취약함을 반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0.txt

제목: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청, 이번에도 하자 사항 ‘자진 신고’  
날짜: 20170611  
기자: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1223620001  
ID: 01100101.20170611223620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ㆍ송영무 “위장전입, 투기 목적 아냐” 조대엽 “음주운전, 평생 가슴에 남아”<br/><br/>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검증 과정에서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청와대 관계자는 송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span class='quot0'>(인사청문회가 본격 시행된) 2005년 7월 이전이고 군인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했다</span>”고 밝혔다. <br/><br/>송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소지를 옮겨 분양받았던 군인공제회 아파트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br/><br/>송 내정자는 “<span class='quot1'>당시 규정이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어서 아버지 사는 데로 (주소지를) 옮겨 분양을 받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1985년 부친과 자녀가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 <br/><br/>조 내정자는 2007년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이야기될 것이고,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span>”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의 음주운전 횟수가 1번이고 반복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br/><br/>조 내정자는 통화에서 “평생 가슴에 남는 건이다.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br/><br/><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1.txt

제목: [금지를 금지하라](4)‘무죄’였던 대마초, 박정희 정부 ‘중형’···세계는 합법화 추세  
날짜: 20170611  
기자: 오영진 | 인문학협동조합 총괄이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1211505001  
ID: 01100101.2017061121150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한국의 대마포비아<br/><br/><br/><br/>■ 한국인의 대마포비아<br/><br/>1970년대 고등학생들은 “대마초 피웠다”라는 말을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무슨 뜻이었을까? 다름 아닌 예비고사에 낙방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친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다(경향신문, ‘고교생 은어의 세계 8’, 1978·8·30).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하겠지만 이러한 은어가 만들어진 배경엔 1975년 연예인 ‘대마초 파동’이 있었다. <br/><br/>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었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신중현, 김추자, 이상해 등이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구속되어 TV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이들은 생계를 위한 밤무대에도 서지 못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가요차트 1위에서 10위의 가수들이 모두 스캔들에 연루되어 출연정지를 당해 수년 동안 나오지 못한다고 상상하면 되겠다. 이용우는 이를 두고 “문화적 벌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일순 연기처럼 사라진 통기타·록 울림’, 2005·11·30). 인기가수들이 없어지니 PD들은 당장 출연시킬 가수를 찾지 못하는 곤란을 겪었다.<br/><br/>이 사건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가 연예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수년간 정지할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 상식적으로 중한 벌은 공급책이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연예인들은 마치 구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반성문을 썼다. 이영미는 이 과잉된 포즈를 1975년 전반의 분위기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영미, ‘대마초 사건 그 화려한 쓰리쿠션’, 인물과사상 2016·7). 동시간 베트남 공산화로 인한 위기감 고조와 1975년 동아일보 언론탄압, 긴급조치 9호, 대학의 총학생회 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위기상황’이 배면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문화에 물든 청년세대가 까불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대마초를 피운 주체는 회사원, 교수, 외국인, 사업가 등 다양했지만 언론은 ‘대마초 ○○○’이란 말을 오로지 연예인에게만 적용해 사용했다. 이 점에서 주기적인 연예인 ‘대마초 파동’은 통상적인 징벌행위로 보기 어렵다. 스타가 수갑을 찬 범죄자로 전락하는 장면은 대중을 향한 쇼크기법을 염두에 둔 연출이었다.<br/><br/>1975년 대마초 파동 이후, ‘대마초=사회적 지위 박탈’이라는 등식은 한국인의 뇌리에 오래도록 각인된다. 그리고 정권은 연예인들을 완전히 길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재기 공연은 공연장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열렸고(동아일보, ‘조용한 새 출발, 대마초 연예인들’, 1978·4·1), 연예인들이 국가에 봉사하자는 취지로 만든 새마음봉사대 공연에는 대마초 사건 연루 연예인들이 기꺼이 출연하려 노력했다(매일경제, ‘연예인 새마음봉사대 장병 위문공연, “<span class='quot0'>사회에 보탬이 되는 연예인이 되자</span>”’, 1979·8·6) <br/><br/>한국에서 연예인의 대마초 사건은 근면한 인간과 방탕한 인간을 구분해 도덕적 힐난을 연습하는 훈련장으로 기능한다. 김성환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마약 단속을 “<span class='quot1'>마약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중독자들을</span>” “<span class='quot1'>신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민으로 개조</span>”하려는 기획이었다고 평가한다(청년문화를 제압한 ‘대마초 파동’,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상상). 올바른 국민이 되는 길은, 자주·자립·협동을 통한 근면 정직의 윤리를 세우는 것이고, 마약 문제 해결은 정의 구현의 길이었다. <br/><br/><br/><br/>얼마 전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의 대마초 흡입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는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당사자는 사건 이후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가 퇴원했다. 대중의 과도한 관심만큼 사회적 처벌 또한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느꼈을 압박감을 상상해본다. 공인으로서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해 이 모든 비난을 응당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자. 언론보도의 관심은 그가 아이돌 지망생과 함께 있었다는 선정적인 측면에만 기울었고, 그가 앞으로 받을 처벌과 재기 불능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이것이 옳은 걸까? 혹은 적당한 걸까?<br/><br/>가수 신해철은 대마초를 한 연예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그 이상으로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는 대중의 공격과 그가 불능이 될 때까지 때리는 가학적인 사회만큼은 반성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적 있다. 한때 대마초 연예인으로 낙인찍힌 사진작가 김중만은 약물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대신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마약중독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연예인의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집요할 정도로 가학적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연예인 대마초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1975년 ‘대마초 파동’의 정서로 보고 있지 않은지 물을 일이다. 한국인의 대마포비아는 연예인을 제물로 한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반복 강화되어 왔다. <br/><br/>■ 대마초는 죄가 없다<br/><br/>불과 47년 전인 1970년만 해도, 대마초가 이 땅에서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곤 한다. 대마초는 농촌의 상비약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복용하는 약재였다. 재미있어 즐긴 것도 아니고 단지 담뱃값이 아까워 대마잎을 대체재로 삼아 피는 수준이었다. 대마는 평범하고 가난한 풍경 속에 놓여 삶과 공존하고 있었다.<br/><br/>신문지상에서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한국 대마의 환각제 가능성을 알아차린 자들은 미군들이었다. 그들은 대마를 ‘해피 스모크’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해피 스모크’는 주로 ‘파고다’나 ‘아리랑’ 등의 담배에 대마가루를 첨가해 만들어졌다. 약학박사 이창기는 한국 대마엔 환각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인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외국산 대마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마는 환각을 위한 흡연으로서 상당한 효능을 가졌기에 미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당시 대마는 농가 삼베 재료로 재배되었으나 한국인들은 그것을 환각제로 사용할 줄 몰랐다. 그러던 차에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자들이 늘어나 점차 한국 젊은이들마저 사용하게 된 것이다. 1970년 법규에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어차피 대마 열매가 성숙하기 10여일 전에만 잠시 THC 성분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한 관리들은 농촌에서 어망, 로프, 옷감 등을 만들기 위해 재배한 대마를 강하게 단속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br/><br/>반면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는 늘었다. 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국 정부에 적극 개입하기를 주문하게 된다. 미군 병사들의 마약사범이 지난 3년 동안 약 80배로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단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70년 6월17일 보건사회부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병사들의 마약범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매일경제, ‘대마류 단속 입법을 미군 측서 요청’, 1970·6·19).<br/><br/>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다. 화학적 구분으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 습관성 의약품으로 명시되었다. 1976년 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섭취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4월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br/><br/>■ 세계는 대마를 알아가는 중<br/><br/>대마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는 의도적 과잉이었거나 대체로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했다. 조석연은 이를 “<span class='quot2'>1970년대 마약 통제 정책은 마약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이 마약의 자생적 이용에 대한 전통적 권리를 잃게 되는 과정이었다</span>”고 말한다(‘마약법 제정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국가통제(1957∼1976)’, <한국근현대사연구> 2013년 여름호). 마약의 권리를 국가에 뺏긴 이후부터 대마초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 <br/><br/>대마초의 중독성은 담배보다도 작다. 사용자는 대체로 대마초를 피운 후 공격성을 잃고 유순해진다. 대마초의 환각성이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는 나른한 가운데 되레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br/><br/>최근 미국은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투표를 통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27개 주에서도 일부 의료용 대마초 혹은 제한적인 오락용 대마초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2018년 6월부터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한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마초에 대해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의 위험성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풀려졌음을 인정하고 대마초의 효능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의 THC 성분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단백질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의 마약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꾸준히 연구해 관련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대마 재배를 신산업으로 키워내려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대마혁명의 시대에 돌입했다. 의료적 차원이든, 오락적 차원이든, 산업적 차원이든 대마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고 있는 중이다.<br/><br/>의사 데이비드 커사렛은 대마초의 위험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찾는 이유가 단지 약효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자끼리 상호작용하는 다정다감한 문화, 그로 인해 얻는 병에 대한 통제력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 대마초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법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br/><br/>2004년 영화배우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초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내용은 현재의 대마초 흡연 처벌 규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평등권·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합법화는 아닐지라도 비범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기각되었지만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한번쯤 재고하게 만든 용기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이 금지를 이제는 의심하고 넘어서도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갈 길이 요원하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일한 대마초 노래의 한 구절을 적으며 마친다.<br/><br/>‘1930년대에는/ 죄악이라고 했지만/ 티모시 리어리 박사는/ 죄악을 엎어/ 에이즈와 암 같은/ 병을 고친다고 말했어/ 난 굶주렸어/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어/ 오 마리화나/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오 마리화나’(한대수, ‘마리화나’, 9집 <고독>, 2002)<br/><br/><경향신문·인문학협동조합 공동기획><br/><br/><br/> ■필자 오영진<br/><br/>한국 기술문화와 서브컬처를 연구한다. 주요 평론으로 <컴퓨터게임과 유희자본주의> <인디의 추억> 등이 있고, 공저로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2014),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2017) 등이 있다. 인문학협동조합 총괄이사다.<br/><br/><오영진 | 인문학협동조합 총괄이사>

언론사: 경향신문-2-292.txt

제목: [한국군 코멘터리]송영무 등장···'육군 초긴장' 군부 쓰나미 예고  
날짜: 20170611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11173647001  
ID: 01100101.20170611173647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br/><br/>그는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 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br/><br/><br/><br/>■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br/><br/>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강성의 송 후보자가 등장해서다. 그동안 육군측은 ‘다 좋은데, 송영무 전 해군총장만은 피했으면’ 하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br/><br/>심지어 국방개혁 관련한 육군 구조조정과 비개혁적인 군 고위간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 등으로 군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송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정권이 바뀐 후 좌절된 데 대해 절치부심해왔다. 그런 만큼 육군 위주로 비대화된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적임자로 꼽혀 왔다.<br/><br/>송 내정자는 국방개혁을 위해 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도 거리를 둘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성우회는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등 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br/><br/>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수준을 넘는 새로운 군 창설’과 ‘전작권 환수로 군사주권 확보’ 등 2가지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br/><br/>그가 국방장관으로 공식취임하게 되면 후속 군 장성인사에서도 2가지 명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별·지역·기수·연공서열 등을 무시한 파격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br/><br/>송 내정자는 “<span class='quot0'>전작권이 없으니 병사들은 의무복무로만, 장교들은 군대를 직업으로만 보고 있다</span>”거나 “<span class='quot0'>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 없이 미군이 지켜준다는 정신자세로 해이해져 있다</span>”고 말하기도 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0'>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의 큰 틀은 군의 부대 구조, 작전계획 등을 바꾸는 것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복잡한 지휘구조로 느린 의사결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군 지휘구조 또한 개혁 대상</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br/><br/>■‘관행 타파’ 아이콘의 등장···적도 많아<br/><br/>실제로 해군총장 재임 시절 송 후보자는 ‘혁신’과 ‘관행 타파’의 아이콘이었다. 부리부리한 눈매만큼 업무 처리가 시원하고 명쾌한 그는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호불호가 분명해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내친다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다.<br/><br/>타협을 거부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된다.<br/><br/>송 내정자는 해군총장 당시 항해병과뿐만이 아니라 전 병과장교들이 함정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직별 통폐합 일환으로 항해병과가 아닌 기관병과 대령을 함장으로 임명했고, 해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생도대장에 해병대 장성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시책을 연속으로 이어갔다. 해군작전사령부 청사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긴 것도 그가 총장 시절 이뤄졌다.<br/><br/>‘송 충무공’ 별명을 가장 좋아하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충무공의) 필승해군’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의 파격적인 시책은 후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파격적인 시책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그와 뜻을 같이한 해군 간부들은 송 총장의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지지했다.<br/><br/>해군참모총장 시절 그는 ‘참모총장 지휘서신’을 통해 “<span class='quot0'>충무공(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span>”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신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br/><br/>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였으면서도 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육군의 반대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분명해 과거 ‘적’을 많이 만들었던 성격 탓도 크다. 그에 대해서는 로펌(율촌) 재직 시 고액 수임료·방산업체(LIG넥스원) 고문 경력 논란과 총장 재직시절 측근들의 전횡,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편파 논란 등에 대해 관련 제보가 잇따랐다. 이처럼 그의 낙마를 노리는 세력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번 더 걸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br/><br/>그는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2년여간 고문을 맡아 해군의 무기체계 수·출입 등과 관련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연간 1억5000만원과 “<span class='quot0'>월 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전부</span>”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납품비리는 지휘계통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br/><br/>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988년 장기간 (췌장)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와 투병 중인 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해군 중령으로 진해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4평형 아파트를 신청, 1989년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 대전 아파트가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전국을 돌며 근무하는 군인들은 거주지 개념이 불분명해 당시 아버지 주소로 옮겨 분양을 신청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줄 당시에는 몰랐다”고 덧붙였다.<br/><br/><br/><br/>■13년 만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br/><br/>송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3년 만에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된다.<br/><br/>청와대는 11일 발탁 배경으로 그가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들었다.<br/><br/>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았다.<br/><br/>그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1년 4개월 남짓 근무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br/><br/>18대 대선 때는 안보정책팀장을 맡아 안보 공약을 손질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좌했다. 문재인 캠프에 역대 최다 군 인사가 포진했음에도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이유다.<br/><br/>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다.<br/><br/>1999년 해군의 대승으로 끝난 제1차 연평해전에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참전했다. 이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br/><br/>2007년 국정감사 때는 ‘서해 5도가 군사전략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서해 5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3.txt

제목: ‘너무나 현실적인’ 넷플릭스의 앤···그래도 너는 나의 ‘앤’  
날짜: 20170609  
기자: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9210202001  
ID: 01100101.2017060921020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내년이면 탄생 110년…식지 않는 ‘빨간 머리 앤’ 인기 비결<br/><br/><br/>지난달 1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notmyanne(나의 앤이 아니야)이라는 해시태그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TV네트워크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8부작 드라마 <빨간 머리 앤>이 공개된 이후 쏟아진 세계 시청자들의 항의 릴레이였다. <br/><br/>“대체 앤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우울해서 보기 힘들다” “어린 시절의 헤로인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자 그대로 최악의 버전이다” 등 격한 메시지가 쇄도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암 선고를 받은 뒤 가족을 위해 마약제조상으로 나선 중년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각본을 쓴 모이라 월리-베켓이 집필을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br/><br/>새롭게 선보인 <빨간 머리 앤>의 캐스팅 평은 일단 후하다. 188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앤 역을 따낸 에이미베스 맥널티는 원작 속 앤을 그대로 그려낸 듯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캐스팅 중 최고 미남’이라는 평을 듣는 길버트를 비롯해 매튜·마릴라 남매와 다이애나 등 주요 출연진의 연기력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앤’은 어땠기에 전 세계 팬들이 하나의 해시태그로 뭉쳤을까. <br/><br/><br/><br/>■ 나의 앤은 그렇지 않아 <br/><br/>넷플릭스 버전의 <빨간 머리 앤>은 생후 3개월 만에 고아가 된 앤이 위탁가정에서 여덟 아이의 보모 역할을 하며 집주인 부부로부터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고아원과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그 밖에 원작과 다르게 해석된 소소한 사건이 몇몇 등장한다. 독신인 매튜와 마릴라 남매 각각의 애정사도 추가됐다. 눈에 띄는 점은 다이애나의 고모할머니 조세핀이 동성애자로 그려지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머니 모임이 등장하는 등 페미니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것. <br/><br/>그러나 팟캐스트 ‘더드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번역가 겸 칼럼니스트 박현주 작가는 “<span class='quot0'>원작 <그린 게이블즈의 앤> 자체가 페미니즘적 이야기였다</span>”고 운을 뗐다. 전통적인 이성애자 부모가 아닌 독신의 남매가 딸을 입양하고, 그 아이가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설정부터 그렇다. <br/><br/><br/>“당시 진단이 있었으면 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예요. 무엇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상상에 빠지며 가상의 친구와 얘기하잖아요. 넷플릭스 버전은 귀엽게만 생각했던 앤의 특징을 병리적으로까지 밀어붙인 거죠. 해외 리뷰를 보면 앤의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기도 합니다. 어려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고 한 번에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라 생각했어요. 앤을 꿈과 희망을 주는 예쁜 친구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아픔을 같이 보자는 취지거든요.” <br/><br/>대본을 쓴 월리-베켓 역시 ‘뉴욕타임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앤은 낙관적이며 밝고 열정적이고 명랑하고 상상력이 넘친다. 나는 그녀의 역사에 그저 현실을 더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넷플릭스 버전을 “동심을 파괴하는 잔혹 동화 버전”이라고 주장하는 팬들의 글에는 ‘불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gritty)’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는 미국과 캐나다 팬들은 “1985년의 메건이 훨씬 원작의 앤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1985년 캐나다 CBC 미니시리즈로 방송된 <그린 게이블즈의 앤>은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앤 역을 맡은 메건 팔로스는 사랑스러운 외모와 발랄한 연기로 ‘국민 여동생’ 수준의 팬덤을 형성했다. 이 시리즈는 2002년 EBS를 통해 국내에서도 방영됐다. <br/><br/><br/><br/>■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앤 <br/><br/>미국과 캐나다의 팬들에게 CBC 드라마로 추억되는 ‘그들의 앤’이 있다면, 우리에겐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로 시작하는 주제곡의 애니메이션 버전 ‘앤’이 있다. 1985년 KBS에서 방송한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의 원작은 1979년 일본 후지TV를 통해 방송된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의 세계명작극장 시리즈다. <br/><br/>1908년에 발표된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그린 게이블즈의 앤(Anne of Green Gables)>은 지금까지 36개 국어 이상 번역돼 5000만부 넘게 판매됐다. 몽고메리는 첫 번째 책의 성공 이후, 앤이 앙숙이었던 길버트 브라이스와 결혼해 자녀를 낳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일대기를 담은 총 8편의 시리즈를 출간했다. 일본판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 책의 이야기를 50부작으로 담아낸 것이다. 덕분에 만화를 보며 유년기를 보낸 이들은 11세부터 16세까지의 앤을 기억한다. 지난 2008년에는 <빨간 머리 앤>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판 세트가 출시되기도 했다. 앤에 열광하던 소년·소녀는 어느덧 애니메이션 DVD, 원작소설 세트 정도는 가뿐하게 소장할 수 있는 어른이 됐다. <br/><br/><br/><빨강머리 앤> 만화를 보고 자란 백영옥 작가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앤에게 받은 위로의 메시지를 모아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란 에세이집을 지난해 7월 출간했다. 이 책은 출판계 불황 속에서도 출간 11개월 만에 22만부 판매라는 기염을 토했다. 백 작가는 “<span class='quot1'>지치고 힘들 때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 50부작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고, 그때 쓴 작품으로 작가 지망 13년 만에 등단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려는 앤의 자세가 힘이 되었다</span>”고 전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1'>성인이 되어서 다시 보니 마릴라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다</span>”고 말했다. “처음에 마릴라는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앤의 입양을 반대하잖아요. 그때 매튜가 ‘우리에겐 도움이 안되겠지, 하지만 저 아이에겐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한 사람의 선의가 한 아이의 우주를 구원한 얘기잖아요. 산만하고 정신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풍경이 아름다운 거죠.” <br/><br/><아기공룡 둘리>를 보고 고길동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냉정한 줄로만 알았던 마릴라 아줌마도 20년의 시간을 건너와 마주하니 아이 한번 키워보지 않은 초보 엄마였다. 그 상황에서도 그가 보여준 자기 원칙과 현명함을 발견하는 과정은 <빨간 머리 앤>이 세대 초월의 아이콘이 되는 큰 버팀목이다. 대책 없는 수다쟁이 앤 역시 다시 보니 ‘명언제조기’였다. “<span class='quot2'>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span>” “<span class='quot2'>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한심한 일이라 생각해요.</span>” <br/><br/>백 작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만화와 원작을 반복해서 찾는 이른바 ‘앤 덕후(마니아)’를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앤이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살아보니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 말이 간절히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br/><br/><br/><br/>■ 이것이 왜 ‘고전’이 아니란 말인가 <br/><br/>일본은 특히 <빨간 머리 앤> 사랑이 남다르기로 소문난 나라다. 미국 잡지 ‘배니티 페어’는 프린스 에드워드섬의 관광산업이 일본 팬들 덕분에 호황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br/><br/>제주도 3배 크기인 이 섬에는 매년 여름에만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그중 25%가 소설에 등장하는 초록지붕 집이 있는 농장, 다이애나와 앤의 만남의 장소인 ‘유령의 숲’, 몽고메리의 생가와 그녀가 일했던 우체국 등을 찾는 ‘앤 관광객’이다. 몇 년 전까지도 앤처럼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일본인 중년 여성 무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br/><br/>도쿄에서 25년째 거주 중인 <엄마의 도쿄>의 저자 김민정 작가는 일본에서 <빨간 머리 앤>이 인기를 끌었던 요인으로 “<span class='quot3'>고도 성장기, 여성 파워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시대적 배경</span>”을 꼽았다. 1979년 애니메이션이 방송되고 오래지 않아 일본에는 남녀고용균등법이 제정됐다. 또한 영국 문화에 심취해 있던 젊은 여성들에게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 당돌한 소녀의 이야기가 강하게 어필했을 거란 해석도 덧붙였다. <br/><br/>2014년에는 <빨간 머리 앤>의 번역가인 무라오카 하나코의 일생을 그린 NHK 아침드라마 <하나코와 앤>이 22.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행사의 ‘빨간 머리 앤 투어’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일본에서 앤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한다. <빨간 머리 앤>을 추억하는 세대도 어느덧 40대 후반을 넘어섰다. <br/><br/>그는 “<span class='quot3'>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20년 넘게 불경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빨간 머리 앤’의 시절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span>”고 전했다. 198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밍키’처럼 혼자 힘으로 편견과 맞서 싸웠던 앤의 시대는 저물고, 친구들과 협력해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은 인기 애니메이션 <프리큐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요즘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함보다는 유연함과 무난함이 미덕으로 통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br/><br/>이제 앤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기억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앤의 풍부한 감성을 입체적으로 연기한 성우 정경애씨는 1997년 괌 항공기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원작자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1942년 4월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숨졌다. 당시 사인은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알려졌지만, 2008년 손녀인 케이트 맥도널드 버틀러는 “<span class='quot4'>우울증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다</span>”며 몽고메리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몽고메리는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br/><br/>그러나 앤이 우리에게 심어준 꿈과 희망은 세기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박현주 작가는 “<span class='quot0'>앤의 성장사가 공부와 직업에 관한 이전 세대와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7080년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비록 고아일지라도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당당히 직업을 갖고 가장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앤은 훌륭한 롤모델이었던 셈이다. 1980년생인 미국 배우 준 다이앤 라파엘은 “<span class='quot5'>앤이 할 수 있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5'>앤은 내 인생의 첫 번째 헤로인</span>”이라고 고백했다. <br/><br/>탄생 110주년을 1년 앞둔 <빨간 머리 앤>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되며 생명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대를 넘어 공감을 얻는 것이 고전의 조건이라면 <빨간 머리 앤> 역시 고전이 아닐 이유가 없다.<br/><br/><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4.txt

제목: ‘미세먼지 기승’으로 폐암 환자 급증…암면역치료 시급  
날짜: 2017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9163434001  
ID: 01100101.201706091634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TO)가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각종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br/> <br/>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0㎍/m³ 증가할 때마다 천식환자의 사망위험은 13%, 폐암 발생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특히 암은 미세먼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평소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이 유발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br/> <br/>의료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기오염은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으로 높은 사망위험요인(8.5%)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미세먼지는 인간의 폐 속 깊이 들어가 축적되고 혈관을 통해 전파돼 호흡·신경계 질환을 야기하며 심하면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pan>"고 설명했다.<br/> <br/>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율이 낮고 전이와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까다로운 암에 속한다.<br/> <br/>이런 이유로 폐암은 완치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장기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br/> <br/>폐암은 수술 후에도 항암치료를 통해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항암치료는 탈모, 구토, 설사, 오심 등의 항암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br/> <br/>이에 최근 환자의 면역력 증강을 통해 암과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을 길러주는 암면역치료가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br/> <br/>암면역치료를 통해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근본적으로 암 발생을 막는 치료가 가능한 것. 또한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켜 암의 통증을 완화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해준다.<br/> <br/>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더불어 한방치료를 선택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서도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br/> <br/>이중병행암관리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는 물론 높은 항암치료 효과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여기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신생혈관 차단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1'>이중병행암관리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와 관리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폐암은 초기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므로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295.txt

제목: 젊은 층 대장암 등 장질환 증가 원인 추적  
날짜: 20170606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6202426001  
ID: 01100101.201706062024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KBS1 ‘생로병사의 비밀’<br/><br/>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발병률 1위 대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방송한다.<br/><br/>한국인 3명 중 1명이 평생 한번은 ‘암’에 걸리는 시대다. 그중에서도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해 전 세계 184개국 중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다. 대장암은 흔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왔지만 최근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 한국대장항문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30대의 약 20%, 40대의 30%에서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발견됐다.<br/><br/>김동빈씨(26)는 치질이 의심돼 찾았던 병원에서 뜻밖에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정한씨(34)는 크론병을 앓아 오다 암이 발병했다.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인 크론병을 지닌 환자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이 염증성 장질환 역시 급증추세라고 한다.<br/><br/>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밥보다 라면을 즐겨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주식처럼 삼는 식습관이 젊은 사람들이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다. 방송은 7일 오후 10시.<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6.txt

제목: 유전자 속 숨겨진 ‘장수의 비밀’ 풀릴까  
날짜: 20170605  
기자: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5110048001  
ID: 01100101.2017060511004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ㆍ일본 연구진, 95세 이상에 많은 DNA변이 특징 발견<br/><br/>100세 넘게 장수하는 이들의 유전자에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을까. 일본 연구팀이 장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특징을 발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br/><br/>신문에 따르면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와 게이오대학 연구팀은 지금까지 알려진 ‘APOE’라는 유전자 외에 ‘CLEC3B’라는 암의 전이나 뼈의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특징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95세 이상 일본인 530명과 79세 이하 일본인 4312명의 유전자에서 개인별로 염기가 다른 약 24만곳을 전체적으로 분석했다. 95세 이상인 사람 447명을 포함, 중국인 952명도 같은 식으로 조사했다.<br/><br/>분석해보니 CLEC3B 유전자의 특정 부분에 있는 DNA 염기가 아데닌(A)에서 구아닌(G)으로 바뀌어져 있는 비율이 일반인은 19%였지만, 장수자는 26%였다. 이 유전자는 테트라넥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 연구팀은 염기 차이가 단백질의 움직임에 반영돼, 암의 전이를 억제하거나 튼튼한 뼈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r/><br/>다나카 마사시(田中雅嗣) 건강장수의료센터 임상검사과장은 “<span class='quot0'>이 유전자가 노화를 막는 데에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 유전자의 움직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br/><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7.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 6월3일 대한민국은 왜 ‘의전 공화국’이 되었나  
날짜: 20170603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3100527001  
ID: 01100101.20170603100527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3일입니다.<br/><br/><br/><br/><br/>대통령이 새로 바뀐 뒤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의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의전 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커피 직접 내려마시기, 재킷 직접 벗어 걸기 등부터 시작하면서 깨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전 관행,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수십~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걸까요? 경향신문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독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의전들’도 소개합니다.<br/> ▶ [커버스토리]의전공화국<br/> ▶ [커버스토리]호텔방에 러닝머신 설치해 봤나요? 아스팔트에 구두약 칠해 봤나요?<br/> ▶ [커버스토리]자리 배치·도착 시간·연설 순서 놓고 신경전 벌이는 ‘의전의 기술’<br/> ▶ [커버스토리]학교·군대·사회에서 학습되고 대물림…‘미운털 박힐라’ 눈치보며 알아서 처신<br/><br/><br/><br/><br/><br/>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br/> ▶ 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br/><br/><br/><br/><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그 말, 바로 ‘어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리더로서의 책임과 할 일을 걷어차버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br/> ▶ 미국 ‘세계의 리더’를 포기하다<br/> ▶ [미국, 파리 기후협정 탈퇴]지구의 미래에 등 돌린 트럼프…공공의 적이 된 ‘독불장군’<br/> ▶ [미국, 파리 기후협정 탈퇴]기후 재앙 예방 노력에 ‘빨간불’<br/><br/><br/><br/><br/>‘재벌재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 차근차근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span class='quot0'>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는 안된다</span>”는 자신의 지론에 대해서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 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br/> ▶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span class='quot1'>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다운계약서 작성 송구</span>”<br/> ▶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벌개혁 후퇴 논란 일축 ‘경제적 을의 권리 강화’ 목청<br/> ▶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야 ‘맹공’·여 ‘엄호’…김 후보자 “<span class='quot1'>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span>”<br/><br/><br/><br/><br/>‘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바뀌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오는 10일 6·10 민주항쟁 정부 기념식도 오랜만에 흐뭇하게 치러질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br/> ▶ 시민단체·정부 ‘6·10 기념식’ 4년 만에 함께한다<br/><br/><br/><br/><br/>문재인 대통령이 20여년 간 활동해 오던 민변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br/> ▶ 문재인 대통령, 대선 직후 ‘민변’ 탈퇴···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br/><br/><br/><br/><br/><br/>서의동의 사람·사이, 오늘은 4대강 지킴이로 잘 알려져 있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4대강의 상태, 그리고 복원방법을 들어보시죠.<br/> ▶ [서의동의 사람·사이-김종술]4대강 복원 성공하려면 ‘4대강 마피아’ 청산해야<br/><br/><br/><br/><br/>“콘돔 싫어하는 여자가 매력 있다고 부끄럼 없이 내뱉고 약물 강간을 모의했다는 말을 자서전에다 쓰는 그렁 행동에도 비난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두둔하는 이런 남성들이 끈끈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는 알아버렸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기본적 합의조차 안돼 있다는 사실을….”<br/> ▶ [은하선의 섹스올로지]내가 남자를 만나지 않는 이유<br/><br/><br/><br/><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8.txt

제목: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다운계약서 작성 송구”  
날짜: 20170602  
기자: 유정인·박송이·허남설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2213204001  
ID: 01100101.2017060221320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ㆍ김상조, 야당 공세 반박…논문 ‘자기표절 의혹’엔 불법성 부인 <br/>ㆍ한국당·바른정당 “의혹 안 풀려”…국민의당 ‘사퇴’ 거론 안 해<br/><br/><br/>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입은 “<span class='quot0'>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 이사한 후 전세 거주했다</span>”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br/><br/>일부 의혹은 불법성을 부인했지만 “<span class='quot0'>송구하다</span>”는 뜻을 밝혔다.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에는 “잘못된 행정처리”라면서도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께 <span class='quot0'>송구하다</span>”고 말했다.<br/><br/>■ “위장전입 의혹 안타깝다”<br/><br/>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입한 데 대해 “<span class='quot0'>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그곳에 거주한 데 의문이 많은데 사정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내가 대장암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치료를 위해 이사했다</span>”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예일대 연수 뒤 2005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맞춰 다시 이곳으로 위장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span class='quot0'>전세계약서는 보관이 안됐으나, 관리비 납부 기록은 있으니 확인될 것</span>”이라고 했다. <br/><br/>다른 의혹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으로 신고된 데는 “<span class='quot0'>학교 연말정산 프로그램상 카드 사용액이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적용돼 기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간 2000만원 정도 썼는데 ‘0원’으로 나온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김 후보자는 수십건의 외부 강연료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span class='quot0'>매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택스’에 기록된 것은 빠짐없이 냈다</span>”고 밝혔다.<br/><br/>■ “현 기준에선 송구하지만…”<br/><br/><br/>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공립 고교 영어강사 채용에서 자격 점수가 미달하는데도 합격했다는 의혹에 “<span class='quot0'>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span>”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span class='quot0'>행정처리가 잘못된 데는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내는 책임을 통감해 사직서를 냈다</span>”고 밝혔다.<br/><br/>다운계약서 의혹에는 “직접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0'>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당시 관행이었다</span>”면서도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은 <span class='quot0'>송구하다</span>”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에 1억7550만원에 산 집을 5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br/><br/>2000년 노사정위원회에 낸 용역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은 “학술지의 요청과 노사정위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span class='quot0'>송구하다</span>”고 했다.<br/><br/>■ 한국당·바른정당 “의혹 해소 안돼”<br/><br/>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바른정당 한 청문위원은 “<span class='quot1'>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등 공직자로서의 인식을 갖추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br/><br/>반면 전날까지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당은 ‘사퇴’를 언급하진 않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2'>재벌·경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span>”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br/><br/>정무위는 오는 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관급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br/><br/><유정인·박송이·허남설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299.txt

제목: [이거슨 동물의 세계] (9) 녀석이 하늘로 떠난 날 하늘이 내려준 새 인연…이 소중한 만남, 지켜갈게  
날짜: 20170602  
기자: 최종욱 수의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2211625001  
ID: 01100101.2017060221162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회자정리<br/><br/><br/>표범 ‘표’가 죽었다. 내가 부르면 마치 고양이처럼, 아니 그보다는 좀 더 시크하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는 척하며 슬며시 다가와 울타리에 발을 올려놓고 나를 빤히 바라봐 주던 녀석이었다. <br/><br/>그가 죽은 모습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좀 비참해 보였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내실 가장 후미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 이미 16년의 파란 많은 천수를 산지라 굳이 부검을 하지는 않았지만, 짐작건대 간(肝)암 정도 되었을 것 같았다. 배가 유난히 부풀어 올라 있었고 간헐적인 혈변을 보였으며 입에서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간암 말기에 주로 발생하는 식도 혈관 파열쯤으로 생각된다.<br/><br/>물론 녀석은 맹수답게 끝까지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야생동물들의 의연한 죽음들을 쭉 보아온 터라 녀석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사람 같으면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며 혼절하다시피 약 기운에 취해 겨우겨우 연명하였을 터지만, 표는 아프면 그저 내실 구석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는 정도였다. 야생에서였다면 표범의 강력한 세력권하에 있는 모든 초식동물들이 환희의 축제라도 벌였을 판이었다. <br/><br/>녀석은 동물원 식구 누구보다 나와 인연이 깊었다. 어느 산장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사는 녀석을 내가 직접 마취해 데려왔다. 첫 보름 동안은 지독한 단식 투쟁을 벌여 주치의인 나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우린 비록 야수와 포수라는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누구보다 서로 잘 통했다. 나는 그에게 ‘표’라는 짤막한 이름을 지어준 후 매일 불러줬고, 얼마 같이 살진 못했지만 애써 짝을 찾아 붙여 주기도 했었다. <br/><br/>‘표’는 내가 동물원을 떠나 2년간 외도를 한 후에 돌아왔을 때도 나를 그전처럼 변함없는 반가움으로 맞아준 동물 중 하나였다. 그들은 불신과 배신이 난무하는 가벼운 유인원과의 인간으로선 헤아리기 어려운 속 깊은 우정을 보여줬다. 그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DNA를 선물로 남겼다. 두터운 털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옛 표범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표의 DNA는 우리나라 표범 연구를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다.<br/><br/><br/>아이러니하게도 표가 죽은 날, 또 하나의 경이로운 새 생명이 탄생했다. 갈색꼬리감기원숭이 암컷 ‘조마’가 올해도 고맙게 또 귀한 새끼를 낳은 것이다. 녀석의 이름 ‘조마’는 ‘조폭마누라’의 줄임말이다. 얼굴이 비록 험악하게 생겼지만 매우 자상한 그의 남편 ‘조폭’과 더불어 그들은 행복한 다섯 식구가 되었다.<br/><br/>조마의 일생도 표 못지않게 기구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사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사설 동물원에서 탈출한 조마는 산속에서 한 달 동안 추위를 견디며 도망쳐 다녔다. 119와 사설 동물원의 합동 포위작전 끝에 결국 붙잡혔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든 끝 마디가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간 비참한 상태였다. 더 이상 조마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설 동물원은 치료 명목으로 우리 동물원에 녀석을 무상 양도했고, 난 정성껏 녀석을 치료했다. <br/><br/>조마는 이후에도 틈만 나면 우리를 탈출해 나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하지만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인지 멀리까지 가진 못하고 주변에서만 맴돌다 마취약을 넣은 바나나 같은 위장술에 걸려 잡혀주곤 했다. 때론 스스로 돌아오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빠삐용’ 행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한 새끼들을 쑥쑥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동물원의 유명 스타가 됐다. 조마의 다섯 식구는 최근 우리 동물원에서 면적 대비 가장 넓은 놀이터를 가진 새 동물사로 이동해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조마를 보면 동물계의 잔다르크나 신사임당 같은 은근한 무게가 느껴진다. <br/><br/>언젠가 ‘표’처럼 이들과도 이별할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이 소중한 만남과 인연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br/><br/><최종욱 수의사>

언론사: 경향신문-2-300.txt

제목: 남성 발병률 높은 대장암, 간암 치료 생존율 높이려면 ‘암면역관리’ 주목해야  
날짜: 2017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2153707001  
ID: 01100101.201706021537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랜기간 암은 한국인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암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 완치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br/> <br/>예컨대 잦은 음주와 회식,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내 남성에게 발병률이 매우 높은 대장암과 간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 발병돼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일찍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평소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완치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br/> <br/>그렇다면 기수별 두 암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간암의 생존율은 1기가 50%, 2기 40%, 3기 25%, 4기 5%다. 대장암은 초기 생존율이 훨씬 높다. 대장암은 1기 생존율이 90%, 2기 80%, 3기 60%, 4기 5%로 점점 떨어진다.<br/> <br/>이처럼 암 기수가 높을 수록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3~4기일수록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치료방법에도 제한이 많아져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br/> <br/>의료업계에 따르면 전체 간암 환자 중 20% 전 후 만이 수술이 가능하며 나머지 80%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항암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br/> <br/>이처럼 수술이 어렵다보니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경동맥화학색전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비근치적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장암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br/> <br/>또한 간암은 항암치료효과가 가장 적은 암에 속한다. 대장암도 재발 시 항암치료에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결국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제 내성과 항암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br/> <br/>이러한 치료는 면역력 강화가 우선돼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암면역관리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며 저하된 체력을 회복시킨다. 즉, 암과 싸울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br/> <br/>그렇다고 암치료를 단순 면역력관리에만 의지할 순 없는 법. 이때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br/> <br/>이중병행암치료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는 물론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특히 치료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다양한 성분들이 위암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br/> <br/>옻나무추출물에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종양의 전이 및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치료제로 이중병행암관리를 진행하면 항암제의 유효반응율도 높일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301.txt

제목: 김상조 "'재벌저격수'인 제가 은마아파트 거주한 건 부인 항암치료 때문"  
날짜: 20170602  
기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2113422001  
ID: 01100101.201706021134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0'>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였다</span>”고 밝혔다.<br/><br/>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이유가 당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br/><br/>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1'>이른바 ‘재벌저격수’인 제가 은마아파트에 산 것에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는 걸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식 교육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span>”고 운을 뗐다.<br/><br/> <br/><br/> <br/><br/>이어 “영국에 교수 안식년을 다녀온 뒤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한 뒤 1년을 항암치료해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고 했다”며 “당시 수술을 받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라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제 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마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이사를 갔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br/><br/>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1'>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텐데 불행히도 보관이 안돼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당시 관리비 납부 기록이 있으니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2.txt

제목: [기타뉴스]오키나와 가데나 반환기지의 고엽제 매립현장  
날짜: 20170601  
기자: 오키나와 녹색순례|진두리, 임세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1165138001  
ID: 01100101.20170601165138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지를 찾았다. 가데나 기지를 살펴 본다. 오키나와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전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공군의 발진기지다. 90년대 철수한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함께 해외 주둔 미 공군의 대표적인 기지로 꼽힌다.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가데나촌에 위치한다. 가데나 기지는 주일 제 5공군이 관할한다. 총면적은 약 19.95km2로 3,700m의 활주로 2개를 가졌다. 또 200기 가까이 군용기를 소유한 극동 최대의 공군 기지다. <br/><br/>가데나 기지는 관광지로도 공개되고 있다. 미치노엑키 가데나다. 국도의 휴게소 건물 옥상에 전망대를 만들어 미군기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 오키나와로 평화나 군사기지에 관한 다양한 방문때 단골메뉴처럼 방문하는 곳이다. 공군기지의 활주로와 격납고, 전투기를 관찰하는 관광전망대인 셈이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곳이다. <br/><br/>짧은 시간이지만 가데나 기지의 드넓은 활주로를 보며 주일미군의 실체를 더듬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인지 곱씹게 되는 곳이다. 미군은 45년부터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지금까지 드넓은 공간을 마음껏 기지로 사용했다. 냉전을 거치면서 미일동맹을 근거로 주둔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양산하였따. 90년대까지는 폭행과 성범죄도 빈번했다. 2000년 전후부터는 환경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br/><br/>2014년 1월 가데나 기지 주변에서 충격적인 현장이 알려졌다. 오키나와시의 시립종합경기장에 축구경기장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고엽제 드럼통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조성 중이던 축구경기장 공사는 뜻 깊은 일이었다. 이전까지 가데나 기지의 일부 부지로 쓰였던 땅을 반환받아서 활용차원에서 축구장으로 건설하던중이었다. 그 와중에 땅속에서 드럼통이 나왔던 것이다. <br/><br/>정체불명의 드럼통은 곧 고엽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곧바로 조사가 착수되었다. 드럼통이 묻힌 주변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2만배나 검출되었다. 총 61개의 드럼통 중에서 18개의 드럼통에서 치명적인 수치의 다이옥신이 확인 된 것이다. 오키나와 시민들은 가데나 기지의 일부를 반환받아 기뻐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다이옥신이라는 괴물이 튀여 나왔다. <br/><br/>녹색순례단이 고엽제로 오염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순례단이 현장을 둘러 보았을 때 겉은 멀쩡한 땅이었다. 하지만 토양속은 독성물질로 범벅이 된 곳이었다. 비록 정화를 했다지만, 한 번 오렴된 토양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축구장은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br/><br/>문제의 땅은 가데나 기지의 군인숙소 옆에 위치한다. 과거 반환되기 전 이곳은 가데나 기지의 각종 매기물이나 폐품을 처리하던 곳이었다. 가데나 기지는 미군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허브 역활을 했다. 특히 베트남전쟁 때는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발진 했다. 전쟁에 필요한 많은 군수물자를 가데나에서 이륙시켜 군용기로 운송했다. 이런 군사물자 중에서 에이전트오렌지 즉 고엽제가 있었다. <br/><br/>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1961년부터 70년까지 10년간 살포했다. 고엽제는 울창한 남베트남의 숲을 시들게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건강도 서서히 망가져갔다. 참전자들은 이유없이 환각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게되거나, 때로는 원인불명의 암에 걸리기도 했다. 베트남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고엽제는 제조사인 몬산토사에서 만들어져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가데나를 경유한 것이다. 반환받은 미군 땅에서 고엽제가 나온 사실은 오키나와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다. 주일마군의 독성물질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에 불을 댕긴 큰 사건이 있었다. 주일미군의 독성물질 관리에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지난 99년 일본 본토 가나가와현의 사가미하라시의 캠프사가하라에서 맹독성 물질은 PCB 폐기물 드럼통 수백개 확인 된 것이다 당시 사가미하라시청의 가네코 도키와 시의원이 PCB페기물이 적재된 창고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일본 본토가 발칵 뒤집혔다. <br/><br/>PCB는 사가미하라 보급창의 172번 창고의 컨테이너에 폐기물 드럼통으로 보관 중이었다. PCB는 70년대 전기 절연체로 사용됐다. 하지만 맹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축척되면 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이 중대한 유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주일미군 종합보급창인 사가미하라기지에 보관된 것은 그 당시까지 주일미군이 사용해 오던 PCB페기물이었다. <br/><br/>1990년 이후에는 어떤 나라로 PCB폐기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미국과 캐나다로보냈으나 입국을 거부 당했다.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br/><br/>주요 일본 언론의 상당한 관심속에 여론은 급격히 기울었다. 그래서 주일미군은 실체를 인정했다. 당시까지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의 변압기에서 사용한 PCB 135t 이상을 사가미하라 기지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PCB 함유 폐기물을 수거해 캐나다의 처리 공장으로 보냈으나 현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같은 폐기물을 미국으로 보내려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일본으로 되돌아 왔던 것이다. 사가미하라 보급창의 PCB 폐기물은 결국 2004년에 미국으로 수송되었다. 가데나 기지 반환부지에서 고엽제가 확인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할 일이다. 주한미군도 독성물질은 만만치 않다. 특히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용산기지가 반환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미군기지의 반환이다. <br/><br/>오키나와의 고엽제 논란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미군기지 반환에서 과거 미군이 해당기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환경적인 관점에서 조사가 절실하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유해환경물질과 독성물질 등 군대가 사용하거나 과거 사용했던 독성물질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시추와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br/><br/>지금까지 국내의 반환미군기지는 주로 유류오염에 의한 중금속 조사에 머물렀다. 토양 위주로 조사했고, 지하수는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주일미군의 사례처럼 용산을 비롯한 앞으로 남은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정화 절차에서는 PCB와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물질과 고농도 발암물질 등도 조사를 열어놓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br/><br/>반환기지 오염과 정화에 관한 대책에 있어 정부나 지자체 모두 국내외의 동향과 실태에 무관심하다. 반환기지의 협상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기지에 대한 반환 합의 이후 열쇠는 국방부가 넘겨 받는다. 협상과 인수 과정 중에 환경부는 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서인 한미행정협정의 환경조항을 근거로 미군측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루한 협상을 한다. 하지만 환경적인 관점에서 미군기지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고, 어떤 물질을 주로 다루었는지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환경오염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 오염과 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 문제는 환경부인데, 기존에 확인된 미군의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를 촉구하는 일을 버거워한다. 그래서 더 심각한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br/><br/>중앙정부가 못하면 지자체라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오키나와 녹색순례에서 확인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다. 주일미군기지의 많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대충대충 처리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반면, 오키나와 현청과 각 기지가 있는 시청과 군청 등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일본정부와 해당 미군기지를 압박한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에 맞게 적절한 대책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한다. <br/><br/>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행보도 아쉬운 편이다. 대한민국에는 두가지의 미군기지가 있다. 하나는 용산기지이고, 또 하나는 나머지 미군기지다. 용산의 비중과 위상은 다른 주한미군기지와 비할바가 아니다. 더욱이 지난 20년간 환경오염사고는 14건으로 다른 주한미군기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과 정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br/><br/>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해 서울시도 국토부처럼 오염정화를 비롯한 실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염불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br/><br/>주일미군 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의 거울이다. 오키나와민중연대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한국에서도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키나와에서 고엽제의 드럼통이 쏟아졌다. 기지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오키나와(일본) 시민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현실에서 기지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지적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군사기지가 현실이다. 문제의 접근과 해결도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미국을 알고 미군을 알아야 주둔군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점을 오키나와는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br/><br/><br/><br/>[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오키나와 순례기]<br/><br/>▶1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 <br/>▶2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br/>▶3회- 오키나와에 배어있는 조선의 피와 눈물 <br/>▶4회- “더 이상 기지는 필요 없다” 미일동맹의 헤노코 신기지를 반대하는 오키나와 <br/>▶5회- ‘과부제조기’에 맞선 다카에 주민들 <br/><br/><br/><오키나와 녹색순례|진두리, 임세림>

언론사: 경향신문-2-303.txt

제목: 암 수술ㆍ항암ㆍ방사선치료, 회복 및 재발, 전이방지에 한의치료 도움  
날짜: 2017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1154859002  
ID: 01100101.2017060115485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발달한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암 완치율은 이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은 오랜 시간 국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br/> <br/>이러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양방 3대 치료라고 일컬어지는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제 치료이다. 하지만 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에서 끝나지 않으며,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재발암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 정기적인 검사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br/> <br/>때문에 최근에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암 수술 및 항암제 사용 이후 빠른 회복과 면역 증진 등을 위해 암요양병원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요양병원이 단순 요양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인력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항암치료, 항암식단 등 다양한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 <br/>또한 암요양병원의 경우 양방치료 위주의 대형 병원과 달리, 대부분이 한방∙양방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진료 시스템이 정착, 암 치료에 있어 한의학을 선호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br/> <br/>용인에 위치한 신갈백세요양병원 임철성 한의사는 “환자가 원발암인 경우라면 한방치료보다는 양방 3대 치료(항암, 방사, 수술)에 더 집중해서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암은 수술로 잘라내고, 항암제로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수술과 항암 후 대표적 부작용인 골수수치저하와 피로, 불면, 구토, 손∙발 저림과 통증 등의 증상도 대부분 한의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 <br/>그러나 양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전이 및 재발이 된 환자 대부분들은 양방에서 더이상 치료를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사선치료도 일정 수준이상을 사용하면 더 이상은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돌아가실 때까지 무한 항암요법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br/> <br/>이에 대해, “실제로 암이 전이, 재발했을 때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객관적 논문들이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본원에서도 양∙한방 병행치료로 효과를 보신 환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덧붙였다.<br/> <br/>한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통해 다양한 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진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인 지역뿐 아니라 수원과 성남 등 주변 경기권에서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사: 경향신문-2-304.txt

제목: “헌차를 새차 값으로 강매”…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적발  
날짜: 20170601  
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601110412001  
ID: 01100101.2017060111041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 서울에 사는 ㄱ씨(46·여)는 인터넷에 2016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찾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자 딜러는 “현재 계약한 차는 누군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ㄱ씨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자 딜러는 불가하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했다. 결국 ㄱ씨는 2015년 10월에 3413만 원에 출고된 차량을 3400만 원에 샀다.<br/><br/># 경남 양산에 사는 ㄴ씨(65)는 2015년식 코란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 딜러와 계약했다. 딜러는 계약이 끝나자 “이 차는 1500만 원의 할부가 남아 있어 3년 내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 ㄱ씨는 자신이 타고 온 지프 차량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딜러는 “염치없는 노인네”라며 협박해 결국 사고 차량이던 2013년 코란도 차량을 2800만 원에 구매했다.<br/><br/># 2013년식 벤츠 E클래스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다는 것을 보고 서울에서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찾은 ㄷ씨(56)는 딜러와 계약했다. 그런데 딜러는 “이 차는 공매차량으로 실제 차량은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했다. 암환자인 ㄷ씨는 계약 포기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ㄷ씨를 며칠씩 차량에 데리고 다니면서 시세 2250만 원인 차량인 2012년식 벤츠 C200을 4200만 원에 팔았다.<br/><br/>인터넷에 올린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신차 가격처럼 비싼 값에 판매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br/><br/>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공동강요) 혐의로 ㄹ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108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br/><br/>ㄹ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등지에서 ㄱ씨 등 125명에게 중고차를 강매하고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ㄹ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실제 보유하지 않는 차량을 허위 광고해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가 이미 팔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매입토록 유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br/><br/>이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갑자기 돌변해 출고비 500만∼3000만원이 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과 부천 등의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면서 욕설과 위협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 차량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들 11개 중고차 매매상사는 사장과 부사장, 팀장, 딜러, 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경찰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span>”고 말했다.<br/><br/><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5.txt

제목: ‘웨어러블 로봇’이 가져다준 인간 삶의 변화…EBS1 ‘과학다큐 비욘드’  
날짜: 20170531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31194202001  
ID: 01100101.2017053119420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EBS 1TV <과학다큐 비욘드>는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의 세계를 들여다본다.<br/><br/>올해 31살인 스티브는 18살 때 묘기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을 입어 척수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각종 재활 치료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희망을 버렸을 즈음, 한 로봇 연구소의 제안을 받고 임상 테스트에 참가했다. 바로 그날 스티브는 웨어러블 로봇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사고가 난 지 8년 만이었다. 이 밖에도 암으로 손을 잃은 사람이 웨어러블 의수로 인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도 했다.<br/><br/>웨어러블 로봇의 기능이 ‘치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한 여성은 20~30㎏의 덤벨을 번쩍 들고, 남성과의 운동 대결에서도 지지 않는다. 웨어러블 기기는 만화 속 히어로처럼 인간의 신체 기능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환자 전담 물리치료사도 적은 힘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의 등장은 인간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방송은 1일 오후 9시50분.<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6.txt

제목: [상생특집]아모레퍼시픽 - 암 치료 받는 여성환자 대상 뷰티 캠페인  
날짜: 20170530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30203241001  
ID: 01100101.2017053020324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은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r/><br/>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아모레는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자연생태’ ‘문화’ 등 3대 핵심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 및 후원(기본재산 출연, 목적사업 일정금액 기부 등), 기업 차원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공헌 활동,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공익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br/><br/>아모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약속 ‘20 by 20’를 발표했다. 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아모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명 여성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 전 세계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br/><br/>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2016년 말까지 이 캠페인에 총 1만1078명 여성 암환자와 4033명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br/><br/>아모레가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위한 창업 대출을 지원하고, 창업주와 그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100호점(2011년), 200호점(2013년)을 거쳐 지난 2월 현재 303개점이 문을 열었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7.txt

제목: [상생특집]KDB산업은행 - 복지 사각 취약계층 돕는 ‘키다리아저씨’  
날짜: 20170530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30203038002  
ID: 01100101.20170530203038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KDB산업은행이 최근 새로운 사회공헌사업 프로그램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KDB 키다리아저씨 사업’(이하 키다리아저씨)이 올해 10호를 기록했다. <br/><br/>지난해 말 지원한 1~2호를 포함하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총 12개의 개인과 기관이 키다리아저씨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것이다. 키다리아저씨는 작년 2월 취임한 이동걸 회장이 직접 제안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공헌사업 모델이다. 정부나 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개인이나 미인가 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산업은행이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br/><br/>지난해 11월 KBS 뉴스에 방영된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 심장병 치료성금 편취’ 사건을 접하고 아이 치료비를 지원한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암에 걸린 모친의 수술비를 걱정하는 모범 장병, 농가주택 화재로 거리에 나앉은 공주의 5남매, 생사를 걸고 탈북해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는 늦깎이 탈북학생 4명,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대구의 여고 3학년생 등 다양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소외계층에게 12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br/><br/>산업은행은 최근 주요 피후원자들과 초청간담회를 열고 후원 전후의 애로사항과 소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키다리교실(키다리아저씨 8호)의 강명희 원장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키다리교실의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뜻밖에 산업은행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후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r/><br/>또 탈북대안학교(키다리아저씨 9호)의 조모 학생 외 3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업은행의 후원으로 대입 검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키다리아저씨는 올해 말까지 3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br/><br/><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8.txt

제목: “보험금 타내려 허위 입원”…병원장 알고도 눈감아  
날짜: 20170530  
기자: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30111138001  
ID: 01100101.201705301111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8명이 불구속입건됐다. <br/><br/>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ㄱ씨(56) 등 환자 8명과 대구지역 모 병원의 ㄴ원장(50)등 모두 10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협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r/><br/>ㄱ씨 등 8명은 2014년 4월∼2015년 7월 암 치료 등을 위해 장기 입원해 보험금 1억435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r/><br/>경찰 조사결과 ㄱ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타내려 10여일~수개월씩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br/><br/>병원장 ㄴ씨 등은 ㄱ씨 등 8명이 외출·외박이 잦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강제퇴원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br/><br/>또 환자들을 상대로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2600만원 어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ㄱ씨 등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피해 보험사에 알렸다</span>”고 말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09.txt

제목: ‘돌바람’, 돌 내려놔···알파고 ‘하산’ 빈자리에 낄 국내 바둑 인공지능 없어  
날짜: 20170529  
기자: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29180744001  
ID: 01100101.2017052918074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인간 최고 기사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며 바둑계 정상에 오른 ‘알파고’가 하산을 선언했다. 이제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속속 등장한 각국의 바둑 인공지능들이 차세대 왕좌를 놓고 겨루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전장에서 한국의 바둑 인공지능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컴퓨터 바둑을 연구해온 인공지능 ‘돌바람’이 최근 돌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돌바람을 개발하는 업체 ‘누리그림’ 관계자는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바둑은 안한다”고 말했다.<br/><br/><br/><br/>돌바람은 2012년부터 누리그림의 임재범 대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으로 2013년 KGS 인공지능 바둑대회에서 우승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5년 3월에는 일본 전기통신대학(UEC)이 개최한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 처녀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11월에는 7개국 9개팀이 참가한 미림곡배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br/><br/>컴퓨터 바둑에서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던 돌바람의 위상은 지난해 딥러닝으로 무장한 알파고가 등장하며 하락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15년 말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비법인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중국과 일본의 바둑 인공지능은 공개된 소스를 통해 딥러닝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개발을 시작할 때만해도 알파고 기력의 3~4% 수준에 머문 일본의 바둑 인공지능 ‘딥젠고’는 현재 인간 프로기사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까지 기력이 올라왔다. 올해 3월 열린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딥젠고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바둑 인공지능 ‘줴이’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딥러닝을 체득하지 못한 채 이 대회에 출전했던 돌바람은 8강에서 줴이에게 패배한 후 5~8위 결정전에서 내리 지면서 8위에 머물렀다. 불과 1년 남짓의 시간동안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br/><br/>돌바람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국내에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카카오브레인이 한국기원과 손잡고 바둑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데이터와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직접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업계는 바둑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데다 경우의 수가 많아 알고리즘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바둑’을 선택해왔다. 알파고 역시 바둑으로 상대를 이기는 인공지능을 넘어 신약개발, 암 진단 등에 활용되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br/><br/>김진호 서울과학기술종합대학원 빅데이터MBA 교수는 “<span class='quot0'>구글이 딥러닝 오픈소스를 공개할 당시 일본과 중국은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딥러닝을 구현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금과 시간, 인력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당장은 알고리즘을 개발해 훈련시킬 주체가 없다</span>”고 말했다.<br/><br/><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0.txt

제목: “술 사러” 아파트 완강기 이용 60대 여성 추락사  
날짜: 20170525  
기자: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25141732001  
ID: 01100101.201705251417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술을 사기 위해 화재 시 비상 탈출용으로 쓰이는 아파트 완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br/><br/>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오후 9시 45분쯤 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 ㄱ씨(62)가 떨어져 있는 것을 ㄱ씨의 남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r/><br/>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ㄱ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ㄱ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br/><br/>사고 당시 ㄱ씨는 8층 집에서 완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다 도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br/><br/>ㄱ씨의 남편은 집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ㄱ씨를 찾다가 열려 있는 창문 아래 화단에 쓰러져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br/><br/>ㄱ씨는 지난해 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 문제로 가족들이 음주를 못 하게 하자 몰래 술을 사려고 집안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했지만 줄을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은 탓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1.txt

제목: 자궁경부암 주사로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이형성증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25124306001  
ID: 01100101.201705251243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면역력이 약화되면 각종 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 중 대표적인 여성 암인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 발병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익숙한 병이다.<br/><br/>자궁경부암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크게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빠른 나이에 시작한 성관계, 둘째, 성관계 파트너 수가 많은 경우, 셋째, 인유두종(HPV)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넷째, 흡연, 다섯째, 장기간 경구피임약 사용, 여섯째,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다. 이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한 감염이 자궁경부암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자궁경부이형성증이란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로, 자궁경부가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자궁경부에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는 종양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에 해당돼 종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또한 주로 성생활이 활발한 20~30대 사이의 여성들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br/><br/>그렇다면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동일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때문이다. HPV는 성관계 혹은 위생적이지 못한 진료환경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다. 자궁의 건강도가 좋을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자궁건강도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정상세포를 이형성세포로, 이형성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br/><br/>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발암물질, 흡연 등의 요소도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주로 질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정도의 가벼운 출혈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병변이 진행되어 조직의 손상이 심해지면 출혈과 질 분비물이 심해지고,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동반하기도 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조은여성의원의 조영열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 시 완치율이 높은 편이므로 먼저 정기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암이 되기 이전 단계인 ‘전암 단계’가 7~20년까지이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해 암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br/><br/>또한 조 원장은 백신 주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span class='quot0'>암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대표적인 백신주사로는 ‘가다실 9가’가 있다</span>”라고 언급했다. ‘가디실 9가’는 자궁경부암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HPV를 막아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한다. 또한 자궁경부암 발생요인의 70%를 차지하는 HPV 16, 18번의 감염을 예방하며, 이와 관련된 10가지 HPV 유형에서도 추가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br/><br/>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이형성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유일하게 백신으로 90%까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이와 더불어 백신뿐 아니라, 주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성생활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언론사: 경향신문-2-312.txt

제목: 007 영화 속 ‘불사조’였던 배우 로저 무어 별세  
날짜: 20170523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23234856001  
ID: 01100101.20170523234856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3대 제임스 본드로 7편 출연<br/><br/><br/><br/>3대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영화배우 로저 무어가 2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br/><br/>가족들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버지 로저 무어가 암과의 짧지만 용감한 싸움 끝에 오늘 스위스에서 사망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br/><br/>1927년 런던에서 태어난 무어는 엑스트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대중이 사랑하는 배우로서 그의 영화 경력은 ‘007’ 시리즈의 세 번째 제임스 본드 역할에서 정점에 달했다. 고인은 1973년 <죽느냐 사느냐>로 시작해 1985년 <뷰 투 어 킬>에 이르기까지 모두 7편의 ‘007’ 영화에 출연했다. <br/><br/>영화 촬영 중 인도의 빈곤 상황에 충격을 받아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1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대사가 됐다. 인도주의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과 2003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3.txt

제목: [한기호의 다독다독]초연결지능, 인공지능, 사회적 지능  
날짜: 20170522  
기자: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22205041001  
ID: 01100101.2017052220504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오감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의 다섯 가지 감각이고, 육감은 분석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도 직관으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7의 감각은 무엇일까요? <제7의 감각, 초연결지능>(조슈아 쿠퍼 라모, 미래의창)에서는 ‘초연결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물이 연결에 의해 바뀌는 방법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br/><br/>“<span class='quot0'>누구나 무엇이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시대</span>”에서 연결은 “<span class='quot0'>인터넷 연결만이 아니라 현재 도처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규정하는 전체 네트워크</span>”를 말합니다. 금융망, DNA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망, 테러나 마약 네트워크, 통화플랫폼 같은 것들을 포괄합니다.<br/><br/>이런 시스템에서는 작은 힘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span class='quot0'>하나의 잘못된 상품 거래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span>” 수도 있습니다. “<span class='quot0'>한 명의 해커가 국가의 방어 시스템을 도어스톱처럼 적극적으로, 전문용어를 쓰자면 ‘벽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span>”습니다. <br/><br/>“<span class='quot0'>우리 시대의 가장 가공할 만한 물리적 구조물, 즉 군대, 시장, 정부조차 그것들이 연결된 신경계에 가상의 공격을 받으면 간단하게 마비될 수</span>”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랜섬웨어’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br/><br/>이제 두려움의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19세기에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폐렴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암이었지요. 우리 시대에 나타날, 특히 21세기 초에 나타날 병은 광기입니다. 어쩌면 정신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span class='quot0'>정보, 휴대폰, 데이터 패킷을 포함해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비트의 물결이 소모의 병을 전염시킬 것</span>”이라는 거지요.<br/><br/>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에 광신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도 자신의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고통’과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빅데이터, 공유경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이커운동 등 첨단의 어벤저스급 기술들을 호명하며 불안의 정도만 키웠습니다.<br/><br/>과연 우리는 이 기술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광적으로 이들 기술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51.8%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br/><br/>인공지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30년 넘게 뇌를 연구해온 예일대 신경과학과 이대열 석좌교수는 <지능의 탄생>(바다)에서 지능은 오직 생명체만 가질 수 있기에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br/><br/>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능은 생명체의 기능이다.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복제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사본은 가끔 원본과 작은 차이점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로 원본보다 더욱 능률적으로 자기복제를 할 수 있는 복사본들이 진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 지능이란,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생명체가 획득하게 되는 능력들 중의 하나로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인간이 선택한 문제를 인간 대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말기 때문에 참다운 의미의 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br/><br/>이 교수는 지능과 지능지수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능은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에 최상의 문제해결방법은 생명체의 필요도와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br/><br/>한마디로 정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간 지각 능력이나 언어 기억 능력을 측정하고 수량화”한 지능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br/><br/>하지만 인공지능의 활동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이 하는 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양의 지식을 저장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내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의학이나 법처럼 특수한 분야에서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지능검사와 시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인공지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br/><br/>앞으로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텍스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글을 쓸 줄 아는 능력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하겠지요. 이 교수도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능’에 주목합니다.<br/><br/>“<span class='quot0'>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호도와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복잡한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span>”고 말하는 그는 이 책에서 사회적 지능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아에 관한 통찰을 하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br/><br/>지능의 본질을 인공지능과 비교해 분석하니 그 차이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차이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을 이 책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br/><br/>차이를 이해하니 이제 막연한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저절로 생기는군요. 세계적 석학이 쓴 책을 읽는 진정한 맛인 것 같습니다.<br/><br/><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언론사: 경향신문-2-314.txt

제목: [커버스토리]열이 심할수록 해열은 천천히? 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뇌병변’  
날짜: 20170519  
기자: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9212640001  
ID: 01100101.201705192126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안아키’ 치료법에 대한 전문의 소견은 <br/>ㆍ아토피에 건조해진 아이 피부 <br/>ㆍ보습 안 해도 된다는 건 ‘궤변’<br/><br/><br/><br/>“<span class='quot0'>배탈이 났을 때에는 숯가루를 먹이고, 열이 날 때에는 관장을 해야 한다.</span>” 김효진 원장과 ‘안아키’ 회원들이 주장하는 치료법들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과 상충되는 지점이 많다. 자연주의 치료 방법에 대한 전문의들의 소견을 들어봤다. <br/><br/> 예방접종하지 마라?<br/><br/>안아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설명서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따질 경우 실질적으로 접종 가능한 아이는 몇 되지 않는다. 또 자연스럽게 앓는 것이 더 좋은 병들은 백신으로 예방할 필요가 없다. 홍역, 수두 등이 그렇다. <br/><br/>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감염학과 교수 : 홍역, 백일해 등이 창궐하던 시대가 지나고 실제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굳이 예방접종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본에서 이런 생각으로 백일해 접종률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즈음 백일해 발병률이 다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 했을 때 90명 이상이 접종을 했으면 나머지 10명은 접종을 하지 않아도 접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집 면역력 덕분이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 마치 돛단배에 구멍이 생겨 서서히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사회의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접종을 권하는 것이다. <br/><br/>홍역이나 수두를 자연스럽게 앓게 해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홍역을 앓으면 고열이 발생하고 폐렴, 뇌염 등 급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추후 뇌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수두 역시 마찬가지다. 암 환아나 장기 이식을 받은 아이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만 돼도 치명적이다. <br/><br/>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방접종은 국가적 사업이다. 한 번의 접종으로 면역력이 온전히 생기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집단 아동시설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해당 아이와 함께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br/><br/> 항생제는 백해무익하다?<br/><br/>안아키 : 입으로 들어온 항생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화기관에서부터 인간에게 유익한 세균들이 죽기 시작한다. 입맛이 없어지면서 체력이 약화되고 내분비 질환이 촉진된다. 혈압과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이 많아지게 된다. <br/><br/>빈중현 부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대다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세균성 질환으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나머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을 내리는 까닭은 2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항생제는 항염의 효과도 있다. 또 치료 속도 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낫도록 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질병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br/><br/> 아토피, 긁어도 된다?<br/><br/>안아키 :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으로 보습을 꼽는다. 하지만 피부염의 ‘염’은 불꽃 염자다.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데 기름진 성분의 로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아이가 간지러워하면 긁도록 두는 것이 좋다. 긁어 피가 나면 그 자리로 더 많은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염은 병원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br/><br/>서성준 중앙대 피부과 교수 :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햇빛으로 치료하라는 것은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적 손상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 가려움증은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열을 뿜어내며 독소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고민해 봐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거둘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 <br/><br/> 열은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br/><br/>안아키 : 열이 심할수록 해열은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돼야 한다. 고열에 강한 해열제는 무서운 독약과 같다. 자연 해열법에는 물수건으로 닦아주기, 샤워기로 뒤통수에 물 흘리기, 각탕하기 등이 있다. 특히 해독 성장 및 관장법은 급성 알레르기성 발열, 열성 경기 등에 효과적이다. <br/><br/>강병철 소아과 전문의 : 아이들에게 열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 정말 사소한 열이라도 그것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극단의 경우 뇌병변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고열은 신속히 내려줘야 한다. 또 ‘안아키’에서 말하는 해독은 관장의 일종으로 보인다. 항생제를 쓰면 장내 유익균이 사멸하여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관장을 할 경우에도 장내 미생물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먹거리 하나 믿을 수 없는 시대에 ‘해독’이란 단어가 그럴싸해 보이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바로 간이다. 진정한 해독을 바란다면 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어린이들의 간은 간염으로 인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br/><br/><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5.txt

제목: 재발률 높은 폐암·대장암 치료, 면역력 관리 중요해  
날짜: 2017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9163025001  
ID: 01100101.2017051916302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라면·국수 등 가공식품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br/><br/>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은 여성보다 특히 남성에게서 더욱 자주 나타난다. 그렇다 보니 대장암과 폐암과 같은 질병에서 남성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질병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보다 3~4기까지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br/><br/>대장암과 폐암의 경우 초기발견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부분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대장암의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하더라도 재발률이 20~50%로 높고,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전신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다.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률 또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완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이다.<br/><br/>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사멸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 강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가 낮아지기도 하고 환자의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br/><br/>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의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장암과 폐암은 재발할 경우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와 같은 한방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이중병행암관리는 암 면역 치료의 일환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시키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br/><br/>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더 높은 항암 유효반응률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옻나무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와 같은 한방제제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전이와 성장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의 김보근 박사는 "<span class='quot0'>대장암과 폐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를 빠르게 적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316.txt

제목: [미리보는 국정(7) 미디어]‘정권 나팔수’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해직언론인 제자리로  
날짜: 20170518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8225704002  
ID: 01100101.20170518225704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ㆍ이사회 구성비 조정 통해 정권의 방송 장악 원천 차단 <br/>ㆍ종편 의무재송신 등 특혜 손질…대대적 조직 개편 관측<br/><br/><br/>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중 공영방송과 해직언론인 문제에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가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3월 MBC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일대일 토론시간을 할애해 “<span class='quot0'>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span>”며 앞으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년간 정권은 낙하산 인사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경영진은 권력 눈치보기, 비판 최소화로 정권에 보은했다. 언론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공영방송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br/><br/>■ 인사권 내려놓기로 정상화 첫발<br/><br/>문 대통령의 미디어 관련 공약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과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임명할 수 있는 현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4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다수결로 사장을 임명한다. 문 대통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비를 여야 추천 7 대 6으로 바꾸고, 사장 선출 시에는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br/><br/>이는 방송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역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집권여당과 정권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여야가 바뀐 만큼 현 정부도 공영방송 사장에 자기 인사를 앉힐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br/><br/>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span class='quot1'>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질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방문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br/><br/>해직언론인 복직과 진상 규명도 주요 공약 중 하나지만 법안을 마련해 풀어야 하는 만큼 행정부보다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br/><br/>■ 종편 특혜 손질, 미디어산업 진흥<br/><br/>출범 7년차를 맞은 종합편성채널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와 동일규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12월 출범한 종편은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중간광고 허용, 자사 미디어렙을 통한 직접광고 등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 “<span class='quot2'>이제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 차별은 없앨 때가 됐다</span>”고 말했다.<br/><br/>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종편 채널을 무조건 내보내게 했던 ‘종편 의무재송신’은 새 정부에서 사라질 대표적 특혜로 꼽힌다. 의무재전송 대상 지상파에는 KBS1과 EBS 등 공영방송만이 포함돼 있고 SBS, MBC조차 빠져있는데,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재송신 대상에 들어있으면서도 프로그램 재송신료로 매출까지 올리고 있어 종편 출범 당시부터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상파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종편에는 허용됐던 중간광고 규정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신문과 중소 지역방송 등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br/><br/>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를 위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상을 강화하며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공영방송 수신료 역시 시청자 참여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징수, 배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r/><br/>지역방송 및 신문 지원,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문편성 PP 및 온라인 동영상·개인방송 활성화 추진, 중소제작자 콘텐츠 제작 장려를 위한 공적기금 확충 등 다양한 미디어 진흥 공약도 나왔다.<br/><br/>■ 미디어조직 개편 방안은 안갯속<br/><br/>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왔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br/><br/>민주당 측은 대선 기간 언론단체들이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냈던 미디어 정책질의 중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안 없음’이라고 답변해 “<span class='quot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span>”는 비판을 받았다.<br/><br/>하지만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새 정부가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도 가칭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캠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미디어위원회가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5'>구체적 조직개편 방안은 청와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7.txt

제목: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 일단 보류  
날짜: 20170518  
기자: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8213842001  
ID: 01100101.20170518213842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ㆍ문화재위 “추후 현지 조사” <br/>ㆍ암각화 훼손 심화 불가피<br/><br/><br/>문화재위원회는 18일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방안으로 제출한 ‘생태제방 축조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br/><br/>생태제방 축조안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50여년째 해마다 침수와 노출 반복으로 급격히 지워지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바위 그림)의 훼손 심화는 불가피하게 됐다.<br/><br/>문화재청은 이날 “<span class='quot0'>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심의에서 울산시의 생태제방 축조안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문화재위원들은 ‘암각화 현지 조사 후 재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span>”고 밝혔다.<br/><br/>생태제방 축조안은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길이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아 물길이 암각화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추진해온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방안이 지난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br/><br/>그러나 생태제방안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이 2009년,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적이 있어 전문가들은 심의에 앞서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제방을 세울 경우 “<span class='quot1'>암각화 주변 역사문화 경관 훼손이 심해진다</span>”며 암각화 훼손의 주범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실제 제방을 쌓을 경우 암각화 경관 훼손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br/><br/>정부와 울산시는 20년째 보존 대책을 둘러싸고 의견 마찰을 빚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은 사연댐 수위를 낮추자고 강조하는 반면 울산시는 제방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2'>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아직도 의견조율을 못하는 한심한 상황</span>”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br/><br/>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제작된 반구대 암각화는 어부들의 고래사냥 장면을 비롯해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문화상을 보여주는 300여점의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국제적 주목을 받는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건설되면서 장마철이면 침수되고 물이 빠지면 노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바위의 그림들이 지워지고 있다.<br/><br/><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8.txt

제목: 첫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 전 중령, 유방암 이겨내고 군 강제퇴역 승소  
날짜: 20170517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7223719001  
ID: 01100101.2017051722371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17일 임명된 피우진 전 중령(61·사진)은 대한민국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이다. 첫 여성 보훈처장이기도 하다. 예비역 장성들이 주로 맡았던 보훈처장에 영관급 출신이 발탁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br/><br/>피 처장은 “<span class='quot0'>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span>”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는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성 공직자·장관을 30% 비율로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공약했고, 군 출신이면서 보훈가족으로 상이군인이기 때문에 발탁하신 것으로 안다</span>”고 설명했다.<br/><br/>피 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span class='quot0'>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span>”이라고 답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2009년 9월 전역했다. 17년 동안 헬기를 탔고 1300여시간 비행 기록을 갖고 있다.<br/><br/>2006년 전역 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했다. 그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비상임)으로 활동했다. 2015년 예비역 여군들과 함께 ‘젊은여군포럼’을 설립해 대표를 맡았다. 지난 4월25일에는 젊은여군포럼을 이끌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환경재단이 선정하는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br/><br/>피 처장은 2002년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 늘 압박 붕대로 가슴을 동여매고 훈련에 임했던 거추장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2006년 양쪽 가슴을 잘라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6년 2급 장애 판정으로 전역 조치됐다.<br/><br/>그는 유방암 수술 뒤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 퇴역 대상인 공상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암 병력이면 퇴역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군과 맞서 싸운 것이다. 결국 법원은 2008년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암 병력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상해 때문에 강제 전역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br/><br/>피 처장은 군 복귀 후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교리발전처장으로 근무하다 1년 후 군을 떠났다.<br/><br/>그는 2006년 여군의 삶을 담은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책에서 철저한 남성 중심 조직인 ‘군’에서 자신이 걸어온 30년간의 생활을 기록하면서 여군이 처한 상황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맞서 싸워 온 과정을 기술했다. <br/><br/>그는 국방부의 복직 명령에 따라 현역 신분을 회복한 후에는 “군이 제게 전부였고 군을 사랑한다. 저는 영원한 군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19.txt

제목: [속보] 신임 보훈처장에 '1세대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  
날짜: 20170517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7161501001  
ID: 01100101.20170517161501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여성 1세대 헬기 조종사로 유명한 피우진 전 중령(61)이 임명됐다.<br/><br/><br/><br/>피 신임 보훈처장은 ‘젊은여군포럼’ 대표다. 2015년 결성된 젊은여군포럼은 한국 최초 여성 장군인 양승숙 준장을 비롯해 김화숙 대령, 김은경 대위, 최이슬 중사 등 계급별 예비역 여군들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여군포럼은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이나 인권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br/><br/>젊은여군포럼은 지난 4월 25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에 참여했다.<br/><br/>당시 피 전 중령은 지지선언문에서 예비역 여군 9명과 함께 “<span class='quot0'>인권변호사로서 문 후보가 보여준 과거의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리라 약속하는 증거</span>”라며 “<span class='quot0'>군의 5.6％ 소수자인 여군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수많은 장병들의 삶 그리고 국민들의 삶까지 책임져주는 진짜 안보라고 믿는다</span>”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br/><br/>피 전 중령은 “<span class='quot0'>군과 민간, 여성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 후보의 여군정책 수립에 참여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예비역 여군 당사자들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참여한 것은 67년 여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span>”이라고 말했다.<br/><br/>신임 피 보훈처장은 1979년 임관해 2009년 9월 전역했다. 그는 2006년 유방암을 이유로 질병전역 처분을 받았으나 국방부와의 법정 소송 끝에 2008년 복직했다. 이후 논산육군항공학교에서 교리발전처장으로 근무하다 1년 후 군을 떠났다.<br/><br/>피 신임 보훈처장은 “<span class='quot1'>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 것</span>”이라고 소감을 밝혔다.<br/><br/>대한민국 육군 1세대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인 그는 전역 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입후보하기도 했다.<br/><br/>그는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6년에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같은해 11월에 전역했으나 “<span class='quot1'>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암 병력이면 퇴역시키는건 불합리하다</span>”며 취소소송을 통해 2008년에 복직했다.<br/><br/>이후 국방부는 암 병력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상해때문에 강제 전역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br/><br/>그는 2006년 여군의 삶을 담은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철저한 남성 중심의 조직인 ‘군’에서 자신이 걸어온 30년 군 생활을 기록하면서 여군이 처한 상황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맞서 싸워 온 과정을 기술했다.<br/><br/>그는 국방부의 복직 명령에 따라 현역신분을 회복한 후에는 “군이 제게 전부였고 군을 사랑합니다. 저는 영원한 군인입니다”라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br/><br/>피 신임 처장은 1978년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81년부터 25년간 창공을 누비며 1300여 시간 비행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로 이름을 날렸다.<br/><br/>그러나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2006년 11월 퇴역했다. 그는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br/><br/>그는 유방암 수술 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돼 있는 공상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0.txt

제목: <헬스 게시판> 내 혀에 혹시 구강암이? 콩팥은 괜찮을까?  
날짜: 2017051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7100127001  
ID: 01100101.201705171001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대 치과병원, 궁금한 혀 질환 공개강좌<br/><br/>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 5월 25일 낮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궁금한 혀 질환’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br/><br/>혀는 주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식물 씹기, 음식물 덩어리 형성, 삼키기, 말하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혀의 표면에는 유두가 분포되어 있어 감각기능 뿐만 아니라 미각기능을 발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만 혀 자체에도 여러 다양한 질환이 나타난다.<br/><br/>병원 측에 따르면 구강점막 표면에는 뚜렷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지만 혀나 입술, 입천장 부위가 화끈거리고 아픈 경우, 혹은 입안에 불덩이를 문 것 같은 느낌이나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가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암이 아닌가 걱정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질환을 ‘구강작열감 증후군’이라고 하며 구강내과 전문의의 평가와 치료를 필요로 한다.<br/><br/>이번 강좌에서는 구강내과 고홍섭 교수가 구강작열감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한다.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02)2072-1367<br/><br/>■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관리’ 건강강좌<br/><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 교수) 신장내과에서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만성콩팥병, 조기 관리하세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지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한다.<br/><br/>이번 강좌는 일반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콩팥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의와 콩팥병 환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저염식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되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신장내과 정병하 교수의 ‘고혈압과 콩팥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희영 영양사의 ‘저염식이요법’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1588-1511<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1.txt

제목: [아침을 열며]내각·참모 새 얼굴이 중요한 까닭  
날짜: 20170514  
기자: 안홍욱 정치부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4205852003  
ID: 01100101.20170514205852003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557만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선에서 1·2위 후보 간 최다 표차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절반이 안된다고 해도 압도적 당선임은 분명하다.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 ‘나라를 나라답게’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10분간의 짧은 연설로 새 정부의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br/><br/>문 대통령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출발은 인사가 될 터이다.<br/><br/>실상 역대 정권들의 부침은 대개 인사에서 비롯됐다. 10년 전 531만표차 압승을 거두고, 10년 만에 보수정권을 되찾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상징적이다. 초대 조각 명단을 보면 오만과 자만에 빠졌다. 땅을 사랑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가진 이가 있었고, 암이 아니라는 진단에 남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선물받은 이도 있었다. ‘고소영’ ‘강부자’가 득실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지지도가 40%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정권의 싹수도 노래졌다. 찍은 손가락을 탓한 국민들은 4대강 삽질에 임기 내내 한숨만 늘었다.<br/><br/>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에서 사람을 찾다보니 감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용준·문창극·안대희…. 국무총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정홍원 총리는 후임자가 번번이 낙마해 짐을 쌌다 풀기를 반복하다 ‘대안 없음’에 눌러앉았고, 나중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옮겨놨다. 김병관·김종훈·한만수·황철주·김학의 등 취임도 못하고 물러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초기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자, 여섯 달 만에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기용해 정부와 여당, 나아가 국민들까지 발아래에 두려 했다. ‘막장 국정’의 마각이 드러났던 것이다.<br/><br/>기대와 희망이 ‘긴가민가’ ‘혹시나’로,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는 건 금방이다. 비정규직·실업·소득격차·노후 불안 등속의 사회경제적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은 당면한 문제다. 국민들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 역량 있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은 대통령 혼자서, 여당과만 ‘더불어’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의 문을 열었다. 정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웠던 거 아닌가. 국민들은 멍석을 깔아줬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과로 보여야 한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br/><br/>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해주려면 내각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할 제대로 된 진용을 짜야 한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국민들이 갖게 될 희망과 비례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사라지면 무기력이 지배한다. 문 대통령은 ‘고른 인재등용’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제시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적폐 청산에 대한 공언도, 새 정부의 출범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던 다짐도, 1차 시험대는 국민의 기대에 다가서는 인사가 될 것이다.<br/><br/>야당과의 허니문도 새 정부의 기대만큼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협치에 선선히 협조할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좌파 청산을 부르짖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야당 10년 해봐서 야당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세련된 좌파를 만났으니 한 수 위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br/><br/>가령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적폐를 걷어내려는 문 대통령과 막아서려는 기득권이 동아줄을 잡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출발은 팽팽할 것이다. 정권 초기 힘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줄을 잡아당기다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한쪽으로 기운다. 한쪽이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게임은 끝이다. 최종 승자가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촛불시민들은 안다. 한데, 대통령 뒤에서 함께 줄을 당기는 자들이 시원찮다면 결과는 뻔해진다.<br/><br/>국무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들의 면모가 일부 공개됐다. 참모들은 활력 있어 보이고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읽힌다. 여론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다.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해 온전한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 지금부터 한 달이 정권의 앞날을 예고할 것이다.<br/><br/><안홍욱 정치부장>

언론사: 경향신문-2-322.txt

제목: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감염, 사상최대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날짜: 20170514  
기자: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4122634001  
ID: 01100101.201705141226340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사상 최대의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으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2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된만큼 정상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br/><br/>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감염 시 컴퓨터에 표시되는 몸값 요구 화면<br/>시만텍 제공14일 외신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개국에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됐다.<br/><br/>랜섬웨어란 중요파일을 암호로 잠근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유포된 랜섬웨어는 ‘워너크립트’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워너크라이’의 변종으로 알려졌다.<br/><br/>워너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특정 파일을 클릭했을때 감염을 유발했지만, 워너크립트는 사용자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감염시킨다. 때문에 피해도 빠르게 확산됐다. <br/><br/>이번 피해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제때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워너크립트의 보안 패치를 제공한 바 있다. 윈도우 최신버전인 ‘윈도우10’의 경우는 자동으로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만, 윈도우 구버전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워너크립트의 피해사례도 윈도우 구형 버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번 공격으로 영국은 국가 보건서비스망 5개 중 1개의 서비스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영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인 닛산 선덜랜드 공장도 워너크립트의 타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역시 유일한 국립 암 병원인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 2곳이 워너크립트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보안업체 어베스트는 현재 피해가 집계된 국가가 100개국에 달하며, 피해 사례는 7만5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br/><br/>한국인터넷진흥원에따르면 국내 기업 2곳도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일부 종합병원과 음식점 등 상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기관들의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15일부터 국내 피해 접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br/><br/>공격자들은 파일에 걸린 암호를 푸는 대가로 300~600달러의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시만텍은 “<span class='quot0'>조사에 따르면 3일 내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금액은 2배로 늘어나며, 7일 내에 지불하지 않게되면 암호화된 파인을 삭제된다고 경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윤광택 시만텍코리아 CTO는 “워너크라이는 랜섬웨어와 웜이 결합된 형태로, 웜의 경우 패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원격으로 자동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위험도가 높은 랜섬웨어”라며, “향후 랜섬웨어와 웜이 결함된 형태의 공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패치 업데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삭제하고, 중요한 파일은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br/><br/><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3.txt

제목: 위암, 내시경 검사 잘 챙기면 대비 가능…EBS1 ‘명의’  
날짜: 20170511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1202800002  
ID: 01100101.2017051120280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EBS 1TV <명의>는 위내시경으로 대비하는 위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암’이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초기에 알아채기가 힘든 대신, 일찍 발견할 경우 생존율은 95%에 이른다. 다만 말기 위암은 생존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평소 진단을 통한 빠른 발견이 필수적인 이유다.<br/><br/>위암이 다른 암들에 비해 유독 무서운 이유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복통이나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선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위암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br/><br/>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면 개복수술이 아닌 내시경, 복강경 등 간편한 시술만을 통해서도 완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술은 개복수술보다 회복기간이 빠르다.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12일 오후 9시50분.<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4.txt

제목: ‘세계인의 날’ 수기공모서 몽골 출신 아누 최우수상  
날짜: 20170510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0222111001  
ID: 01100101.20170510222111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ㆍ내국인 최우수상엔 노춘화씨<br/><br/><br/>법무부는 세계인의날(5월20일)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수기공모전에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몽골 출신의 바차이칸 아누와 전남 영광군청의 노춘화씨(통합사례관리사)가 각각 재한 외국인과 국민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br/><br/>아누는 ‘무지개 나라 한국’에서 몽골인들에게 설렁거스(무지개 나라)라고 불리는 한국이 더욱 발전을 이루려면 저마다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히 여기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당부를 매끄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br/><br/>노춘화씨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에서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중년 남자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해 오손도손 살다 아내가 암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br/><br/>사진 공모전에서는 케이크에 꽂힌 각국 깃발의 모습을 카메라로 포착한 ‘세계가 하나 된 케이크’(사진)를 출품한 추상철씨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혔다.<br/><br/>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단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의날 기념식’에서 열린다.<br/><br/><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5.txt

제목: 산부인과 여성전문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질성형’이 주목받는 이유  
날짜: 2017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10154712001  
ID: 01100101.20170510154712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은 노화와 출산 및 지속적인 성관계로 인해 질 점막을 지지하는 골반근육이 약화되어 질이 탄력을 잃고 질염 또는 자궁경부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완된 질 상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질축소술, 질성형 분야다.<br/> <br/>질성형은 처지고 늘어난 질 입구와 내부 근육을 조이는 수술로 여성의 심리적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골반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성의 질병은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고, 남자 의사들에게 보이기 민망한 문제점이 있어 막상 산부인과 문턱을 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다.<br/> <br/>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에 위치한 헤라여성의원은 신화 속 여신의 이름인 '헤라(Hera)'라는 병원의 상호처럼 여성 환자들의 아름다움과 자존감을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의 모든여성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병원이다. 이 곳은 여성전문의가 직접 상담 및 시술을 집도하여 여성 환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br/> <br/>헤라여성의원의 특화된 수술인 임플란트를 이용한 질 성형술인 'Hera Sling Vaginoplasty'은, 여성의 질 내벽에 임플란트 밴드를 360도 돌려 삽입하여 질 내강을 물리적으로 조여주는 수술 방법으로 늘어난 질 수축력을 강하고 탄력적인 질로 회복시켜 여성의 성적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임플란트 질성형술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힘들고 섬세한 의술의 요구되는 수술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임플란트 질성형을 시술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임플란트 질성형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다"고 헤라여성의원 김영신원장은 전하고 있다.<br/> <br/>김영신 원장은 또 "<span class='quot0'>임플란트 질성형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해당 의료진이 근막층과 점막층, 골반근육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경력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한다.<br/><br/>헤라여성의원은 부인과를 기반으로 쁘띠성형 클리닉과 메디컬 에스테틱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 질환, 갱년기 질환, 여성 암 등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와 함께 쁘띠성형, 피부과 등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운 건강영역까지 집중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병원이다.

언론사: 경향신문-2-326.txt

제목: [정유진의 사이시옷]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혼밥 시대’  
날짜: 20170509  
기자: 정유진 토요판팀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9232938001  
ID: 01100101.2017050923293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얼마 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는 ‘독거 장년’인 나의 건강이 늘 걱정인 모양이다. “<span class='quot0'>혼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혼자 살아도 밥 챙겨 먹기 귀찮아하면 안된다.</span>” 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어머니는 잠시 멈칫한 후 다시 말씀하셨다. “외할머니가 영양실조셨다.”<br/><br/>외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처음 몸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서울의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영양불균형, 즉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표정에 스친 것은 회한이었다.<br/><br/>외할머니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 여름방학 때 놀러 가면 바지를 둥둥 걷고 호숫가에 들어가 손주들에게 먹일 고둥을 한 아름 잡아 오기도 했다. 다리에 붙은 거머리를 발견했을 때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외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떼냈다. 자식들 모두 도시로 나간 후 홀로 시골집을 지키면서도 그는 늘 씩씩했다.<br/><br/>그런 외할머니가 영양실조였다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졌다. 영양실조를 겪는 저소득층 어린이나 시골 독거노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통계 기사를 내 손으로 쓰면서도 그건 일부 소외계층의 문제라고 여겼다.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버려지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더 큰 고민인 시대 아닌가.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과잉’의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운 ‘혼밥’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식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손주들이 때 되면 놀러 갔는데도, 영양불균형 상태가 됐던 내 외할머니처럼. 그것은 아마도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낸 이 시대 독거노인들의 자화상일 것이다.<br/><br/>사실 ‘혼밥’은 이미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이 된 지 오래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울 홍대 앞이나 강남같이 트렌드에 민감한 지역에는 혼밥족을 겨냥한 식당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홀로족’이라고 밝힌 2030 성인 남녀의 86%가량이 혼밥·혼술 트렌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br/><br/>정도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혼밥·혼술은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span>”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한국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회 문화의 중심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span>”이란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 단서를 달았다. “<span class='quot0'>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성숙해진 것이 맞지만, 사회 시스템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다</span>”고 말이다.<br/><br/>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사실 나는 ‘프로혼밥러’다. 인터넷에 우스개처럼 떠도는 혼밥레벨 측정기준에 따르면 최고등급에 속할 만큼 익숙하다. ‘혼밥을 할 수밖에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혼밥이 뭔 대수인가’ 싶은 쪽이다. 그렇지만 그런 나에게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다. 13년 전, 서울의 한 대학을 출입처로 두고 취재할 때의 일이다. 일을 하다 점심시간을 놓쳐서 조금 늦게 혼자 학생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그날 메뉴도 기억난다. 닭백숙. 닭 한마리가 오롯이 누워있는 걸 보고 학생식당의 수준에 감탄하며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였다.<br/><br/>“학생, 미안해. 내가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어디선가 들려온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나를 학생으로 착각하신 듯한 그분은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였다. 기억이 정확지는 않지만, 청소노동자 유니폼 같은 것을 입고 계셨던 것 같다. 알고 보니 밥을 다 드시고도 내가 혹시 빈 테이블에 혼자 남겨지면 민망해할까봐, 생판 처음 보는 나를 위해 계속 가만히 앉아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이다.<br/><br/>물론, 그때도 지금도 나는 혼밥이 아무렇지 않다. 그래도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든다. 그 아주머니는 요새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그때처럼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실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혼밥이 외로움과 궁상의 상징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TV에는 여유롭게 혼밥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라이프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밥의 비극은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밥 먹을 시간도, 돈도 없어 편의점에서 혼자 한끼를 때우는 취준생들. 혼자 밥을 골고루 챙겨 먹을 의욕도, 여유도 없는 독거노인들. ‘3포세대’의 비혼과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혼밥족들. 마치 혼자만의 힐링타임인 ‘혼술’을 즐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던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면에는 한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연출의 비극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각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혼밥의 시대’이다.<br/><br/><정유진 토요판팀장>

언론사: 경향신문-2-327.txt

제목: [정유진의 사이시옷]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혼밥'의 시대  
날짜: 20170509  
기자: 정유진 토요판팀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9144745001  
ID: 01100101.2017050914474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얼마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어머니는 ‘독거 장년’인 나의 건강이 늘 걱정인 모양이다. “<span class='quot0'>혼자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냐, 혼자 살아도 밥 챙겨먹기 귀찮아하면 안된다.</span>” 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어머니는 잠시 멈칫한 후 다시 말씀하셨다. “외할머니가 영양실조셨다.”<br/><br/>외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처음 몸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서울의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영양불균형, 즉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표정에 스친 것은 회한이었다.<br/><br/>내 기억 속 외할머니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 여름방학 때 시골에 놀러가면 바지를 둥둥 걷고 호숫가에 들어가 손주들에게 먹일 고둥을 한아름 잡아오기도 했다. 다리에 붙은 거머리를 발견했을 때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외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떼냈다. 자식들 모두 도시로 나간 후 홀로 시골집을 지키면서도 그는 늘 씩씩했다.<br/><br/>그런 외할머니가 영양실조였다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졌다. 영양실조를 겪는 저소득층 어린이나 시골 독거노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통계 기사를 내 손으로 쓰면서도 그건 일부 소외계층의 문제라고 여겼다.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버려지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더 큰 고민인 시대 아닌가.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과잉’의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운 ‘혼밥’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식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손주들이 때 되면 놀러갔는데도, 영양불균형 상태가 됐던 내 외할머니처럼. 그것은 아마도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낸 이 시대 독거노인들의 자화상일 것이다.<br/><br/>사실 ‘혼밥’은 이미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이 된지 오래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울 홍대 앞이나 강남 같이 트렌드에 민감한 지역에는 혼밥족을 겨냥한 식당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홀로족’이라고 밝힌 2030 성인 남녀의 86% 가량이 혼밥혼술 트렌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br/><br/>정도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혼밥, 혼술은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span>”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한국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회 문화의 중심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span>”이란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 단서를 달았다. “<span class='quot0'>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성숙해진 것이 맞지만, 사회 시스템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다</span>”고 말이다.<br/><br/>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사실 나는 ‘프로혼밥러’다. 인터넷에 우스개처럼 떠도는 혼밥레벨 측정기준에 따르면 최고등급에 속할 만큼 익숙하다. ‘혼밥을 할 수밖에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혼밥이 뭔 대수인가’ 싶은 쪽이다. 그렇지만 그런 나에게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다. 13년 전, 서울의 한 대학을 출입처로 두고 취재할 때의 일이다. 일을 하다 점심시간을 놓쳐서 조금 늦게 혼자 학생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그날 메뉴도 기억난다. 닭백숙. 닭 한마리가 오롯이 누워있는 걸 보고 학생식당의 수준에 감탄하며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였다.<br/><br/>“학생, 미안해. 내가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서 먼저 가봐야할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어디선가 들려온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나를 학생으로 착각하신 듯한 그 분은 내 대각선 맞은 편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였다.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청소노동자 유니폼 같은 것을 입고 계셨던 것 같다. 알고보니 밥을 다 드시고도 내가 혹시 빈 테이블에 혼자 남겨지면 민망해할까봐, 생판 처음보는 나를 위해 계속 가만히 앉아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이다.<br/><br/>물론, 그때도 지금도 나는 혼밥이 아무렇지 않다. 그래도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든다. 그 아주머니는 요새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그때처럼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실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혼밥이 외로움과 궁상의 상징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TV에는 여유롭게 혼밥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라이프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밥의 비극은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밥 먹을 시간도, 돈도 없어 편의점에서 혼자 한끼를 때우는 취준생들. 혼자 밥을 골고루 챙겨먹을 의욕도, 여유도 없는 독거노인들. ‘3포세대’의 비혼과 이혼으로 1인가구가 될 수 밖에 없는 혼밥족들. 마치 혼자만의 힐링타임인 ‘혼술’을 즐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던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면에는 한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연출의 비극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각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혼밥의 시대’이다.<br/><br/><정유진 토요판팀장>

언론사: 경향신문-2-328.txt

제목: 질병과 싸우는 강인한 모녀 이야기  
날짜: 20170508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8202336003  
ID: 01100101.2017050820233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EBS1 ‘메디컬 다큐-7요일’<br/><br/>EBS 1TV <메디컬 다큐-7요일>은 자녀 걱정에 내원을 미뤘다가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금례씨의 사연 등을 다룬다.<br/><br/>75세의 나이에 거뜬히 밭일을 해내고 몸이 아픈 손자도 돌보던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다. 소화가 잘 안된다 싶더니 임신부처럼 점점 배가 불러왔지만 자녀들 걱정에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막암 말기’란 진단이었다. 자녀들에게 김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장루(배변 주머니)를 차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숨죽여 눈물 흘린다.<br/><br/>눈에 띄게 작은 키 때문에 얼핏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박소라씨(25)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뇌수종, 허리신경 돌출, 콩팥종양 등의 병으로 인해 돌이 채 되기도 전에 3번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그는 현재도 사흘에 한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을 드나들고 있다. 엄마 김영애씨(50)는 건강 때문에 세상과 단절돼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 고심 중이다. 과연 박씨는 장애물을 넘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방송은 9일 오후 11시35분.<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29.txt

제목: [책과 삶]‘여성 해방’을 위해 태어난 여인 원더우먼  
날짜: 20170505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5191403001  
ID: 01100101.2017050519140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원더우먼 허스토리 <br/>ㆍ질 르포어 지음·박다솜 옮김 | 윌북 | 464쪽 | 1만7500원<br/><br/><br/>지난해 10월 국제연합(유엔)은 여권신장 명예대사로 원더우먼을 선정해 홍역을 치렀다. 두 달 사이에 4만5000명이 온라인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유엔 직원 600명도 청원에 동참했다. 원더우먼이 단순히 만화 속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랬다. “<span class='quot0'>지나치게 큰 가슴을 강조하고 허벅지를 다 드러낸 보디슈트를 입은 원더우먼이 여성 인권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span>”<br/><br/><br/>유엔은 지난해 12월 결국 명예대사 선정을 철회했다. 만화 원더우먼의 원작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1893~1947)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질 르포어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페미니즘이 원더우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르포어 교수가 2015년에 펴낸 <원더우먼 허스토리>(원제: 원더우먼의 비밀스러운 역사)는 원더우먼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다.<br/><br/>만화 원더우먼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했을 무렵인 1941년 12월 DC코믹스가 발행하던 만화잡지 ‘올 스타 코믹스’ 8호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듬해 1월 ‘센세이션 코믹스’ 창간호 표지를 장식했다. 당시에도 복장의 선정성이 논란이 됐다. 1942년 3월 전미문학심의기구는 ‘센세이션 코믹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원더우먼의 노출이 심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br/><br/>마스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span class='quot0'>언젠가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 것</span>”이라고 믿은 사람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이 두 배로 발달되어 사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할 능력을 사랑하는 능력만큼 계발한다면 경제와 국가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에게 원더우먼은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에 대한 심리적 프로파간다”였다. 원더우먼의 선정적 복장은 잡지 판매를 늘리고 싶었던 DC코믹스 사장의 아이디어였다. 작화가에게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간섭했던 마스턴이 원더우먼의 노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말이다.<br/><br/>마스턴의 원더우먼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었다. 1942년 7월 ‘센세이션 코믹스’에 실린 이야기에서 원더우먼은 우유 값을 폭등시켜 미국 어린이들을 영양 부족으로 내몬 국제 우유 회사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를 조직한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여자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남성을 응징한다. 그럼에도 마스턴의 원더우먼은 남성들이 그녀의 팔찌에 쇠사슬을 걸면 힘을 잃는 캐릭터로 그려졌는데, 이는 남성들에게 속박된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피학적 성애에 대한 마스턴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br/><br/>마스턴이 원더우먼을 남성에게 순종적인 캐릭터로 그린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는 하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원더우먼은 “여자들은 모두 집에 있어야 하고, 남자들의 일을 탐내선 안돼요”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어요”라고 말하는데, 결국 꿈이었던 것으로 끝난다.<br/><br/>마스턴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었다.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한 그는 변호사이자 심리학자였으며 한때는 영화 제작과 영화 시니리오에 손댄 적도 있었다. 세계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미국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 자기 과시벽이 있었기 때문인지 학계에서 신임을 얻지 못해 그의 이력은 정교수에서 조교수로, 다시 강사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원더우먼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는 아내 할러웨이의 수입에 의존해 살았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올리브 번과 사랑에 빠진 그는 아내에게 이런 자신을 인정하거나 떠나라고 말했다. 할러웨이가 올리브에게 육아를 맡기고 자신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한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다. <br/><br/>마스턴은 하버드대 재학 중이던 1911년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 에멀린 팽크허스트의 강연을 듣고 짜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해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저자에 따르면 마스턴의 여성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중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할러웨이와 올리브다. 두 사람 모두 강고한 여성참정권론자였고 페미니스트였다. 특히 올리브는 20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운동가로 알려진 마거릿 생어의 조카였다. 올리브의 어머니 에설 번과 마거릿 생어는 여성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1910년대 미국에서 전투적 산아제한 운동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자매였다.<br/><br/>마스턴이 1947년 암으로 사망한 후 스토리 작가가 바뀐 원더우먼은 투사로서의 성격을 점차 상실했다. “<span class='quot0'>진보시대의 페미니스트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span>” 싸우는 슈퍼영웅은 “수영복을 입은 비서”로 퇴행했다.<br/><br/>원더우먼을 여성해방의 아이콘으로 부활시킨 것은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가들이었다. 전설적인 여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페미니스트들이 중심이 돼 만든 잡지 ‘미즈’는 1972년 창간호 표지를 원더우먼으로 장식했다. 제호 아래에는 “원더우먼을 대통령으로”란 문구가 실렸다. 어린 시절 만화 원더우먼을 읽고 자란 스타이넘은 “<span class='quot1'>40년대의 ‘원더우먼’ 이야기를 지금 와서 보면 그 안에 담긴 페미니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놀란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베티 프리단 같은 페미니스트는 스타이넘이 여자들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부추기고 다닌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br/><br/>저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마스턴의 개인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그의 삶을 복원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역사가 1910년대 이후 미국 페미니즘의 역사와 맞물리는 광경을 치밀하게 직조했다. 결론은 이렇다. “슈퍼맨이 SF에 빚졌고 배트맨이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에 빚졌다면 원더우먼은 가상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빚졌다. 원더우먼의 기원은 윌리엄 몰튼 마스턴의 과거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의 삶에 있다. 그들은 함께 원더우먼을 창조했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0.txt

제목: [책과 삶]‘여성 해방’을 위해 태어난 여인 원더우먼  
날짜: 20170505  
기자: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5155834001  
ID: 01100101.2017050515583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원더우먼 허스토리 <br/>ㆍ질 르포어 지음·박다솜 옮김 | 윌북 | 464쪽 | 1만7500원<br/><br/><br/>지난해 10월 국제연합(유엔)은 여권신장 명예대사로 원더우먼을 선정해 홍역을 치렀다. 두 달 사이에 4만5000명이 온라인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유엔 직원 600명도 청원에 동참했다. 원더우먼이 단순히 만화 속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랬다. “<span class='quot0'>지나치게 큰 가슴을 강조하고 허벅지를 다 드러낸 보디슈트를 입은 원더우먼이 여성 인권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span>”<br/><br/><br/>유엔은 지난해 12월 결국 명예대사 선정을 철회했다. 만화 원더우먼의 원작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1893~1947)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질 르포어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페미니즘이 원더우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르포어 교수가 2015년에 펴낸 <원더우먼 허스토리>(원제: 원더우먼의 비밀스러운 역사)는 원더우먼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다.<br/><br/>만화 원더우먼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했을 무렵인 1941년 12월 DC코믹스가 발행하던 만화잡지 ‘올 스타 코믹스’ 8호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듬해 1월 ‘센세이션 코믹스’ 창간호 표지를 장식했다. 당시에도 복장의 선정성이 논란이 됐다. 1942년 3월 전미문학심의기구는 ‘센세이션 코믹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원더우먼의 노출이 심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br/><br/>마스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span class='quot0'>언젠가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 것</span>”이라고 믿은 사람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이 두 배로 발달되어 사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할 능력을 사랑하는 능력만큼 계발한다면 경제와 국가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에게 원더우먼은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에 대한 심리적 프로파간다”였다. 원더우먼의 선정적 복장은 잡지 판매를 늘리고 싶었던 DC코믹스 사장의 아이디어였다. 작화가에게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간섭했던 마스턴이 원더우먼의 노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말이다.<br/><br/>마스턴의 원더우먼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었다. 1942년 7월 ‘센세이션 코믹스’에 실린 이야기에서 원더우먼은 우유 값을 폭등시켜 미국 어린이들을 영양 부족으로 내몬 국제 우유 회사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를 조직한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여자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남성을 응징한다. 그럼에도 마스턴의 원더우먼은 남성들이 그녀의 팔찌에 쇠사슬을 걸면 힘을 잃는 캐릭터로 그려졌는데, 이는 남성들에게 속박된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피학적 성애에 대한 마스턴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br/><br/>마스턴이 원더우먼을 남성에게 순종적인 캐릭터로 그린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는 하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원더우먼은 “여자들은 모두 집에 있어야 하고, 남자들의 일을 탐내선 안돼요”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어요”라고 말하는데, 결국 꿈이었던 것으로 끝난다.<br/><br/>마스턴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었다.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한 그는 변호사이자 심리학자였으며 한때는 영화 제작과 영화 시니리오에 손댄 적도 있었다. 세계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미국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 자기 과시벽이 있었기 때문인지 학계에서 신임을 얻지 못해 그의 이력은 정교수에서 조교수로, 다시 강사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원더우먼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는 아내 할러웨이의 수입에 의존해 살았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올리브 번과 사랑에 빠진 그는 아내에게 이런 자신을 인정하거나 떠나라고 말했다. 할러웨이가 올리브에게 육아를 맡기고 자신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한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다. <br/><br/>마스턴은 하버드대 재학 중이던 1911년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 에멀린 팽크허스트의 강연을 듣고 짜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해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저자에 따르면 마스턴의 여성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중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할러웨이와 올리브다. 두 사람 모두 강고한 여성참정권론자였고 페미니스트였다. 특히 올리브는 20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운동가로 알려진 마거릿 생어의 조카였다. 올리브의 어머니 에설 번과 마거릿 생어는 여성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1910년대 미국에서 전투적 산아제한 운동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자매였다.<br/><br/>마스턴이 1947년 암으로 사망한 후 스토리 작가가 바뀐 원더우먼은 투사로서의 성격을 점차 상실했다. “<span class='quot0'>진보시대의 페미니스트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span>” 싸우는 슈퍼영웅은 “수영복을 입은 비서”로 퇴행했다.<br/><br/>원더우먼을 여성해방의 아이콘으로 부활시킨 것은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가들이었다. 전설적인 여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페미니스트들이 중심이 돼 만든 잡지 ‘미즈’는 1972년 창간호 표지를 원더우먼으로 장식했다. 제호 아래에는 “원더우먼을 대통령으로”란 문구가 실렸다. 어린 시절 만화 원더우먼을 읽고 자란 스타이넘은 “<span class='quot1'>40년대의 ‘원더우먼’ 이야기를 지금 와서 보면 그 안에 담긴 페미니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놀란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베티 프리단 같은 페미니스트는 스타이넘이 여자들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부추기고 다닌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br/><br/>저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마스턴의 개인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그의 삶을 복원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역사가 1910년대 이후 미국 페미니즘의 역사와 맞물리는 광경을 치밀하게 직조했다. 결론은 이렇다. “슈퍼맨이 SF에 빚졌고 배트맨이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에 빚졌다면 원더우먼은 가상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빚졌다. 원더우먼의 기원은 윌리엄 몰튼 마스턴의 과거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의 삶에 있다. 그들은 함께 원더우먼을 창조했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1.txt

제목: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재난"...'트럼프케어'되면 암환자 1억5000만원 더 내야  
날짜: 20170505  
기자: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5131815001  
ID: 01100101.20170505131815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미국 하원 공화당이 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ACA)를 폐지하고 대체할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가 상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회의론이 더 많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수를 무보험으로 내몰 트럼프케어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r/><br/>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케어를 찬성 217대 반대 213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20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케어 1차 표결 시도 당시에는 7명만이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30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중도성향의 ‘튜즈데이 그룹’, 주류 보수성향의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은 1차 표결 시도 때와 비슷한 지지를 보냈다.<br/><br/>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해온 트럼프는 법안 통과 직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불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재난’으로, 트럼프케어를 ‘위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오바마케어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표결을 주도해온 라이언 의장은 “<span class='quot0'>이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돌려주고, 권력을 워싱턴에서 각 주로 돌려주자</span>”고 말했다. <br/><br/>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이 끝난 후 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span class='quot1'>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헤이 헤이 굿바이</span>”라며 그룹 스팀의 ‘나나 헤이 헤이’의 일부를 합창했다. 이번 표결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였다. 넨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span class='quot2'>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도덕적 괴물을 자신들의 이마에 세기게 될 것이고 미국 시민들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슬로터 민주당 의원은 “<span class='quot3'>내 인생에서 오늘 같은 정치적 자살을 본 적이 없다</span>”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다음 중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br/><br/>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 3월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로 표결이 무산된 트럼프케어의 수정안이다. 당초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나이에 따른 세금공제 형식으로 바꾸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br/><br/>이번 수정안은 이런 골격은 유지하면서 강경파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즉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기존 질병 이력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최소 보험 보장 사항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각 주 정부 별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실상 주 정부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 경우 노인들의 보험료를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 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를 위한 비용은 10년 안에 8800억달러 축소된다. <br/><br/>미 의회예산국은 지난 3월13일 트럼프케어 원안이 현실화되면 내년에만 1400만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하고 10년 안에 총2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무보험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의회예산국의 추가 평가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급하게 표결처리한 것도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br/><br/>프레드 업튼, 빌리 롱 등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당초 질병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차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반대했지만 5년간 8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수정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진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보완책은 질병이 있는 전체 1300만명 가입자 중에서 7만6000명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상상 이상이다. 폐암 등 심각한 암을 가진 환자의 치료 비용은 7만1880달러 할증되고 암이 전이된 환자의 치료비도 14만510달러 올라간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고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최고 1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진보성향 월간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기자인 폴 왈더먼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span class='quot4'>트럼프케어가 법안이 되면 상당한 수의 미국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과정이 아니다</span>”라고 비판했다.<br/><br/>이같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세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매체 복스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의무화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보과되던 6000억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br/><br/>트럼프케어가 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span class='quot5'>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span>”고 말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기쁨이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무소속이 52대 48로 구성됐다. 공화당에서 2명만 반기를 들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지역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축소 건강보험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 네바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딘 헬러은 뉴욕타임스에서 “네바다처럼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곳에서 그 혜택을 없앨 수는 없다. 또 기존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보호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캐시디도 “<span class='quot6'>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혜택은 유지되고 또 질병이 있던 사람도 보호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span>”고 밝혔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수정 법안이 입안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의 핵심을 얼마나 반영할 지도 미지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pan class='quot7'>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절대 빨리 통과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span class='quot7'>하원의원들을 따라 절벽 끝으로 가지 말고, 오바마케어 폐지를 거부하고 민주당과 함께 정파적 이해를 떠나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span>”고 제안했다.<br/><br/><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2.txt

제목: [미래의 눈]괜찮아, 시골은 안전해  
날짜: 20170503  
기자: 김보영 SF작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503213152001  
ID: 01100101.20170503213152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3월이 오자 우리 가족은 여느 때처럼 ‘피난’ 준비를 했다. 나는 학교에 임시 홈스쿨링 신청을 했고 부모님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우리 집은 앞으로 2개월간 서울을 떠나 있을 것이다.<br/><br/>“괜찮아. 시골은 안전해.”<br/><br/>아빠는 차에 캐리어를 실으며 말씀하셨다. 서울 시내는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야 할 만큼 뿌옇고 칙칙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방독면과 고글을 쓰고 있다. 방독면을 쓴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아장아장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눈앞을 지나는 유모차는 유리덮개로 덮여 있고 아기는 얼굴 전면을 덮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었다.<br/><br/>5년 전,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여 서울 시내에서만 스무 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는 공기오염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정했다. 3월마다 서울은 비상이 걸린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며 집 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으로 돈을 모아 방공호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사는 ‘공해난민’도 있다. 부모님은 내가 천식에 걸린 뒤 서울 집을 반으로 줄여 시골에 집을 마련했다. 공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오늘, 도로 위에는 추석 귀가차량처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가 줄지어 있었다.<br/><br/>우리 두 번째 집은 강원도 ‘친환경 마을’에 있다. 이 읍에는 화석연료는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 처음에는 리 단위로 시행했지만 최근 읍 단위로 넓혔다. 우리 집은 진입로에서 도에서 대여해 주는 연료전지차로 바꿔 타서 들어갔다. 타고 온 전기차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 집 발전량으로는 도무지 전기차를 돌릴 만한 전기를 댈 수가 없다.<br/><br/>시골집에 가는 동안 대규모 산사태로 읍 일대가 정전이 되었다는 뉴스가 들렸다. 요새 인구가 몰리며 난개발을 한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br/><br/>“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해.”<br/><br/>아빠는 휘파람을 불며 말씀하셨다.<br/><br/>“우린 자체 발전을 하잖니. 전기가 끊겨도 문제없어.”<br/><br/>친환경 마을 입주조건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첫째,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야 하고, 둘째, 전기를 자체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집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과해서 전기를 쓰면 외부전기를 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서울의 열 배가 넘는 전기료를 내야 한다. 덕분에 우리는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간 마크 위트니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br/><br/>일단 우리 집 전자제품은 스마트폰에서부터 노트북까지 모두 소형 태양광 충전기가 달린 것이다. 그나마도 전력을 줄이기 위해 최저사양의 제품만 쓴다. 한국은 비도 많이 오고 일사량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 태양 충전이 잘 안될 때엔 신발 발뒤꿈치에 있는 밟는 전지를 활용한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발을 움직여 충전한다. 수시로 집 안에 있는 운동기구 겸용 자전거 발전기를 돌리는 것은 물론이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퇴비도 마을 단위로 모아 재생 에너지로 재활용한다.<br/><br/>지붕과 차고에 올린 태양광 패널로 집 안 전력수급이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난민’이다. 집을 두 개나 운영할 수 있는 집이 뭐 그리 흔할까. 우리 시골집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간이집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는 했어도 여전히 초기 설치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패널을 반밖에 못 올렸다. 모자란 전기는 동네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한 지열발전을 빌려 쓰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덕분에 우리는 TV도 시간을 정해서 보고 물도 아껴 쓴다.<br/><br/>“그래도 우리는 괜찮아.”<br/><br/>아빠가 마당에서 펌프를 퍼 올리며 말씀하셨다.<br/><br/>“형편이 안돼서 애를 지방 친척이나 친구 집에 맡기거나 토끼굴 같은 조잡한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그렇게 많대요. 요새 허가도 안 받은 애들 시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br/><br/>내 입장에서는 숨을 편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서 딱히 불만은 없다. 서울에서 시골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마저 변하는 느낌도 좋아한다.<br/><br/>어느 날 TV에서 긴급속보가 나왔다. 남쪽 낡은 원전에서 사고가 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남쪽 일대는 대혼란이고 사람들이 대규모로 북쪽으로 피난 중이라고 했다.<br/><br/>아빠는 묵묵히 TV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br/><br/>“<span class='quot0'>뭐, 그……래도 우린 괜찮을 거야.</span>”<br/><br/>\* \* \* \* \* \* \* \* \* \* \* \* \* \* \* \* \* \* \* \* \* \* \* \* \* \* \* \*<br/><br/>대체 에너지 중심으로 나라의 산업과 경제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꾼 나라가 있다. 스웨덴도 스위스도 아니라 저 체 게바라의 나라 쿠바다. 쿠바는 북한처럼 서방국가의 경제봉쇄를 당했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마나 있던 석유원조마저 끊겼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 석유와 석탄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미래에 빚을 지우지 않는 순환형 사회를 만든 것이다. 풍요롭다고는 할 수 없어도, 현재 유엔이 인정한 세계 유일의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었다.<br/><br/>화석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면 그만한 수준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의 기술만으로도 정책의 변화만 있다면 충분히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에도 굳이 미래기술을 쓸 필요는 없었다.<br/><br/>한국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암과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몇%의 경제성장’의 구호가 더 이상 삶의 질을 높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와 있지 않은지.<br/><br/><김보영 SF작가>

언론사: 경향신문-2-333.txt

제목: 원칙도 못지키고 처벌도 미흡한 ‘글리벡’ 논란  
날짜: 20170430  
기자: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30093632001  
ID: 01100101.201704300936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글리벡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논란<br/>·복지부 ‘리베이트 투아웃제’ 불구 과징금 결론<br/><br/><br/>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들에 일부 보험급여 정지 및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최대 관건이었던 표적 항암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급여 정지 처분을 면해 글리벡을 복용해온 환자들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대로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게 됐다.<br/><br/>이번 처분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2014년 도입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결론</span>”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br/><br/>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8월 10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span class='quot1'>A제약사(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span>”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및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br/><br/>스위스에 기반을 둔 노바티스는 전 세계 시장 연매출이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사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4484억원의 매출을 올려 한국화이자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제약사임에도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의사들에게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br/><br/>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의 정당한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 시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약품 구매를 꺼리게 돼 제약사는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게 된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리베이트가 적발돼 이 제도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됐다.<br/><br/><br/><br/>■백혈병환우회 “급여 중단 안된다”<br/><br/>원칙대로라면 한국노바티스가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42개 약품 모두 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게 맞지만 대상품목 중 글리벡과 같은 주요 의약품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더 널리 알려진 글리벡은 국내 5000여 백혈병 환자 중 3000여명이 사용 중인 약품이다. 글리벡을 치료제로 쓰는 다른 암환자까지 포함하면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약품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는 6000여명 수준으로 불어난다.<br/><br/>글리벡은 비싼 약품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의 경우 한 알당 단가가 2만3045원이다.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아 단가의 5%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단가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혈병환우회는 “급여 중단 시 환자별로 월 6만5000~13만원 수준인 약값이 130만~260만원 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며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br/><br/>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시중에 글리벡과 동일한 약효를 가진 복제약품(제네릭)이 여러 종류 나와 있는 점을 들어 “<span class='quot2'>급여를 정지해도 대체약품이 있으니 원칙대로 정지해야 한다</span>”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는 “현재 환자들이 쓰는 건 특허가 2018년에 만기되는 ‘글리벡 베타형’ 약품”이라며 “제네릭은 ‘글리벡 알파형’을 복제한 약이라 제네릭으로 약품을 대체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맞섰다. 논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는 ‘약물 변화로 환자들이 건강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span>”라며 “<span class='quot3'>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span>”고 설명했다.<br/><br/>아무리 약효가 동일한 제네릭이 있다 해도 길게는 10년 넘게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글리벡 베타형만 해도 “특허 만료를 연장하기 위한 노바티스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흡수력과 일부 복용 부작용 측면에서 알파형보다 낫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글리벡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결정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다.<br/><br/>하지만 예외조항 탓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된 처벌 및 예방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법에서는 약품당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급여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규모가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5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생산약품이 총 42종이라는 점을 들어 약품당 부당금액을 평균 6166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급여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금액은 1년간 총 보험금여액의 30%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도 대체약품 등이 있는 9종의 약품은 6개월 급여 정지, 나머지 33종은 급여 정지 대신 해당 약품의 지난해 보험급여 총액(1835억원)의 30%인 55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br/><br/><br/><br/>■제약사들이 환자 ‘담보’ 잡는 허술한 제도<br/><br/>시민단체는 부당금액 산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노바티스가 42종의 약품을 판매 중인 것은 맞지만 분명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보려 하는 ‘주력 약품’이 존재한다. 한국노바티스는 당뇨약으로 쓰이는 가브스정으로 지난해 510억원, 글리벡으로 505억원의 보험급여를 각각 받았다. 이 두 약품으로 받은 보험급여만 1015억원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된 33개 약품의 지난해 보험급여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검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통해 적극 판매를 장려하고자 하는 약품들이 이들 주력 약품이었다는 점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하면 부당금액 산출 역시 주력 약품을 위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br/><br/>복지부는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약품당 평균 부당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검찰이 각 약품당 리베이트 금액이 얼만지 따로 밝히지 않아 평균 부당금액을 산출한 것</span>”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급여 정지를 당했을 때보다 과징금을 부과받는 게 더 이익이 된 셈이 됐다. 가브스정과 글리벡이 과징금이 아닌 6개월간 급여 정지를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보험급여 기준 한국노바티스의 손실은 이 단 두 종의 약품만으로도 507억원이 넘는다. 제약사들이 환자를 ‘담보’로 잡고 있는 한 이 같은 허술한 제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나오는 이유다.<br/><br/>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span class='quot4'>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강제 약가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4.txt

제목: 홍준표, 비판세력에 “도둑놈의 XX들” 막말 비판  
날짜: 20170429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9182652001  
ID: 01100101.20170429182652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다. 홍 후보는 “나는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br/><br/>홍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좌파들한테 많이 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br/><br/>홍 후보는 “<span class='quot0'>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경남도)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등을 1등으로 만들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소금을 뿌리지 않나</span>”라며 “에라 이 <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이 말이야”라고 했다.<br/><br/>그는 이어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면서 “그래서 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않는다. 성질대로 하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br/><br/>홍 후보는 지난 10일 경남도지사 퇴임식을 마친 뒤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로부터 소금세례를 받았다.<br/><br/>홍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이제 열흘 남았다. 열흘 남았는데 내 한번 이판 뒤집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경향신문-2-335.txt

제목: [D-10 오늘의 대선 현장]안철수 “文 ‘통합정부’는 민주당내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것”  
날짜: 20170429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9110511001  
ID: 01100101.20170429110511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경향신문은 9일부터 5월9일 대선까지 매일 ‘오늘의 대선 현장’ 라이브 업데이트를 전합니다. 매일 아침 경향신문과 주요 언론의 보도, 각 후보와 정당의 활동, 시민사회 움직임 등 대선 관련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표기 시간은 발생·출고 시간이 아니라 경향닷컴 게재 시간입니다.)<br/><br/><br/><br/>■홍준표, 비판세력에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span></span>” 막말 비판(18시25분)<br/><br/>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span></span>”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다. 홍 후보는 “나는 성질대로 산다.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 홍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좌파들한테 많이 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홍 후보는 “<span class='quot0'>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경남도)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등을 1등으로 만들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소금을 뿌리지 않나</span>”라며 “에라 이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span></span>이 말이야”라고 했다. <br/><br/>▶홍준표, 비판세력에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도둑놈의 XX들</span></span></span>” 막말 비판 <br/><br/><br/>■안철수 “문재인의 ‘통합정부’는 민주당내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것”(16시33분)<br/><br/>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span class='quot5'>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합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것</span>”이라며 문 후보가 자신의 ‘개혁정부 구상’을 “<span class='quot5'>어떻게 하든지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이자 정권야합</span>”이라고 비난한 것을 역공했다. 안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안 후보는 “<span class='quot5'>진정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선 이제 선거 후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그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5'>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 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모여 우리나라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span>”고 했다. 그는 대선 전 단일화가 없다는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고 잘라 말했다.<br/><br/>▶안철수 “문재인의 ‘통합정부’는 민주당내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것” <br/><br/><br/>■남재준, 대선 후보 사퇴···‘홍준표 지지하기로’(16시28분)<br/><br/>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가 29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남 후보는 이날 사퇴 발표문을 내고 “오늘 홍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 지금부터 홍 후보의 당선과 대한민국의 영속 번영을 위해 후보 사퇴를 포함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극단적 반국가 세력을 가차없이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의 권리를 원없이 누리면서 나라를 뒤엎으려는 종북좌파 세력에 넘어가고 있다”며 “대선 출마자 중에는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패륜적 국민도 섞여있다”고 주장했다. <br/><br/>▶남재준, 대선 후보 사퇴···‘홍준표 지지하기로’ <br/><br/><br/>■문재인, 安 ‘개혁공동정부’ 구상에 “선거만 이기려는 정권야합···이게 촛불민심이고 정권교체인가” 비판(15시47분)<br/><br/>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span class='quot1'>어떻게 하든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 정권야합이 아닌가</span>”라고 비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것이 촛불민심이고 정권교체가 맞는가</span>”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한 유세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안 후보가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다수세력에게 총리를 내어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려면 장관도 나눠줘야 한다. 권력도 나눠주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내각제도 받아들이고 임기단축도 ‘오케이’”라면서 “이게 전북과 호남의 개혁정신인가”라고 다시 되물었다. 문 후보는 “익산은 기득권 세력의 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북은 민주 개혁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서 “이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했다. <br/><br/>▶문재인, 安 ‘개혁공동정부’ 구상에 “선거만 이기려는 정권야합···이게 촛불민심이고 정권교체인가” 비판 <br/><br/><br/>■박지원 “‘문재인 공포증’으로 보수 목사님들도 안철수 지지”(14시20분)<br/><br/>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기독교 보수목사님들도 ‘문재인은 아니다’ ’‘그래도 안철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공포증으로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도당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span class='quot2'>과거에 얽매이는 문재인 후보보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미래로 가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 당선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이다 발언’에 대해 “<span class='quot2'>순간적인 (표심의) 약간에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보수자들의 지도자인 목사님들도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좋다’는 얘기를 했었다</span>”고 했다.<br/><br/>▶박지원 “‘문재인 공포증’으로 보수 목사님들도 안철수 지지” <br/><br/><br/>■40대 신원미상 남자, 강원도 간 박지원 대표에게 폭행시도하며 난동···경찰에 연행(14시10분)<br/><br/>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강원 지역을 방문한 29일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9일 선대위 관계자를 독려하려고 국민의당 강원도당을 방문한 박 대표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부린 ㄱ씨(49)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ㄱ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춘천시 퇴계동 국민의당 강원도당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박 대표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피우고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br/><br/>▶40대 신원미상 남자, 강원도 간 박지원 대표에게 폭행시도하며 난동···경찰에 연행 <br/><br/><br/>■홍준표 “부모상도 3년 탈상인데 아직도 세월호를 대선에 이용하나···촛불민심은 좌파 주동으로 선동한 민중혁명”(13시51분)<br/><br/>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9일 “<span class='quot0'>부모님 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하는데 아직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억울한 죽음을 대선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태를 보고 이들은 이 나라를 참으로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span class='quot0'>강성귀족노조, 전교조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넣어 준 것이 이번 대선 과정의 가장 큰 성과</span>”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들에 빌붙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각성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툭하면 촛불민심을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광우병 때처럼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가 주동이 돼 선동한 민중혁명이 아니었던가</span>”라고 했다. <br/><br/>▶홍준표 “부모상도 3년 탈상인데 아직도 세월호를 대선에 이용하나···촛불민심은 좌파 주동으로 선동한 민중혁명” <br/><br/><br/>■심상정 측 “북한의 무력시위는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13시40분)<br/><br/>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span class='quot3'>연이은 무력시위는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 국제사회로부터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span>”고 비판했다. 심 후보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span class='quot4'>대한민국의 대선이 열흘 남짓 상황에서의 도발은 전쟁도 불사하려는 가짜안보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망동</span>”이라고 했다. <br/><br/>▶심상정 측 “북한의 무력시위는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 <br/><br/><br/>■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 농업공약 발표(11시33분)<br/><br/>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1㏊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5'>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span>”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br/><br/>▶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 농업공약 발표 <br/><br/><br/>■문재인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지침은 폐기하겠다”(10시21분)<br/><br/>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span class='quot1'>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은 폐기하겠다</span>”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동절을 이틀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노총 지지선언’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리고 “<span class='quot1'>새 정부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span>”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가 언급한 ‘위법한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br/><br/>▶문재인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지침은 폐기하겠다” <br/><br/><br/><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6.txt

제목: 전이, 재발로 치료 어려운 대장암, 초기부터 이중병행암관리 적용해야  
날짜: 2017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8173344001  
ID: 01100101.20170428173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은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암 중 하나다. 특히 위암이나 간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대장암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는 개그맨 유상무씨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 우리를 놀라게 했다. <br/><br/>대장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대장암 자체가 초기 증상이 없어 암 질환 발견 자체가 힘든 편이다. <br/><br/>초기 증상이 없다 보니 암 발견 자체가 늦어져 암 3~4기 정도에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수술과 함께 항암치료까지 병행해야 하지만 완치율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br/><br/>또한 대장암은 암세포가 대장에 국한돼 있는지, 혹은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대장암 초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1기와 재발 위험이 없는 2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정기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하지만 대장암 3기 이상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진행하며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게 된다.<br/><br/>대장암 재발 시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이때 1차 암치료에 사용된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재발치료 시 효과가 낮아 치료제 및 치료법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초기 발견이 힘들고 다른 암에 비해 재발률과 전이 위험성이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재발, 전이에 대비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암 발견 시에는 최대한 빨리 초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강조했다. <br/><br/>한편 대장암 환자들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기력과 면역력 모두 저하된다. 이때 구토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치료는 환자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치료에도 견딜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기본이 되어야 효과적인 암 치료 및 사후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br/><br/>이와 관련 최근 각광받는 치료법은 한방면역암치료다. 자연스레 한방의학은 암치료의 새로운 지대로 각광받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한의원들은 암 치료 유도와 면역력의 향상만을 앞세운 치료법을 내세워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br/><br/>암면역치료는 단순히 면역력증진에만 치중한 치료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치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한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치료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이중병행암관리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시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며,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경향신문-2-337.txt

제목: 중부고속도로서 환자수송 구급차가 버스 추돌…4명 부상  
날짜: 20170427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7191259001  
ID: 01100101.2017042719125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27일 오후 4시35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터널 인근에서 ㄱ씨(32)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앞서가던 45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ㄱ씨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br/><br/>구급차는 암 환자와 보호자, 응급 구조사를 태우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3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사고 수습을 하느라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진천터널까지 8.4㎞ 구간이 2시간 넘게 차량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br/><br/><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8.txt

제목: 맹독 든 ‘복어환’을 암 특효약으로 판매  
날짜: 20170426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6214507002  
ID: 01100101.20170426214507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ㆍ식약처, 60대 업자 검찰 송치<br/><br/>암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 업자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7년 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장사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권모씨(62)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br/><br/>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이다.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한다. 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ｇ)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는데, 이는 환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br/><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복어환 구매자 중 사망한 분도 계시지만, 원래 앓고 있던 암이 악화돼서인지 독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39.txt

제목: 암 특효약이라며 맹독 든 ‘복어환’ 판매···검찰 송치  
날짜: 20170426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6110140001  
ID: 01100101.2017042611014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7년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장사’를 재개했다. <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권모씨(62)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r/><br/>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br/><br/>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한다. 성인에게는 0.5㎎이 치사량이다. <br/><br/>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ｇ)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는데, 이는 환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권씨는 독이 많은 복어 산란기에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갈아 분말이나 환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독 함유를 높이기 위해 생식기나 내장만 따로 빼 가공을 하기도 했다</span>”고 말했다. <br/><br/>권씨가 판매한 약을 먹은 환자들이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암환자였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권씨가 조사에서 ‘복어환을 구매한 사람 중 3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을 먹어서인지 앓고 있던 암 때문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40.txt

제목: [대선 4차 TV토론] D-14, 다섯 후보의 뜨거운 토론 ‘전문’  
날짜: 20170425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5225617001  
ID: 01100101.20170425225617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3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br/><br/>다음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4차 TV토론 전문.<br/><br/><br/><br/>◇ 자유토론<br/><br/> ▲ 사회자 = 첫 번째 토론주제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이다.<br/><br/> ▲ 유승민 = 우리 양극화·불평등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제가 바로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낡은 보수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월세 70만 원 봉투를 남겨두고 세 모녀가 이 세상을 떠났다. 구의역 김모군 사건, 비정규직 문제, 아주 아픈 부분이다. 폐지 수집하며 국가로부터 기초수급보장도 못 받고 쪽방에서 지내다가 슬프게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노동·교육·복지·주택 이런 분야들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도 아직 뒤떨어져 있다. <br/><br/>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공약을 했지만, 예를 들면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다. 돈 버는 아들딸이 안 도와줘도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이 문제에 매달리겠다. 굉장히 근본적 대책,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대책,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는, 정규직으로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은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기초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은 공교육을 살려 교실을 살리고 기회의 사다리를 (실현)하는 이런 정책에 저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중부담·중복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많은 분이 복지를 말하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토론하면 좋겠다.<br/><br/> ▲ 안철수 =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에 과거 이야기만 했다. 저부터 큰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토론부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20대 젊은이가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양극화 문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들, 특히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들 만들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서 제대로 대우받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이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격차 해소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br/><br/> ▲ 문재인 =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성장·양극화·저출산 고령화·청년들의 고용절벽 (문제가 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br/><br/> ▲ 홍준표 =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처럼 공공 일자리, 그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의 기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만 500억 불 이상 해외로 투자하고 국내는 투자하지 않는다. 국내 사내유보금이 수조 원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들 때문이다. 강성 귀족노조들의 연봉이 도지사 연봉과 거의 똑같이 받는다. 1억원 정도이다. 이렇게 받으면서 매년 스트라이크를 한다. 파업을 해도 파업유보금이 있다. 돈을 다 받아가니 하청업체는 죽을 지경이다.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나간다. 그러니 청년일자리 절벽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문 후보는 민주노총에 얹혀서 민노총 지지를 받아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강성 귀족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정책이 바뀌어야 일자리가 생긴다.<br/><br/> ▲ 심상정 = 지난 산업화 30년·민주화 30년간 대한민국은 쉼 없이 달려왔다. 부모세대와 할머니·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이런 고속성장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룬 성장과 성과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갔나. 바로 그런 우리 국민의 문제의식이 5개월 동안 촛불 불살랐다고 생각한다. 지금 봉급 생활자 2천만 명 중 1천만 명이 평균 2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자영업자 중 30%가 매출 380만 원이 안 된다. 농민의 한 달 농업소득이 94만 원이다. 왜 이렇게 됐나. 그동안 정치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 그것을 오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br/><br/> ▲ 유승민 = 제가 문 후보께 물어본다.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셔서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꿈이 7급·9급 공무원인데 이런 대한민국은 저는 장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교사 원할 수는 있다. 필요하면 뽑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하셨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거다. 어떻게 되는 건가. <br/><br/> ▲ 문재인 =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br/><br/> ▲ 유승민 = 그럼 예산 소요는 어디서.<br/><br/> ▲ 문재인 = 공무원 17만 개에 21조 원이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원, 나머지는 공공부문에 4조 원,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이게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br/><br/> ▲ 유승민 = 문 후보님 직접 계산해봤나.<br/><br/> ▲ 문재인 = 계산은 밝혔으니까요.<br/><br/> ▲ 유승민 = 17만 명에만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 64만 개는 거의 예산 4조 원이라는 건데 4조 원으로 5년간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하고 계시고, 공무원이요, 저는 그냥 문 후보님 공약에 관심이 있어 계산해봤다. 17만4천 명 공무원을 9급 초봉을 줘도 4.3조 원이 1년에 든다. 그것만 해도 21조가 훨씬 넘어요. 이렇게 공공부문 81만 개라 하면 그중 공무원 17만4천 명이라면서 정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다.<br/><br/> ▲ 문재인 = 공무원 일자리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것 보시고. <br/><br/> ▲ 유승민 = 다 봤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안 맞다.<br/><br/> ▲ 문재인 = 더 자세한 것은 유 후보님이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br/><br/> ▲ 유승민 = 아니다. 이 중요한, 어디 가면 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소요재원도 제대로 이야기 못 하시면서.<br/><br/> ▲ 문재인 = 이정도 하시고요.<br/><br/> ▲ 유승민 = 저더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니 너무 매너 없으신 것이죠.<br/><br/> ▲ 문재인 = 충분한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br/><br/> ▲ 사회자 = 시간 좀 있으니 문 후보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br/><br/> ▲ 홍준표 = 저에게 질문하려고.<br/><br/> ▲ 사회자 = 그 전에 이 문제는 안 후보가 발언권을 신청했다.<br/><br/> ▲ 안철수 = 저는 홍 후보에게 질문하겠다.<br/><br/> ▲ 홍준표 = 오늘은 저한테도 질문하십니까?<br/><br/> ▲ 안철수 = 하하하. 저도 일자리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창의적 인재 만들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br/><br/> 그런데 홍 후보가 뉴딜정책 있지 않나.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 지금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 말씀이 아닌가.<br/><br/> ▲ 홍준표 = 그건 아니고. 그건 민간주도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가 살아야 해요. 대한민국 기업이 기가 살아야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재벌회사 서너 군데를 복수 합격하고 골라서 갔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100장 넣어도 돌아오는 데가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해외로 나갔다. 왜 나갔느냐.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강성귀족노조가 이런 적폐를 계속 안고 있으니 기업가를 범죄시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하고. 정부 역할은 이런 강성 귀족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정부 역할이다. 그러고 난 뒤에 민간이 열심히 일해, 일하면 일할수록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죠. 문 후보처럼 강성 귀족노조 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같이 정치하려고 하면 도대체 정부의 노동정책도 개혁이 안 되잖아요.<br/><br/> ▲ 안철수 = 그러면 정부에서 뉴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 그만큼 돈 안 들이고 기업 기 살려주기입니까?<br/><br/> ▲ 홍준표 =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은 여러 가지인데 노동정책을 개혁해야 하고 기업 기 살려주는 것, 규제를 없애줘야 해요. 모든 규제 때문에 기업이 숨을 못 쉰다.<br/><br/> ▲ 안철수 = 재정투자 없이 한다는 것이냐.<br/><br/> ▲ 홍준표 = 재정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재정 투자해서 안 후보 말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주자는 것이다. <br/><br/> ▲ 안철수 = 그러면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오느냐.<br/><br/> ▲ 홍준표 = 그건 실무진이 만든 건데.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규제나 그런 것은 기재부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자리 개수 헤아리는 게 대통령인가.<br/><br/> ▲ 안철수 = 결론을 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일자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 후보의 공약인 뉴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겠다.<br/><br/><br/><br/>◇ 자유토론<br/><br/> ▲ 심상정 =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가 넘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에 빚더미에 올라서 소비가 IMF 때보다 못해요. 이럴 때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안 후보 말씀처럼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특혜 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 만들었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br/><br/> ▲ 안철수 = 포인트가 다르다. 저와 생각이 조금 틀리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다.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데 정부가 세 가지를 못했다.<br/><br/> ▲ 심상정 =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미시적 기업경영과 거시적 국가 경제는 다르다.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알바로 고생할 때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경유착만 강화됐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저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권한다.<br/><br/> ▲ 안철수 =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재정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훨씬 국민에 적은 부담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재정을 운용한다. OECD 평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br/><br/> ▲ 심상정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민간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다. 전경련식 사고다.<br/><br/>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를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br/><br/> ▲ 심상정 = 안 후보에게 묻는다. 토론회 오면서 네티즌이 꼭 좀 물어달라고 했다. 불평등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시간 저임금 해소다. 안랩에서 올해 임금계약을 총액임금제 아니 포괄임금제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br/><br/> ▲ 안철수 = 경영에서 손 뗀 지 10년도 넘었다.<br/><br/> ▲ 심상정 = 포괄임금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안랩 직접 운영하셨고 안랩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는 십수 년을 해왔다고 한다. 안 후보께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 강요하는 변태 임금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br/><br/> ▲ 안철수 = 제 생각입니다<br/><br/> ▲ 심상정 =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포괄임금제 계속했다는 게 충격적이다.<br/><br/> ▲ 안철수 =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 비판하시지 않았나.<br/><br/> ▲ 홍준표 = 말로는 못 이겨요<br/><br/> ▲ 심상정 = 질문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판단해보겠다. <br/><br/> ▲ 문재인 =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민간 부분, 시장, 지금까지 십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계속 민간에 맡기자면 일자리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거나 똑같다. 전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곳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홍준표 후보도 문제의식이 같다고 본다. 다만 홍 후보는 아까 질문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국가 예산으로 SOC 많이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는 것이다. 그건 뉴딜정책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다. <br/><br/> 자 그렇고요, 유승민 후보님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선 그 전에 OECD 통계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태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사회적 경제도 거의 6~10% 고용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OECD 국가는 보통 공공부문 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3분의 1, 민간이 전체 3분의 2쯤 된다. 우리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는 불과 1%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공공부문이 조금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건데 그걸 자꾸 반박하면 그럼 유승민 후보의 대안은 뭐냐.<br/><br/>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일자리 81만 개 공공부문 만들면서 1년에 4.2조로 충분하다는 재원이 어처구니없다는 거다. <br/><br/> ▲ 문재인 =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br/><br/>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재원대책이 그냥 제가 간단히 계산해 봐도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됐으니 다시 점검해달라는 거다.<br/><br/> ▲ 문재인 =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재원대책에 대해 말했고, 유 후보님의 대안은 뭐냐.<br/><br/> ▲ 유승민 = 제 설명을 드리겠다. 일자리는 안 후보 말처럼 당연히 민간이 만드는 거다. 필요한 공기업 채용, 필요한 공무원 교사 채용은, 그거는 매년 지금도 2만 명씩 공무원 채용한다. 그런데 일자리 대부분은 자꾸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재벌 대기업을 염두에 둔 말씀 같은데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혁신 벤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 창업 성공하는 환경 만들려고 재벌개혁 하자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성공기업 나올지 고민해야지 그걸 놔두고 세금 거둬서 공무원 만든다? 그게 무슨 일자리 대책이냐.<br/><br/> ▲ 문재인 = 똑같은 얘기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줄창(줄곧) 말하며 이른바 유 후보가 ‘줄푸세’까지 주도했다.<br/><br/> ▲ 유승민 = 줄푸세 하신 분은 지금 문 후보님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신다.<br/><br/> ▲ 문재인 = 줄푸세가 무슨 효과가 있었나.<br/><br/> ▲ 유승민 = 그분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계세요.<br/><br/> ▲ 사회자 = 심상정 후보가 발언권을 신청했다.<br/><br/> ▲ 심상정 = 이 문제의 논점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저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민간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지금 같은 고용절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직무유기다. 문 후보는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다. 유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민간이냐. 정부냐의 논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문 후보님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 완전히 빠졌다. ▲ 문재인 = 포함했다.<br/><br/> ▲ 심상정 = 언제 포함됐나.<br/><br/> ▲ 문재인 = 원래 포함돼 있다. <br/><br/> ▲ 심상정 =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명목세율 인상을 유보하셨다. <br/><br/> ▲ 문재인 = 증세의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br/><br/> ▲ 심상정 =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예산안 보면 증세가 6조 원밖에 안 된다. <br/><br/> ▲ 문재인 = 증세에 법인세, 실질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보라. <br/><br/> ▲ 심상정 = 모두 포함해서 6조 원밖에 안 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직하게 정책실현 대안에 대해선 말씀하실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따가 다시 하자.<br/><br/> ▲ 사회자 = 찬스 발언을 쓰기 전에는 기회가 없다. 홍 후보께.<br/><br/> ▲ 홍준표 = 아까 문 후보가 민간의 일자리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강성·귀족 노조의 패악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전부 해외에 나가버린다. 대기업을 따라서 중소기업도 작년 해외투자가 6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문 후보처럼 강성·귀족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며 편을 드니 그 패악이 없어지질 않는다.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는 그리스의 예를 든다. 좌파·강성 노조가 강해서 제조업이 없다.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 한 사람이 할 일을 네 사람이 한다. 네 사람이 일해서 임금을, 세금을, 나눠 먹는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 공공일자리 말이다. 공무원이 그만두면 95%는 연금을 준다. 실질적으로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한다 연금이 나오니까. 공공일자리로 국민 세금 나눠 먹기를 하자, 옳지 않은 처사다.<br/><br/> ▲ 안철수 = 문 후보께 묻겠다. 얼마 전 정책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봤다. 그 정책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을 뽑는다. 1명을 쓸 수 있다고 해서 2명을 뽑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제공자 위주의 논리라고 본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뽑을 때 임금만큼이나 그 사람이 쓰는 사무공간이랄까, 여러 설비가 든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임금 보전만 한다고 한 사람을 더 뽑긴 힘들다. 셋째로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설명해달라.<br/><br/> ▲ 문재인 = 우리가 다음에 정책토론을 할 때.<br/><br/> ▲ 사회자 = 잠깐만. 초반부터 토론이 뜨거워서 유승민 후보가 찬스 발언을 쓴다고 한다.<br/><br/> ▲ 유승민 = 아니. 문 후보 답변부터 하고. <br/><br/> ▲ 문재인 = 방금 이 문제는 다음 정책토론으로 약간 미루고요. 우리 그 홍준표 후보님, 우리나라 노조가.<br/><br/> ▲ 사회자 = 아니. 안 후보의 질문에 답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br/><br/> ▲ 문재인 = 네.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하겠다.<br/><br/> ▲ 사회자 = 네 그럼 그렇게 하시라. <br/><br/> ▲ 문재인 =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br/><br/> ▲ 홍준표 = 10%도 안 된다.<br/><br/> ▲ 문재인 = 그럼 그 가운데 귀족노조가 몇%나 되냐.<br/><br/> ▲ 홍준표 = 한 3% 된다.<br/><br/> ▲ 문재인 = 하하하.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1∼2% 안 되는 귀족노조냐, 아님 재벌이냐. 재벌 이야기는 한마디도 않고 어떻게 줄곧 노조, 노조만 탓을 하느냐. <br/><br/> ▲ 홍준표 = 경남지사 할 때 민주노총과 3년 싸워서 정상화했다. 내가 한번 이겨봤다. 그 사람들의 패악 때문에 경남도도, 진주의료원도 운영이 안 됐다.<br/><br/> ▲ 문재인 = 참 딱한 이야기다.<br/><br/> ▲ 심상정 = 자리를 바꾸고 싶네요. 앉아있기 힘드네요. 정말.<br/><br/> ▲ 홍준표 = 노조 대표들과 함께하니까 그렇죠. <br/><br/> ▲ 사회자 = 홍 후보에게 20초 남았다. 유 후보에게 발언권 드린다. <br/><br/> ▲ 유승민 = 우선 문 후보의 말에 반박하겠다. 아까 토론 도중에 본인의 정책본부장과 토의하란 말씀에 대해서는 취소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태도로, 대선후보 토론에 와서 (본인의 캠프) 내부하고 얘기하라,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문 후보의 공약 중에 대표적 공약이 일자리다. 어디를 가도 일자리, 일자리 한다. 81만 개 일자리 1년에 4.2조 원이 든다는데, 국민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라. 81만 나누기 4.2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 수준이다. 월 4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4.2조 원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 그건 답하지 않고, 뭐 우리 캠프 정책본부장과 이야기하라니. 이런 오만한 토론 태도가 어디 있나. 그리고 저보고 자꾸 ‘줄푸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 줄푸세 공약을 만든, 저는 만들지 않았고요, 특히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지난 토론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줄푸세 공약을 만든) 그분은 문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가 계신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공약을 만든 분이. 그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br/><br/> ▲ 문재인 = 찬스 발언 안 쓸 수가 없다. 제가 일자리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저는 일자리에 대한 소요예산, 발표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몇만 개, 얼마, 얼마, 숫자와 소요재원을 다 밝혔다. 그런데 유 후보는 토론할 때마다 질문하고 제가 답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며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 한다. 그러면서 제 발언 시간을 다 뺏어간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이젠 우리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볼 얘기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일자리,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았나. 이 일자리 문제 바꾸려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나.<br/><br/> ▲ 사회자 = 안 후보가 3초를 쓰시겠다고. <br/><br/> ▲ 안철수 = 심 후보의 말씀처럼 다릅니다. 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이지 신자유주의, 전경련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씀 드린다. <br/><br/> ▲ 홍준표 = 저는 재벌 출신도 아니고, 저는 재벌과 상관없다. 재벌의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으려면 강성·귀족 노조 타파돼야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일자리가 생긴다. 두 번째로 종북세력 타파, 세 번째로 전교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 3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이다.<br/><br/> ▲ 사회자 = 자유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법에 대해 토론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토론 아주 재미있게 잘다.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br/><br/> ▲ 심상정 = 좀 짧다. <br/><br/> ▲ 사회자 = 짧죠. JTBC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캠프를 탓하라. 각 캠프 5명이 모여서 이렇게 룰을 정했다. 저희는 완전한 자유론을 제안했는데 캠프 나름의 전략이 있으시겠죠.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도 좀 아쉽다. 이 부분을 더 가져갔으면 하는데. <br/><br/> ▲ 홍준표 = JTBC가 제일 편안하게 해준다. 토론을 마음 편하게, 세워놓고 벌 서는 것도 아니고.<br/><br/><br/><br/>◇자유토론<br/><br/> ▲ 사회자 = 두 번째 주제는 많이 해서 저희로서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차피 불거지고 있다. 외교·안보문제다. 다시 6분이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진영재 연세대 교수가 직접 발제하고 토론 시작하겠다.<br/><br/> ▲ 진영재 = 정책 토론 통해 후보들 건승 기원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불허다.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 외교·안보 이슈는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정작 후보들 간 정책 토론 통해서 청사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 다수 회원 의견이다. 질문한다. 후보자들은 안보와 국익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해달라.<br/><br/> ▲ 사회자 = 그동안 외교·안보 주제로 열띤 공방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했다는 평가가 있기에 아예 정한다. 내놓으신 모토가 왜 다른 후보들 정책하고 어떠한 점이 차별화됐는지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해달라. 문재인 후보부터 하고 다음은 홍 후보고 아까처럼 자유토론이다.<br/><br/> ▲ 문재인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 그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 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드 합의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균형된 외교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br/><br/> ▲ 홍준표 = 지금 문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 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3억 달러 든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번을 했다.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는가. 핵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 돈 넘어온 것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왜 그런 탓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핵 균형은 지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NATO)에도 이미 전술핵이 도입돼있다. 그다음에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셋째, 북한 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우리가 주문하겠다. 김정은 눈치 보며 구걸해서는 안 된다. 깡패도 아니고 맨날 상납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 <br/><br/> ▲ 안철수 = 저는 유 후보에게 묻겠다. 외교 분야다. 지금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도 외교·안보로 접근한다. 미세먼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정책이 안보와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어떠한가.<br/><br/> ▲ 유승민 = 좋은 말이다. 당연하다. 미세먼지는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과 관계있다. 문제는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 얼마나 중국에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발전과 우리 경유차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br/><br/> ▲ 안철수 = 지금 미세먼지 말했다만 크게 3가지 요인 있다. 첫째, 중국 둘째, 우리 화력발전소 셋째, 생활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 각각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는 공약을 냈다는 점 말한다.<br/><br/> ▲ 심상정 =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그것은 가짜 안보다. 첫째, 안보를 늘 정권의 안위로 이용했다. 두 번째,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방조했다.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다. 선진국이 다 이룬 현대적 군 개혁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튼튼한 안보를 말한다.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자율지능형 군대로 병사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군사를, 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직업군인들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된 병사들 배치하는 자율지능형 군대로 바꾸겠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튼튼한 안보다. 한 가지 더 있다. 외교 중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테이블에 대한민국 의자가 없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운명을 다루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맡겨졌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다. 냉전 시대 한복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들 기억한다. 60년대 말 독일 브란트 수상,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라빈 총리 이런 분들이 냉전 한복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새판을 짜서 평화를 끌어낸 지도자들은 참고해야 한다. 눈치 보고 줄서기 외교하고, 미국 한마디에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동맹은 아니다. 낡은 동맹관이다. 국익과 주권국가로서 절차를 양국이 존중하는 대등한 외교 이뤄내겠다.<br/><br/><br/><br/>◇자유토론<br/><br/> ▲ 유승민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 해왔다고 생각 안 한다. 문 후보의 지적 일부를 인정합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으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가져와 일관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과 의사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다. 그다음부터는 고도화·소형화·경량화시키는 것이다. 문 후보에게 질문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드는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를 잘하면 된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br/><br/> ▲ 문재인 =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사드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킬체인이 아닌가. 그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기제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간 연기해 20년대에 가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노력하지 않았나.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무엇을 했나. <br/><br/> ▲ 유승민 =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킬체인과 KAMD를 하려고 했다. 문 후보는 모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생각하나.<br/><br/> ▲ 문재인 =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확 줄어 KAMD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 전술핵 (재배치) 하자, 자체 핵무장을 하자, 심지어 미국의 선제타격도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나.<br/><br/> ▲ 유승민 =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될 분으로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닌가.<br/><br/> ▲ 문재인 = 지금은 거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수준이었다. 그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드디어 미사일로, 말하자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 앞 정부를 탓한 것 말고…<br/><br/> ▲ 유승민 =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지금 문 후보의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방금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나.<br/><br/> ▲ 문재인 = 사드(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 아닌가.<br/><br/> ▲ 유승민 = KAMD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는가. <br/><br/> ▲ 문재인 = 2025년이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br/><br/> ▲ 유승민 = 그때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나.<br/><br/> ▲ 문재인 = 그래서 사드부터 배치하자는 것 아닌가.<br/><br/> ▲ 유승민 = 그렇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 아닌가. <br/><br/> ▲ 문재인 = 그럼 중국으로부터 북핵폐기 공조카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다음 정부로 넘겨 그런 권한을 가져야 북핵문제도 중국문제도 해결할 것 아닌가.<br/><br/> ▲ 유승민 =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환구시보에 이렇게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뉴스를 보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br/><br/> ▲ 문재인 =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지금 한·미·중의 삼각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 ▲ 유승민 = 마지막으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는가.<br/><br/> ▲ 문재인 =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br/><br/> ▲ 유승민 = 이 중요한 문제를 말하며 어제 트럼프가 아베 및 시진핑과, 오늘이 인민군창설일이 아닌가. 트럼프가 황교안과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중국 관영신문에는 ‘선제타격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도 반대하고… 사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면서 문 후보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br/><br/> ▲ 문재인 =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br/><br/> ▲ 유승민 = 무시 차원이 아니다.<br/><br/> ▲ 문재인 =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미국의 주장만 추종하니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br/><br/> ▲ 안철수 = 심 후보의 공약을 잘 봤다. 모병제와 사병월급 인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정말 아주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그다음에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이 결국 새로운 기술·산업화로 연결되고 실리콘밸리로 연결됐다. 셋째, 의무 복무를 하고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돼서 제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다시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국방비로 40조 원을 쓰는데,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국방 R&D는 전체 R&D의 12%를 쓰는데 여전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산업화와 연계도 못 한다. 청년들이 제대 이후 자기 계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br/><br/> ▲ 심상정 =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늘 기술산업만 있다. 자강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강의 첫 번째가 군사주권 아닌가.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강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병사들의 처우 같은 것은 없다.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br/><br/> ▲ 안철수 = 설명해 드리겠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br/><br/> ▲ 심상정 = 저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R&D 투자를 잘하는 데도 동의한다. 안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이 국방비를 3%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적어 강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6위 수준이고, 북한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안보산업이 무기 개발을 하는 데 1조원 규모다. 수천억 원이 방산비리이다. 저는 군수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은 것도 아니다. 다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정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br/><br/> ▲ 안철수 = 그 부분도 저와 생각이 다르다. 일단 물어보셨으니,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다.<br/><br/><br/><br/>◇자유토론<br/><br/> ▲ 심상정 = 미국이 우방국과 동맹국, 전 세계에 기지를 가진 60개 국가 중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군사주권 없이 강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br/><br/> ▲ 안철수 =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다. 반드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br/><br/> ▲ 심상정 = 실력이 왜 안 되나? 그건 자학적인 안보이지 자강 안보가 아니다.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도 노 프라블럼(no problem)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무기한이 됐다. 전작권 연기 사유가 뭐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군이 나중에 지원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한미 간 상호방위 공약도 있고 정례안보회의도 있다. 군사적 지원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br/><br/> ▲ 안철수 =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많은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우리가 안보역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방산비리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둘째 셋째 말씀드린 것도 모두 국방 R&D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br/><br/> ▲ 심상정 =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 해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br/><br/> ▲ 안철수 = 하하하. 그리고 셋째로 저는 군내에 직업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에 사병들도 자기 계발 기간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br/><br/> ▲ 심상정 = 자기 계발 이전에 결국 애국페이부터 같이 해결하면 안 되겠나.<br/><br/> ▲ 안철수 = 동의한다.<br/><br/> ▲ 심상정 =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br/><br/> ▲ 안철수 = 그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은 좀 다를 것으로 안다.<br/><br/> ▲ 심상정 = 열심히 찾았는데 공약에 없어서, 오늘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안 후보도 약속하시면 거의 입장이 통일되니까, 병사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br/><br/> ▲ 사회자 =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라.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많이 남았다. <br/><br/> ▲ 홍준표 =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약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 가볍게 하나 묻겠다. 군 가산점제에 우리 동의합니까? 문 후보.<br/><br/> ▲ 문재인 = 형식의 문제죠.<br/><br/> ▲ 홍준표 = 동의하나.<br/><br/> ▲ 문재인 = 하지 않는다.<br/><br/> ▲ 홍준표 =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나. <br/><br/> ▲ 문재인 = 그러나 우리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도 생각해야 하고 군대 간 분은 호봉이나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본다.<br/><br/> ▲ 홍준표 = 아 그러니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br/><br/> ▲ 문재인 = 네 그렇게 본다.<br/><br/> ▲ 홍준표 = 동성애에 반대하나.<br/><br/> ▲ 문재인 = 반대하죠.<br/><br/> ▲ 홍준표 = 반대하나.<br/><br/> ▲ 문재인 = 그럼요.<br/><br/> ▲ 홍준표 = 박원순은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데?<br/><br/> ▲ 문재인 =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죠. 분리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랑 같나.<br/><br/> ▲ 홍준표 =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동성애허용법이잖아. <br/><br/> ▲ 문재인 = 차별금지랑 합법화랑 구분 못 하나.<br/><br/> ▲ 홍준표 = 동성애 반대죠?<br/><br/> ▲ 문재인 =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br/><br/> ▲ 홍준표 = 문 후보님 쓴 책 132면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 운명이라는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 전환시대의 논리 3부를 인용해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이고 문 후보는 희열을 느꼈다고 기재돼 있다.<br/><br/> ▲ 문재인 = 하하하. 지난번에 일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 하셨죠.<br/><br/> ▲ 홍준표 = 위키리크스 찾아봐요. 일심회가 그 당시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건은폐를 위해 김승규 국정원장을 해임시킨 사건이다.<br/><br/> ▲ 문재인 = 위키리크스가 어딨습니까. 확인되면 사과해야지.<br/><br/> ▲ 홍준표 = 아니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니까요.<br/><br/> ▲ 문재인 = 하하하. 저는 사무실에서 팩트 올려주면 좋겠어요.<br/><br/> ▲ 홍준표 = 본인이 썼잖아요. 공산주의가 이긴 책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여기에서 5천명 죽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월남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 <br/><br/> ▲ 문재인 = 하하하.<br/><br/> ▲ 홍준표 = 전환시대의 논리에 이영희 선생 1, 2부에는 미국의 승리로 예상했다가 모든 사람이 3부에는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냐. 난 희열로 느꼈다고 했어. 그럼 공산주의가 승리한 건데 희열을 느꼈다는 거냐.<br/><br/> ▲ 문재인 = 제가 쓴 것은 이런 것이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거에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br/><br/> ▲ 홍준표 = 다시 한 번 조금 더 물어본다.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논리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측을, 미국의 패망과 월남의 패배로 그렇게 예측한 것이다.<br/><br/> ▲ 문재인 = 1, 2부가 월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br/><br/> ▲ 홍준표 = 이때 무슨 희열을 느꼈다는 건가? (사회자: 문 후보는 답할 시간 없으니 홍 후보에게 그냥 의견 말하라고 지적) ㅎㅎㅎ 알겠습니다. 다 돼버렸어요. <br/><br/> ▲ 사회자 = 홍 후보는 시간 남았다. <br/><br/><br/><br/>◇자유토론<br/><br/> ▲ 안철수 = 미세먼지를 중국과 외교할 때 대통령 어젠다로 하자고 유 후보께 말씀했고 동의했다. 나머지 세 후보도 동의하나. 동의한다면 다음 대통령 누가 하더라도 중국과 중요한 대통령 어젠다로 갖고 갈 수 있다.<br/><br/> ▲ 문재인 = 동의한다.<br/><br/> ▲ 안철수 = 지난 대선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TV토론이 있었다. 문 후보는 바로 재개하자고 했고 저는 북한에서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공식화해오면 그때 할 수 있다고 해 서로 입장이 달랐다. 문 후보께서 저한테 그럼 MB와 같은 거 아니냐, 좀 왜곡되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다.<br/><br/> ▲ 사회자 = 2부 토론에서 기회 되면 답변하면 된다. 유 후보께 드린다.<br/><br/> ▲ 유승민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난번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 분이 대통령 되면 기권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정의당은 이름이 정의다. 우리 국내의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사회적 약자든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민감하시면서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 인권이 이렇게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걸 잘 아시면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는데 대통령 되면 기권, 사실상 찬성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두 분 기권에 대해서 과연 인권 중시하는 진보 정권의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앞으로 인권결의안 기권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께서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br/><br/> ▲ 심상정 = 우선 아까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전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공약을 계속 내놨는데 그것에서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2007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총리급 부총리급 장관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6자회담 이뤄지는 절대 절호의 기회에 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을 정무적 판단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엔 참여정부도 찬성했다. 정세 속에서 지도자가 평화로 가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앞으로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없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해마다 유엔에서 채택된다. 그것을 했을 때 바로 인권이 해결되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촉구하는 거로 그치지만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로서 인권문제 해결해야 하고 가장 지름길이 평화체제라고 생각한다.<br/><br/> ▲ 홍준표 = 문재인 후보님은 지난 KBS 토론 때도 6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또 거짓말한다. 일심회사건, 시청자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라. 간첩단 사건 수사를 김성규 국정원장 해임하면서 막은 사건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다. <br/><br/> ▲ 문재인 = 그때 난 청와대에 있지도 않을 때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br/><br/> ▲ 사회자 = 1부를 마친다. 찬스 발언 안 쓰시죠. 나중에 토론 다 마친 다음에 혹시 다섯 분이 동시에 우리 한 2~3분만 더합시다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의견을 여쭈겠다.<br/><br/> ▲ 심상정 =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br/><br/> ▲ 사회자 = 말씀드릴까요.<br/><br/> ▲ 심상정 = 네, 사장이잖아요.<br/><br/> ▲ 홍준표 = 나는 집에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br/><br/> ▲ 사회자 = 저렇게 반대하시니까 밤샘토론은 안 되겠다. 광고 2분 하겠다. <br/><br/><br/><br/>◇ 공통질문 1 <br/><br/> ▲ 사회자 =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화장실에 가서 아직 안 왔다. 잠시 기다리겠다. 자 이제 다 오셨다. 심상정 후보에 질문하겠다. 공통질문이다. 순서가 심 후보가 먼저다. 내각 구성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인사원칙이 무엇인가. 또 기용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씩 꼭 예를 들어 말해 달라. <br/><br/> ▲ 심상정 = 여러 사람을 말하면 안 되나.<br/><br/> ▲ 사회자 = 그럼 30초가 넘을듯하다.<br/><br/> ▲ 심상정 = 저는 대통령이 되면 ‘촛불개혁 내각’을 만들고 남녀 동수로 구성하겠다. 청렴성, 개혁성, 탁월한 행정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해 송구스럽지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또 개혁성과 행정력 뛰어난 이재명,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구성하겠다.<br/><br/> ▲ 사회자 = 타당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br/><br/> ▲ 심상정 = 아니 ‘개혁 공동정부’인데, 타당이 무슨 소용인가. <br/><br/> ▲ 사회자 = 알겠다. <br/><br/> ▲ 홍준표 = 제가 인사를 한다면 능력과 청렴성을 보겠다. 그리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 230조 위반이다. 그래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우선 첫째, 능력을 보고 둘째, 청렴성을 보겠다. 이제 우리당이냐 아니냐는 가리지 않겠다. <br/><br/> ▲ 심상정 = 선거법 위반 부분은 확인해주셔야겠다.<br/><br/> ▲ 사회자 = 이건 바로 확인하겠다. 그럼 좀 기다려보겠다. 같은 질문 드려야 하는데 안 후보에게도.<br/><br/> ▲ 안철수 = 저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겠다. 저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사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취업비리, 병역비리, 입학비리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 둘째, 유능한 사람이다. 셋째, 계파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OECD 평균 30%가 (내각의) 여성 비율인데 그것부터 시작하겠다.<br/><br/> ▲ 유승민 =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이다. 정말 어느 정권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제일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또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같이 하겠다. 뭐 어느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권 출신이든 개의치 않고, 오로지 능력과 같이 뜻을 지향하는지만 보고 뽑겠다.<br/><br/> ▲ 문재인 =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통합의 관점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대한민국 드림팀’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당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함께 하고 싶다. 말씀드리자면 국민추천제를 하고 싶다. 손석희 사장(사회자)께서도 국민추천 높게 받으시면, 사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br/><br/> ▲ 안철수 = 선거법 체크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다. <br/><br/> ▲ 사회자 = 그 이전에 이건 제가 사양을 하겠다. <br/><br/> ▲ 홍준표 = 이게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 소리인가.<br/><br/> ▲ 사회자 =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나. 알겠다. <br/><br/><br/><br/>◇ 공통질문 2<br/><br/> ▲ 사회자 = 역사적 인물 중 자신의 리더십에 누구와 잘 맞나. 한 분만 꼽고, 이유를 설명해달라. <br/><br/> ▲ 심상정 = 삼봉 정도전을 꼽는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조선건국을 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만든 이번 대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 삼봉 정도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br/><br/> ▲ 홍준표 = 저는 지금은 인기가 좀 없지마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고 싶다. 5천 년 민족을 가난에서 헤어나게 해줬다.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강인한 대통령 나와야 남북관계를 수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br/><br/> ▲ 안철수 = 저는 세종대왕의 인사,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닮고 싶다. 장영실을 등용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뤘다. 그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만 인정해서 뽑은 결과 아니겠는가. 소통의 리더십이 정말로 닮고 싶다. 백성들로부터도 여러 정책을 미리 경청하고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성공한 정책을 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br/><br/> ▲ 유승민 = 저는 다산 정약용을 닮고 싶다. 정약용은 정말 백성들, 민초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해결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했다. 민본주의의 표상이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매일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던 제대로 된 개혁을 하신 분이다.<br/><br/> ▲ 문재인 = 저도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공정한 조세개혁을 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17만 명을 물어서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했다. 왕조시대에 대단하다. 그렇게 소통하는, 국민과 눈을 맞추는 대통령 되겠다. <br/><br/> ▲ 사회자 = 아직 팩트체크 내용이 안 오고 있는데, 아까 홍 후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 해서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제작진은 빨리 좀 체크해보길 바란다.<br/><br/><br/><br/>(계속)<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경향신문-2-341.txt

제목: [공감]이런 후보는 안 뽑을 것이다  
날짜: 20170425  
기자: 한지혜 | 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5203857001  
ID: 01100101.20170425203857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며칠 전 아파트 입구에서 피를 흘리고 앉아계신 어르신을 보았다.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셨다고 했다. 뒷머리가 깨져 흘러내린 피가 셔츠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경비실에도 근무자가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마저 없었다. 일단 사시는 곳과 연락 가능한 가족 여부를 여쭙는데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다. 119에 연락을 하고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몇 사람이 함께 어르신을 도왔다. 보호자와 연락을 해야 했는데, 어르신은 보호자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없다고 하다가 멀리 있다고 하다가 모른다고 했다. 다친 충격 때문인지 대화도 쉽지 않았다.<br/><br/>그럼 어떡해야 하지. 보호자도, 연고도 없는 어르신을 앰뷸런스로 모시는 일은 가능할까.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아이가 쓰러져 앰뷸런스를 이용했는데 10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물론 몇 년 전 그이가 미국에 머물던 시절의 이야기다. <br/><br/>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잠시 머물렀던 나는 수첩에 ‘앰뷸런스는 절대 타지 말 것’이라고 적었다. 충분한 금액의 의료보험에 가입해두었고, 몇 달 정도만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에라도 병원 갈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었다. 웬만큼 아픈 건 가정상비약으로 해결하고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타민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낫지 않는 구내염으로 결국 병원에 갔을 때, 1회 진료에 열흘치 약을 처방받은 대가로 2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물론 약값은 제외한 금액이다.<br/><br/>가족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어르신을 설득해 어렵게 전화 연결에 성공했다. 휴대폰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하고, 겨우 아내의 번호를 찾았다. 수화기 저쪽 너머에서 한숨소리부터 나왔다.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못 가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일하고 있어. 오늘 늦을 거라고 했어. 통화내용이 들리지도 않을 텐데 다친 어르신이 대신 변명을 했다. 그리고 수화기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니, 대체, 왜, 어쩌다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한숨들이 이어졌다. 깜박 잊었다는 듯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했지만 그 너머의 화는 여전히 삭지 않는 게 느껴졌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 슬펐는데, 다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더듬더듬 변명하는 어르신의 고단한 행색과 수화기 너머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주한 거리의 소음 때문이었다.<br/><br/>가족이 다쳤다고, 가족이 아프다고 열 일 제치고 달려오고, 걱정하고 울고, 그런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 어느 한 귀퉁이에 흠만 나도 와르르 부서질 수 있는 가족들은 도처에 흔하고, 그런 이들에게 가족의 사고나 질환은 겨우 잡고 있는 생을 희망도 뭣도 없이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걱정보다 미움이, 안부보다 원망이 솟구치는 가족은 서로 간에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다. 뜬금없이 그래도 앰뷸런스는 무료로 타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br/><br/>지난해 여름 암 진단을 받은 엄마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병원비 부담이 많지는 않다. 식물인간 아버지를 경험했던 기억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다. <br/><br/>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쓴소리가 많지만 잘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의료 부문이 그렇다.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아직은 많은 부분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공약이 쏟아진다. 서비스 향상이니 가격 경쟁, 민간기업 발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공적 기관의 민영화를 약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교육이 그러하고 의료 산업이 그러하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검증 기간도 짧고 준비 기간도 짧다. 선택이 어려울 때는 옳지 않은 공약을 가진 후보를 하나씩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익으로 지켜야 할 영역을 민영화하려는 후보, 나는 일단 그런 후보는 뽑지 않을 생각이다.<br/><br/><한지혜 | 소설가>

언론사: 경향신문-2-342.txt

제목: [2017 시민의 선택]문 ‘수권 능력 알리기’ 열중  
날짜: 20170424  
기자: 김지환·천안 | 김한솔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4225238002  
ID: 01100101.20170424225238002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ㆍ문재인, 정책 행보 속도전<br/><br/><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64)는 24일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세부 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다.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넘어 집권 후 안정적 수권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br/><br/>문 후보는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서울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며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거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br/><br/>광화문광장 재구성 계획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span class='quot0'>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중앙분리대처럼 있는 광화문광장 위치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한편 광화문 월대와 육조거리를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민주주의 광장 역할도 계속 살려내겠다</span>”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이곳에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br/><br/>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서울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의 박금옥 전 총무비서관이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장을 각각 맡았다.<br/><br/>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span class='quot1'>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을 실망시키는 글이나 말을 자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문 후보는 충남 천안 유세에서 “<span class='quot0'>저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지</span>”라며 “<span class='quot0'>문재인이 돼야 안희정에게 길이 열린다</span>”고 말했다. 안 지사 부인 민주원씨와 장남 정균씨도 유세에 참여했다. <br/><br/>문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를 언급하며 “호남, 과반을 넘어 60%에 근접했다.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0%에 다가섰고, 대구·경북에서도 1등, 50대에서도 1등”이라며 “역사상 최초의 국민통합 대통령, 누구인가”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br/><br/>문 후보는 이날 KBS를 통한 첫 방송연설에서 “<span class='quot0'>지역구도 정치와 구시대적 색깔론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암적 요소</span>”라며 “확실하게 끝장내겠다”고 말했다.<br/><br/><김지환·천안 | 김한솔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43.txt

제목: 힐리언스 선마을, 5월 전문의와 함께하는 캠프 잇따라 개최  
날짜: 2017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4142444001  
ID: 01100101.20170424142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힐리언스 선마을(촌장 이시형)이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 힐링 캠프를 잇따라 개최한다. 통합 의학, 한의학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연구,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실천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프를 열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성초 한의원 박찬영 원장은 5월 12~14일 ‘해독전문 한의사 박찬영의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독의 기적’이란 저서와 방송 출연으로 ‘해독 열풍’을 일으킨 박찬영 원장은 해독 치료란 인체를 거시적으로 보아 큰 흐름에서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br/><br/>박 원장은 “보통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우리는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데, 실제로 엔진 오일 교체만으로도 주행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해독 역시 마찬가지다. 주기적으로 해독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셀 수 없는 많은 중금속과 독소에 점령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해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됐다”고 강조했다.<br/><br/>2박 3일간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진행되는 박찬영 원장의 해독 프로그램에서는 박찬영 원장의 특강 ‘해독이 답이다’, 박찬영 원장과 1:1 상담, 아침 스트레칭, 종자산 트레킹, 와식 명상, 요가와 명상, 아로마테라피, 박찬영 원장의 사후관리 강의 ‘해독의 실재 적용 방법’ 등이 진행된다.<br/><br/>이영진 교수(차의과 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는 5월 20~21일 ‘심마니 의사 이영진 교수의 면역력 증진 캠프’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토종 산야초를 이용한 항암요법 연구에 매진한 학자다. 그는 최근 2년간 200여 명의 암환자에게 차 요법을 적용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이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치료를 받았거나 암 수술을 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차 요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span>”고 했다. 1박 2일간 선마을에서 그는 약초에 대한 지식 습득, 산야초 치유 트레킹, 면역력 강화 식단 등을 진행한다.<br/><br/>겨우살이, 산당귀, 산뽕나무, 가시오가피, 운지 버섯, 삽주, 잔나비 불로초, 질경이, 흰민들레 등 면역 증진 효과가 입증된 식양용 식물을 차로 마셔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약초별 특성, 입증된 효과, 채취 시기 등에 대해 공부해 일상생활에서 음료수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차 만들기 실습도 진행한다. 이밖에 종자산을 트레킹하며 배운 약초를 찾아보고 눈에 익힌다. 아울러 이번 캠프에서는 조수희 명상연구소장도 참여, 지쳐있는 뇌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충전되도록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액티브 명상법’도 진행한다.

언론사: 경향신문-2-344.txt

제목: [이문재의 시의 마음]장미가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날짜: 20170423  
기자: 이문재 | 시인·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3203851002  
ID: 01100101.20170423203851002  
카테고리: 지역>전북  
본문: 사회자가 서쪽 언덕을 보라고 했다.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코발트빛을 머금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박혀 있었다. 잠시 후 횃불이 밝혀지고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하늘의 멜로디’와 함께 덕유산 남서쪽 기슭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변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저녁, 전북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진도 팽목항, 목포신항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한 산골에서 조촐하지만 각별한 추모제가 열렸다.<br/><br/>‘하늘꽃으로 피어나소서’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날 추모제는 지역 시민, 학생, 농민, 종교인 등 20여개 단체가 뜻을 모아 성사됐다. 기획에서 행사 진행 전 과정이 ‘풀뿌리’에 의해 이뤄졌다. 추모제의 시작을 알린 트럼펫 연주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디예술단’ 소속 목사님이었다. 이어진 합창, 살풀이, 판소리, 색소폰 연주, 낙화봉(落火棒) 점화, 희생자 호명 등 ‘추모 낙화제’를 위해 무대에 오른 이들도 모두 지역 어린이, 학생, 교사, 주민들이었다.<br/><br/>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렸을 것이다. 거리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뭍으로 올려진 세월호 선체를 떠올리며 숨을 가다듬었을 것이다.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으기도 했을 것이다. 3년이 지났는데도 탈상(脫喪)을 하지 못해 아픈 마음들은 다투어 꽃을 앞세우는 봄날과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br/><br/>내가 두문마을을 찾은 것은 낙화놀이 때문이었다. 3년 전, 무주에서 국어교사를 하는 친구를 둔 덕분에 누대에 걸쳐 이어져온 전통 불꽃놀이의 정수를 볼 수 있었다.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1930년대 후반까지 전승되다가 맥이 끊기고 말았다. 낙화놀이는 마을 서원에서 매년 여름 향학열을 북돋기 위해 행하던 책거리의 하나였다. 10여년 전 김익두 전북대 교수팀이 복원에 성공했고, 2007년부터 매년 여름 두문마을은 ‘불꽃이 춤추는 마을’로 변한다.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지난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됐다.<br/><br/>지난해 여름에도 낙화를 보기 위해 무주를 찾았다. 한여름 밤, 무주읍내를 가로지르는 남대천 위로 네 줄 ‘불의 띠’가 걸렸고 물 위로 ‘불의 황금 가루’가 흩날렸다. 그날 밤, 남대천변에서 세월호가 떠올랐다. ‘저 불꽃을 팽목항에 걸었으면….’ 낙화놀이가 단순한 ‘놀이’였다면 감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낙화는 현대식 불꽃과 다르다. 밤하늘에 거대하고 화려한 불꽃을 그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다. 탄환의 속도로 솟구치는 그런 불꽃이 아니다.<br/><br/>한 뼘 간격으로 매달린 수백개 낙화봉에서 떨어지는 불의 가루는 미세하면서도 찬란하고 고귀하다. 밝지 않은 빛, 뜨겁지 않은 불의 입자가 40분 가까이 수면 위로 떨어진다. 낙화는 물과 만나는 불이다. 입자들이 수직의 대열을 이루는 불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을 따라 흩날리는 불의 춤이다. 그래서 수면을 응시하다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다. 물속에서 불이 올라온다. 물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불꽃과 수면에서 만난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거리에서 불이 물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다.<br/><br/>“<span class='quot0'>단원고 2학년 1반 언니 오빠들입니다.</span>” 무주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다. “<span class='quot0'>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span>” 불꽃이 떨어지고 있었다. “2학년 4반 형 누나들입니다….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마을 아래쪽에서 바람이 치고 올라왔다. 낙하하던 낙화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span class='quot0'>2학년 10반 언니 오빠들입니다….</span>” 노란 리본을 세워놓은 작은 배가 저수지 한가운데서 흔들렸다.<br/><br/>지역 교사가 나와 고인이 된 교사의 이름을 불렀다. “<span class='quot0'>유니나, 전수영, 김초원, 이해봉….</span>” 밤하늘에 별이 돋아나 있었다. 오리온자리가 이마 바로 위에서 선명했다. 일반인, 선원, 선상 아르바이트에 이어 미수습자의 이름이 봄 밤 속으로 퍼져나갔다. “<span class='quot0'>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이영숙, 조은화, 허다윤.</span>” 떨어지는 불꽃을 다 받아들이는 저수지 너머, 12시 방향이 진도 앞바다이고, 1시 방향이 목포 쪽일 것이었다.<br/><br/>추모 낙화제에 다녀오면 조금 진정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탈상은커녕 아직 초혼(招魂)의 단계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희생자의 이름을 읽을 수 없다. 끌어올려진 세월호 선체가 우리 시대의 암 덩어리처럼 보인다. 애도가 애도다워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래야 이 봄날이 봄날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애도는 계속 유예될 것 같다.<br/><br/>세월호는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다. 증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나만의 생각일까. 이전 대선과는 다를 것 같았던 ‘장미대선’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장미’가 ‘촛불’을 꺼버린 것 같다. 장미와 촛불, 촛불과 탄핵, 탄핵과 세월호, 세월호와 국가의 연결선이 희미해 보인다. 노란 리본을 단 다음날, 촛불을 켠 다음날, 그러니까 분노한 다음날, 그 많던 다음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념과 진영, 세대를 넘어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토록 다짐을 해왔는데.<br/><br/><이문재 | 시인·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언론사: 경향신문-2-345.txt

제목: [기고]‘가습기 살균제 후유증’ 추적 연구해야  
날짜: 20170421  
기자: 조경현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1204151001  
ID: 01100101.20170421204151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대개 과학은 정치나 행정과 무관하게 발달해 온 듯하나 국가 재난,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터졌을 때는 사태의 수습이나 피해자의 구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 예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다.<br/><br/>담배 연기가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초보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폐 질환으로만 한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2011년 산모와 영·유아가 유독 많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고 ‘살균제 성분이 코를 통해 허파로 들어가 심장을 거쳐 혈관을 따라 태반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했다. 직후 제브라피시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심혈관·간·배아 독성을 증명하는 논문을 2012년 12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br/><br/>논문에 대한 많은 보도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1년 후 국감에서 환경부 고위 관료는 논문이 겨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필자에게 하였고, 실험 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r/><br/>그리고 3년이 더 지나 옥시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교수는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 보고서에 실리지 못한 태아 독성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에야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인정됐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돌이켜보면 2012년 필자의 논문이 나왔을 때 환경부에서 신속히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위원회를 꾸려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판정과 보상이 이뤄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다.<br/><br/>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환경 참사는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이다. 수은 중독에 의한 어린이 환자는 1956년 처음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8년 수은 중독을 인정했고, 일본최고재판소의 피해자 승소 판결은 2014년에야 나왔다. 지난해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가 세워졌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일본 정부는 기업 편을 들어 현장조사와 수은 독성의 과학적 연구를 늦추거나 은폐하려 했다. 산업폐기물을 방류한 기업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지만, 구마모토 대학의 수은 독성 연구를 방해했다. 옥시가 연구 조작을 통해 무해함을 주장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기업의 교활함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행과 닮았다.<br/><br/>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수백만명을 독가스로 죽인 것처럼,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 중 하나는 코로 화학물질을 집어 넣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위나 장의 흡수 장벽으로 독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흡수된다. <br/><br/>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세균 제거를 위해 개발된 살균제다. 하지만 흡입됐을 때 인체·동물 독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필자의 논문 이전에는 PHMG가 러시아에서 2006년 보드카 등 싸구려 밀주 장기 보관 용도로 사용되다가, 실수로 대량 첨가돼 유통되는 바람에 1만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100명 넘게 사망했다는 논문이 전부다. 당시 환자들은 황달·무력감·발열 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고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물질의 독성 범위와 후유증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br/><br/>다음 정부는 최소 몇십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수용을 전제하여 역학 연구뿐 아니라 발생·대사·암·심혈관 질환 이외에도 두뇌질환·자폐증·ADHD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br/><br/>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급 이상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피해자 판별 보상과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2000년 초에 노출된 어린이 생존자들이 어른이 되어 출산을 하게 되는 2030년대 이후까지 후유증 조사와 추적 연구·보상은 계속돼야 한다. 당대에 노출된 환경 교란 물질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칭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 연구소’를 설립하여 장기간의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예산·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 해결과 보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br/><br/><조경현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교수>

언론사: 경향신문-2-346.txt

제목: 朴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해결된다”…법정서 드러난 최순실 ‘기획입국’ 전모  
날짜: 20170421  
기자: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1180548001  
ID: 01100101.20170421180548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10월 외국에 머물던 최순실씨(61)가 돌연 입국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br/><br/>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6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span class='quot0'>최순실씨의 기획입국과 관련된 것</span>”이라며 최씨의 언니 순득씨(65)의 특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br/><br/>특검은 순득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순실씨가 귀국하기 4일 전인 지난해 10월26일 순득씨가 차명폰으로 두 차례 총 17여분간 박 전 대통령 측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순득씨는 특검에서 “딸 장시호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의 여자 비서랑 통화했다”고 말했다. 순득씨는 ‘대통령의 여자 비서가 누구였나’는 취지의 질문에 “<span class='quot1'>딸이 윤 비서라고 했을뿐 이름은 모른다</span>”고 답했다.<br/><br/>진술조서에 따르면, 순득씨는 그날 자신의 딸 장시호씨(38)로부터 “이모(최순실)가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한다고 한다. 이사장님(대통령)과 연락이 안된다고 나한테 윤 비서에게 전화해보라고 한다. 나는 못하겠으니 엄마가 (전화를) 대신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장씨가 “<span class='quot2'>저녁이라 이사장(대통령)과 전화가 안될 수 있으니 윤 비서에게 해보라</span>”며 순득씨에게 전화번호 몇 개를 알려줬다고 한다.<br/><br/>순득씨는 “나는 이 양반(대통령)과 지난 몇 년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는 장씨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고 특검에서 말했다.<br/><br/>순득씨는 50여초 간의 첫 통화에서 “(최순실의) 언니입니다. 혹시 (대통령과)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고, 윤 비서는 “대통령과 지금 있지 않으니 20분 뒤에 전화해달라”고 답했다. 순득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장씨에게 전달했는데 장씨가 울면서 “이모가 죽으면 엄마는 후회없겠냐”며 다시 통화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순득씨는 “다시 전화하기 싫었지만 딸 부탁으로 내키지 않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를 이어간 심정을 특검에 토로하기도 했다.<br/><br/>진술조서에 따르면, 순득씨는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었다. 순득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로 전화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며 먼저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글쎄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라며 순득씨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순득씨가 “암 수술을 받고 제주도에 있었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그러셨느냐. 수술하시느라 힘드셨겠네요”라고 말했다.<br/><br/>순득씨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실이가 제 딸에게 대통령께 전화해 보라고 시켰는데, 제 딸이 직접 전화드릴 수 없어 제가 전화드렸다”며 순실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순득씨에게 “순실씨와 직접 통화하셨나요”라고 물었고, 순득씨가 “<span class='quot3'>직접 통화한게 아니고 딸이 순실과 통화했다</span>”고 하자 “<span class='quot3'>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span>”라고 말했다고 한다.<br/><br/>이에 순득씨가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한국에 일단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며 거듭 순실씨의 입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득씨는 “대통령께서 제게 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동생이 꼭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구나 생각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br/><br/>순득씨 진술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순실씨의 법적 대응 문제까지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순득씨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순득씨는 “동생이 이혼할 때 담당했던 변호사가 도와줄 것 같다. 법무법인 어디인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순실씨는 전 남편 정윤회씨(62)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8)를 선임한 상태였다.<br/><br/>순득씨는 그 후에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며 특검에 진술했다.<br/><br/><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47.txt

제목: 대장암 전이·재발 방지, 핵심은 ‘초기치료’  
날짜: 2017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1141702002  
ID: 01100101.2017042114170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인기 개그맨 유상무의 대장암 3기 판정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단순히 한 개그맨의 암 발병 소식을 넘어 30대 후반에 불과한 그의 젊은 나이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최근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과 열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음주, 흡연 등이 잦은 젊은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br/> <br/>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늦어 조기 발견 시 완치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힘들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대장암 3~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br/> <br/>대장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라면 빠른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지만 암이 대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다면 치료법은 달라질 수 있다.<br/> <br/>대장암 초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1기와 재발 위험이 없는 2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정기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게 되며, 수술만으로 암을 극복한 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장암 3기 이상 판정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진행하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br/> <br/>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장암 시기별 생존율이다. 보통 대장암 1~2기는 초기 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90%의 생존율을 보인다.<br/> <br/>반면 대장암 3~4기처럼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은 60%이하로 급격히 하락된다. 특히 대장암 4기는 대장을 포함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여서 생존율이 5%정도로 더 떨어진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은 결국 초기 치료 싸움이 핵심</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초기 발견이 늦어져 3~4기로 진행된 암이라면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치료법을 고심해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br/>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항암치료와 더불어 한방치료를 선택해 전이와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한다.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면역력이 기본이 돼야 효과적인 암 치료와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br/> <br/>특히 단순히 면역력만을 강조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요법을 함께 병행 적용하면 대장암에 더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의 한의학적요법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단순 면역력치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br/>이중병행암관리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다양한 성분들이 대장암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 특히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전이와 성장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br/> <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단순 암면역치료로 암세포 사멸을 기대하긴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관리를 통해 면역력 증진, 암세포 사멸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까지도 높이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348.txt

제목: [D-18 오늘의 대선 현장] 문재인 측 “문건 공개 송민순, 허위사실 공표…형사고발할 것”  
날짜: 20170421  
기자: 정리|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1094445001  
ID: 01100101.2017042109444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경향신문은 9일부터 5월9일 대선까지 매일 ‘오늘의 대선 현장’ 라이브 업데이트를 전합니다. 매일 아침 경향신문과 주요 언론의 보도, 각 후보와 정당의 활동, 시민사회 움직임 등 대선 관련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표기 시간은 발생·출고 시간이 아니라 경향닷컴 게재 시간입니다.) <br/><br/>■문재인 지지 체육인 모임서 단톡방에 “文 지지 서명 요청” 선거법 위반 논란(22시02분)<br/><br/>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모임 일부 회원들이 자신들이 참여 중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 후보 지지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받도록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모씨 등은 체육계 인사 20여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명을 받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 100명이 한 사람당 20명씩 받으면 2000명이 된다며 할당량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 문 후보 측은 해당 모임의 해산과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4월13일에 더불어포럼 자체는 해산했는데, 그 안에 일부 지지자들이 지지 서명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당장 중단하고 해산하라’고 요청했다</span>”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선관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엄중한 조사를 촉구키로 했다</span>”고 했다. <br/><br/>▶문재인 지지 체육인 모임서 단톡방에 “文 지지 서명 요청” 선거법 위반 논란 <br/><br/><br/>■문재인 측 “문건 공개 송민순, 허위사실 공표…형사고발할 것” (18시02분)<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민주당은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br/><br/>박 단장은 “<span class='quot1'>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또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span>”라고 말했다.<br/><br/>文측 “문건 공개 송민순, 허위사실 공표…형사고발할 것” <br/><br/><br/>■심상정 “치열한 과정 통해 정의당 더 단단해질 것” (17시45분)<br/><br/>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58)는 21일 지난 19일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해 일부 당원이 탈당하고 문 후보 지지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 “비판받는 입장에서 ‘우리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든 저는 심상정의 철학과 소신, 정의당의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br/><br/>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생태환경 정책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의 가치와 노선, 정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또 다른 후보들과 정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토론에 임하는 것이다. 치열한 과정을 통해 정의당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심상정, “치열한 과정 통해 정의당 더 단단해질 것” <br/><br/><br/>■홍준표 “바른정당 돌아오라…‘거짓말’ 문재인 절대 대통령 안돼”(17시40분)<br/><br/>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1일 “바른정당 분들에게 호소한다. 이 땅에 보수우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제는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span class='quot2'>탄핵 때문에 갈라졌지만 이제 탄핵은 끝났다</span>”며 이같이 촉구했다.<br/><br/>홍준표 “바른정당 돌아오라…‘거짓말’ 文 절대 대통령 안돼” <br/><br/><br/>■문재인 측 “2차 TV광고는 세월호 기억식 문재인의 모습 담아”(17시35분)<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1일 세월호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문 후보의 모습을 담은 2차 TV광고의 콘셉트를 공개했다.문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3'>지난 16일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에 참석한 문 후보의 모습만을 담아낸 영상을 TV광고로 제작, 오늘 저녁에 방영한다</span>”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다큐멘터리 작가 박종우씨가 기억식에 참석한 문 후보를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된다.<br/><br/>▶文측 “2차 TV광고는 세월호 기억식 文모습 담아” <br/><br/><br/>■“역전의 명수! 강철수”…안철수 TV광고도 이제석 작품(17시05분)<br/><br/>이번 주말 첫 방송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TV 광고 역시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의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남 선대위 홍보부본부장은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안 후보의 첫 TV 광고를 시연한 뒤 “이 대표가 디렉팅했다. 전체적 방향을 결정하고 콘셉트를 정했다.”고 말했다.<br/><br/>이날 처음으로 시연된 TV 광고는 안 후보의 TV 광고 시리즈 5편 가운데 1편으로 ‘모션 타이포’라는 광고 기법을 사용했다. 큼지막한 텍스트만 빠르게 나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역전의 명수! 강철수’, 한국의 스티브 잡스‘, ’드라마가 있는 후보‘ 등의 문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말미에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을 외치는 안 후보의 육성이 들린다.<br/><br/>▶“역전의 명수! 강철수”…안철수 TV광고도 이제석 작품 <br/><br/><br/>■한국당 “홍준표 공약에 90조원 소요…증세없이 재원 마련”(16시37분)<br/><br/> 자유한국당은 21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에 모두 90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현재 정책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떠안기는 증세 없이 최대한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예산 증가율(약 3.5%)에 따른 예산 증가분의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35조 원을, 세입 확충으로 15조 원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 재원은 자체 여유 자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br/><br/>▶한국당 “홍준표 공약에 90조원 소요…증세없이 재원 마련” <br/><br/><br/>■아파트 우편함서 문재인 비방유인물 발견…경찰 수사(16시32분)<br/><br/>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와 관련한 불법 인쇄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창원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 선반과 회수함에서 ‘문재인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이 적힌 불법 인쇄물 3장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사본인 인쇄물에는 문 후보가 ‘옛 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이석기 등 친북 종북좌파들을 국회에 들어오게 했다’는 등 손으로 작성한 6∼7가지내용이 담겼다.<br/><br/>▶아파트 우편함서 문재인 비방유인물 발견…경찰 수사 <br/><br/><br/>■ 안철수 측, ‘송민순 메모’ 논란에 “문재인, 또 거짓말 했다”(15시57분)<br/><br/>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참여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확인했다는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후보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결재’에 대한 자신의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송 전 장관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 메모지까지 공개하며 발끈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적폐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등 문 후보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문 후보가 더 이상 대선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br/><br/>▶안철수 측, ‘송민순 메모’ 논란에 “문재인, 또 거짓말 했다” <br/><br/><br/>■ 심상정 “이명박·박근혜 ‘4대강’ 공범…청문회·국조하겠다” (15시 30분)<br/><br/>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열고, 4대강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 세금 22조 원을 수장시켰고, 결국 죽음의 강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를 침묵했고, 4대강 죽음을 방치했다”며 “정부 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예산을 사유화한 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br/><br/>▶심상정 "이명박·박근혜 '4대강' 공범…청문회·국조하겠다" <br/><br/><br/>■ 문재인 “임기 내 男·女 동수내각 실현하겠다” (14시55분)<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1일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br/><br/>문 후보는 이날 여성신문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 연대기구’ 주최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그는 “칠레와 페루 등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도 남녀 동수내각을 실천하는 나라가 많다. 몇몇 나라는 심지어 국방장관이 여성”이라며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내각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 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뛰어넘어 법무부까지 대폭 넓혀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면서 “실천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br/><br/>▶文 "임기 내 男女 동수내각 실현…유리천장 타파" <br/><br/><br/>■유승민 “홍준표, 정상적 사고 아냐···단일화 있을 수 없는 일”(14시30분)<br/><br/>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중 ‘성범죄 모의’ 일화에 대해 “(홍 후보 심리는) 범죄심리학자들이 연구할 주제다. 도저히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본인 손으로 자서전에 <돼지흥분제 이야기>라고 소제목까지 달아서 성폭력 모의한 것을 직접 자서전에 썼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br/><br/>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홍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와 연대하고 단일화한다는 것은 제가 정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br/><br/>▶유승민 "홍준표, 정상적 사고 아냐···단일화 있을 수 없는 일" <br/><br/><br/>■안철수 “적과 주적은 같은 개념” “대북인권결의 당연히 찬성” (13시30분)<br/><br/>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주적개념 논란과 관련해 “<span class='quot9'>현재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span>”며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br/><br/>안 후보는 “<span class='quot9'>북한은 우리의 적인 동시에 평화 통일의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9'>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br/>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br/><br/>▶안철수 "적과 주적은 같은 개념…대북인권결의 당연히 찬성" <br/><br/><br/>■문재인측, 송민순 문건공개에 “기권결정후 北에 입장통보했을 뿐”(11시10분)<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한데 대해 “<span class='quot5'>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span>”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br/><br/>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0'>송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했는지 여부</span>”라며 “<span class='quot10'>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文측, 송민순 문건공개에 "기권결정후 北에 입장통보했을 뿐" <br/><br/><br/>■홍준표, 성범죄 모의 논란에 “들은 얘기···관여 안 했다” 사퇴요구 봇물(10시50분)<br/><br/>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1일 대학생 시절 친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는 논란에 대해 “들은 얘기”라며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대선후보와 무역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11'>10년 전에 책이 처음 나왔을 대, 기자들한테 다 해명을 했고 문제가 안 됐던 내용</span>”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br/><br/>홍 후보는 지난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대학 1학년이던 1972년 성범죄에 이용할 약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을 적었다. 이에 하숙집 동료들과 함께 돼지흥분제를 구해줬다고 밝힌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br/><br/>홍 후보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11'>홍릉에서 하숙할 때인데 그 사람들(S대 상대에 다니던 하숙집 동료들) 하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span>”고 해명했다. <br/><br/>▶홍준표, 성범죄 모의 논란에 "들은 얘기···관여 안 했다" 사퇴요구 봇물 <br/><br/><br/>■문재인 “학생연구원 고용계약 의무화…기초연구비 2배로 확대” (10시30분)<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1일 “<span class='quot8'>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span>”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과학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span class='quot3'>청년과 여성,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span>”며 학생연구원 고용계약 의무화 외에도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 지원 등도 약속했다. 또 일·가정 양립, 일·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을 만들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br/><br/>▶文 "학생연구원 고용계약 의무화…기초연구비 2배로 확대" <br/><br/><br/>■송민순, 2007년 인권결의‘北의견 사전문의’ 문건 공개 (10시10분)<br/><br/>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br/><br/>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문건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송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span class='quot12'>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span>”라고 쓴 자필 메모도 공개했다.<br/><br/>송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3'>(문 후보 측이) 진실성이 의심이 가는 이야기를 하니 할 수 없이 (기록을) 공개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3'>(회고록 내용을) 엉터리로 몰고 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놓았다</span>”고 말했다.<br/><br/>▶송민순, 2007년 인권결의 '北의견 사전문의' 문건 공개 <br/><br/><br/>■홍준표 “종북세력,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가 암적 적폐세력이자 공적” (09시30분)<br/><br/>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1일 “<span class='quot11'>진보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정책에서도 나라가 거덜 난다</span>”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종북세력,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를 “<span class='quot11'>이 나라의 가장 암적인 적폐세력이자 대한민국의 공적</span>”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br/><br/>홍 후보는 “<span class='quot11'>기업을 범죄시하고, 기업 하는 사람을 전부 도둑놈 취급하고, 남의 것을 뺏고 증세를 해서 로빈 후드처럼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나</span>”며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span class='quot11'>기업 기 살리기를 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1'>규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모두 풀고, 귀족노조를 타파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홍준표 "진보좌파로 정권 넘어가면 나라 거덜난다" <br/><br/><br/>※경향신문 모바일팀은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매일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취합해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의 대선 보도도 함께 전합니다. <br/><br/>[D-18 대선 브리핑]오늘 후보들은 어디에? <br/><br/><정리|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49.txt

제목: 흥국생명, 20~30% 싸게 24시간 가입·서비스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0202012002  
ID: 01100101.20170420202012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대표이사 조병익)은 지난해 2월 온라인보험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온라인보험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br/><br/>흥국생명 온라인보험은 PC와 모바일(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보험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가입설계와 청약이 가능해 이용이 편리하다. <br/><br/>대표 상품인 ‘흥국생명 온라인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은 기존 대면채널 어린이보험의 장점을 이어받아 주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각종 질병, 재해, 암 진단, 수술, 입원 등 보장 범위가 다양하다.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20~30% 저렴하게 설계돼 많은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함께 원하는 소비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r/><br/>100세 만기로 가입할 수 있고 중대질병 중심으로 보장하는 기본형과 종합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br/><br/>간·폐암 등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6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흥국생명 온라인암보험’, 비흡연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 사망보험금을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하는 ‘흥국생명 온라인 정기보험’, 고객의 가입 니즈가 높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말기 간질환·말기 폐 질환·말기 신장질환 5대 질병을 보장하는 ‘흥국생명 온라인5대질병보험’, 연금저축·저축보험 등 총 6종의 온라인 전용 상품을 판매 중이다.

언론사: 경향신문-2-350.txt

제목: 동양생명, 사망보험금 2.2배까지 3단계 체증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0202012001  
ID: 01100101.20170420202012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동양생명(대표이사 구한서)이 2.9%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br/><br/>이 상품은 기본 보장 중심의 1형(기본형)과 사망보험금이 5년(10년, 15년) 경과시점 이후 매년 체증하는 2형(트리플체증형)으로 구성됐다. <br/><br/>‘트리플체증형’은 3단계 체증형으로 경과시점 이후 10년간 2%, 10년간 4%, 10년간 6% 총 30년간 매년 보험금 체증으로 최대 2.2배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br/><br/>이 상품은 사망뿐 아니라 입원, 수술, 암진단, LTC 등을 주보험과 특약을 통해 다양하게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설계옵션’ 및 ‘플러스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산현황에 따라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가능해 자산관리에도 용이한 상품이다. <br/><br/>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자는 가입 금액에 따라 1.5~5%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 61회 이상 납입 시 납입회차별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 적립 가능한 장기납입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br/><br/>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서비스센터(1577-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351.txt

제목: 삼성화재, 급성 뇌경색·10대 암 진단비 신설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0202011002  
ID: 01100101.2017042020201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최근 3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신상품 ‘태평삼대’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br/><br/>태평삼대는 한국인 사망원인 1, 2, 3위인 암·뇌·심혈관 질병에 대해 진단·치료·장애·사망까지 단계별 위험을 보장한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으로 그동안 고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급성 뇌경색 진단비’를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기존 ‘뇌출혈 진단비’ 담보와 함께 가입 시 뇌질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두번째 진단 시 2차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재발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단 첫번째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br/><br/>또 기존 식도암·췌장암·뇌암·뼈암·백혈병의 5대 고액암에 간암·폐암·담낭암·담도암·기관암을 추가한 10대 주요암 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주요암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10대 주요암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해 치료비용 부담도 덜어준다.<br/><br/>3대 질병으로 인해 뇌병변, 심장·언어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5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다.<br/><br/>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언론사: 경향신문-2-352.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률 63.4%···중증질환은 79.9%  
날짜: 20170420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20162732001  
ID: 01100101.201704201627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5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율은 63.4%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비해 0.2% 포인트 오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78%)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br/><br/>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급여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br/><br/><br/><br/>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인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2015년 16.5%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법정본인부담율은 19.7%에서 20.1%로 올라갔다. <br/><br/>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률도 14.7%에서 1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등 개선폭이 컸다. 중증질환의 경우 개인부담을 진료비의 5~10%로 고정시켜 놓은 덕분이다.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이 10~20%로 더 높다. <br/><br/>1인당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에서 77.9%로,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5.6%에서 76.6%로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br/><br/>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r/><br/>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4년 연속 하락했다가 2014년 63%대를 회복했다. <br/><br/>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br/><br/>2015년 조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요양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한의원, 약국 등 총 182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53.txt

제목: '아베 천하' 일본, 늘어나는 정치인 막말들  
날짜: 20170419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9134919001  
ID: 01100101.20170419134919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장관이나 집권 자민당 간부의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1강’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집권 세력의 독선과 그릇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1강’ 체제가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판 옵티콘’과 닮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br/><br/>■아베 정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br/><br/>1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루야 게지(古屋圭司)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span class='quot0'>시민에 대한 사기행위와 똑같은 오키나와 특유의 전술</span>”이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방 중상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민진당 등 야당에선 “독선적인 정권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도 “오키나와 현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br/><br/>아베 정권 주요 인사들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담당상은 지난 16일 시가현 오쓰시에서 열린 지방 활성화 세미나에서 “가장 큰 암은 학예사”라며 “<span class='quot1'>이 패거리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소용없다</span>”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학예사의 활동이 부진하다면서 막말을 한 것이다. <br/><br/>지난 4일에는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스스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의 귀향 여부에 대해 “그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책임은 없냐는 질문에 “재판이든 뭐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다. 이마무라는 기자가 끈질기게 국가 책임을 묻자 “당신, 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시끄럽다”면서 핏대를 올렸다. <br/><br/>아베의 최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지난달 13일 오사카시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모리토모 학원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가 다음날 “기억이 잘못됐다”며 말을 뒤집었다. <br/><br/>지난달 8일에는 차관급인 무타이 ��스케(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이 자신 덕분에 “장화업계가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 끝에 사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지역을 시찰할 때 장화를 준비하지 않아 수행원의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너 비난을 받은 바 있다. <br/><br/>■아베 ‘1강 체제’ 공고화...“판 옵티콘의 감옥과 닮아” <br/><br/>아베 정권의 ‘막말 퍼레이드’는 ‘아베 1강’에 취해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span class='quot2'>아베 1강으로 불리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정권의 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실제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현재 5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제1 야당인 민진당 지지율은 7% 정도다. <br/><br/>‘아베 1강’ 체제는 정치·경제 등 곳곳에서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br/><br/>아사히신문은 아베가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던 자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질문을 막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의원들이 스스로를 속박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가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반격이 돌아온다. 민진당의 후쿠시마 노부오(福島伸享)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는 ‘몸 조심하라’는 의미로 보이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가 보내지기도 했다. 아사히는 “<span class='quot3'>권력에 의해 종속돼 알아서 기는 ‘1강’의 정치 상황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판 옵티콘’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과 닮았다 </span>”고 지적했다.<br/><br/>■금융정책도 아베 뜻대로? <br/><br/>일본 정부는 18일 금융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인사안을 중·참 양원에 제출했다. 이 인사안이 통과하면 정책위는 아베 정권하에서 임명된 인물들로 모두 채워진다. <br/><br/>이번에 교체되는 위원 2명은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이들이다. 반면 신임 위원들은 금융완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정책위의 견제 기능이 약화돼 ‘거수기’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호세이(法政)대의 마카베 아키오(眞壁昭夫) 교수(응용경제)는 도쿄신문에 “<span class='quot4'>여전히 정부의 생각에 찬동하는 사람들밖에 선택하지 않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4'>정책 상황을 체크해나가면서 때로는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위원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br/><br/><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54.txt

제목: [인터뷰] BNI코리아 존 윤 대표 “공정한 협업 시스템으로 소기업의 비즈니스 성장 발판 만든다”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8143600001  
ID: 01100101.20170418143600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당신이 몹쓸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도쿄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하며 수 억대의 연봉을 받던 존 윤 변호사도 그랬다.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지만 오진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섰다.<br/><br/>그는 자기계발과 코칭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로펌에서 교육담당자로서 코칭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미국의 한 코치가 소개해준 BNI를 찾았다. BNI는 변호사, 회계사부터 소기업 대표까지 수십 개 분야의 사업가들이 서로가 사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협업 단체다. 이 단체의 운영철학은 기버스 게인(Givers Gain)이다. 주는 자가 얻는다는 의미다. 윤 변호사는 "<span class='quot0'>종교단체에나 있을 법한 이상적인 얘기가 현실에서 그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는 데 놀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기버스 게인 정신과 협업 플랫폼이야말로 한국에 적용하고 싶었다</span>"고 회상했다.<br/><br/>2012년 BNI 한국 사업권을 인수한 윤대표는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협업 공동체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그 이듬해 4월에 25명의 사업가로 구성된 BNI팀(이하 챕터)이 한국에 만들어졌다. 2017년 4월 현재는 20개 챕터에 속한 720명의 사업가가 협업을 하고 있다.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조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내 소기업이라도 BNI 플랫폼만 잘 활용하면 이탈리아 소도시의 공방과 협업해서 중국 바이어에게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다.<br/><br/>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BNI 내 챕터에는 훈훈하고 특별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다. 존 윤 대표는 “BNI에 꽃 사업을 하는 멤버가 계셨는데, 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됐고 같은 챕터에 있던 50명의 멤버들이 그분 사업의 마케팅과 영업을 모두 맡아 담당해줬다”고 말했다.<br/><br/>BNI는 비즈니스뿐 아니라 사회 공헌 부문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 아동 복지 협회와 함께 보육원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더 저니(The Journey)’ 프로그램이 그것. ‘더 저니’ 프로그램은 보육원 청소년들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북클럽,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장기 계획을 갖고 훈련을 진행해 사업가로 키워 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br/><br/>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보육원 청소년들의 자립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사장이 된 아이들이 후배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 사회적 의미의 비즈니스 협업을 이어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r/><br/>이를 위해 100개가 넘는 BNI 멤버 직종 중 청소년들이 관심을 두는 유망 직종을 선정해 해당 대표들의 직장에서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의 인턴십을 연결해주고 있다. BNI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30여 명의 청소년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355.txt

제목: [2017 시민의 선택]심, 구로서 출정 “노동 대통령”  
날짜: 20170417  
기자: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7224145002  
ID: 01100101.20170417224145002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ㆍ첫 방문지는 심야 근무 현장<br/><br/><br/><br/>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58)는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출정식을 했다. ‘노동자 심상정’에서 ‘대선후보 심상정’까지 인생 역정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노동 대통령’을 선포한 것이다.<br/><br/>심 후보는 “<span class='quot0'>구로공단 노동자로 취업해 25년간 노동운동 하고, 지금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br/><br/>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던 심 후보는 출정식에서 “과거를 회상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50, 60년 전보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은 변한 게 없다”며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고 했다. <br/><br/>심 후보는 “<span class='quot0'>심상정이 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정부는 부담없이 촛불을 배신할 것</span>”이라며 진보층 공략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신이 겨루는 ‘야 3당 대결’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개혁 방향을 잃고 광화문광장을 떠났고, 문 후보는 개혁의지 없이 대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br/><br/>한국노총 간담회에선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총 대선후보 정책질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토론회에선 담뱃세 추가 세수를 암 100% 무상치료,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등에 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앞서 이날 0시 지축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해 심야근무 노동자를 격려했다.<br/><br/><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56.txt

제목: “딸아, 이별이 오기 전에 봄꽃 보러 가자”  
날짜: 20170417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7200639001  
ID: 01100101.201704172006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EBS1 ‘메디컬 다큐-7요일’<br/><br/>EBS 1TV <메디컬 다큐-7요일>은 이별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 일년에 서너번 외딴 섬을 찾는 병원선(病院船) 등의 주변 풍경을 전한다.<br/><br/>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엔 올해 63세의 김유애씨가 삶과 죽음의 마지막 교차로를 건너기 위해 머물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이미 뼛속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10년 전 수술했던 간암이 재발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뿐인 딸과 봄꽃을 보러 가는 것이다. 혼자 남을 딸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지막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상의 하루가 어떤 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루가 된다.<br/><br/>전남 신안 앞바다의 작은 섬 소약도엔 7가구만 산다. 작은 섬이다보니 병원은 물론 약국, 보건소도 없다. 주민들은 일년에 서너 번 병원선이 찾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건강 점검도 하고 평소에 필요한 약들도 챙길 수 있어서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김없이 올해도 소약도를 찾은 병원선과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방송은 18일 오후 11시35분.<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57.txt

제목: 난치성 폐암과 췌장암...‘이중병행암관리’로 장기 생존율 높인다  
날짜: 2017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4171534001  
ID: 01100101.201704141715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원로배우 김지영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9일 배우 김영애 씨가 췌장암으로 별세해 다시 한번 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r/><br/>폐암과 췌장암은 국내에서도 암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자의 22.6%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며 췌장암 생존율은 불과 10% 내외로 치료가 가장 까다롭고 힘든 암으로 유명하다.<br/><br/>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초기 증상이 미미해 대부분의 환자가 3~4기 이상 암이 진행됐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암과 췌장암 3~4기 판정을 받았다면 완치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생존율을 높이는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췌장암의 경우 복부 깊숙한 장기 쪽에 위치해 수술이 까다로운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폐암 역시 3기 이상 판정을 받았다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전체 25%에 불과하다</span>"고 말했다. <br/><br/>이처럼 폐암과 췌장암은 치료가 어려운 편이라 되도록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이며,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br/><br/>한편 폐암과 췌장암은 대부분 수술이 힘들어 항암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암환자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암세포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 치료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br/><br/>또한 체내 면역력이 약해진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의 독한 항암제로 인해 부작용 및 치료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는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발암의 경우 항암제 내성으로 인한 치료제 사용이 제한되어 치료가 어렵고, 그만큼 생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br/><br/>이와 관련해 강남푸른숲한의원은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중병행암관리법'을 제시한다.<br/><br/>현대의학과 함께 한방의학의 기본이 되는 면역체계의 재정비를 바탕으로 암을 치료하는 이중병행암관리법은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암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통합의학적 암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이중병행암관리에 사용되는 옻나무추출물II(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다. 병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시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며,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경향신문-2-358.txt

제목: 비만보다 흡연이 건강에 더 나빠  
날짜: 20170410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0220810001  
ID: 01100101.2017041022081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ㆍ백혈구 수치 더 증가시켜…다이어트보다 금연이 먼저<br/><br/>‘흡연’과 ‘비만’ 중 더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둘 중 하나를 해결하려면 다이어트보다 금연을 먼저 해야 한다. <br/><br/>연세대 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조아라·이용제 교수팀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성인 41만6065명(남 10만5505명, 여 30만956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비만이 몸속 백혈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pan class='quot0'>비만한 흡연자는 정상체중의 비흡연자보다 염증이 생길 위험도가 2.4배 높았다</span>”고 밝혔다. <br/><br/>백혈구 수치는 가장 흔한 염증지표 중 하나다. 염증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따라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염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염증이 장기간에 걸쳐 장기와 혈관에 쌓이면 암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흡연과 비만을 따로 보면 흡연이 비만보다 더 백혈구 수치를 높였다. 정상체중이면서 현재 흡연하는 경우 백혈구 수가 증가할 위험도는 남성 2.07배, 여성 2.11배였다. 반면 비흡연자가 비만한 경우 백혈구 수가 증가할 위험도는 남성 1.09배, 여성 1.16배였다.<br/><br/>연구팀은 흡연이 백혈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생활습관이자 대사요인인 만큼 무엇보다 금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59.txt

제목: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기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날짜: 20170410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10172156001  
ID: 01100101.20170410172156001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대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통정리 일대는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각각 9∼17km 정도 떨어져 있다.<br/><br/>당진시는 지난 2월 석문면 통정리 석문면사무소와 주택단지에서 3일간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영향평가 용역을 한 결과 크롬(Cr+6)·비소(As)가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크롬(Cr+6)·비소(As)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 발병시킬 수 있다.<br/><br/>크롬의 경우 석문면사무소에서 생애주기 10만명당 2.16명이, 주택단지에서는 10만명당 2.4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유해농도로 각각 측정됐다. 위해도의 발암 위해성은 100만명당 1명이다.비소는 면사무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주택단지에서 100만명 당 1명인 기준치를 초과한 1.29명이 걸릴 수 있는 유해농도로 확인됐다.<br/><br/>이번 검사는 당진시가 석문면 통정리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다.<br/><br/>당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측정 결과는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치</span>”라며 “<span class='quot0'>대기환경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0.txt

제목: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연기투혼  
날짜: 20170409  
기자: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9211313002  
ID: 01100101.20170409211313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ㆍ46년 연기 마침표 찍은 김영애<br/><br/><br/><br/>어머니, 대왕대비, 청소노동자, 회장님…. 배우 김영애씨가 46년 연기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세상과 작별했다. 향년 66세.<br/><br/>김씨의 소속사 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9일 오전 10시58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췌장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201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친 고인의 열정을 기리는 동료 배우들과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br/>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씨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드라마 <행복을 팝니다>(1978), <포옹>(1981), <당신의 초상>(1983), <엄마의 방>(1985) 등으로 연기력을 다져나간 김씨는 <빙점>(1990), <가을 여자>(1992), <모래시계>(1995) 등에 출연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장희빈>(2002), <황진이>(2006) 등 사극에서도 열연한 그는 <로열 패밀리>(2011), <해를 품은 달>(2012), <킬미, 힐미>(2015),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2016)까지 꾸준하게 안방극장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br/><br/>그는 특히 극중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 속 태수(최민수)의 어머니, 영화 <변호인>(2013) 속 진우(임시완)의 어머니가 대표적이다. ‘엄마 생각’ 하면 떠오르는 노래인 왁스의 ‘엄마의 일기’(2000)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엄마도 김씨였고, 사고뭉치 딸과 암에 걸린 억척스러운 엄마와의 사랑과 화해를 그린 영화 <애자>(2009)의 엄마도 김씨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도 그는 자식과 남편 걱정에 애달픈 엄마 연기를 선보였다.<br/><br/>영화 <카트>(2014)에선 20년간 청소원으로 살아온 순례 여사 역을 맡아 비정규직의 현실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그는 사극의 대왕대비 역할(드라마 <해를 품은 달>)부터 기업의 오너(드라마 <로열 패밀리>)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배역도 자주 맡았다.<br/><br/>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2000),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2000), 대종상 여우조연상(2009),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2014),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2015) 등을 수상했다. 김씨는 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고 황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가로 변신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중금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토원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사업에서 손을 뗐다.<br/><br/>그는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촬영하던 중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 진통제로 통증을 버티면서 끝까지 드라마 촬영 현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br/><br/>동료 배우들과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와 함께했던 영화 <카트> 사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우셨던, 명배우 김영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영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차인표씨는 연합뉴스에 “<span class='quot0'>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신 김영애 선생님 같으신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김씨와 사돈지간인 가수 조PD는 트위터에 “너무 고된 생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 순수한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가장 아름다우셨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했다.<br/><br/>유족으로는 아들 이민우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1일.<br/><br/><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1.txt

제목: 배우 김영애씨 췌장암 투병 중 9일 별세  
날짜: 20170409  
기자: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9133721001  
ID: 01100101.20170409133721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어머니, 대왕대비, 청소노동자, 회장님…. 배우 김영애씨가 46년 연기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세상과 작별했다. 향년 66세.<br/><br/>소속사 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전 10시58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 최근 병세가 악화해 췌장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다. 201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와중에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한 고인의 열정을 기리며 동료 배우들과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br/><br/>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씨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드라마 <행복을 팝니다>(1978), <포옹>(1981), <당신의 초상>(1983), <엄마의 방>(1985) 등으로 연기력을 다져나간 김씨는 <빙점>(1990), <가을여자>(1992), <모래시계>(1995)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다. <장희빈>(2002), <황진이>(2006) 등 사극에서도 열연한 그는 <로열 패밀리>(2011), <해를 품은 달>(2012), <킬미, 힐미>(2015),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2016)까지 꾸준히 안방극장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br/><br/><br/><br/>그는 특히 극중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SBS) 속 태수(최민수)의 어머니, 영화 <변호인> 속 진우(임시완)의 어머니였다. ‘엄마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수 왁스의 노래 ‘엄마의 일기’(2000)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엄마도 김씨였고, 사고뭉치 딸과 암에 걸린 억척스런 엄마와의 사랑과 화해를 그린 영화 <애자>(2009)의 엄마도 김씨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도 그는 자식과 남편 걱정에 애닳는 엄마 연기를 선보였다.<br/><br/>영화 <카트>(2014)에선 20년간 청소원으로 살아온 순례여사 역을 맡아 비정규직의 현실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그는 사극의 대왕대비 역할(드라마 <해를 품은 달>)부터 기업의 오너(드라마 <로열 패밀리>)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배역도 자주 맡았다.<br/><br/><br/><br/>백상예술대상 신인상(1974), 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2000),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2000), 대종상 여우조연상(2009),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2014),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2015) 등을 수상했다. <br/><br/>김씨는 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고 황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가로 변신하기도 했다.<br/><br/>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MBC)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암에 굴복하지 않고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촬영하면서 췌장암 재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동료 배우들과 팬들은 김씨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명필름 대표 심재명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와 함께 했던 영화 <카트> 사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우셨던, 명배우 김영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영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차인표씨는 연합뉴스에 “<span class='quot0'>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신 김영애 선생님 같으신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과 김영애의 아들이 부부 사이인 조PD는 트위터에 “너무 고된 생이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 순수한 열정 잊지 않겠다. 사돈 어르신 가장 아름다우셨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br/><br/>고인의 빈소는 현재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11일.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다.<br/><br/><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2.txt

제목: ‘공사하랬더니···’ 값비싼 말굽버섯 훔쳐가  
날짜: 20170409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9093541001  
ID: 01100101.2017040909354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고가의 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하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br/><br/>하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낚시터에 공사를 하러 갔다가 하러 낚시터 주인 최모씨(72·여)가 암 치료를 위해 공터 버드나무에 재배하는 5㎏짜리 말굽버섯(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은 낚시터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하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3.txt

제목: [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안전 확인 소홀한 기업엔 강력한 처벌  
날짜: 20170407  
기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7234510001  
ID: 01100101.20170407234510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아직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비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기업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생산해야 할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주다 보니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기업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확인을 게을리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을 제품에 함부로 사용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 정보가 있는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해야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적극 등록하게 될 것이다.<br/><br/>마지막으로 날로 늘고 있는 암과 생식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허가제도를 통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답이다. 이 모든 일은 창조경제 같은 농단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가능하다. 기업 봐주기 말고 국민 안전 챙기기에 전념하는 정부의 탄생을 기대한다.<br/><br/><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언론사: 경향신문-2-364.txt

제목: “말기 암 45일 완치”…무면허 의료행위 한 부부 긴급체포  
날짜: 20170407  
기자: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7165221001  
ID: 01100101.20170407165221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면허도 없이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대구 모 자연치유원 원장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br/><br/>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자연치유원 원장 ㄱ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ㄱ씨 부부는 생식처방, 소금물 관장 등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5세 아동이 숨지기도 했다.<br/><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말기 암 등 불치병을 앓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45일이면 완치할 수 있다’며 의료시설 간판이나 블로그 등에 홍보했다. ㄱ씨 부부는 환자를 합숙시키면서 소금물 관장, 단식, 풍욕 등을 진행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ㄱ씨 부부는 이 치료원에서 말기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되레 악화된 환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환자 가족은 무리한 치료 때문에 환자가 입소 후 이틀 만에 쓰러졌고 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언어 구사능력까지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ㄱ씨 부부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5.txt

제목: 골퍼라면 누구라도 흥분할…‘그린 재킷’ 쟁탈전  
날짜: 20170404  
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4214906002  
ID: 01100101.20170404214906002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ㆍ마스터스 토너먼트 6일 개막<br/><br/>가장 어렵고 극적인 승부가 펼쳐지는 11~13번홀의 ‘아멘 코너’, 그 홀 사이를 휘감아 도는 작은 개천 ‘래의 크리크’, 그리고 주변에 만발한 선홍색 진달래….<br/><br/>골퍼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만이라도 꼭 서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명인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개막한다. 1934년 시작돼 2차 세계대전 때 열리지 못한 3년을 제외하고 81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94명의 세계 톱랭커가 초청장을 받았다.<br/><br/>디펜딩 챔피언 대니 윌렛(잉글랜드)을 비롯해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미국),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로리 매킬로이(2위·북아일랜드), 어머니의 암수술을 딛고 출전을 결심한 제이슨 데이(3위·호주)가 출격한다. 지난해 12번홀 악몽으로 무너진 2015년 챔피언 조던 스피스(미국), 아시아인 최초의 우승을 꿈꾸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도 챔피언의 상징 ‘그린 재킷’을 노린다. 안병훈(26), 왕정훈(23), 김시우(22) 등 한국선수 3명도 선전을 다짐한다.<br/><br/>해마다 4월 첫째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선수뿐 아니라 골프팬에게도 꼭 한번 직접 찾아가 관전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꿈의 대회다. 대회 창설 이후 오직 한 곳에서만 개최돼온 마스터스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전통과 이야깃거리를 자랑한다. 각 홀과 코스 곳곳에 붙여진 애칭, 그에 얽힌 스토리도 매년 마스터스가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다.<br/><br/>챔피언이 입는 그린 재킷은 마스터스의 상징이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회원들만 입는 그린 재킷을 챔피언에게 입혀주는 세리머니는 샘 스니드(미국)가 우승한 1949년 시작됐다. 전년도 챔피언이 새 챔피언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는 게 전통이다. 하지만 1966년 대회 2연패에 성공한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최초로 혼자 재킷을 입은 주인공이 됐다. 이후 닉 팔도(잉글랜드), 타이거 우즈(미국)가 2연패에 성공했다.<br/><br/>개막 하루 전 열리는 파3 콘테스트는 마스터스에서만 펼쳐지는 선수와 가족들의 잔치다. 1960년부터 열린 파3 콘테스트에는 선수의 부인과 애인, 자녀와 조카 등을 캐디로 지정해 함께 나서 풍성한 볼거리와 화제를 낳았다. 1958년 만든 9개의 파3홀에서 겨루는 이 경연에서 우승한 선수는 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br/><br/>전년도 우승자가 화요일 저녁에 역대 챔피언들을 초대하는 ‘챔피언스 디너’는 늘 어떤 메뉴가 등장하느냐로 관심거리가 돼왔다. 1라운드 티오프 직전 잭 니클라우스 등 골프 전설들이 나서는 전통의 시구행사는 지난해 타계한 아널드 파머를 추모하는 이벤트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6.txt

제목: 피스타치오, 영양 풍부하고 칼로리 낮아 다이어트에 '짱'  
날짜: 2017040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3235553001  
ID: 01100101.2017040323555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피스타치오협회 한국 지사는 3일, 피스타치오 홍보대사이며 미국 유명 다이어트 프로그램(The Biggest Loser) 고정 출연자이자 유명 쉐프인 체를리 포버그가 고안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br/><br/>협회 측은 “피스타치오의 별명이 스키니넛(Skinny Nut)일 정도로 견과류 중 가장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알맹이 안에 필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며 “피스타치오 1회 제공량인 29g(껍데기 제외, 약 49알)의 열량은 1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체를리 포버그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팁이다.<br/><br/>■하루 세 번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끼니를 거르는 것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연구들이 규칙적으로 건강한 저칼로리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체중감량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하루 세 번의 식사와 간식으로 하루 식단을 구성해보라. 이 식단은 혈당과 혈압 유지,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먹게 되면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포만감과 만족감을 더 길게 유지시켜 준다.<br/><br/>■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과일과 채소는 양질의 칼로리로 이루어진 저칼로리 식품들이다. 여기에는 영양소, 섬유질, 항산화 성분과 수분이 수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반면 당분과 지방은 매우 적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당신에게 포만감을 줄 것이다.<br/><br/>■고단백 식단을 구성하자=닭이나 소의 살코기로 식단을 구성하고 견과류나 씨앗을 다이어트 식단에 꼭 포함시키자. 하버드대 연구팀은 견과류가 체중 감량과 관련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견과류 중에서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단백질이 가장 높았던 피스타치오를 추천한다. 피스타치오는 미국 농무부 마이플레이트 건강식단에서 단백질 그룹으로 분류될 만큼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단백 식단은 근육을 생성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흰색 식품을 멀리하자=주방에서 흰 밀가루, 흰 면, 흰 쌀밥을 없애보자.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식물성 칼로리를 많이 먹는 것은 과체중과 신진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흰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라. 정제된 곡물과 달리 통곡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노화 예방, 심장병 예방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 귀리, 현미 등의 잡곡이 좋은 예이다.<br/><br/>■음료수 섭취를 줄이자=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통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설탕이 가득한 탄산음료, 주스, 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 술까지 당장 멈추어야 한다. 대신 마실 것을 우유나 차, 물로 대신해보자.<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7.txt

제목: [여적]기획재정부 ‘익실’  
날짜: 20170403  
기자: 오창민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3205006001  
ID: 01100101.20170403205006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공공건물이나 관공서에 개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의 ‘호암’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호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호(아산)가 들어 있다. 설립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대 경영대 ‘SK관’이나 수원시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처럼 근래에는 기업명이나 상품(아파트) 브랜드가 노골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상업성이 다분하지만 대기업 부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볼 수 있다. <br/><br/>드물지만 설립자도 기부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이 관공서를 장식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달 21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만들어졌다. 외교관 후보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제1강의실을 ‘반기문 기념 강의실’로 명명하고 강의실 입구에 반 전 총장의 사진 등을 붙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할 예비 외교관들에게 반 전 총장을 롤 모델로 삼으라는 취지이다. 지난해 광주보훈청은 호국영웅 고 성관식 소령의 이름을 따 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 ‘성관식실’ 표지를 달았다. 광주 출신인 성 소령은 6·25 때 공을 세우고 해병 항공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불의의 사고로 절명했다. <br/><br/>기획재정부에는 3일 ‘익(翊)실’이 생겼다. ‘익실’은 정부세종청사 4동 4층 국제금융정책국 회의실의 새 이름이다. 지난 2월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익주(金翊柱)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이름을 땄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이름을 딴 공간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기재부는 김 전 원장 추모식도 열었다. 행정고시 수석이면서도 늘 겸손했던 그는 기재부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가장 존경하는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br/><br/>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과에도 그는 공을 앞세우지 않기로 유명했고, 지인들에게 암 투병 사실조차 숨긴 채 모진 시간을 보내다 지난 2월1일 숨졌다. 갑작스러운 환율·금리 변동이나 외국인의 자금 유출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당국이 꺼내드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만든 주인공이 그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br/><br/><오창민 논설위원>

언론사: 경향신문-2-368.txt

제목: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 '최악 오염사고' 한국에 숨겼다  
날짜: 20170403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403140638001  
ID: 01100101.20170403140638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부에서 1000갤런 이상의 유류가 유출된 ‘최악의 오염사고’ 5건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0년~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발생 오염사고의 처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자체기준으로 ‘최악’에 해당하는 1000갤런(3780L)이상의 유류유출이 7건 일어났으며 미군은 그 중 2건만 한국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은 애초 한미 당국이 2015년 실시한 용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거부했다. 1·2심 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연거푸 이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환경부의 상고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br/><br/>녹색연합 등은 이번에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가능토록 한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활용해 용산 미군기지 오염사고 처리기록 등을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용산기지 내 ‘오염사고’ 가운데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한정해 자료를 공개했다.<br/><br/>이번에 공개된 미군 측 자료에 나타난 유류유출 사고의 규모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br/><br/>미군 측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유, 오일, 윤활유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유출이 84건 일어났다. 특히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에 따른 ‘최악유출량’(1000갤런·378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7건이었다. 주한미군은 그중 5건은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 기준으로 ‘심각한 유출량’인 110갤런(400L)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도 25건이었다.<br/><br/>미군 측 자료에 기록된 기름유출 사고 건수는 그동안 정부가 통보받은 사고 건수(5건)는 물론이고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비롯해 이제까지 언론, 국회를 통해 알려진 사고 건수(14건)보다도 6배 많다.<br/><br/>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군 측의 유류유출 내역 역시 온전한 기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 등은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그동안 2004년 대니얼 윌슨 대령이 언론에 밝힌 사고 등 그동안 알려진 6건의 사고가 누락돼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용산기지 내에서 일어난 유류유출은 최소 90건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유출된 유류가 주로 경유나 ‘항공유 JP-8’이라고 밝혔다. 과거 경유를 주로 사용했던 미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효과적인 전투지원”을 위해 시설난방과 장비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등유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 JP-8을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br/><br/>유출 사고 원인은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r/><br/>이들 단체에 따르면,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이며 용산 미군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탱크와 난방 보일러를 갖고 있다. 지하 유류저장탱크(UST)는 땅 속에 묻혀있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 나갔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유출 시점이 불명확한 사고는 전체 84건 중 5건이다.<br/><br/><br/><br/>이번에 공개된 미군 측 자료를 보면 유류유출 사고 이후 정화검증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특히 서울시 지하수모니터링 결과에서 2011년 녹사평 인근 지하수의 유류오염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기록에 “비오는 날이면 기름 냄새가 심각하다는 관리자 의견에 따라 해당시설과 연결된 맨홀, 하수도, 빗물배수로, 물길 등 지리위치정보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지 내부 오염사고로 지하수에 잔류하던 오염물질이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로 흘러나와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기지 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 오염도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용산기지 내에서 유출된 유류는 위해성이 심각한 물질로 구성돼 있다.<br/><br/>항공유JP-8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함유비율은 회발류보다는 적지만 경유보다는 높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휘발성이 강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 녹사평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것을 볼 때 지금도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1군 발암물질인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고농도 흡입 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 체계에 영향, 암 발생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언어소통 문제, 소화 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한다. <br/><br/>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는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br/><br/>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에 포함된 석유계총탄화수소인 TPH는 암 유발물질은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식물의 생물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독하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제트유(JP-8)는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r/><br/>주한미군이 최악의 유류유출 사고를 다수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환경조항’ 때문이다.<br/><br/>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고 이후 SOFA의 환경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SOFA 본협정이 아니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다. “<span class='quot0'>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span>” 정도로 기술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이 때문에 SOFA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규정, 오염사고 발생시 한국 당국에 통보할 의무 규정, 한국 당국의 조사권 보장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br/><br/>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이날 “수십 년간 스스로도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미군은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한국정부도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유류유출기록(1995-2015)은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통하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자료인데 시민단체도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기지 주변 지하수에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알고도 미군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용산 미군기지는 2004년의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20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며, 정부는 용산기지를 반환받으면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연합과 민변, 주민모임 측은 “오염된 토양을 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받는다면 정화작업과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선결과제인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조치가 완결된 이후 온전하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69.txt

제목: [취미잼잼] (15) 단호하고 침착하게 “오지마!”…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날짜: 20170331  
기자: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31205154001  
ID: 01100101.2017033120515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ㆍ셀프디펜스<br/><br/><br/>‘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불안사회에서 일상 속 막연한 두려움과 위축감을 넘어서기 위한 첫 단계이다.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여성은 더 많은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br/><br/>경향신문 취미잼잼 3월 원데이클래스는 호신술의 하나인 ‘크라브마가’ 지도자인 최하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에게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 ‘셀프디펜스’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다. ‘호신술’과 달리 말과 행동, 심지어 잘 도망가는 방법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모든 요령을 다뤘다. 수업 시작 때는 모기 소리만 하던 수강생들의 기합이 3시간 수업이 끝날 무렵엔 암호랑이처럼 우렁차게 커졌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쿨오브무브먼트’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br/><br/> <br/><br/> <br/><br/>■ 나를 지키기 위한 ‘360도’ 경계 설정 <br/><br/>팔을 뻗어 360도를 그린다. 이 경계는 내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와의 사이에 필요하다. 셀프디펜스의 시작은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침착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손을 내린 채 앞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자세인 것도 그 이유다. 최하란 대표는 “방어는 공격을 받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다. 느낌이 뭔가 좋지 않다 싶으면 본인의 직관을 믿고 미리미리 피하라”고 조언한다. <br/><br/><br/>상대방이 다가오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나만의 폴리스라인’를 설정한다. 팔을 들어 손을 바닥이 바깥으로 향하게 눈높이로 두면서 만일의 사태에 얼굴을 보호하고, 허리를 약간 수그리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저리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큰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혀야 할 수도 있다. “진정하세요!” 손과 목소리, 언어와 표정의 다양한 조합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다. <br/><br/>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성’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편도체가 ‘비상상태’로 활성화되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리에 얼어붙기도 한다. 최 대표는 “<span class='quot0'>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span>”이라고 했다.<br/><br/>상대방이 맨손이나 흉기로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인 전완부를 뻗어 공격을 막는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공격하는 ‘손’이 아니라 공격자의 ‘목 아래쪽’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래야 양손 모두 시야에 두면서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 시선이 공격자의 한 손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손을 볼 수가 없어서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br/><br/><br/>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가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때는 손바닥 아래쪽의 단단한 부분을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꼭 쥔 주먹을 날리는 장면들이 흔히 나오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주먹은 손가락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손목뼈와 맞닿은 손바닥 부분이 더 강하다. 수강생들은 특수 방어복을 입은 남성 강사를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연습을 거듭했다. “가!” “얍!” 기합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br/><br/>■ 시나리오 1: 뒤에서 덮치는 공격<br/><br/>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뒤쪽에서 공격자가 끌어안는 상황은 자칫 차량을 동원한 납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재빠르게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몸을 앞으로 90도 숙인다.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몸을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수강생들끼리 짝을 이뤄서 실험해봤다. 서 있을 때는 땅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허리를 숙이니 신기하게도 요지부동이었다.<br/><br/>이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 팔꿈치로 공격자의 머리를 가격한다. 고개를 뒤로 돌려보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친다. 머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타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팔꿈치 뼈는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나 턱이 맞으면 공격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입힐 수 있다. 팔이 풀리면 뒤를 확인하지 말고 달아난다.<br/><br/>■ 시나리오 2: 바닥에서 공격당할 때<br/><br/>바닥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견갑골, 쉽게 설명해 브래지어선 위쪽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한다. 복근운동 중 하나인 ‘크런치’ 자세와 유사하다. 이날 수업에서는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자가 머리를 발로 차려고 다가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60초 동안 이를 피하는 훈련을 짝을 이뤄 진행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복근은 단순히 ‘날씬한 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육이라는 사실. 40초쯤 지나자 움직임이 굼떠지기 시작했고, 50초쯤 지나자 눈앞이 아득해졌는데 최 대표는 격려의 말을 계속 외쳤다. “포기하지 말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br/><br/>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공격자가 갑자기 위로 덮치는 상황도 가정했다. 이때는 양팔과 한쪽 무릎을 세워 공격자의 몸통과 나 사이에 공간을 확보한다.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의 힘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로 힘껏 공격자를 타격한다. 이때 발과 다리는 되도록 상대방의 다리와 직각이 될 정도로 각을 눕힌다. 요가의 나비자세를 생각하면 된다. 타격 확률이 높아진다.<br/><br/>■달아날 때: 뒤를 보지 말고, 주위를 보라<br/><br/><br/>“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집니다. 손바닥으로 눈 옆을 가려보세요. 딱 그런 상태가 되죠. 공격자를 피해 달아나다 위험한 물체에 걸리거나 달려오는 차량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 대표가 말했다.<br/><br/>유사시 달아날 때 공격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침착하게 전면과 좌우는 확인해야 한다. 이날 수업에서는 수강생이 도주하는 지점에 샌드백 하나를 일부러 두었는데, 연습하기 전에 눈여겨봤는데도 막상 눈을 감고 있다가 큰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공격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br/><br/>■공격을 당하더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다 <br/><br/>공격자는 최소 3초 전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 일이 닥칠 때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최 대표는 말했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r/><br/>수업이 끝날 무렵, 특수복을 입은 남성 강사를 상대로 이날 배운 셀프디펜스 요령들을 실제로 응용해보았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배우지 않은 기술들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나도 잘 모르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기분이 한결 산뜻해졌다.<br/><br/><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0.txt

제목: [취미잼잼] (15) 셀프디펜스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안에"  
날짜: 20170331  
기자: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31113722001  
ID: 01100101.2017033111372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불안사회에서 일상 속 막연한 두려움과 위축감을 넘어서기 위한 첫 단계이다.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여성은 더 많은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br/><br/>경향신문 취미잼잼 3월 원데이클래스는 호신술의 하나인 ‘크라브마가’ 지도자인 최하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에게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 ‘셀프디펜스’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다. ‘호신술’과 달리 말과 행동, 심지어 잘 도망가는 방법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모든 요령을 다뤘다. 수업 시작 때는 모기 소리만 하던 수강생들의 기합이 3시간 수업이 끝날 무렵엔 암호랑이처럼 우렁차게 커졌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쿨오브무브먼트’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br/><br/> <br/><br/> <br/><br/> ■ 나를 지키기 위한 ‘360도’ 경계 설정<br/>팔을 뻗어 360도를 그린다. 이 경계는 내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와의 사이에 필요하다. 셀프디펜스의 시작은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침착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손을 내린 채 앞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자세인 것도 그 이유다. 최하란 대표는 “방어는 공격을 받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다. 느낌이 뭔가 좋지 않다 싶으면 본인의 직관을 믿고 미리미리 피하라”고 조언한다.상대방이 다가오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나만의 폴리스라인’를 설정한다. 팔을 들어 손을 바닥이 바깥으로 향하게 눈높이로 두면서 만일의 사태에 얼굴을 보호하고, 허리를 약간 수그리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저리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큰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혀야 할 수도 있다. “진정하세요!” 손과 목소리, 언어와 표정의 다양한 조합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다. <br/><br/>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성’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편도체가 ‘비상상태’로 활성화되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리에 얼어붙기도 한다. 최 대표는 “<span class='quot0'>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span>”이라고 했다.<br/><br/>상대방이 흉기로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인 전완부를 뻗어 공격을 막는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공격하는 ‘손’이 아니라 공격자의 ‘목 아래쪽’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래야 양손 모두 시야에 두면서 공격을 감지할 수 있다. 시선이 공격자의 한 손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손을 볼 수가 없어서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br/><br/>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가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때는 손바닥 아래쪽의 단단한 부분을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꼭 쥔 주먹을 날리는 장면들이 흔히 나오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주먹은 손가락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손목뼈와 맞닿은 손바닥 부분이 더 강하다. 수강생들은 특수 방어복을 입은 남성 강사를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연습을 거듭했다. “가!” “얍!” 기합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 시나리오 1: 뒤에서 덮치는 공격<br/>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뒤쪽에서 공격자가 끌어안는 상황은 자칫 차량을 동원한 납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재빠르게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몸을 앞으로 90도 숙인다.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몸을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수강생들끼리 짝을 이뤄서 실험해봤다. 서 있을 때는 땅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허리를 숙이니 신기하게도 요지부동이었다.<br/><br/>이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 팔꿈치로 공격자의 머리를 가격한다. 고개를 뒤로 돌려보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친다. 머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타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팔꿈치 뼈는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나 턱이 맞으면 공격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입힐 수 있다. 팔이 풀리면 뒤를 확인하지 말고 달아난다.<br/><br/> ■ 시나리오 2: 바닥에서 공격당할 때<br/>바닥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견갑골, 쉽게 설명해 브래지어선 위쪽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한다. 복근운동 중 하나인 ‘크런치’ 자세와 유사하다. 이날 수업에서는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자가 머리를 발로 차려고 다가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60초 동안 이를 피하는 훈련을 짝을 이뤄 진행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복근은 단순히 ‘날씬한 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육이라는 사실. 40초쯤 지나자 움직임이 굼떠지기 시작했고, 50초쯤 지나자 눈앞이 아득해졌는데 최 대표는 격려의 말을 계속 외쳤다. “포기하지 말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br/><br/>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공격자가 갑자기 위로 덮치는 상황도 가정했다. 이때는 양팔과 한쪽 무릎을 세워 공격자의 몸통과 나 사이에 공간을 확보한다.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의 힘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로 힘껏 공격자를 타격한다. 이때 발과 다리는 되도록 상대방의 다리와 직각이 될 정도로 각을 눕힌다. 요가의 나비자세를 생각하면 된다. 타격 확률이 높아진다.<br/><br/><br/><br/> ■달아날 때: 뒤를 보지 말고, 주위를 보라<br/>“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집니다. 손바닥으로 눈 옆을 가려보세요. 딱 그런 상태가 되죠. 공격자를 피해 달아나다 위험한 물체에 걸리거나 달려오는 차량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 대표가 말했다.<br/><br/>유사시 달아날 때 공격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침착하게 전면과 좌우는 확인해야 한다. 이날 수업에서는 수강생이 도주하는 지점에 샌드백 하나를 일부러 두었는데, 연습하기 전에 눈여겨봤는데도 막상 눈을 감고 있다가 큰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공격당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br/><br/> ■공격을 당하더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다 <br/>공격자는 최소 3초 전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 일이 닥칠 때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최 대표는 말했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r/><br/>수업이 끝날 무렵, 특수복을 입은 남성 강사를 상대로 이날 배운 셀프디펜스 요령들을 실제로 응용해보았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배우지 않은 기술들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나도 잘 모르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기분이 한결 산뜻해졌다.<br/><br/><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1.txt

제목: 4월부터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1만1000원대 실손보험 나온다  
날짜: 20170330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30120106001  
ID: 01100101.20170330120106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4월1일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3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br/><br/>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는 대다수 질병·상해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특약으로 분리된다.<br/><br/>가입자가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 평균 1만7430원에서 1만1275원으로 35% 낮아진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등 3가지 특약으로 나눠지고 3가지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보다 약 16%가량 내려가지만, 대신 특약은 자기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의료비 10만원이 청구될 경우 3만원은 자기 부담이고, 7만원의 보험금만 나온다는 뜻이다.<br/><br/>특약의 보장 횟수와 한도도 설정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수치료와 같은 특약은 연간 350만원(50회), 비급여 주사 특약은 연간 250만원(50회)으로 제한했다. 비급여 MRI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만 설정했다.<br/><br/>4월에 신규 출시되는 실손보험 상품은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다음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br/><br/>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정신질환 등 기존 약관에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만 심사한다. 현재 사망·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본형 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주사료와 MRI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을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새 실손보험 상품들의 보험료는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2.txt

제목: 삼육서울병원, 최신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BSD-2000 정상가동  
날짜: 2017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8161115001  
ID: 01100101.2017032816111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육서울병원(병원장 최명섭)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실을 개소하고 22일 정상 가동 감사예배를 통해 봉헌했다. 새롭게 도입된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Deep Hyperthermia BSD-2000 장비(공급사 ㈜아이비랩)로 암 환자 중심 진료 시 유용한 치료 장비로 운영할 예정이다.<br/> <br/>치료의 장점으로는 고주파 열 자극을 인체에 가함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정상 세포보다 열에 민감한 암세포만을 괴사시키는 원리와 정상적인 조직에는 피해 없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br/><br/>또한 고주파 에너지(75-120MHz)를 이용하여 신체 내부 깊은 부위의 고형암에 온열을 전달시켜 종양이 위치한 부분에 타깃을 설정하고 자동으로 치료조율 패턴을 계산하여 환자 치료를 결정하며, 종양 치료 부위의 온도와 열 체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br/> <br/>특히 유방, 폐, 복부, 간 담도계, 골반 및 생식기 부위 종양에 효과적인 치료를 나타내며, 항암제 약물치료나 기존 항암치료와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극대화 되는 등 암환자의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로 쓰이고 있다.<br/><br/>삼육서울병원 통합암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에 도입한 하이퍼서미아 BSD-2000은 전세계에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중 유일하게 미국FDA의 검증 받은 안전한 치료 장비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 암치료를 위해 적극 사용될 예정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직접 주사와 면역 개선을 위한 통합 치료를 병행하여 암세포 사멸을 목표로 암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 <br/>치료기 도입에 앞서 효과적이고 다양한 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들과 다학제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세미나를 통해 Deep Hyperthermia의 특징인 인체 심부 악성종양 부위에 고주파 열에너지를 모아 전달하는 방사선 안테나 시스템과 고주파 온열 암치료 시 매우 중요한 사안인 치료 과정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며 치료 계획(Hyper Plan)을 세우는 등 환자 상태에 따른 특별한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자체 임상 과정에서 고주파의 열감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체험 사례를 통해 약물과 병행한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br/> <br/>삼육서울병원은 암환자 진료를 위해 2013년 다학제간 통합 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2014년 6월 통합 암센터를 개소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다학제간 통합치료를 위해 최선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치료가 시기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현대 의학과 생활 치료, 전인 치료 등을 병행하고 접목시킴으로써 치료의 장점은 극대화 하면서 면역 손상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환자 중심의 암치료를 시행해오고 있다.<br/> <br/>공급사인 ㈜아이비랩 차승호 대표는 “<span class='quot1'>이번 삼육서울병원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의 핵심 기능으로서 40℃ 이상의 열에너지를 선택적으로(Selective) 악성종양부위에(Target) 집중해서(Focus) 전달할 수 있는 방사안테나(Radiation Antenna)방식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하며 “<span class='quot1'>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Deep Hyperthermia 치료를 통해 암환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경향신문-2-373.txt

제목: 재발·전이 방지하는 ‘암면역치료’ 선택하는 대장암 환자 늘었다  
날짜: 2017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4141735001  
ID: 01100101.201703241417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은 최근 발병률이 매우 높아진 질환 중 하나로 주로 잘못된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소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은 편이며, 최근 점차 서구화돼가는 식습관도 대장암 발병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br/><br/>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유독 대장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통한다. 전문가들은 암 질환의 경우 초기 발견시 완치율이 높아지는 만큼 평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길 권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기적인 병원방문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br/><br/>대장암은 조기 발견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는 탓에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건강심사평가원 통계 결과, 조직 검사 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전체 수술 환자의 36.3%로 가장 많았다.<br/><br/>또한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재발률과 전이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대장암이 발병했다면 빠른 초기 치료는 물론, 재발과 전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br/><br/>대장암은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1기부터 4기로 나뉘며, 치료방법도 각각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 치료이며,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전이 재발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br/><br/>중요한 점은 대장암 환자들이 계속된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진행하며 기력과 면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닌 경우 어떤 치료를 진행한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특히나 재발암 치료시 우리몸은 이미 항암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br/><br/>한편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수술, 항암치료와 함께 한의학적인 요법을 환자에게 병행해 새로운 암 치료법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면역암치료의 일환인 이중병행암치료는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해 양방치료 부작용 완화, 항암치료 효과 증가, 한방의학을 통한 암세포 사멸, 면역력 향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옻나무제제II(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든 한방제제로 자체 조사한 효과 분석결과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시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한 옻나무추출물은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나는<br/>것으로 알려진다.<br/><br/>아울러 고통스런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여주는 이중병행암치료는 면역력 증가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 김보근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의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의 삶의 질과 완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중병행암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경향신문-2-374.txt

제목: 유방 ‘맘모톰’, 유방암 진단부터 유방 혹 제거까지 한 번에  
날짜: 2017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3180038001  
ID: 01100101.201703231800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검진에서 의심소견 발견 시 맘모톰 등 통해 반드시 암 여부 확인해야 <br/><br/><br/><br/>직장인 A씨(35세, 여)는 연초 직장 건강검진에서 진행한 X-ray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추가 정밀 검진을 권고 받았다. 이후 바쁜 일정 탓에 검진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유방전문클리닉을 방문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유방에서 16m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맘모톰을 실시, 다행히 종양으로 판명돼 진단과 혹 제거 시술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br/><br/>최근 A씨처럼 평소 유방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내다가 건강검진 등에서 우연히 유방 종양을 발견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 늦어지는 결혼 및 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에서도 이상 소견을 진단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br/><br/>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0만4390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2015년에는 12만293명으로 35% 가량 증가했다. 또한 한국유방암학회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여성인구 10만 명당 26.3명이었던 유방암 환자 수가 2013년에는 10만 명당 79.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정기적인 자가진단과 유방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유방암의 경우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지원하는데, 전문의들은 더 치밀한 예방을 원한다면 35세 이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br/><br/>국가건강검진에서는 실시하는 유방촬영술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치밀유방이나 추가 정밀검진 소견 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방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br/><br/>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양이 발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종양 즉 암인지, 단순한 양성 종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유방 맘모톰을 실시하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맘모톰은 3mm 정도의 작은 바늘을 삽입해 혹이나 멍울을 제거하는 시술로, 유방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성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시술 시 흉터나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아 환자의 부담이 적다. <br/><br/>목동 리유외과 김신혁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의 5년 생존율은 90% 수준으로, 5년 생존율이 20%에 머물고 있는 폐암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초기 유방암은 거의 100% 완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치료 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유방검진을 통해 조기 검진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유방검진이라고 하면 여전히 어느 곳에서 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방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진단경력과 수술경험을 갖춘 유방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유방전문클리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방전문클리닉의 경우 유방초음파검사부터 유방 결절 발견 시 조직검사, 유방암 진단, 양성종양제거 맘모톰 시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

언론사: 경향신문-2-375.txt

제목: 인도 갠지스강도 ‘사람’ 됐어요  
날짜: 20170322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2154907001  
ID: 01100101.20170322154907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ㆍ뉴질랜드 황거누이강 이어 두 번째로 인간 지위…수질 개선은 미지수<br/><br/>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이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는 강이 됐다. <br/><br/>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갠지스강과 가장 큰 지류인 야무나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으로 강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면 타인을 해쳤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는다.<br/><br/>법원은 “<span class='quot0'>갠지스와 야무나는 태곳적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주었다</span>”면서 강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 히말라야산맥 강고트리 빙하에서 발원한 갠지스는 바라나시, 하리드와르 등 힌두교 성지를 거쳐 동쪽으로 흐른다. 길이만 2500㎞에 이른다. 힌두교도들은 갠지스를 ‘강가’라고 부르며 여신으로 모신다. 이곳에서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목욕도 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뿌리기도 한다. <br/><br/>법원은 최근 세계 최초로 인간 지위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을 사례로 들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r/><br/>법원은 갠지스강과 지류의 보존업무를 담당할 감독관 3명을 임명하고 3개월 안에 강 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br/><br/>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우타라칸드 주정부와 이웃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가 갠지스강 보존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br/><br/>그사이 강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됐다. 2012년 인도 의학연구회는 갠지스강에서 각종 독소와 중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강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델리 주민 1900만명의 식수원인 갠지스의 지류 야무나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 채 썩어 들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구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br/><br/>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강이 깨끗해질지는 알 수 없다. 법으로 강 오염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만 15억ℓ나 흘러드는 생활하수와 오물을 걸러내는 건 역부족이다. 산업폐기물도 하루에 5억ℓ나 강에 유입된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6.txt

제목: 남과 여…그 닿을 수 없는 ‘비밀’이 쏟아지다  
날짜: 20170321  
기자: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1212329001  
ID: 01100101.2017032121232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ㆍ피나 바우슈 유작 ‘스위트 맘보’ 24~27일 서울 공연<br/><br/><br/><br/>육체와 춤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강렬하게 흔들어온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슈(1940~2009)의 작품이 이달 말 한국에 온다.<br/><br/>연극과 무용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장르 ‘탄츠테아터’를 개척하며 20세기 현대무용의 문법을 바꾼 독일의 혁명적인 예술가 바우슈가 타계하기 1년 전 독일 부퍼탈에서 발표해 초연한 유작 <스위트 맘보>다. 바우슈의 무용단인 ‘피나 바우슈 부퍼탈 탄츠테아터’가 오는 24~27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br/><br/>바우슈는 2009년 암 선고를 받은 지 5일 만에 타계했지만, 바우슈 예술정신의 유산을 잇고 있는 부퍼탈 탄츠테아터의 명성과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br/><br/>노력해도 가닿을 수 없는 타인, 거듭 실패하는 관계들, 인생이 가져다 주는 황홀경 등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성을 육체로 구현해낸 바우슈의 예술은 한번 보면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보고 나면 누구나 가슴속 심연이 흔들리는 작품이다. 바우슈의 작품을 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강렬하고도 심오한 감정들을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체험의 시간이다. 이 때문에 바우슈 타계 후에도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수 공연장들에서 바우슈 무용단을 초청하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br/><br/><br/><br/>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이 오마주를 표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생전 친분이 깊었던 독일의 영화감독 빔 벤더스와 프랑스의 연출가 겸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 스페인의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이 작품을 통해 바우슈에게 경의를 표했다.<br/><br/>그의 작품에서 춤은 음악과 영상, 사물, 파편화된 드라마와 섞인다. 무용수들은 본능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눈을 감고 쓰러지고, 스스로 물을 끼얹고, 책상을 옮기고, 관객에게 말을 건다. 이번 <스위트 맘보> 역시 인간관계와 남녀관계 속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좇는다. 사람들 사이 소통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바우슈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표현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br/><br/>춤뿐 아니다. 무대와 의상 역시 바우슈 예술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무대는 바우슈의 오랜 예술적 파트너인 무대미술가 피터 팝스트가 디자인했다. 무대 위를 채운 하얀 커튼은 깊은 밤 달빛처럼 흐드러지고, 그 위로 독일의 흑백영화 <파란 여우>(1938)가 투사된다. 하얀 커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솔로와 앙상블의 다양한 움직임은 환상과 같은 비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우슈의 주제를 잘 나타내주는 마리온 시토의 심플하고 현대적인 의상도 돋보인다.<br/><br/>2014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된 <스위트 맘보>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별 다섯개 만점을 주며 바우슈 타계 후에도 바우슈 무용단의 예술성이 퇴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피나 바우슈의 육체는 이곳에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바우슈의 지적 정직성과 천부적 재능을 조각하고 있는 부퍼탈 탄츠테아터 무용수들의 눈, 목소리, 가슴속에서.”<br/><br/><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7.txt

제목: [시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효과 거두려면  
날짜: 20170321  
기자: 박동욱 | 한국방송대 교수·환경보건학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1203858002  
ID: 01100101.20170321203858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건강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지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생활용품 제조와 사용에 있어 기업이 해야 할 위험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다.<br/><br/>우선,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국가 규모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 사고, 건강 피해를 신고할 곳이 없다. 제품의 결함, 기업의 과실, 정부 및 기업의 사고 대응 소홀 등을 알아낼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있지만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제품 사용으로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br/><br/>암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기업, 제품, 장소 등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화학물질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급성, 만성 건강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정부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후진적 국가 공중보건 체계 때문에 200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대한 원인 조사 당시 당국은 감염 가능성만을 조사하고 화학물질 중독 가능성은 의심하지 않았다. 개별 피해 사례가 국가 규모로 모여야 원인 제품, 반복성, 유사성 등을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br/><br/>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는 국민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상을 입은 사례를 수집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국가(중독)센터가 있다. 미국에는 56개 주에 국민들이 제품 사용으로 인해 입은 사고, 손상, 건강 피해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피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종합하고 분석해서 피해 사례의 원인 규명은 물론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br/><br/>미국 맥도널드사에 부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사례 수집 체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10여년간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 사고가 700여건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맥도널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행위를 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한 사고조차도 방치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실제 피해액보다 10배가 넘는 27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만성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6년 미국 존슨앤드존슨사로 하여금 난소암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550억원, 6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 배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6배가 넘는다. 197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은 여성의 베이비파우더 사용이 난소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다른 연구결과들을 들어 이를 무시했고, 소비자들에게도 난소암 발생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태만을 지적했다. 지금도 존슨앤드존슨사는 난소암 피해자와 관련된 1200여개의 집단소송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성이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지만 난소암 피해를 조사한 결과는 없다. 피해자 중 일부가 다른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br/><br/>거대한 국가나 기업 앞에서 소비자 개인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종합하는 국가 체계가 없다면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다.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소비자 건강 피해 예방은 물론 보상이 쉽지 않은 이유다. 제품 사용에 있어서 위험 관리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통제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위험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과 제품 사용에서 나타난 건강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해 사례 없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은 충분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물론 DDT, 수은 등 과거 많은 화학물질 사고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제품 사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국가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br/><박동욱 | 한국방송대 교수·환경보건학과>

언론사: 경향신문-2-378.txt

제목: 포스코 광양제철 백운아트홀, 봄맞이 문화행사 풍성  
날짜: 20170321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1143658001  
ID: 01100101.20170321143658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가 만든 문화공간인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봄맞이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br/><br/>광양제철소는 22일부터 닷새동안 영화 ‘오페라의 유령’(포스터)을 상영한다. 이 작품은 오랜 역사를 지닌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영상으로 담은 것으로 오페라 여가수와 천재음악가 사이의 사랑을 그렸다. 중학생 이상이면 볼 수 있다.같은 기간 백운아트홀 1층 로비에서는 허영미 작가의 ‘켈리향기 그리고 나무향기’ 작품전이 열린다. 켈리그라피와 우드버닝(얕은 나무판에 인두로 그리는 작품) 조합의 창작품 45점을 선보인다. <br/><br/>29일에는 광양지역 극단 ‘백운무대’가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를 무대에 올린다.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오후 7시30분 한 차례다.<br/><br/>30일에는 포스코 창립 49주년을 맞아, 광양제철 직원과 가족으로 이뤄진 ‘포스코패밀리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단장 이방현)’가 꾸미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클래식, 가요, 영화 삽입곡 등의 선율을 들려준다. 오후7시30분 시작한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79.txt

제목: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⑤‘괴물’이 되어버린 검찰…독점을 깨라  
날짜: 20170320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0212201001  
ID: 01100101.20170320212201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span class='quot0'>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다.</span>”<br/><br/>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남긴 말이다. 2009년 검찰은 ‘죽은 권력’이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몰이식 수사’를 벌이며 측근들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규명엔 상대적으로 무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span class='quot1'>사실상 국가 전체 힘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권력</span>”(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으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해 왔다.<br/><br/>■ 괴물이 된 검찰, ‘민주화의 역설’<br/><br/>검찰의 힘이 비대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6월 항쟁 이후 태어난 노태우 정권은 다른 독재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고문으로 공작을 벌이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합법성을 지닌 ‘힘의 도구’가 필요했다. 이때부터 검찰이 정권의 정적 제거, 사회통제 수단으로 ‘애용’되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해 온 김희수 변호사는 “<span class='quot2'>검찰 세력은 민주화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다</span>”며 이를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br/><br/>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다. 2014년 세계일보는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소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초점을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대신 문건유출자 색출에만 맞췄다. 이러한 ‘그림’은 청와대가 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라고 일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br/><br/>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깨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한 조직 장악부터 그만둬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기사람’을 검찰 수뇌부에 심은 후 수사방향을 사실상 지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br/><br/>청와대의 검찰 장악은 “<span class='quot3'>권력 입맛대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span>”(서보학 경희대 교수) 패턴을 만들어냈다. 지금의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문건 등 정치적 사건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총장 후보’로 급부상했던 인물이다.<br/><br/>■ 권한 나누고 상호견제케 해야<br/><br/>청와대의 검찰 장악·통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괴물이 되다시피 한 검찰”(오 국장)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 서로 견제케 할 제도가 필요하다.<br/><br/>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검찰개혁 대안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고위공직자 수사·기소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기구(공수처)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span class='quot4'>공수처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칫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공수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만들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힘의 배분을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찰 민주화 수단으로 꼽혀왔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 지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청구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span class='quot5'>경찰에 수사권을 넘겨 검찰권력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5'>경찰이 나쁜 의도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할 때는 검찰에 수사개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견제하게 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검찰의 기소독점권도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은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않는다면 처벌이 힘들다. 검찰이 재판부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br/><br/>1986년 서울대 학생이던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가 부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불법사실을 자백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었던 문귀동 형사는 ‘그럴듯한’ 억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고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제도다.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결국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br/><br/>현행법상 검찰의 ‘독점기소권’을 뚫을 수 있는 통로는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재정신청이 유일하다. 재정신청 범위는 2007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발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br/><br/>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span class='quot6'>권력형 비리의 경우 대부분 고발 형태를 띠며 재벌의 횡령·배임사건 등은 고소할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모든 고발사건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을 정상화시킬까<br/><br/>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을 가장 빠르게 개혁할 방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감처럼 검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시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각 주 법무장관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있다. ‘한 사람(검찰총장) 상투만 잡고 흔들면’ 검찰 전체가 정권에 발맞추는, 중앙집권화된 검찰조직을 분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통한다.<br/><br/>그러나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span class='quot7'>실제 검사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 선출직 검사장이 정치인이 돼 소속검사를 도구로 삼을 가능성, 여론을 사로잡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재판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span>”고 말했다.<br/><br/>‘공익의 대변자.’ 법이 규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비민주적 권력’의 표상이 돼버렸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검찰권과, 검찰을 ‘소유’하려는 역대 정권의 탐욕이 만나 빚어진 결과다. 심지어 “미국·영국·독일 등 어떤 나라의 제도를 옮겨와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오 국장)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설계보다 ‘의지’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바로 지금이 검찰 민주화의 적기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br/><br/><br/><br/>>> ‘대한민국 수호’ 명분 내세워…한국 민주주의 위태롭게 한 국정원<br/><br/>국가정보원, 한국 민주주의가 휘청일 때면 어김없이 그 이름이 있었다. ‘대한민국 수호’ 보루를 자처하지만,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첨병이었다.<br/><br/>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막강한 권력으로 불법 도청과 미행·감금·고문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1973년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했던 중정은 2013년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정원이 됐다.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국가 정보기관은 낡은 과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br/><br/><br/><br/>■ “국정원을 해체하라”<br/><br/>“과거엔 국정원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불법 사찰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걸 보며 내 믿음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다. 단순한 개편이나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산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br/><br/>2004년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으로 설치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회한을 종종 털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개혁은 멈췄고 국정원 역할은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까지 받았다. 국정원 해체를 말하는 여론이 공공연해지는 이유다. 실제 촛불집회엔 ‘국정원 해체’가 표어로 등장했다.<br/><br/><br/><br/>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통된 의견이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 우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안정보’ 범위가 불확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분야가 확대됐고, 이러한 정보는 불법 정치 개입에 활용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br/><br/>‘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토록 한 국정원의 초월적인 정보 기획·조정 권한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권한은 국정원을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도록 만들어 각 부처의 고유한 정보수집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역할 강화와 자체 수사권 폐지 역시 주요 개선책으로 꼽힌다.<br/><br/>■ 공작정치와 무능의 ‘9년’<br/><br/>구체적인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음에도 국정원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개혁을 미뤄왔다고 말한다. 국가 안보의 필요악인 정보기관이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br/><br/>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은 국정원 역사의 후퇴기로 평가된다. 국정원 법제관으로 근무했던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정원은 철저하게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중정·안기부로 회귀했다”고 말했다.<br/><br/>김대중 정부는 인권 탄압의 주범이던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원훈 또한 ‘정보는 국력’으로 변경하며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국정원 발전위’를 통해 동백림 사건 등 과거 정보기관의 7대 의혹을 파헤쳤다. 다만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과거 안기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 불신은 다시 커졌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두 정부 정책이 다음 정권으로 이어졌다면 국정원 개혁은 동력을 얻었을 것이라 평가한다.<br/><br/>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개혁 조치를 중단했고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 ‘종북좌파단체’라고 표현하고 압박을 지시했다. 18대 대선 기간엔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국정원 댓글 부대’ 논란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br/><br/>또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 같은 해 12월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 후에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것 등은 정보기관으로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br/><br/><송윤경·고희진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0.txt

제목: ‘암 예방 가능’은 알지만, ‘운동·금주’는 싫어  
날짜: 20170320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0132603001  
ID: 01100101.2017032013260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고, 암 예방 생활수칙 실천을 ‘결심’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나 실제로 운동과 금주를 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20일 국립암센터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비율(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2016년 66.8%로 늘었다.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로 했거나 이미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암 예방 실천율’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증가했다. <br/><br/>‘국민 암 예방 수칙’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2007년 45.6%에서 2016년 68.5%까지 늘었다. 그러나 신체 활동과 절주, 식이 항목 실천율은 오히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2007년 55.1%에서 2016년 54%로 하락해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음주 예방 수칙 실천율도 2007년 69.1%에서 56.4%로 크게 떨어졌다. <br/><br/>음주 예방 수칙이 지난해부터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시기’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되면서 실천율이 떨어진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br/><br/>식이 항목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2008년 54.8%에서 2016년 60.1%로, 짜지 않게 먹는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74.1%에서 78.3%로 늘었지만,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비율은 71.6%에서 63.9%로,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은 92.4%에서 87.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r/><br/>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리는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해 온 서울대 의대 방영주 교수에게 근정훈장을, 간암 신규 치료법 도입과 임상연구에 노력해 온 성균관대 의대 백승운 교수와 유방암 치료에 기여한 가천의학전문대학원 박흥규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이외에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표창 87명 등 모두 100명이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1.txt

제목: 심상정 “담뱃세 인상분, 흡연 질병 예방·치료에 쓰도록 할 것”  
날짜: 20170320  
기자: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20113020001  
ID: 01100101.2017032011302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을 어린이 병원비와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 등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br/><br/>심상정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4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이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br/>3조8000억원은 개별소비세 증가분(2조2000억원) 중 소방안전세(20%)를 제외한 1조8000억원과 부가가치세 증가분(5000억원) 중 지방소비세(11%)를 제외한 4000억원 등 2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증가분 1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br/><br/>심 대표는 이 돈으로 0~15세 780만명의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span class='quot0'>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만 있으면 된다</span>”고 말했다. <br/><br/>심 대표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식도암 등의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하면 모든 암질환자의 입원·외래·약제비에 대해 완전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br/><br/>또 암과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암 진단 및 검사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확대 등에 연간 8000억원을 사용하겠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금연·영양·비만예방 등을 위한 교육·상담 등 통합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체육시설 내실화, 자살예방 및 중독예방 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에도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정부는 2015년 1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심 대표는 “<span class='quot0'>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사리지고 국가재정만 늘린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서민 등골 뺀 담뱃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다</span>”고 말했다.<br/><br/><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2.txt

제목: [대선 3대 의제-①돌봄]보육·간병·노후의 짐, 이젠 함께 집시다  
날짜: 20170319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9230959001  
ID: 01100101.20170319230959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기는 안아 주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울기만 했고, 김지영씨는 아기를 안은 채 집안일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야 했다. 전업주부가 된 후 김지영씨는 ‘살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고 난이도를 후려 깎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받들면서 좀처럼 비용으로 환산하려 하지 않는다.”(소설 <82년생 김지영> 중)<br/><br/>소설 속 ‘82년생 김지영’은 서울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살고 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본인은 작은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다 출산과 함께 퇴사했다. 그는 딸의 육아를 전담하다 정신질환에 걸린다.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이 돌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김지영은 대한민국의 ‘평균인’이다. <br/><br/>‘김지영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소설에 남녀노소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김지영’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br/><br/>1인 가구가 4인 가구 수를 추월하며 혼자 사는 삶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맞벌이가 필수라고 대답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실직과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간병살인’까지 나오는 두려움을 앞서간 일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문제는 모두 공감하고 걱정하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br/><br/>홀어머니와 살던 외동딸 김모씨(45·서울 목동)는 결혼 후 잠시 어머니와 따로 살다가 곧 다시 합쳤다. 딸 둘을 낳으면서 급할 때 손이 필요했고,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몸에서 암까지 발견돼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결혼 직후 아이를 유산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번역일을 쉬지 않았다. 남들은 ‘재택근무하니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1·중2인 두 딸이 이런 식으로 “<span class='quot0'>일도 가정도 쫓기는 이중생활</span>”을 한다면 말리고 싶다. 그는 “<span class='quot0'>딸들이 가정을 꾸릴 때쯤이면 보육이나 간병, 노후 문제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사회가 어느 정도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자녀에게 짐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의 간절한 생각</span>”이라고 했다.<br/><br/>가족에 짐 지워진 돌봄 구조 속에서 남성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싱글 남성들은 고독사나 치매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중년 남성들은 치매부부의 자살 기사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부모의 오랜 간병 땐 삐끗하면 온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하다. 노년의 남성들은 고맙긴 하지만 딸과 며느리의 수발이 불편하다고 했다.<br/><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낮은 여성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육의 질 제고와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권고했다. 여성 인력 활용을 경제활력이나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짚은 것이다.<br/><br/>남성 1인이 생계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은 해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와 환자, 나이든 부모에 대한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고 있다.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15~54세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결혼과 출산, 육아·양육,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의 길을 택했다.<br/><br/>전문가들은 가족이 허덕이며 맡아온 돌봄의 역할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와 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좋은 노동과 좋은 돌봄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얘기한다. <br/><br/>‘돌봄(care)’은 수십년 전부터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사이 선진국들은 돌봄의 공백, 돌봄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풀어갈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 중이다. <돌봄 민주주의> 저자인 조안 트론토 미국 미네소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돌봄은 공공재”라고 말한다. 가족부양 등을 핑계로 돌봄에 무임승차해선 안된다는 것, 평등한 돌봄은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함께 돌봄’이 공적 토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트론토 교수의 설명이다. 경향신문이 올해 대선의 3대 의제를 제안하면서 ‘돌봄’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3.txt

제목: [산책자]사산되는 책들  
날짜: 20170319  
기자: 강성민 | 글항아리 대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9211316001  
ID: 01100101.2017031921131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얼마 전 우리 출판사 편집자가 “ㅠㅠ” 표시와 함께 내게 메일 한 통을 전달했다. 우리 책을 번역 중인 번역자였다. 원래 메일을 길게 쓰시는 분인데 이날은 유난히 길었다. 스크롤 압박을 우려해서인지 메일은 결론부터 말하고 있었다. 번역을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br/><br/>책은 아랍의 철학사를 다룬 프랑스 도서였다. 2년쯤 전에 이 책의 존재를 알아 평소 교류가 있던 번역자께 검토 의뢰를 드렸다. 매우 어렵긴 하나 아랍 철학을 근본부터 이해할 수 있는 요긴한 책이었다. 240쪽 정도로 얇았다. 감수를 받으면 큰 무리는 없겠구나 싶었다. 검토하신 번역자께 번역을 부탁드렸으나 고사했고, 재차 부탁해서 어렵게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2년 뒤 “십수 년 경력에서 출판사가 아닌 제 스스로의 결단으로 번역을 포기하는 첫 책”이라는 고통이 토로되었다.<br/><br/>포기의 논거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 애매모호한 개념이 많고, 유럽식으로 표기된 아랍 인명을 아랍어로 돌렸다가 다시 익숙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의 피로도도 높았다. 서양 고대 철학, 중세 철학, 아랍 철학에 대한 교양이 깊어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아 프랑스어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말로 옮길 때 문장 구성 자체가 힘들었고 하루 종일 매달려도 한 단락 끝내는 게 고작이었다. 그 한 단락의 완성도도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업 번역자인지라 중간중간 다른 의뢰가 들어오면 생계를 위해 해야 했고, 이 책에서 도망치듯 새로운 책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올해에도 다시 의지를 불태우다가 끝내 “내 번역 키 높이를 훨씬 뛰어넘는 책”이라는 판단과 함께 결단을 내린 것이다.<br/><br/>그냥 포기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번역 작업을 승계하도록 프랑스에서 서양 고대 철학을 10년 넘게 공부하고 돌아온 전문가에게 책을 보여주며 번역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했다. 라틴어, 희랍어,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철학사의 맥락에 해박한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하루빨리 책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다.</span>”<br/><br/>많이 미안해하셨지만, 안 맡겠다고 고사하던 때 심하게 매달려서 부탁드린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첫 ‘자체 포기’의 이력을 만들어드린 게 특히 그랬다. 이런 마음을 담아 수용한다는 답신을 보냈다.<br/><br/>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뒤 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잘 아는 번역자로부터였다. 같이 한 번 작업해본 경험에 따르면 보통 꼼꼼한 분이 아니고 실력도 뛰어나다. 메일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2년 전 의뢰한 책의 번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암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처음 마음 같아서는 치료 기간에 편히 쉬면서 책도 읽고 번역도 하겠거니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번역 작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메일이었다.<br/><br/>읽는 순간 너무 놀랐고 슬픔이 가득해졌다. 특히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예 포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구절에서는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래서 몸조리가 우선이라며 마음 편하게 푹 쉬시라고 했다. 이미 번역을 꽤 하셨으니 포기하진 말고 해외 출판사와는 계약을 연장하면 되니 조급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다.<br/><br/>이런 일들이 겹치고 울적하던 즈음 편집 작업을 오래 끌던 책이 드디어 출간돼 책거리 비슷한 모임을 가지게 됐다. 국내에 스토아주의를 제대로 소개하는 책이 없던 참에 입문서로 적당한 프랑스 저자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은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터였으나, 마땅한 출판사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우리가 선뜻 나서서 출간이 이뤄졌다며 번역자가 술 한잔 산다고 해서 나간 자리였다. 담당 편집자와 지인까지 네 명이 조촐하게 한잔 기울이는데 술자리가 불콰해질 즈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얼마 전 지인의 지인이 아랍 철학을 다룬 프랑스 책에 대해 물어보기에 포기하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이다. 귀가 번쩍 뜨여 이것저것 맞춰보니 얼마 전 장문의 메일을 받은 바로 그 책이었다. 무릎치고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소소한 우연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 책은 번역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책이라는 얘기를 추가로 들었다. 위기를 맞아 응전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전에 확인 사살되고 말았다. <br/><br/>설레는 마음으로 추진했던 책을 불가피하게 접어야 할 때가 있다. 책을 쓰고, 옮기고, 만드는 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책은 상품이면서 하나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 책을 포기할 땐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느낌도 든다. 어루만진 손길, 눈길과 함께.<br/><br/><강성민 | 글항아리 대표>

언론사: 경향신문-2-384.txt

제목: 내 인생의 한 장면?···文 “특전사 시절”, 安 “5·18 항쟁”, 李 “어머니”  
날짜: 20170319  
기자: 이재덕·정희완·김한솔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9142947001  
ID: 01100101.20170319142947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5차 합동토론회’에서 특전사 복무 시절 사진을 ‘내 인생의 한 장면’으로 꼽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18 민주화 운동 사진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학 입학식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골랐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택했다. <br/><br/>이번 5차 합동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한 장면’을 꼽는 코너가 들어갔다. 각 후보들이 꼽은 사진들은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후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진들이다.<br/><br/>문 전 대표는 ‘안보’와 ‘대북관’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특전사 시절 사진을 내보이며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훈련을 했다”며 “12·12 군사반란 때 반란단 막다가 총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에게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r/><br/>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 했는데 그 작전에도 참여했고,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이 이때 형성된 것</span>”이라고 했다. 이어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남북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며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말에 경선 후보인 최성 고양시장은 “<span class='quot1'>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있으시냐</span>”고 말했다.<br/><br/>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80년 5월23일 신문에 실린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골랐다. 안 지사는 “이 신문의 첫 사진 볼 때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말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저 시민들 곁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죽음 끝에 그렇게 5월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름방학을 지내고 이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의문 품은 채 계엄사에 잡혀갔고 학교에서 제적 당했다”며 “오늘 정치인 저 안희정이 있는데 이 사진이 제 출발점”이라고 했다. <br/><br/>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강점인 ‘공장 노동자’와 약점인 ‘가족사’를 함께 언급했다. 이 시장은 대학 입학식 때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대학 입학식 때는 교복을 잘 안 입는데, 제가 공장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교복 못 입은 게 한이 됐다”면서 “제 인생에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다. 어릴 때 저를 공장에 데려다 주고,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어머니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다 어머니가 (형을) 말리는 과정에서 (형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일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맞은 날 제가 흥분해서 (형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이고 이런 일 다시 없을 거라 약속한다. 죄송하다”고 했다.<br/><br/>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택했다. 최성 시장은 “사진을 고를 때 재선 시장 당선 당시 유언을 남기셨던 말기암 투병 아버님 사진, 기도해주는 청각장애인 누님 사진을 두고 고민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3~4번 떨어지다가 꼭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영국에서 와서 찾은 박사가 저 최성이다. TV토론 팀장 맡으면 코치했다. 당시 젊은 박사 최성이 대통령 예비후보가 돼서 논의하고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br/><br/><이재덕·정희완·김한솔 기자 du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5.txt

제목: [사람 책]“자식들이 같이 놀러가자는 걸, 내가 안 간 거야” 사람이 그리웠던 할아버지는 쉼없이 이야기를 풀었다  
날짜: 20170317  
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 오소영·이수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7213330001  
ID: 01100101.201703172133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ㆍ강남 살며 탑골공원 매일 찾는 80대 박 노인(가명) 이야기<br/><br/><br/>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br/><br/>대한민국은 외롭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실패자로 낙인찍힐까봐, 상대도 힘든데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고 혼자 아프다. <br/><br/>사단법인 다른백년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의 공동기획으로 주위에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자영업자, 탑골공원 노인,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장시간 노동자의 이야기가 격주로 연재된다. <br/><br/><br/>탑골공원?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오지. 내가 서울 강남에 사는데, 전철 타면 금방 와. 여기 나온 지 일 년 반쯤 됐나? 재작년에 처음 왔어. 3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일 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강남에 있는 복지관에 나갔지. 보통 아침 먹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오전엔 복지관에 사람이 없어요. 오후에만 있고. 탑골공원은 노인들이 이야기도 하고 바둑도 두는데, 복지관은 붓글씨나 쓰고 교류도 없었어. 글씨 쓰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종일 말도 안 하면 무슨 재미야.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고. 나중엔 답답해서 안 나갔어.<br/><br/>누가 나한테 종묘에 가면 노인들이 많다고 알려줬어. 오전에 나와서 있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한번 가봤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대낮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별거 다 해. 점잖게 있으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 한 4~5개월쯤 종묘로 다니다가 탑골공원으로 옮겼지. 여기 와 보니까 한결 낫더라.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어선지 조용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도 없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어. 종묘에 비해 노인들이 생각하는 무드가 달라.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점잖아. 물론 노인들이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하면 여길 나오지 말아야지.<br/><br/>탑골공원에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들도 대여섯 있지. 걔들도 원래 거의 매일 오는데 오늘 비가 와서 안 오네. 전화하니까 추워서 안 온대. 난 비 온다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 내가 아들네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이잖아. 집이 넓은 빌라여도 손자 둘, 아들 내외에 나까지 있으면 답답해. 손자들한테 용돈 2만원씩 쥐여주고 나는 밖으로 나와 버렸어. 애들은 삼성동 코엑스에 갔다 왔대. 내가 안 가는 거야. 저들끼리 놀아야지. 나이 든 사람이 끼면 놀지도 못하고 서로 답답해. 서운할 것도 없지. 저들은 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고.<br/><br/>나는 혼자 뭐 먹고 싶으면 오이도에 가고 그래.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 심심하니까. 한 달에 두 번도 가. 혼자 가면 보통 산낙지 1만원어치 사서 먹는 거야. 그날 잡은 걸 파니까 싱싱해. 송도 가는 전철 다리 밑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횟감 가져가면 끓여 주고 비벼 주고 오만 걸 다해줘. 요즘은 추우니까 소래포구에 자주 가. 차비도 많이 안 들어. 노인은 전철이 공짜잖아. 그래서 노인들이 온양온천 같은 데 많이 다녀. 온양온천은 순댓국 같은 게 정말 싸요. 뚝배기에 고기를 엄청 준단 말이야. 난 거기보다 바닷가를 좋아해. 겨울에도 바바리 하나 걸치고 가서 회 먹고 오고 그래.<br/><br/>여기 나오기 전엔 직장생활을 했어. 28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다 3년 전에 그만뒀지. 나이에 비해 오래 일한 편이지. 힘든 일은 아니었거든. 그전엔 식당도 오래 했어. 그 지역에선 제일 컸지. 우여곡절이 많았어. 젊을 적엔 시골에 살다가 스물네 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한 사립대에서 일했어. 4년간 다니다가 병역 문제로 그만두고 군대 갔어. 1960년쯤 됐을 거야. 제대 후엔 학교로 다시 안 돌아가고 다른 일을 했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내가 골치가 아파. 거기까지만 해. 너무 사생활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br/><br/>말하자면 길어. 7~8년 전에 아들이 갑작스럽게 재정 문제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나는 반대했지. 한번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사글세든 전세든 구해서 살라며 못 들어오게 했어. 아내는 아들이 말하니까 못 이기고 들어오라 했지. 아들이 며느리랑 손자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 <br/><br/>아내가 원래 당뇨를 앓았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병원 생활을 일 년 하다가 재작년 이맘때 죽었어. 아는 주지스님이 있는 절의 납골당에 안치했지. 아무래도 혼자가 되니까 외롭기도 하지. 외로우면 어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한테 의지했지. 딴 사람한테 의지하면 외로움이야 달래지겠지만 내 평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지.<br/><br/>아들이 결혼을 늦게 해서 손자들이 어려. 큰 손자가 이제 중학생이야. 며느리는 애들 교육 때문에 집에 있지. 아침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거 먹고 오전 9시면 집에서 나와. 탑골공원에 나와서 놀다가 점심은 나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오후 2시가 되면 꼭 집에 가. 그 시간쯤 되면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 들어가거든. 집에서 저녁을 항상 6시에 해. 펑펑 놀면서 며느리보고 시아버지 밥 새로 해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남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해. 손자들은 학원을 세 군데나 다니기 때문에 같이 안 먹을 때가 많아.<br/><br/>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생활해. 최근에 몸이 안 좋았는데 치료비랑 보험료도 다 내가 냈어. 일할 때는 귀찮으니까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았어. 계속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2기래. 의사가 늦게 왔다고 뭐라 하더라고. 벌써 많이 전이됐다고 해서 재작년 가을에 수술받았어. 작년에 완치됐는지 보려고 검사했더니 혹이 생겼대. 그래서 다시 수술하고 일주일간 입원했어. 입원해선 아들이랑 있었지. 그렇다고 못 걷거나 밥 못 먹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 수술비도 많이 나왔어. 종합검진이라 검사를 여러 번 하는데, 검사 때마다 20만원씩 내야 해. 청구서를 보니까 검사비만 73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br/><br/>근데 나 때문에 시간 다 썼지? 학교는 어디 다녀? 우리 큰딸은 ○○대학교 나왔어. 자식이 넷 있는데, 전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왔어. 아들이 대학 두 번 떨어지고 동생들이랑 같이 다녀서 한집에 대학생이 네 명이나 있었어. 애들 엄마라도 같이 벌었어야 했는데, 남의 집에서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버는 거랑 시골에 있는 거 팔아서 살았지.<br/><br/>서울도 애들 때문에 올라온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근무할 때 보니까 서울과 시골은 하늘과 땅 차이야. 시골에서 논 몇 평 사주느니 애들 공부시키는 게 낫겠더라고. 학군 좋은 데로 간다고 강남에 자리 잡았어. 자식들한테 많이 투자했지. 처음엔 세 들어 살았는데 집주인이 일 년이 지날 때마다 세 올려달라고 해서 고생 많았지. 나중엔 집주인이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며 나가래. 돈 5000만원 융자받아서 강남에 집을 샀지. 일 년 안에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갚는 데 4~5년이 걸렸어. 그래도 현재는 자식들이 다 잘살아. 다들 대기업, 공기업에 다녀. 큰애는 외국에 살아서 자주는 못 봐. 2년에 한 번 한국에 오려나. 그래도 애들이 다 잘 커서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러진 않아. 다들 잘사니까.<br/><br/>나 때문에 괜히 시간 뺏기는 거 아냐? 학생들이랑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연이 되어버렸네. 근 2년 중에 제일 많이 말해보네. 원래 말을 잘 안 해.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거야. 돈 있다고 자랑한다고 할까 봐 친구들한테도 안 해. 학생들이 따라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네. 진짜 고마워.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딴 사람은 또 다르잖아. 열 명한테 물으면 열 명의 삶이 달라. 괜히 나 때문에 오늘 시간 썼네. 이제 학생들도 돌아가. 나는 다시 탑골공원으로 가야지. 비 안 오잖아. 나 혼자 알아서 갈게. 다음에 올 때 좋은 거 또 사줄게. 진짜 고마워, 진짜. <br/><br/><br/> ▶“혼자 사는데…‘유품정리’ 예약될까요?”<br/>>>마지막도 홀로 준비하는 노인들<br/><br/>7년 전 유품정리업체 키퍼스 코리아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살고 있는데 유품 정리를 예약해도 괜찮냐”고 했다. 그는 부인이 죽은 후 자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주위에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김석중 대표에게 유품 정리 생전예약을 실제로 문의한 첫 고객이었다.<br/><br/>유품 정리 생전예약 서비스는 1인 가구가 많은 일본에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주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사후를 걱정해 의뢰한다. 한국에서는 2011년 김 대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품정리인은 보았다>의 저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이전까지 유품 정리는 가족의 몫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죽은 뒤 아무도 유품을 치우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노인들을 위한 안심 서비스로 유품 정리 생전예약을 도입하게 됐다</span>”고 했다.<br/><br/>그에게 유품 정리 생전예약 서비스를 의뢰한 또 다른 고객 김모씨(82)는 한적한 시골에 살았다. 김씨는 교직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왔다. 아내와 세 자식들이 있지만 혼자 지냈다. 홀로 정원을 산책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하루를 보냈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일을 그만두고 초라해진 모습을 가족한테 들키기 싫어 유품 정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초라한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한다</span>”고 했다. <br/><br/>유품 정리 생전예약 서비스를 문의하는 노인 중에 김씨처럼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노인들도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후 유품 정리와 장례를 문의한다. 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는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장례봉사를 해주는 비영리 법인이다.<br/><br/>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 이재동 국장은 “친오빠의 생전 부탁”이라며 장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의뢰인의 오빠 심모씨는 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는 일용직을 전전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했던 심씨는 가난한 동생에게 차마 장례를 치러달라고 할 수 없었다. 동생에게는 자기가 죽으면 이 국장을 찾아가라고 했다. 이 국장은 동생의 요청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방에는 일용직으로 번 돈의 내역과 이 국장의 전화번호가 적힌 A4 용지가 펼쳐져 있었다. 한편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젊은 시절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br/><br/>심씨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생’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진 부유한 노인도 고독사를 피할 수 없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한 남성은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미국에 살아 교류가 거의 없었다. 수납장에는 라면 봉지만 가득했다. <br/><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전통적인 부양 가치관 변화, 자녀 수 감소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가족만이 노인을 돌볼 수 없는 사회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br/><br/><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 오소영·이수진 기자>

언론사: 경향신문-2-386.txt

제목: 대장암 재발·전이 방지 위해 ‘면역치료’ 선택 환자 늘었다  
날짜: 2017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7160855001  
ID: 01100101.20170317160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암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함께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대장암은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발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으로 잘 알려져 있다.<br/><br/>또 대장암의 증상은 초기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약 혈변, 설사, 변비, 점액변 등 배변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br/><br/>더불어 소화불량, 체중감소,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이 발생해도 대장암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이때는 서둘러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br/>암은 보통 초기인 1기부터 말기인 4기까지 분류된다. 대장암 1기라면 수술만으로 완치될 확률이 90% 이상이지만 2기부터 완치율이 점점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2기는 80%, 3기는 65%, 암세포 절제가 불가능한 4기 생존율은 5%이하로 알려진다.<br/><br/>대장암은 또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절제한다 해도 재발률이 20-50%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발과 전이에 대비한 예방 및 관리,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br/><br/>강남푸른숲한의원(구 하나통합한의원) 이준엽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의 경우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국소 재발과 원격이가 동반돼 전신 전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특히 암환자들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기력과 면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가 된다. 이때 대장암 재발 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1차 암치료 시 사용됐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재발암치료시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자연스레 치료법 및 치료제의 사용 제약이 커지게 된다.<br/><br/>따라서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주며 암세포 소멸이 가능한 면역암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r/><br/>이와 관련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중병행암치료'를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쓰고 있다.<br/><br/>이곳에서 사용하는 한방암치료제로는 옻나무제제II(티버스터)가 있다. 이 치료제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방 암치료제제로 자체 조사한 분석 결과,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처방 시 30%에 그치던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 옻나무추출물 성분은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보다 성공적인 암 치료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국제 유명 저널 SCI급 논문에 등재되어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하였다.

언론사: 경향신문-2-387.txt

제목: [전문]민주당 후보자 경선 4차 합동토론회···“대연정인가, 대야합인가”  
날짜: 20170317  
기자: 이재덕·박홍두·김지환·박송이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7140215001  
ID: 01100101.20170317140215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105분동안 서울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MBN)에서 ‘민주당 후보자 경선 종편4사 합동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토론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 ‘내우 외환의 대한민국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과 ‘정책 OX 퀴즈’, ‘나만의 강점’, ‘타 후보 칭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경향신문이 발언 내용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br/><br/><br/><br/>■오후 1시30분 : 모두발언 <br/><br/><br/><br/>안희정 = 탄핵이 마무리됐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극복해야한다. 이제 정치권이 일해야 한다. 탄핵은 우리 민주당만의 힘으로 이뤄지지않았다. 촛불광장에는 보수도 진보도 영남도 호남도 모두가 하나였다. 상대를 인정하고 같이 가자고 손 내밉시다. 협치와 연정은 필수다. 적폐청산도 국가 대개혁도 여와 야가 함께 가야한다.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용기내어 손잡겠다. 민주당 변화시키겠다. 전통적 지지기반에 안주하지 않겠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까지 외연을 확대하겠다.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 하나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저 안희정이 앞장서겠다.<br/><br/><br/><br/>최성 = 저 최성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지냈고, 인구 100만의 재선 고양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3차 토론회 동안 제게 인터넷실시간 검색 1위라는 영광 주셔서 감사하다.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핵 위기,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저 최성이 지금의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경제 위기 일괄 타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청렴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범법자 대통령 시대는 종식 고해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아마추어에게 맡길 수 없다. 초보운전자에게 맡길수없다. 청렴 풍부한 국정운영 한 최성이 대한민국호 구해내겠다이재명 = 탄핵 성공했다. 우리가 탄핵할 때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기어주기 위해 한 거 아니다. 삶 바뀌고 국가 미래 바뀔 대한민국 공정국가 건설 위해 싸웠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정세상 적폐청산 말은 하지만 실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세력 없지만 개인 능력으로 시민과 함께 약속 지키고 실천해왔다. 공약이행률 96%가 이를 증명한다. 사드배치가 철회되고 재벌기득권 제재되고 국민들이 환희 속에 희망 꿈 말하는 그런 나라. 정권교체는 대세다. 어떤 정권교체 할 것이냐. 세상교체 국민 삶이 바뀌는 진정한 교체 하겠다.<br/><br/><br/><br/>문재인 = 제가 요즘 국민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아서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제 홈페이지에 이런 말을 보내준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지 우리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새로운 정권교체 꼭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 문재인이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정권교체 해내겠다. 저 문재인 준비돼 있다. 자신 있다. 함께 해달라<br/><br/><br/><br/>■오후 1시39분 :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 변화 어떻게?’(주제토론1) <br/><br/><br/><br/>사회자 =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목소리가 있다 .이번 대선 출마하려는 네 분 모두 많은 고민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 해야 하나. 1분 30초 이내로.<br/><br/><br/><br/>문재인 = 먼저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지난 달 발표된 실업률이 5%. IMF 이후 사상 최악 실업난이다.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 위기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고용 절벽 등 모든 국가위기 근원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부터 편성하겠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예산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가계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주도 성장. 또 성장의 혜택이 국민모두에게 고루 배분되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겠다. 일자리 혁명 일으키고 일자리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매일 직접 일자리 챙겨나가는 대통령이 되겠다.<br/><br/><br/><br/>안희정 = 저는 과로사회를 끝내자고 제안한다. 휴식 있는 삶이 필요하다. 휴식 있는 일자리 필요하다. 우린 너무 지쳐있다. 재충전 학습 육아 시간은 커녕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 피로가 누적되고 산업현장 생명 위협받는다. 이렇게 열심히 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OECD 가장 꼴찌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휴식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 10년에 1년씩 재충전 재교육 휴식 위해 전 국민 안식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우리 삶 획기적 변화 닥쳐왔다. 이 제도 도입하면 임금 감소하지 않으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평생 학습과 새로운 직업역량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 일자리나누는 효과 있다. 정부 나서고 민간기업 확대시키겠다. 과로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저 안희정이 만들겠다.<br/><br/><br/><br/>최성=국민 여러분께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도표 준비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공동체 붕괴도 심각하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제고향 광주, 처가집 전주도, 어머니 고향 나주도 호남공동체 20년 이후 사라졌다. 영남 충청 모든 지방공동체 무너졌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 외교 안보 국방만 중앙정부에 맡기고 모든 권한 지방에 넘긴다. 무상보육 실시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겠다. 불효자방지법 등등해서 지방경제활성화 농촌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식 연방제 식의 지방자치분권 필요하다.<br/><br/><br/><br/>이재명 = 지금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다.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 온국민 겪고 있다. 경제 어려운 제 1문제가 사드배치다. 사드로 인한 경제제재로 대한민국 경제 어렵다. 사드 반드시 철회하겠다. 이재용 구속 박근혜 탄핵되니 주가 올랐다. 불공정 불평등 비정상적 구조 청산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되는 거 증명됐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70조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 확대 노동자 보호 노동권 강화. 가계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 사는 길이다. 적폐청산세력과 손잡는 대연정하면 경제 또 망한다. 부패기득권세력 끌어모아서 기득권 대연정하게되면 경제가 더 망가진다. 사드에 대한 입장 (잘 안들림) 방치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공정한 국가만들기 위해 평생 살았다. 공정한 나라 만들어서 국민들 꿈과 희망 펼치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서 경제 살리겠다. 사드뱅치 반드시 막겠다. 사드 보내고 평화를 불러와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br/><br/><br/><br/>■오후 1시46분 : 정책OX<br/><br/>1) 사드 배치 문제<br/><br/>사회자=대선주자는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입장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찬반 OX 팻말을 들어달라. 각 후보는 1분 이내로 의견을 달라. 첫번째 주제는 사드 배치 문제다.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는 분은 O를 들어주세요. 두 분은 드셨고 두 분은 안 드셨다. 의견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O를 드셨다.<br/><br/><br/><br/>이재명=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도 인정했다. 오히려 미·중 군사 충돌 시 한반도로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걱정해야 한다. 이미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선 안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저 이재명처럼 강단있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트럼프, 시진핑과 담판할 수 있다. 신념이 확고한 저에게 맡겨달라.<br/><br/><br/><br/>문재인=저는 사드 배치에 시종일관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렸다.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외교적 노력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O냐 X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키고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다. 이 2개를 함께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과도한 보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비이성적인 사드 보복으로 우호관계를 훼손해선 안된다.<br/><br/><br/><br/>안희정=저는 처음부터 한·미 동맹의 기존 합의를 존중했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합의라 해도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한다. 황교안 체제 내에서 대선에 조기 졸속 처리하는 건 반대한다. 한·미 군사동맹,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둘 다를 얻어내겠다. <br/><br/><br/><br/>최성=저는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외교안보에 종사했다. 사드 문제와 같은 외교 문제는 OX 퀴즈로 풀 수 없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미 한·미 정부 간 합의해 끝까지 반대하면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김대중식의 북핵, 사드 일괄 타결, 초당적 방미단·방중단을 파견해야 한다. 국회는 뭐하는가. 사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선실세 개입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br/><br/><br/><br/>2) 임기 내 개헌하겠다?<br/><br/>사회자=두번째 주제 개헌 문제다. 지난 15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처리하자고 3당이 합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축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87년 체제 종식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내가 당선되면 임기 내 개헌한다?’. 네 분 다 임기 내 개헌한다고 O를 드셨는데요.<br/><br/><br/><br/>최성=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한 개헌 추진은 촛불민심에 위배된 것이다. 개헌 방향은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다. 그 중심에는 대권후보들만의,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은 안된다. 지방 붕괴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교육, 자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을 해야한다. <br/><br/><br/><br/>이재명=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통치규범이다.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독재에서 민주정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철지난 옷처럼 몸에 맞지 않는다. 그 중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확대, 기본권 강화 방향, 통치구조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이르고.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 지방분권 강화도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이 수평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헌법 개정은 이번 대선 전에는 어렵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개헌하는 게 합당하다. <br/><br/><br/><br/>문재인=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정략적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해서 개헌하자고 여러번 이야기했다.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해야 한다.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헌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다.<br/><br/><br/><br/>안희정=개헌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우리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지적해왔다. 우리 개헌은 ‘국민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약속서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4년에 한 번 선거를 하는 투표자에 불과한 국민이 대의제로만 주인되기 어렵다. 자치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 주인으로서 국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합의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3) 자유한국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br/><br/>사회자=자치분권을 다 강조하시는 게 눈에 띈다. 여야 협치 없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저런 배경에서 모든 후보들이 연정,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견해 차가 있다. ‘나는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 세 분이 X. 한 분은 (답을) 안 주셨다.<br/><br/><br/><br/>안희정=저는 개혁과제에 동의하면 그 어느 당과도 힘을 모아 정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혁과제와 헌법질서, 헌재 판정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연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안보위기·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형태의 의회 협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개혁과정에 동의하고 적폐청산을 향한 미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손을 내밀겠다. 정쟁과 발목잡기 국회, 식물국회를 극복해 적폐청산하고 미래를 만들겠다.<br/><br/><br/><br/>최성=이 자료사진을 한번 보시라. 자유한국당 핵심 인물은 연정한다는 것은 연립정부 꾸리고 결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돈 받아먹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탄핵’ 발언, 홍준표는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고 말하고. 강동구 한 의원은 ‘화염병 폭동’ 발언,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연정하나. 자유한국당은 당을 해체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저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 공동 개혁정부를 통해 촛불민심을 받들겠다. <br/><br/><br/><br/>이재명=촛불민심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다.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겠다, 수술하기 어려우니 암 안고 살겠다와 다르지 않다.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인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을 배신하는 대야합이다. 야권 연합 정권이 필요하다. 야권과 손을 잡아야 한다.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진영과 손을 잡아서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br/><br/><br/><br/>문재인=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대연정에 반대한다. 대연정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아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한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을 하는 게 우선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최우선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개혁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하면 불가능할 것이다. 탄핵도 대연정 없이 국민들이 해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동원하고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대개혁을 해낼 수 있다.<br/><br/><br/><br/>■오후 2시5분 : 내우외환의 대한민국, 위기극복 방안은? (주제토론2) <br/><br/><br/><br/>문재인 = 내우외환 위기 극복하려면 정권교체부터 해야 한다. 내우외환 만든 세력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잘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한다. 밖으로는 트럼프, 사드배치 등 대외 위기요인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동맹과 국익을 지켜나가는 노련한 외교 해야 한다. 안으로는 경제 양극화 해결해야 한다. 국민성장이 그 해결책이다. 외바퀴가 아니라 가계소득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성장,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그리고 창업국가 만드는 사륜구동이 돼야 한다.<br/><br/><br/><br/>안희정 = 모든 국가의 위기는 오로지 국민의 힘을 모을 때라는 사실 주목한다. 모든 이들이 적폐청산 얘기한다. 자유한국당 청산하자고들 한다. 자유한국당과 상의해야 한다. 누군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만으로 위기 극복가능하다면 저도 왜 안그러겠나. 6번의 대통령 봤지 않나. 탄핵 반대 촛불 등에 업고도 개혁 입법 통과 못 했다. 힘을 모아내야 한다. 안보는 전략적 이익이 지켜져야 한다.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어진다면 안보 지켜낼 수 없다.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 만들겠다. 안희정이 제안하는 대연정, 새로운 정치입니다.<br/><br/><br/><br/>최성 = 국민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키고 IMF 위기 극복했다. 위기의 한반도 정세 제가 좀 다시 알기 쉽게 밤새 준비했다.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의 무모한 핵개발 야욕,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이 한반도 무역압박하고 있다. 저는 이 내우외환 극복 위해서는 ‘북핵과 사드’ 일괄 타결해야 한다. 국회가 방미, 방중 등 실사구시적인 국익외교해야 한다. 곧 새정부 출범된다. 하루 속히 정세균 의장과 함께 국민적 여론 수렴해서 정권 인수 준비해야 한다.<br/><br/><br/><br/>이재명 = 국가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 생명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괴로워한다. 안보 위협에 경제도 어려워졌다. 트럼프와 담판 지을수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입장이 오락가락하거나 따를수밖에 없다는 지도자로는 안된다. 구한말 상황이다. 경제가 어렵다. 이유는 기득권자가 불공정하게 다수 노력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대기업 증세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해서 일자리 질 높이고 늘려야 한다. 복지 확대로 구매력 늘려야 경제가 산다. 이 사실 다 알고 있다. 이제 기회가 왔다. 용기를 가지고 공정한 나라 만들 사람, 평생을 싸워왔던 이재명이 제 나라로 만들겠다.<br/><br/><br/><br/>■오후 2시13분 : 주도권 토론<br/><br/>사회자=반드시 검증해야 할 상대후보 정책이나 후보 관련 사안 짚어보는 순서다. 각 후보에 10분씩 시간 드린다. 상대후보를 지목해서 정책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상호토론 하면 된다. 나머지 세 명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면 된다. 상대에 충분한 발언시간. 발언찬스를 주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 찬스 필요하면 푯말을 들어달라.<br/><br/><br/><br/>(이재명 주도권 토론)<br/><br/><br/><br/>이재명 = 오늘은 최성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다. 최성 후보는 국가안보 문제 남북문제 관심 많으시다. 저는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사드는 설치 후에도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첫째, 이해당사자 현상동결. 사드배치 중단, 보복 중단, 전술핵 재배치 중단, 최고위급 국제협상 조속히 하는 것 등이다. 포괄적 합의 패키지딜을 하자고 했다. 한꺼번에 완결 처리하자는 것이다. 최성 후보의 외교안보에 관심이 많다. 의견을 부탁한다.최성 = 오늘 당황스럽군요. 이재명 후보가 저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현안만이 아니라 정책 현안에 대해 상당히 꼼꼼한 의견을 내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최고위급 협상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른 건 사드 문제 초반 반대하고 (이재명 : “짧게 좀 해달라”) 네네. 미국이 이미 한·미 간 관련된 시설까지 배치한 마당에서 사드를 나는 끝까지 반대하겠다 할 경우 한·미 동맹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국내정치와 다르게 좀더 신중하게 사드는 북핵 문제와 포괄적 타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br/><br/><br/><br/>이재명 = 저와 비슷하시다. 미세한 차이는 줄여가겠다.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 국가지도자는 신념과 철학이 뚜렷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다. 지도자 안정성이라는 것은 덩치 크기나 주변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도자 본인의 신념과 철학,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재명이 뭘 하려는지 국민들이 쉽게 안다. 문재인 후보는 세력이 많고 대통령으로서 준비돼 있는 거 같은데 뭘 하려는지는 불분명하다. 중대 사안에 대해 지도자가 말을, 태도를 바꾸는 건 심각한 문제다. 탄핵과정에서 첫 날과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쳐서 실제로 그렇게 됐다. 정치생명을 걸고 주장했다. 시대정신이고 민심이니까. 문 후보는 거국중립, 박근혜 2선 후퇴, 명예퇴진, 그러다가 탄핵을 찬성했다. 탄핵 기각 혁명 밖에 없다 말하다가 승복한다고 말하고, 중대사안에서 지도자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생각이 바뀐건가, 표현이 바뀐 건가?<br/><br/><br/><br/>문재인 = 이재명 후보가 탄핵을 선명하게 한 입장은 높이 평가한다. 저도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민심과 함께 �다고 자부한다.<br/><br/><br/><br/>이재명 = 입장이 바뀐건가.<br/><br/><br/><br/>문재인 = 정치가 흐르는 거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촛불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촛불민심 따라가는 게 정치가 할 도리다.<br/><br/><br/><br/>이재명 =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 힘들 때 국민들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사드도 입장이 네 번 바뀌셨다. 미세하긴 합니다만 사드 문제는 한반도 중대 문제다. 후보 본인의 의견을 아직 안냈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본인이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바람직하냐 아니냐다. 짧은 답을 해달라.<br/><br/><br/><br/>문재인 = 우선 촛불집회가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어서 했다면 순수성 자발성 훼손했을 거다. 사드배치 문제는 말한 대로 잘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박아버리면 저는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길을 스스로 닫는 거라 본다. 이쪽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옳다.<br/><br/><br/><br/>이재명 = 알겠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다. 야권 연합정권이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해야 한다, 야권 연합정권은 시대적 과제다. 문 후보는 당 대표를 하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했고 그분들과 감정적 관계도 안좋다. 최근에 반개혁 세력이 아니라 야권통합이나 연합정권이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거와 반대로 캠프에는 재벌에 우호적 기득권자들이 있다. ‘친박뉴스’ ‘악성노조’ 발언하는 분들도 있고,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방해한 사람도 있다. 기득권자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후보께서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하겠다고 해서 (입장이) 분명한데 문 후보는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뿌리는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게 아닌가.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되거나 걱정할 수 있다. 어디로 갈 지 모르잖은가. 최근 김광두·김상조 등 상반된 인사들을 동시에 영입했다. 뭘 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br/><br/><br/><br/>문재인 = 소연정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말했다. 지금 같은 야권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아직 소연정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소연정 될 것이다. 캠프 구성은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은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돕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br/><br/><br/><br/>이재명 = 전에 이렇게 표현했다. ‘재벌들이 최순실에 뜯겼다’. 토론회에서 했다. 이재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구속됐다. 뇌을물 준 것을 뜯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재벌들 입장에 서 계신 거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증세하겠다’ ‘각종 복지정책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하필이면 시민들 세금부터 올리는가. 재벌 비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의문이다.<br/><br/><br/><br/>문재인 = 이게 뭐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우리 당 당론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법인세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법인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증세를 하는 순서가 있다. 우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고액 상속 증여세를 늘리고 또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마지막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도 부족할 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법인세 증세로 가야 한다. 잠시만요, 제가 찬스 쓸 수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br/><br/><br/><br/>이재명 = 적폐세력과 손잡는 것은 정치인끼리 이합집산이다. 대야합 아닌가. 국민들에 대한 대배신이다.<br/><br/><br/><br/>안희정 = (연정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과제에 합의해야 가능하다.<br/><br/><br/><br/>문재인(찬스 1분 발언) =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오늘 토론회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자리에서도 비판을 하는데요. (인재)영입에 대해. 우리가 세력을 함께 하더라도 도덕성과 개혁성이 겸비된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사과 사퇴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위공직자를 뽑는 게 아니다. 정권교체에 뜻을 함께한 분들이 정권교체를 돕기 위해 오고 있다. 우리가 환영할 일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때가 되면 저야말로 역대 청와대에서 검증이 깐깐한 민정수석 출신이다. 고위공직 검증 염려하지 말라.<br/><br/><br/><br/>(문재인 주도권 토론)<br/><br/><br/><br/>문재인 = 안희정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요즘 정책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어서 정책 토론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어제 그제인가 안 후보가 국민안식년제 제안했다. 안 후보 발표한 게 10년 근속하면 1년 유급안식하는 제도인데, 우리 사회 과로사회 막고 노동시간 단축 늘리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현실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게 우선은 600만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630만 비정규직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상적 직장 다니는 사람도 평균근속이 5년이다. 10년 근속하는 사람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이런 분들만 안식년 혜택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점 검토했나. 안희정 =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했다. 결론은 이번 선거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현재 일하는 방식과 우리사회 노동조건은 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도 알겠지만 주 5일제 할 때도 그 질문 나왔다. 주 5일 근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됐다. 국민안식제는 이번 해보자. <br/><br/><br/><br/>문재인 = 꼼꼼히 더 살펴보시길 바란다. 또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 문제다. 대학생들 경감은 역시 공감하는데. 그것도 걱정되는 게 실제로 학생들은 사립대 학생이 80%에 달한다. 등록금도 사립이 더 비싸다. 또한 사교육 잘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가고, 부잣집 출신이 국공립대 가고, 가난한 아이들이 되레 사립대 가는 경향이 있다. 국공립대·사립대 가리지 않고 함께 감면해주는 반값 등록금이 맞지 않나.<br/><br/><br/><br/>안희정 = 그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 동력 만들고. 대학의 연구와 순수학문을 책임지고 국가가 운영하자는 것이다. 대학생 일반에 대해선 3조9000억원을 증액시켜...(잘 안들림) 높은 등록금 부담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잘 안들림) 이 정책은 카이스트 급으로 지방 국공립대를 육성해 대학, 지역 발전 기초 만들자는 것이다.<br/><br/><br/><br/>문재인 = 이재명에게 질문하겠다. 법인세 인상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30%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우리 법인세 22%는 OECD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꺼번에 올리면 기업이 어떻게 감담할까.<br/><br/><br/><br/>이재명 = 모든 기업 증세가 아니다. 10대 재벌 실효세율이 12%이고 OECD는 평균실효세율 22%다. 500억 이상이 되는 대규모 법인만 평균실효세율 비슷하게 (잘 안들림)<br/><br/><br/><br/>문재인 = 우리당 당론이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율을 25% 매기는 것이다. <br/><br/><br/><br/>이재명 = 우리당 당론은 너무 과소하다. 경제력 집중이 심해서 (잘 안들림)?개 기업에서 15조원 마련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문후보가 말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10조 조달할 수 있지 않나.<br/><br/><br/><br/>문재인 = 기업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br/><br/><br/><br/>이재명 = 그게 저와 생각이 다른데. 500억 이상 증세한다고 기업 안 망한다. 법인세는 독일 30%, 미국 35%이다. 30% 올려도 일부 기업 타격 받지 않는다. <br/><br/><br/><br/>문재인 = 같은 맥락인데 재벌개혁에 공감하는데. 이 후보는 재벌 해체를 말한다. 우리 생태계 공정하게 만들고,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자는 것인데 해체라고 하면 그런 역할 못한다. <br/><br/><br/><br/>이재명 = 재벌의 황제경영 폐지. 재벌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용 구속하니 삼성 주가 올랐다. 저는 재벌 해체 주장한 일이 없다. <br/><br/><br/><br/>문재인 = 최성에게 질문하겠다. 아직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아서 빨리 정책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고. 우선 제 정책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있는데, 치매라는 게 지금 10명 중 1명 치매다. 풍비박산 난다.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국 곳곳에 치매병원 설립 공약했다. 거기에 대해 최성 후보 생각은?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하고 싶은가<br/><br/><br/><br/>최성 = 제 아버지 재작년 돌아가실 때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다. 가족이 고통스러웠다. 문 후보가 말한 치매 문제를 포함해 5대 암, 여러가지 정신과적 치료 요구되는 우울증, 비만은 10대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에서만 하게 되면 지방 특성에 맞지 않아서 자치분권을 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는 지자체장이 사회복지사들과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치매 포함한 국가 질병에 대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건 피부에 와닿는다.<br/><br/><br/><br/>사회자 = 이재명 1분 찬스썼다. 이재명 발언하시라. <br/><br/><br/><br/>이재명 = 문재인과 토론하다 보면 재벌에 편향돼 계신가 걱정되서 안타깝다. 지금 우선 다른 세금 증세하고 나중에 법인세 말하는데. 고소득자 아무리 증세해도 10억 이상 10% 해도 2조 좀 넘는다. 증여상속세도 5조. 저번 토론회 때 15조...(잘 안들림) 국민 부담 늘려 재벌 부담 크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힘센 쪽 억압하고 약한 자 보호하는 정책 만들어달라 부탁드린다.<br/><br/><br/><br/>(안희정 주도권)<br/><br/><br/><br/>안희정 = 세 후보에 공통질문 드리겠다. 잘 들어달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의회와 (문재인: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하하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각 후보와 정당의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공통분모를 잡아서 협상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세 후보님은 저를 그렇게 미운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냐 공격하기 바쁘시다. 그래서 저는 좀 서운하다. 누차 무수히 제가 토론 때마다 넓은 합의를 얻어서 하는 연정모델을 얘기했는데 저를 몰아붙인다. 부당한 공격이다. 최성 후보부터 답해달라.최성 = 안희정 후보 제가 칭찬드리지만 사려깊고 신중한데, 저는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에 안계셔봐서 그런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개혁 의지를 믿을 사람이 없다. 탄핵 반대, 헌재결정 반대, 개혁입법 반대, 노무현·김대중을 친북좌파로 몰고. 안희정 후보까지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개혁 과제 합의하면 할게요’ 하는 건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수표 계산이 있지 않나 다른 분들이 의심한다.<br/><br/><br/><br/>이재명 = 저는 이번 탄핵도 사실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한 거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개혁해야지 반대세력과 손잡고 하는 것은 정치권 야합이다. 야합 합리화하는 단어가 대연정 아닌가 생각한다.<br/><br/><br/><br/>문재인 = 국정운영을 하면서 다른 정당, 야당까지도 함께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방향은 그때 그때 정치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소연정부터 얘기하면, 안 후보 말씀대로 대연정이 필요한 시기가 올 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시기에 시기상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다.<br/><br/><br/><br/>안희정 =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다. 누가 되든 의회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집권당이 된다면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탄핵이 가결됐던 230석 압도적 의석을 모아본 바 있다. 탄핵 반대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 국민들의 힘을 다음번 국가개혁과제에 모아보자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께 여쭙는다. 통합의 리더십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예로서 그동안 대표로 계시던 과정에 많은 정치인이 나가거나 최근 김종인 전 대표까지 나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쭸더니 ‘그 분이 개혁에 반대했다’고 얘기했다. 어떤 개혁에 반대했다고 생각하나.<br/><br/><br/><br/>문재인 = 우선은 그 과정은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잘 아실 것이다. 그분들을 다 포용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도 작용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당 혁신과정에서 나가신 것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일부가 나갔지만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들어오고 10만이 넘는 권리당원이 들어오면서 크게 보면 성공한 혁신과정이다.<br/><br/><br/><br/>안희정 =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br/><br/><br/><br/>문재인 = 우선은 혁신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청산하려는 과거 관행, 공천도 밀실에서 몫을 나누는 방식의 그런 식의 정치문화,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에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br/><br/><br/><br/>안희정 = 열린우리당 때 당원중심이냐 공천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정도의 혁신안으로 부딪친 것도 아니었다고 안다. 문 후보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br/><br/><br/><br/>문재인 = 통합과 혁신 원칙이라는 게 다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최고이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들 정치인 자신의 목적이 있다. 이합집산 속에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br/><br/><br/><br/>안희정 = 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에도 손을 내미셨다.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반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br/><br/><br/><br/>문재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연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br/><br/>안희정 = 내 편이 되면 이쁘게 봐준다? 문 후보 주변에 그 기준이 혁신세력이라고 할 수 있나. 나랑 함께하면 이쁘고 나와 반대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 철학과 리더십으로는, 저는 그점을 지적하는 것이다.<br/><br/><br/><br/>문재인 = 말하자면 제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안 후보는 정치경력은 저보다 훨씬 오래이지 않은가. 2002년 노무현 당의 후보가 된 이후에도 당 후보 교체 움직임부터 우리 당의 파란만장한 움직임을 많이 지켜봤을텐데. 그렇게 됐다가도 다시 대의 앞에 힘을 모으고 한 게 우리 야당의 역사죠. 개혁에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br/><br/><br/><br/>안희정 = 이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잘 이끌 지도자가 돼야 하지 않은가.<br/><br/><br/><br/>최성(찬스 1분 발언) = 국민 당원 가족 여러분. 세차례 TV 토론과정에서 제가 여러가지 검증하니까 3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실검(실시간검색어) 1위라는 영광을 줬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청렴해야 된다’ ‘본선에 올라가면 무지막지한 박근혜 적폐세력과의 싸움’ ‘어떠한 경우도 본선 경쟁력 위해 노력해달라’는 응원의 소리에 감사드리고 이후 질문도 애정 속에 나온 질문이지 동지에 대한 비수가 아니라는 점 알아달라.<br/><br/><br/><br/>(최성 주도권 토론)<br/><br/><br/><br/>최성 =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있는데,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도 대선후보에 나오기 전에 크고 작은 선거 8번을 치뤘는데 제 고향인 광주에 나가지 않고 연고도 없는 고양시에 나갈 때 승리했는데 한 번 졌다. 대세론으로 나갈 때였다. 대세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기론이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는) 측근들이 잇딴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 청렴성·개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권교체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중요한 호남 민심도 호남 홀대론, 친문패권주의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들을 자세히 보면 응답률이 5%다. 95%는 침묵하면서 민주당에 있는 어떤 후보가 청렴하면서 민주개혁정신을 반영할 거냐, 앞으로 미래비전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본다. 가장 준비된 후보라 말하는데 청렴성과 측근 관리, 호남민심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말해달라.문재인 = 대세론은 저 개인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대세다. 거기서 우리가 자만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노력해야 한다. 광주·호남 민심에 대해서 그 점을 열심히 다가가는 거 외에 무슨 방도가 있겠나. 우선은 정말 다음 정부 최대 과제가 적폐청산 개혁인데 그렇다면 부정부패 척결하고 정경유착 청산해야 해. 그럴려면 정말로 도덕적 흠결 없는 검증이 끝난 그런 후보여야 해. 자부한다.<br/><br/><br/><br/>최성 = 제 고향이 광주고, 형님도 광주에서 정치하고 계셔거 자주 내려간다. 광주와 호남 민심은 우리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나 지난 대선 때에도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후보가 광주·호남을 위해 뭘 해줬는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문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가 존재한다.<br/><br/><br/><br/>문재인 = 광주·호남이 그 동안 여러차례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저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다.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았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이 저에게 정권교체의 기대를 걸어줘 정말 감사하다. 호남 민심을 잘 받들겠다.<br/><br/><br/><br/>최성 = 전남·북 TV토론에 더 집중적으로 여쭙겠다. 안희정 후보께 질문하겠다. 지난 토론회 때도 최종 판결문을 포함한 범죄경력서를 공개하자고 국민 앞에 합의했다. 지난 번 질문했을 때 안 후보가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범죄경력만 나와 있지 이 부분에 대해 최종 판결문은 안나와 있다. 그런데 판결문이 언론에 나왔고 인터넷상에 다 있다. 안 후보는 억울하겠지만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 워딩은 ‘그건 아니다’ ‘같은 금고에서 나왔지 그건 좀 억울하다’ ‘당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판결문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 경선을 피한다고 해서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온다. 조속히 공개할 의향 있나.<br/><br/><br/><br/>안희정 = 안고 가야할 정치적 흠결이다. 흠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흠이 있다. 2004년 재판 받을 때 저의 잘못이 있다 무겁게 처벌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판결문을 다시 꺼내서 저를 막 타박을 하시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미 판결문을 통해서 벌을 받지 않았나. 집을 팔아서 추징금 다 내지 않았나. 당의 우리 존경하는 동지가 저한테 그 주지의 사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무라시고 공격을 하시니 가슴이 아프다.<br/><br/><br/><br/>최성 = 동지나 가족을 많이 말하시는데 맞죠. 우린 동지고 가족인데 우리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제대로 된 민심 받들어야 한다. 최종적인 우리의 동지는 국민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분이신데, 유력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음 질문이다. 계속 오늘 대연정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억울해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를 내세우는 우리 안 후보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협상도 이미 한 거니까 따라주자? 심지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령이 별 차이없다고 하셨다. 이번에 토론하면서 원문을 봤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의 적자를 내세우는 안 후보가 대부분 공약이 자유한국당 공약과 비슷하지, 우리 민주당 정체성과 이런 부분은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 속시원히 설명해봐라.<br/><br/><br/><br/>안희정 = 제가 낸 어제 정책 공약 자료 보셨나.<br/><br/><br/><br/>최성 = 아직 못봤다.<br/><br/><br/><br/>안희정 = 어제 것을 확인하고 말해달라. 제가 최 후보 지적을 받는 대목은 기존의 경쟁식이다. 내 편이면 무조건 이쁘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밉고 하는 정쟁 태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민주당 기본적 가치와 연대를 지켜왔다. 김대중 평화 한반도 다자안보체제 노무현 생산적 복지 동반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 왔다.<br/><br/><br/><br/>최성 = 제가 김대중 계승 위원장 입장에서 DJ 핵심적 가치를 찾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가치엔 오히려 위반됐다.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드리�募�. 이재명 후보께 질문하겠다. 지난번에 자신의 전과와 청렴성에 관련해 언급히셨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재명과 유사하게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표절 의혹도 있고 논란이 있는데 그 분이 감사원장 또는 총리 인준절차에 있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분을 감사원장 총리로 임명하겠나?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과사실이 있더라도 공직에 걸맞지 않더라도 인준을 거부하�冒�?<br/><br/><br/><br/>이재명 = 논문 표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왜 무시하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나.<br/><br/><br/><br/>최성 = 나중에 상세한 것은….<br/><br/><br/><br/>이재명 = 그런 기본적 예의를 갖춰달라. 변희재 것만 보고 가천대에서 나온 것은 보지 않는가.<br/><br/><br/><br/>최성 = 보고 하는 거다<br/><br/><br/><br/>이재명 = 모두들 노무현 적자, 김대중 적자라는데 나는 국민의 적자다. 음주운전 하면 쓰겠냐 안 쓰겠냐, 민간인의 수십년 전 일과 공직자로서 한 일 구분해야 한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나. 십수년 전에.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확인하시고 하면 좋겠다.<br/><br/><br/><br/>안희정(찬스 1분 발언) = 제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식물국회’ ‘식물정부’ ‘정치인들이 맨날 싸움만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정치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명심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도 없다. 정치투쟁은 지지자의 선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 대연정도 국가개혁과제 놓고 의회와 협치수준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만들어내겠다.<br/><br/><br/><br/>■오후 3시 : 나만의 ‘강점’ <br/><br/><br/><br/>사회자 = 지금부터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1분 30초인데 지체돼서 1분만 하자. 나만의 장점은? <br/><br/><br/><br/>최성 = 저 최성은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청와대, 의원, 시장, 교수 역임. 두번이나 김대중, 노무현 인수위 참여했다. 풍부한 국정경험 있고. 둘째로 북핵 외교, 외환위기 극복 중심적 역할 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풀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 자치분권, 지방이 살아야 한다. 시민이 주인돼야한다. 고양시는 부채 제로 도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잘 안들림) 무엇보다 청렴하다. 지금 위기 극복할 능력 최성에게 있다. <br/><br/><br/><br/>이재명 =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다른 사람과 달리 어머니와 손잡고 공장 출근했다. 산재 장애인이고 변호사도 됐고 우리 사회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 공정한 사회 위해 평생 살았다. 성남시장 성과 인정해 지금 이 자리있다. 한계 뛰어넘은 사람. 비난받던 성남을 칭찬받던 성남으로 바꿨다. 새 대한민국. 기득권자 횡포 억제하고 강대국 횡포 맞설 사람 이재명. 개혁 대통령 이재명 되겠다.<br/><br/><br/><br/>문재인 = 저는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맞겠다.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옮기겠다.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집무실 옮기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대통령 되겠다. 때로는 광주 무등산, 대구 팔공산, 부산 금정산에서 시민과 함께 산행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불통 시대 끝나고 국민과 친구 되는 대통령 되겠다. <br/><br/><br/><br/>안희정 = 우리 충청도에서 자기 자랑하고 하면 잘 못해요. 제 입으로 지 자랑 어케 한대요. 저도 조금 자기 강점을 말씀하라시니...말씀드리겠다. 우리 희정이라고 어르신이...제가 처음 충남지사할 때 ‘386 좌파’ 와서 시끄럽겠다고 하셨다. 도정도 의회가 새누리당이 많았다. 지금도 30대 10이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지방정부 높은 공약 이행률과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 받는 도지사됐다. 저 이렇게 대한민국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 진영 뛰어넘으면 새 정치 가능하다.<br/><br/><br/><br/>■오후 3시 5분 : 상대 후보 칭찬 릴레이 <br/><br/><br/><br/>안희정 = 최성 후보 고맙다. 지나보면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저는 저말 기억하기 싫었지만 전과기록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반성하게 해주셨다. 고맙다. 이재명 후보 탄핵정국에서 고생하셨다. 소년공 출신 그 대목 코끝 찡하다. 우리당 동지인 게 자랑스럽다. 문재인 후보 간혹 날선 비판하더라도 같이 따듯하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 문재인 후보 깎아내리려는 거 아니다. 우리 당 넓은 집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따뜻하게 웃어줘서. 우리 당 큰 형님이다.<br/><br/><br/><br/>최성 = 세 분께 별명 지어주겠다. 안희정은 안대범으로. 상당히 아픈 검증 질문했는데 통 크게 받아들여 안대범 후보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혁명. 촛불명예혁명의 계승 위해 혁신 넘어서 혁명의 의지로 가는 이혁명. 마음에 드십니까? 문재인은 문형님하려는데 촌스러워서 문성님 후보로 했다. 우리 세 분의 별명 들어드리면 안대범, 이혁명, 문성님. 그리고 저 최성은 최생수 이번에 정권교체 이룩하겠다. <br/><br/><br/><br/>이재명 = 우리 민주당 후보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다. 개별적으로 굳이 짚자면 문재인 후보야 황희정승 아니겠나. 선비 포용 있고 모두가 끌어안을 훌륭한 분이다. 닮고 싶다. 내가 너무 날카로워서... 안희정은 명확한 입장과 철학 가졌다. 나와 방향 다르지만 존경스럽다. 비난받아도 쭉 한길로. 저는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최성은 고양에서 압도적 지지 받고있고 동료여서 반갑다. 축하드리고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힘 합쳐서 정권교체, 더 나은 정권교체 했으면 좋겠다.<br/><br/><br/><br/>문재인 = 최성 후보 말대로 세 분 모두 우리 민주당 든든한 자산이다. 함께 힘 모아 정권교체 하고 국정운영에도 힘 모으겠다. 이재명은 선명한 입장 주장으로 우리 당 지지기반을 왼쪽으로 넓혀줬다. 안희정은 우리 지지기반을 오른쪽으로 많이 넓혀줬다. 대연정 주장의 비판도 받고 있지만 소신 당당히 주장하고 평가받는 모습. 최성 후보는 남북평화통일 전문가다. 시장으로 훌륭하게 시정했다. 대북정책면에서는 저하고 기조 같이 하고 있어서 반갑고 고맙다.<br/><br/><br/><br/>■오후 3시 10분 : 마무리발언 <br/><br/><br/><br/>문재인 =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한 팀이다. 우리당 대선 주자들 지지도 합계가 60%가 넘는다. 함께 하면 반드시 정권교체 해낼 수 있다. 국민통합 우리부터 하나가 되겠다. 시대교체 정치교체 적폐청산 다 중요한데 정권교체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 성공할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덕성 흠결 없고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 우리 후보들 모두 훌륭하지만 준비기간 짧아서 충분히 검증되거나 충분히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검증이 끝났고 잘 준비돼 있다. 국민여러분 저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br/><br/><br/><br/>안희정 = 촛불광장에 국민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라 만들라고 명령한다. 정치가 이 명령에 부응해야 한다. 정치는 현재 각각 속해 있는 낡은 보수 진보 진영논리에 갇혀서 대화와 타협 새로운 정치 못 만들고 있다. 아무도 넘으려 하지 않았던 경계. 내밀려 하지 않았던 손. 국가개혁 미래 향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누구에게도 손 내밀겠다. 새로운 나라 만들자. 새로운 정치 합시다. 동서냉전 무너지면서 제3의길 뉴민주당플랜 했던 일. (잘 안들림) 새로운 정치 판 바꿔야 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 달라. 응원해달라.<br/><br/><br/><br/>최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다. 지난 세 차례 토론회에서 정말 ‘듣보잡’ 후보 꼴찌 후보 잘 알지도 못하는 후보에 대해 인터넷 실검 종합 1위 영광줬다. 대세론 인지도 지지도 중요치 않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인지도가 낮았나? 지지도가 낮았나? 북핵위기 사드위기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탄핵 이후 청렴한 대통령 뽑아달라.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청렴했고 성과냈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경험 있는 최성 기억해 달라.<br/><br/><br/><br/>이재명 =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공정한 새나라를 원하고 계시다. 공정한 새나라 만들겠다는 약속 모두가 한다. 약속 아무나 하지만 실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아무런 세력도 유산도 없었지만 혼자 힘으로 성남을 전국 모범도시로 만들었다. 그 때문에 불러줘서 이 자리에 왔다. 세력 없는게 걱정되나.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치세력 대표할 사람 뽑는 것이다. 세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 맡겨달라. 민주당 후보로서 강대국 횡포 막고 한반도 안정 평화 만들어내고 재벌 기득권자로부터 여러분들의 권리 지켜주겠다. 새로운 나라 이재명이 하겠다. 개혁대통령 이재명이다.<br/><br/><이재덕·박홍두·김지환·박송이·정환보 기자 duk@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8.txt

제목: 중부권 대학병원에도 인공지능 의사 ‘왓슨’ 첫 도입…건양대병원 다음달부터 암환자 진료 활용  
날짜: 20170316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6104918001  
ID: 01100101.201703161049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부권 대학병원에도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왓슨’이 처음 도입된다.<br/><br/>대전 건양대병원은 중부권 최초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br/><br/>왓슨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방대한 의학 논문과 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해 치료법을 제시하는 첨단 정밀의료시스템이다. 국내 병원에서 왓슨을 도입하는 것은 가천대 길병원과 부산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건양대병원은 이날 IBM과 ‘왓슨 기반 인공지능 사업 협력 계약’을 한 SK(주) C&C와 왓슨 도입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며, 다음달부터 왓슨을 암 환자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다.<br/><br/>왓슨은 의사가 입력한 암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수십 초 안에 2∼3가지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적의 치료법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 비추천 치료법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한 치료법 제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br/>건양대병원은 “<span class='quot0'>왓슨은 미국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와 MD앤더슨 암센터 등에서 의사들과 함께 암 환자를 진료하며 실제 의사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에 대해 90% 이상 일치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건양대병원은 다음달 초부터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각각의 환자에게 맞는 진단과 치료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와 병행해 암 환자 치료에 왓슨을 활용하고, 암 치료 전문 의료진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br/><br/>최원준 건양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왓슨을 도입하면 지역 환자들이 진단을 위해 수도권 병원 등 여러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원의 우수한 암 협진팀과 인공지능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89.txt

제목: 불길 속 이웃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 ‘LG 의인상’  
날짜: 20170315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5205701002  
ID: 01100101.20170315205701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ㆍ외국인으로는 첫 수상<br/><br/><br/>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 니말(39)이 외국인으로는 처음 ‘LG 의인상’을 받았다. 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니말에게 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br/><br/>니말은 고국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사고 당일 인근 농장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집 안에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얼굴과 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br/><br/>그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게 고마웠다”며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br/><br/>L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34)·김성수(43) 소방관에게도 LG 의인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두 소방관은 현장에 진입하는 순간 벌어진 천장 틈으로 불길이 치솟아 퇴로가 막히자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으로 가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불길을 막았다.<br/><br/><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0.txt

제목: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회]“문, 리더십 못 보여” “안, 가치 안 보여” 날카로워진 공방  
날짜: 20170314  
기자: 정환보·박송이 기자 botox@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4224249001  
ID: 01100101.20170314224249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ㆍ탄핵 불복에 문재인·이재명 ‘적폐청산’…안희정 “<span class='quot1'>승복해야</span>” <br/>ㆍ김종인 탈당도 설전…“왜 안 잡았냐” “날 따르라 방식 안돼”<br/><br/><br/><br/>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지상파 4개사 등 5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한 3차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전 토론회에 비해 날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br/><br/>■ 문·이, 국민 통합 두고 안 협공<br/><br/>국론 분열·갈등의 통합 방안이 첫 공통 질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불복성 메시지를 계기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안 지사의 ‘대연정’을 협공하는 모습이었다.<br/><br/>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국민을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전자는 박 전 대통령을, 후자는 안 지사를 겨냥한 셈이다. 이어 “어떤 국민이나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국민 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지, 고통스러워도 암과 동거는 못한다”면서 “범죄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청산이고 통합”이라고 말했다.<br/><br/>이에 안 지사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 명령이니 <span class='quot1'>승복해야</span> 한다”며 선제적으로 공세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연정이 국민 통합과 개혁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br/><br/>3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청산 대 통합’ 논쟁이 물고 물리면서 경쟁자의 프레임을 흡수하려는 모습도 엿보였다. 안 지사는 토론 초반부에 “<span class='quot1'>적폐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span>”고 말했는데, 이는 문 전 대표·이 시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이 시장의 발언도 지난 12일 문 전 대표가 한 말이었다.<br/><br/><br/><br/>■ 날카로워진 창·단단해진 방패<br/><br/>토론을 거듭할수록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다.<br/><br/>안 지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span class='quot1'>당내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끄느냐</span>”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최근 탈당을 언급하며 “<span class='quot2'>(문 전 대표는) 직접 찾아가 만류하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박 전 대통령의 선거를 이끈 분을 직접 모셔오지 않았나</span>”라고 했다. 대연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br/><br/>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경제민주화만큼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었다</span>”고 반박했다. 오히려 “그건 경제민주화 가치를 위한 것이었지만, 안 지사의 대연정에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역공세를 폈다.<br/><br/>안 지사도 재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대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탈당사를 언급하며 “당의 실제적 리더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도자가 되면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겠나”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당을 떠난 것이고, 우리 당은 정권교체의 주체로 성장했다</span>”고 응수했다.<br/><br/>공격은 특히 문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br/><br/>이 시장은 “<span class='quot3'>청원경찰 사망 논란을 빚은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부산영화제 압력 행사 의혹이 있는 정경진 전 부산시 부시장, ‘친박뉴스’를 한 이모씨</span>” 등 논란이 있는 문 전 대표 캠프 영입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부패 기득권자, 친재벌 딱지 붙이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종북좌파 딱지와 다를 바가 없다</span>”고 반박했다.<br/><br/>문 전 대표도 방패만 들지는 않았다. 그는 안 지사에게 “<span class='quot0'>안 후보 공약은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 등록금인데 정책을 당에 맡기겠다는 주장과 모순 아니냐</span>”고 따졌다. 이 시장에게는 기본소득 공약의 문제점으로 “총 43조원이 든다. 조세부담률을 22% 수준으로 올려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br/><br/><정환보·박송이 기자 botox@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1.txt

제목: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건강보험법 적용…대상 늘 듯  
날짜: 20170314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4220222001  
ID: 01100101.20170314220222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ㆍ경제성 낮은 의료서비스…5년마다 적합성 재평가<br/><br/>정부가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5년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과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정이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br/>선별급여는 환자가 비용의 50% 또는 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br/><br/>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낮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많은 치료 방법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여개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유방재건술, 캡슐내시경 검사,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br/><br/>선별급여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됐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br/><br/>이번 개정령안은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선별급여에 대해선 5년을 주기로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 가능성을 따져보는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한다. <br/><br/>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급여와 비교하면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일단 선별급여로 지정되기만 해도 정부가 수가를 통제할 수 있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4대 중증질환에 집중돼 있던 선별급여 대상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2.txt

제목: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 쓴 작가 결국 사망  
날짜: 20170314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4213630003  
ID: 01100101.20170314213630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ㆍ국내서도 번역서 낸 로즌솔<br/><br/><br/><br/>말기암 환자인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게 될 남편을 위해 ‘공개 구혼’에 나섰던 미국의 작가가 51세의 나이로 결국 숨졌다. AP통신은 시카고 출신 아동도서 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사진)이 난소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13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br/><br/>2015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그는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인 지난 3일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 코너 ‘모던 러브’에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잔잔한 울림을 줬다. 이 글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은 이들 부부의 사연에 감동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r/><br/>그는 이 글에서 느닷없이 닥친 암 선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 이별의 아쉬움 등을 담담히 털어놓으면서 남편의 두 번째 인생 동반자를 찾는다고 썼다. <br/><br/>그는 “내가 바라는 진짜 선물은 좋은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제이슨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br/><br/>출판인인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 터프츠대를 졸업한 그는 작가가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로즌솔은 <유니 더 유니콘> <덕! 래빗!> 등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30권 이상의 동화책을 썼다.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에게> <정리 대장 꿀돼지> 등은 국내에도 번역돼 있다.<br/><br/><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3.txt

제목: [업데이트]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3차 TV토론회  
날짜: 20170314  
기자: 박용필·주영재 기자 phi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4143125001  
ID: 01100101.20170314143125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업데이트]2017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TV토론회<br/><br/>※시간 역순으로 정리<br/><br/><br/><br/>■마무리 발언(15:27~15:35)<br/><br/>이재명= 국민 여러분 공정한 나라를 바라시지요? 공정 나라 만들겠다고 모든 정치인이 노력하지만 말로만 할 뿐 실제 하지 못했다. 저는 평생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다. 아까 최성 후보가 말한 전과들도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아무나 만들 수 없다. 주변에 기득권 세력 많이 모이면 기득권자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과 손 잡으면 결국 그들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나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는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 이재명에게 세력 없어서 걱정한다?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거대한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 된다. 걱정 마시라. 이재명을 믿어달라.<br/><br/><br/><br/>문재인= 우리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하나의 팀입니다. 함께 하면 반드시 정권교체 해낼 수 있다. 우리부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 시작해야 한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저 문재인은 국정경험 가진 유일한 후보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 교훈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당이 있다. 누구와 붙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길 자신이 있다. 더 준비된 후보 문재인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권교체, 적폐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br/><br/><br/><br/>안희정=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정농단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다. 자랑스러운 촛불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다.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의 힘이란 바로 이것이다. 진보보수, 남녀노소, 지역구별 없이 모두 하나였던 촛불광장처럼 대한민국 정치를 힘 모아 새롭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선명한 말 주도하기는 쉬워도 상대에게 서슴없이. (안들림) 강한 진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 내미는 진보다. 9회말 역전홈런, 제가 반드시 치겠다. 대연정, 대개혁 당당히 이뤄내겠다. 감사하다. <br/><br/><br/><br/>최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성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이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정말 추운 겨울날. 우리 고교 수능생들, 유모차 어머님들 오셔서 그 위대한 국민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올립니다.(박수침)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으로 청렴한 대통령 뽑아야 된다.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한다.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투쟁으로 조기대선 치러진다. 남아있는 더민주 경선 과정에서 당장의 인지도나 아마추어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청렴하고 준비돼 있고 검증돼 있고 촛불에서 나온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모든 열정, 경험을 선보이겠다. <br/><br/><br/><br/>■공통질문(15:09~)<br/><br/>사회자= 마지막 두 개의 공통질문은 정책관련 질문이다. 답변시간 1분이다. 안희정 후보가 처음 답변하고 지금부터 남은 두 개 질문.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줄 거다. <br/><br/><br/><br/><질문 1 -올해 대기업 정규직 초임과 중소기업 정규직 초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대책은?><br/><br/><br/><br/>안희정= 박영진씨가 매우 중요한 질문 잘 해줬다. 그 현실에 대해 깊이 저는 공감하고 있다. 같이 많은 걱정한다. 차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기울어져 있다. 대통령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사이의 차별 없애겠다. 중소기업 강하게 키우겠다. 재벌 의존 경제 바뀌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 박영진씨 개그맨 그만두고 중기 취업해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br/><br/><br/><br/>최성= 일자리 양극화 해결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도모해서 정경유착, 재벌구조 해체하고 재벌대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골목상권으로 대기업이 진출하는 걸 금지하겠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개발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고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겠다. 특별히 실업문제 해결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재벌 구조와 정경유착 없애도록 해법을 내고 중소기업과 실업자의 어려움 해결하겠다.<br/><br/><br/><br/>이재명=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재벌 대기업 중심 국가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압박하고 노동자 탄압과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쌓았다.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자리 늘리고 노동조합 보호하고 노동권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늘려가고 임금 수준 올려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말한다. 상향평준화 지향해야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됐다고 하향평준화 지향하면 안 된다.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면 안 된다. 노동자 힘 키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일자리 질 개선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약자를 위한 정부 이재명이 만들어내겠다.<br/><br/><br/><br/>문재인= 개콘에서 시사개그 잘하던 분 같다.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해야 한다. 동일기업 내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애고 남녀 차별 없애고, 범정부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 갑질 근절하겠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대기업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해서 중소기업 임금 올라가도록 하겠다. 공정임금제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br/><br/>■<질문2- 사드 여파 대책은?><br/><br/>문재인= 티비에서 연변 여성 역할 많이 하셨는데 중국에 관심 많은 듯하다.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잘못이다.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설득 노력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중국에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 초래했다. 정부는 당초의 중국 보복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낙관했다. 이제 강도높은 보복 조치 취하고 나선 이상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항의할 건 항의 하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해야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사드 보복 조치로 양국간 우호관계 훼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br/><br/><br/><br/>안희정= 수지씨, 사드 여파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참 너무 걱정됩니다. 요새 장사 안되서 어려워하는 시민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많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 평화가 밥이고 안보가 경제라는 사실 새삼 절감한다. 제가 대통령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 동원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중국 현지 교민들 어려움 해결 위해 뛰겠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위기. 현명한 외교 균형잡힌 외교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 전하겠다. <br/><br/>최성= 사드는 안보 경제와 직결된다.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 평양 먼저 미국 먼저 이렇게 한가롭게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황교안은 사드로 인해서 중국 등 피해 대책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절차 밟아야 한다. 정세균 의장과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방미, 방중 파견해서 북핵문제 사드문제 한미동맹 문제 풀기 위해 포괄적 일괄 타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정부, 국회는 뭐하나. 최성은 만약에 대통령 되면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타결 해법으로 북핵 사드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특별법, 사드 이런 문제 무능한 외교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다. <br/><br/><br/><br/>이재명=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안될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보복을, 미국과는 굴욕적 종속관계로 일본 관계도 비정상적 관계로 만드는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사드 때문에 경제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잘못되면 정상으로 가야한다. 힘들다고 포기할 거 아냐. 힘들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 뽑는다. 국가 지도자는 목숨 걸고라도 잘못된 정책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원칙 못지켜 생기는 사드 문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철회하게 해야한다. 일부 설치했다고 해도 집권하면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 국민 겪는 어려움 해소하도록 하겠다. <br/><br/><br/><br/>■주도권 토론 (14:35~)<br/><br/><안희정 주도권 토론> <br/><br/>안희정=저는 여러가지 것보다도 우선 우리 모두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한다, 그리고 저의 의문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김종인 전 대표 탈당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문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했다. 김종인씨를 우리당 대표로 모셔와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했는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 설득은 안 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br/><br/><br/><br/>문재인=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 노력을 하셨단 말씀을 드린다. 제가 김종인 대표님 모셔올 때는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제민주화 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셨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그렇게 할 수는 /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당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br/><br/><br/><br/>안희정=저는 그것을 극복시켜야되는 게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다. 정치 입문 뒤에 지금 현재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났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후보에게 있다고만 돌리진 않겠다. 그러나 당대표와 당에 실질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br/><br/><br/><br/>문재인=당내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당은 혁신을 해 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당이 이제는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않았냐. <br/><br/><br/><br/>안희정=그렇게 문후보님의 공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된다. 또 하시겠다고 소연정까지 하시겠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나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지난번 박근혜 선거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땋게보면 제가 대연정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로서 이해 안간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내 통합문제도 효과적으로 못했는데 대민 지도자 되면 대민 분열과 갈등 어케 통합 리더십으로 이끌겠나. <br/><br/><br/><br/>문재인=김종인 모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지금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돼야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공감이 안간다.<br/><br/><br/><br/>안희정=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선 제 소신만 말하겠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 링컨 없는 오늘날 미국 상상 못한다. 만델라 없는 남아공 상상못해. 우리는 정파의 지지의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 통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이정미 판결문 읽어보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저는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 마친다. 최성 후보님. 자치분권 얘기 전적 공감한다. 조금 더 설명해달라 <br/><br/><br/><br/>최성=인구 100만에 대도시 시장이면서 동시에 제 고향은 광주다 보니 광주와 호남권, 농촌지역, 지방의 상황을 잘 안다. 약 1200만명에 해당되는 대도시 시장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경험 공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왕적 통제의 폐단이 낳은 원인 중 하나는 지자치 정부가 이뤄지지 않있기 때문이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분들 박원순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정부 꾸렸다면 농단 있었겠냐. 하루속히 야 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3당 공동 개혁정부를 꾸려서 대선 전에 대선이 된 이후엔 우리끼리만 하지말고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교육 적폐청산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해주신 안 후보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br/><br/><br/><br/>안희정-=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올린다. 이재명 후보님. 저의 애정어린 질문이라고 좀 후보님 봐주십시오.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 화끈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큰 지도자가 되시려 한다면 좀 더 모든 국민을 안아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두번째로는 선거 통해서 의회 구성됐다면 그 의회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화는 해야 되는거 아닐까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의회 상대로 대통령 된다면 그 의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 노력해야되는거 아닐까. 이재명 후보님 좀 더 품 넓고 따듯한 지도자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br/><br/><br/><br/>이재명=저는 이웃집과는 잘 지낸다. 그런데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하죠. 도둑도 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지배자 기득권자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다. 그러나 피해입는 사람들 다수 약자는 어떻게 하나. 저는 이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야말로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포용 협치해야 하고 당연히 대화한다. 제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해서는 안될 이웃집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다. <br/><br/><br/><br/>안희정=지도자는 도둑맞아도 우리 국민입니다.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는 따뜻한 진보의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br/><br/><br/><br/><문재인 주도권 토론><br/><br/>문재인= 최성 후보, 원래 하려는 질문은 아닌데 먼저 짧게 입장을…<br/><br/><br/><br/>최성= 지난번에도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문 후보와 제가 특수관계라 하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토론을 진행해 달라.<br/><br/><br/><br/>문재인= 저는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이다. 청년 실업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81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보장이 핵심인 듯하다. 일정한 연령대 2800만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원, 장애인과 농어민 포함해 28조원이 소요된다. 전국민 연간 30만원씩 토지배당 15조원으로 합쳐서 43조원이다. 이는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다. 조세부담률이 19%가 조금 안 된다. 이것을 22% 수준으로 3% 올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 재원 대책은?<br/><br/><br/><br/>이재명= 우선 제가 여쭤봤던 아동수단과 기초연금 올리는 문 후보 공약을 제가 계산하니 10조원 든다.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아동·학생들, 노인, 장애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형태나 기초연금 형태나 별 차이 없다. 재원 말씀은,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이다. 이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원이다. 이것도 그야말로 토목, 자원외교 이런 데 쓸 거냐 선택 가능하다. 7% 정도의 부담이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국토 보유세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라서 새로운 부담 아니다.<br/><br/><br/><br/>문재인= 재원 대책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 강조했다. 지금 법인세 최고 22%다. 이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공약했는데 한꺼번에 급격하게 8%나 법인세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가?<br/><br/><br/><br/>이재명= 우선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중에 기본 예산을 조정하는 거라 증세와 관련 없다. 근데 다른 복지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필요한데 모든 기업 대상이 아니라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440개 기업만 대상이다. 기업들에게 뭘 뺐는 게 아니라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한 걸 해소해서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만들어 내야 한다. <br/><br/><br/><br/>문재인= 저도 이재명 후보처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하는 부분은 재원상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재원 있으면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이 경제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씀드린다. <br/><br/><br/><br/>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 질문 먼저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정당정치 강조하는데 대연정은 더민주의 당론이 아니다. 대다수 더민주 의원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정치 주장은 독단적인 것 아닌가?<br/><br/><br/><br/>안희정= 저는 그리 생각 안한다.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연정이 정당이 중심이 돼서 의회와 정책 공약 놓고 논의한다. 국민 70% 이상이 소연정, 대연정이든 마찬가지로 70% 이상 연정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민 동의가 있고 정당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br/><br/><br/><br/>문재인= 정당정치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정당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했다. 엊그제 나온 공약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료다. 근데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총선 공약은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반값등록금하겠다는 거다.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 정치 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는데 모순 아닌가?<br/><br/><br/><br/>안희정= 정책연구원과 제가 가진 소신과 제가 대통령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당에 제안했다. 후보 되면 동의받는 과정이고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br/><br/><br/><br/>문재인=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인프라 구축 주장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건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관치경제식이라고 비판한다. 이건 김대중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해서 지금도 인터넷 강국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25위로 떨어졌지만.<br/><br/><br/><br/>최성= 4차 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역점둬야 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지난번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접수 서류 안 받아. 청렴하고 미래 비전위한 검증된 토론회 됐으면 좋겠다. 토론회에서 지지도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은 바꿔야 한다. 이런 불공정한 토록 속에서 공정한 언론, 대한민국 위해 노력할 수 있겠나?<br/><br/><br/><br/><이재명 주도권 토론><br/><br/>이재명=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대리할 사람의 자질 능력이다. 자질 능력 있는지 여부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정이다. 정당정치 민주주의 꽃이다. 근본적 질문해보려 한다. 세 분 후보 있는데 실제로 사전에 정해진 질문 참모들 써준 거 읽는 게 국민들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진정한 내심 뜻을 무제한적 토론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가지면 좋겠다. 문 후보 내일 광주 1000인 토론 예정이다. 문재인 불참으로 결국 잘 안될 뻔하다가 안희정이 안 하는 걸로 결정해 결국 무산됐다. 문 후보는 전에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광주 토론회에서 사실 불참했다. 그래서 무산됐는데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무제한 2~3시간 정도. 주제제한 없이 자유토론할 생각 없는지 문 후보님 생각 듣고 싶다.<br/><br/><br/><br/>문재인=토론 피할 생각 없습니다만 스케줄 일방적 강요할 수 없다. 토론일정 당과 협의해 만들어내는 게 좋다. 그게 아니더라도 방송사라든지 각 노동단체 등 여러 곳 초청 기회 있다.<br/><br/><br/><br/>이재명=안희정은 왜 취소했나? 앞으로 참여할 건가?<br/><br/><br/><br/>안희정=언제든 참여하겠다. 참모진은 문 후보 불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불참 입장 결정하게됐다는 이야기 들었다.<br/><br/><br/><br/>이재명=안 후보께서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br/><br/><br/><br/>안희정=적절한 때에 자유주제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만들자는 것에 동의한다.<br/><br/><br/><br/>최성=적극적 찬성한다. 광주행 기차 끊어놓고. 두 분 거부 아쉽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끝장토론 환영한다.<br/><br/><br/><br/>이재명=국민여러분. 이미 국민여러분꼐서 정권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했다. 어떤 정권교체냐 어떤 사람이냐 국민들 삶바뀌냐 세상 바뀌느냐 후보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야 하니 기회 만들어달라. 특히 문 후보 적극적으로. 문재인에게 질문.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 설치할 것이다. 정권 인수준비위를 당이 할수 있게.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 섀우캐비넷 차기 정부 안정적 준비하려고 한다. 후보 개인 본선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 후보 뽑는데. 후보가 독자적 캐비넷 만들면 당 역할 없다.<br/><br/><br/><br/>문재인=일부 참고할 내용도 있고 100% 다 맞는 말씀인 거 같진 않고 그렇다. 앞으로 저도 정당 책임정치 강조했다.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도 당과 긴밀하게 추천받고 협의한다. 그런 수준 아닐까 싶다.<br/><br/><br/><br/>이재명=문 후보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환영 비슷하게 왜 종북몰이 하느냐 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 당황했다. 국익 반하면 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해야 하는 거 아닌가?<br/><br/><br/><br/>문재인=노할 수 있어야 하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던 이야기인데 책에 밝힌 내용이다. 책과 인터뷰 합쳐서 적은 것이다. 원래 인터뷰 내용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하(?) 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노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느냐.<br/><br/><br/><br/>이재명=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입장인가?<br/><br/><br/><br/>문재인=우리도 할 말 해야 하는 것이다.<br/><br/><br/><br/>이재명=간디가 국가 마(?)치는 악덕 철학없는 정치. 세력 키우기 위해 온갖 기득권자 불러모으면 기득권자 위한 정치한다는 것 박근혜 보며 경험했다. 지도자의 신념 원칙인데 문 후보 주변에 기득권자도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 모인다.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는 걸로 논쟁 진익철 서초구청장. 정경진 세월호 부산영화제 압력. 친박뉴스하시던 이모씨. 악덕노조..이런 분들 그만 받고 청산하고 내보내면 안되나. 결국 그 분들이 문 주변에서 권력행사하고 기득권자 중심의 정부 되지 않게 말이다.<br/><br/><br/><br/>문재인=절반 맞고 절반 아니다. 우선 개혁적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 중심 좋은 말이다. 사람을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좌파 이런 딱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 확장하고 포용해야지 않겠나.<br/><br/><br/><br/>이재명=입장 이해될 바도 있다. 안 후보 대연정 설명할 기회 주겠다. 지금이 70년 누적된 적폐 청산하고 공정 나라 만들 결정적 기회다. 통합된 나라 희망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다.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만든 구태 적폐세력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한다는 거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 든다. 야권연합정권 만들어서 정의당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연합정당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 과제 버리고 왜 청산대상의 상대하고 손 잡아야 하는가?<br/><br/><br/><br/>안희정=이해 안갈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입법 밀어낼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다수파 형성해서 그 의회다수파와 다음 정부 이끌어보자는 제안이다.<br/><br/><br/><br/>이재명=좋은 말이다. 원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 기회 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br/><br/><br/><br/>정관용=이재명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다. 최성 후보가 어필. 토론회 문제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모든 후보에게 이미 질문했다 언급했다.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에게 별도 질문해야 한다든지 어떤 질문 원칙은 없다. 현재 규칙 이재명이 어기지 않았다.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 어기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자리에서 직권에게 최성후보에게 질문하라는 건 논란 소지 있다. <br/><br/><br/><br/>최성=저에게 잠깐 발언 기회 주는 게 합의했던. 여의치 않을 때 사회자 직권으로 어떤가? <br/><br/><br/><br/>정관용=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한 거다. 답변하셨죠. 광주 토론회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토론하겠다. <br/><br/><br/><br/>최성=대화하는 가운데 발언권 안 줄 거 같아서. 양해하겠다.<br/><br/><br/><br/>정관용=이재명 새로운 방법 도입했다는 것. <br/><br/><br/><br/>이재명=최성후보 양해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 난 질문했다.<br/><br/><br/><br/><최성 주도권 토론> <br/><br/>최성= 안 후보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동지로서 가슴아프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고 삼성 등 정경유착 문제에서 청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지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선 과정서 검증 안 하면 무지막지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본선검증할거다. 우병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삼성 비자금 수사하고 안대희 중수부장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청렴성 도덕성 이런 부분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사감있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자는 취지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두 후보의 경선 때 철저히 박근혜의 최태민 목사의 문제가 검증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불행은 없었을 거란 점이니까 제 충심 이해해달라. 그래서 2차 토론회 때 저는 제 개인의 범죄수사경력증명서, 재산신고서 등등을 공개를 했던 거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떻든 오마이뉴스에 나와있는 검증팀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내역을 검증을 하면서 (안들림)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인터뷰에서는 개인 유용 없었다, 당에 희생됐다고 하는데 어떤게 사실이냐? <br/><br/><br/><br/>안희정= 유감스럽단 말 올린거는 깊은 (?) 동지라고 유감이라고 했던 말이 실례가 됐었나봅니다. <br/><br/><br/><br/>최성= 인적 유용이 있었냐 여부는 대선 치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거죠. <br/><br/><br/><br/>안희정= 제가 50억여원의 대선자금 전체가 제가 어떤 유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말을 드렸다. 제가 2003년도, 저희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변제변통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다 이미.<br/><br/><br/><br/>최성= 최종판결문을 보고 한 내용은 보셨냐. <br/><br/><br/><br/>안희정= 못 봤습니다.<br/><br/><br/><br/>최성= 어케 그걸 못 봤냐. 그렇다면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건 최종판결문 보고 쓴 내용이다. 그럼 최종판결문 공개하자고 해서 공개했는데 당과 국민 앞에. <br/><br/><br/><br/>안희정= 최종판결문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2010, 2014년에도 다 공개 돼 있던 사실입니다. 이번 기사의 앞뒤 맥락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의 적절하거나 객관적 사실 어긋나는 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 팀에서 저희와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br/><br/><br/><br/>최성= 개인 유용이라는 거지 몇주된 기사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냐?<br/><br/><br/><br/>안희정= 일시 유용이 있었단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br/><br/><br/><br/>최성= 안희정은 대선 이후도 박연차로부터 4억 받았다고 나오는데 반기문도 박연차로부터 불법 자금수수 의혹이 나올 때 우리 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여의도 정당판 이합집산에 주판알 튕기는 기회주의적인 정치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럼 우리 안희정이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그리고 본인은 실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수까지 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과연 촛불민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개혁적인 후보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br/><br/><br/><br/>안희정= 저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와 그 수사로 인한 저의 처벌은 대선자금에 대한 대표적 처벌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인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천도 못 받았다. 그러나 전대 통해서 그리고 2010, 2014년 도지사 선거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도지사로서 공적인 삶을 선택을 받았다. 그런 과정이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적으로 사면받고 복권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br/><br/><br/><br/>최성= 주도시간 짧아서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최종 판결문 통해서 계속되는 그런 오해들이 종결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님. 페북 글 말씀 잘 들었다. 이재명 시장 있는 성남시는 작년 초에 음주운전 1번만 하더라도 5대 비위행위로 발표하면서 승진제외 보직박탈하겠다고 했다. 공직사회는 음주운전만 해도 작은 범법행위만 해도 공천 탈락한다. 장관 청문회는 표절만 나와도 인준 거부되는데 음주운전 포함해서 전과 또 논문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히 이야기하는거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탄핵에게는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 내가 한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br/><br/><br/><br/>이재명= 한 번 말씀드린거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거다. 논문 표절은 야간특수대학원에 논란되는 것조차도 싫어서 반납했다. 그런데 대학에서 괜찮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대학서 발표한 그 보도자료 봐 주심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마저. 제가 변명을 좀 더 할게요. <br/><br/><br/><br/>최성= 문재인 후보께 개헌 관련 말하겠다. 문재인 후보의 개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개헌의지 있느냐는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이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지도다. 간단히 말을 올리면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광주전남북에 있는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거라는거다. 다른 충청·영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해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해서 지방대, 지방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해야된다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문 후보의 강력 의지 피력해 달라. <br/><br/><br/><br/>문재인= 대한민국을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내용이다.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 했었다. 그리고 이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했다. <br/><br/><br/><br/>최성=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 <br/><br/><br/><br/>■검증토론 (14:14~)<br/><br/><안희정 검증><br/><br/>최성= 오마이뉴스에 대선 주자 검증 기사 보면 최종 판결문 근거로 안희정은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에서 52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인아파트 구입,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원. 지금까지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br/><br/>안희정 = 네. 같은 당 동지에게 그런 방식으로 질문 받을 줄은 몰랐다.(표정 굉장히 굳음) 일부 자금에 있어서 유용사실 사과 했다. 대선 이후에 지역구 활동 위해 개인 정치자금은 대선자금과 별개이고 사과드렸고 책임졌다. <br/><br/><br/><br/>이재명 =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초가 되는 단계 IMF 권장사항이다. 국민들에게 국토보유세 15조원 걷어서 되돌려주는 정책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은 여전히 복지는 공짜나 낭비, 이런 쪽인지 ?<br/><br/>안희정= 복지 정책에 대해 공짜밥이라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들어가는 43조원이면 우리가 시급하게 써야 할 사회복지영역이 있다. 장애인 급여율, 노인빈곤, 4대 보험에 대한 급여율의 향상, 보육문제에 돈을 사회복지적 재정에 써야 한다는 주장한 거지. 복지정책 간과 아니다.<br/><br/><br/><br/>문재인 =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공약에 구체적 내용 안보인다. 정책 공약을 캠프가 아니라 당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가치와 철학 후보 공감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 봐야 가치와 철학 실현 가능한지 알 수 있다.<br/><br/>안희정= 저는 우선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철학과 소신 말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민 어떻게 단결할지, 분열 어떻게 극복할지 소신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분야별로 구체적 공약 제시하고 있다. 그 공약이 선심 시혜성 공약으로 다가가는 것은 소신과 철학으로 말씀 올린다는 정치적 소신이다. <br/><br/><br/><br/><최성 검증><br/><br/>이재명= 기본소득 43조원을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써야 하고 자영업자 매출 늘어나고, 격차 해소되고 그게 경제성장 도움된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복지지출에 대한 의견이 있다. 고양시에도 이런 거 있나? <br/><br/>최성= 기본 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후보 공약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산 투입해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 기억부채, 국가부채 수주를 보면 1인당 1억이 넘는 위기. 기본수당 청년수당도 좋지만 어떻게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 재벌 아들에게도 100만원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근본문제 푸는 게 좋다.<br/><br/><br/><br/>문재인= 다음 정부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만들기는 중앙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이다. 지역이 독자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잖은가.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할 생각인가?<br/><br/>최성 = 가장 중요한 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 자체 분권 이룩하는 것이다. 지방의 기업, 대학, 경제는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에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방 수장들이 지역의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 만들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청년, 어르신 일자리도 중앙집권적 형태가 아니라 자치 정부의 획기적 방향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br/><br/><br/><br/>안희정= 다음 정부에서 연정해야 하나 했을 때 국민 70% 이상이 연정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된 정치세력, 의회 협치 타협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디제이피 연합했다.<br/><br/>최성 = 안 후보는 연정으로 몰아가는데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 다른 정당과 협치는 좋지만 대연정은 연립정부 구성. 특히나 지금까지 박근혜 농단 세력의 핵심은 한국당과 연립정부 구성한다, 이것 일제 독립운동한 다음에 친일파들, 독재 청산 이후에 독재세력과 적폐가 청산하지 않은 가운데 연정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반대한다. 민주개혁진영과 보수 일반 국민들과 대연정하는 것은 언제든 찬성한다.<br/><br/><br/><br/><이재명 검증><br/><br/>문재인= 사이다 발언이 유명하다. 반대로 안정감 없고 사회적 분열 갈등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많이 있다. 한 쪽에 치우쳐 있다. 집권하면 사회적 갈등 치유하고 국민통합 이뤄내서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는 의무 짊어지게 된다. 갈등 치유, 국민 통합,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br/><br/><br/><br/>이재명= 통합이란 봉합 아니다. 안정감, 철학 가치 일관성 온다. 태도와 말 바꾸기, 가치 바꾸는 거 그 자체가 불안정이다. 나는 한 번도 내 입장, 원칙, 가치 바꾼 적 없다. 부패 기득권 세력 청산하면 공정한 기회 누리는 정상적 사회, 상식적 사회로 안정되고 통합된다. 후보의 안정성 말한다면 중대한 국가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시시때때 다른 게 문제다.<br/><br/><br/><br/>안희정= 여기 모든 후보가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강조한다. 이재명에게 여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많은 개혁입법 국회통과 못했다. 우리 중 누가 대통령 되도 이 의회에서 우리는 개혁입법 통과해야 적폐청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회 개혁입법 통과에 대한 복안은?<br/><br/>이재명= 적폐세력들과 손잡고 적폐청산할 제도 만들어내겠다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우리 사회 이 부패와 기득권 세력 청산 과제를 부패와 기득권 이용하는 적폐세력과 손잡고 청산한다? 최선 다하되 그 적폐 세력과 손 잡아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손을 잡고 정면돌파해야 한다. 야권연합정권이 그래서 중요하다. 적폐청산세력과 손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권연합정권 만들어내면 개혁동력 만들어낼 수 있다.<br/><br/><br/><br/>최성= 박통 탄핵 이후 차기 청렴성 중요하다. 이재명 자신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 아니라 4범이다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 공개한다. 특별한 이유 있나?<br/><br/>이재명= 젊은 시절 음주운전 제 잘못이다. 사과한다. 충분히 제재 받았고 뉘우친다. 나머지 두 개 전과는 변호사, 시민운동할 때 부정부패 청산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다. 검사 사칭한 방송국 피디에게 검사 이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 썼다.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안들림) 설립 조례가 날치기 현장 공동대표여서 책임졌다. 제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부패척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징표다. <br/><br/><br/><br/><문재인 검증><br/><br/>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국가대개혁 적폐청산의 수단으로 제가 주장한 대연정이 아닌 소연정 말했다. 보수정당과 손을 잡고 연정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남는데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와 손 안 잡는데 적폐청산 개혁입법에 어떤 복안 있나?<br/><br/><br/><br/>문재인=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국민들 힘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야만 개혁과 적폐청산 가능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저는 야당들도 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는 야당들끼리만 함께 힘을 모아서 다수 의석 될 수 있다<br/><br/><br/><br/>최성= 문재인 전인범 영입했다. 5·18 발포 명령자 전두환 생각 않는다 발언 파문으로 사퇴했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측근들의 잇따른 말실수 이어졌다. 준비된 대통령 표방하는 문재인의 측근 관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있나?<br/><br/><br/><br/>문재인= 전인범 발언 잘못 지적했다. 본인도 사과했다. 저 자신이 5·18로 구속된 사람이라 말 드린다. 5·18정신 누구보다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 없다. 약점 있다. 저 자신도 약점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장점 살리면 우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고 국정 제대로 발전시켜나갈 인재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br/><br/><br/><br/>이재명= 문 후보께서 복지확대 위해 애쓰고 증세하겠다 했는데 동감한다. 우리 문 후보는 아동수당 첫째 10만원 둘째, 셋째 (안들림) 기초연금 10만원 올려드리고 대상자 확대한다는 정책 발표했다. 이 정책에 드는 재원 얼마인가? 또 한가지 왜 법인세가 마지막 증세인지 제일 먼저 아냐?<br/><br/><br/><br/>문재인= 이재명은 일정한 연령대 모든 국민 2800만명에세 1인당 100만원, 전국민 어린아이까지 30만원, 총 44조원 쓰겠다고 했다. 저는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지급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게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나가는 것이다. 청년들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다. <br/><br/><br/><br/>이재명= 결국 답 못들었다.<br/><br/><br/><br/>사회자= 이따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질문. <br/><br/><br/><br/>■공통질문2-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14:10 ~14:14)<br/><br/><br/><br/>정관용=여론조사 통해서 4가지 키워드 꼽아봤다. 4개 키워드 중에 내가 이거 잘 하겠다는 안된다. 하나만 꼽으면 뭘 꼽겠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문재인은 공정청렴 소통통합 안보 경제 중에서 뭘 뽑겠느냐. <br/><br/><br/><br/>문재인=저는 경제. 경제와 민생 해결할 수 있는 더 준비된 후보가.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가져가고 하위 90%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서민은 살기 힘들다고 경제도 더이상 성장 않게 됐다. 민생 살려서 내수 살려야만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다 그럴라면 우리 경제를 더 공정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근본은 역시 일자리. 저는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br/><br/><br/><br/>안희정=저는 소통과 통합 선택. 저는 소통과 통합을 가장 잘 할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진보보수의 대립, 뺄셈의 정치를 극복하자. 낡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국민 단결시키자. 저는 충남 도정에서 여소야대 극복, 이미 통합의 정치를 성공시켰다.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도정 지지율 전국 1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가장 높은 호감도, 안정감 얻고 있다. 저 안희정,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5000만의 통 되겠다. <br/><br/><br/><br/>최성=안보. 안보문제는 국가 위기관리 경험있는 전문가 해결. 초보운전자 인기성 발언만을 남발하는 아마추어는 큰일인단. 외교안보는 국내정치와 다르다. 저는 대학서 가르쳤고 청와대에서 책임져. 고양시에서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안보는 국민 생명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킨 최성이 대한민국 안보 토대 위에서 평화정책 일괄 타결하겠다. <br/><br/><br/><br/>이재명=저는 경제. 우리나라 격차가 그냐아말로 나라발전 가로막고 국민들에게 기회 뺏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저는 이 불평등 해소 경제 새로 살아나는 길로 기본소득제 도입하려고 한다. 국가 예산 400조. 대통령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42조원. 이 중에 28조원으로 우리나라 2800만명, 65세이 이상 노인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되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 그럼 동네 경제 살아나고 경제 마중물. 공정한 세상이 공정한 경제를 만든다. <br/><br/><br/><br/>■공통질문1-국론 분열 해결 방안은? (14:06 ~14:10)<br/><br/><br/><br/>정관용 = 첫번째 공통질문. 박근혜 탄핵 인용됐으나 여전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돼. 이와 같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은?<br/><br/><br/><br/>안희정=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헌재 결정이 곧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승복하라. 저는 국민통합 이루기 위해 대연정 주장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나. 적폐 청산하고 국가 개혁 완수해야 한다. 개혁 하려면 강력한 수단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 처리할 때마다 촛불 들어달라고 할 수 없음. 대연정만이 국가 개혁의 유리한 수단이다.<br/><br/><br/><br/>최성= 첫째 대통령부터 정치인부터 국민통합 위해 모범 보여야 한다. 정치권이 대선 후보가 분열 조장하는 데 어떤 국민이 따라오나. 둘째 대통합 없이 국가 발전 없다. 당장의 대권욕 때문에 원칙없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립 정부를 추진하는 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반대한다. 야 3당과 공동개혁정부 구성해서 개혁적 통합을 추진하겠다. 청와대 있을 때다 국회 있을 때나 재선 고양시장으로 있는 동안 항상 보수와 함께 초당적 행보해 온 최성이 대통합의 시대 일궈내겠다.<br/><br/><br/><br/>이재명= 통합과 봉합은 다릅니다. 국가는 통합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통합이라는 게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통합되는것.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도둑들을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지금 도둑대 두목 한명이 잡힌 것이 불과하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한다. 고통스러워도 암과 동거 못한다. 통합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 용서해왔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통합을 가로 막았다. 청산이 곧 통합입니다.<br/><br/><br/><br/>문재인= 저는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게 통합이라 생각 안한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는 나라. 어떤 국민은 혜택받고 어떤 국민은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잘 나가고 어떤 지역은 차별받은 일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 통합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 없고, 중소기업 대기업 차별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고, 남녀 차별 없는 게 국민 통합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할 때 국민통합 이뤄질 것이다. <br/><br/><br/><br/>■내가 왜 후보가 돼야 하나 (14:00 ~14:06)<br/><br/><br/><br/>정관용=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대선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달 채 남지 않았다. 오늘 원내 1당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더민주 후보 4명 모시고 토론회. 90분 동안 토론회 지켜보시고 누가 가장 후보로 적합한지 판단에 도움되길 바란다<br/><br/><br/><br/>최성=최성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등 재벌과의 불법적인 정경유책 때문이다. 또 측근 비리 등 대통령의 청렴성 문제다. 새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받지 않은 청렴한 대통령. 범법자 대통령 안된다. 위기의 대한민국호 구할 수 있는 풍부한 국정 경험 있어야 한다. 저 청렴하고 풍부한 경험, 최성이. 최성 기억해 주십시오. <br/><br/><br/><br/>이재명= 국민 여러분 찬 겨울에 대통령 탄핵 위해 애썼다. 국민이 이겼다. 정치인이 탄핵한 게 아니라 국민이 했다. 여러분 진정 무얼 원하나. 권력자 교체, 대통령 교체 원하시나. 아니다, 삶이 바뀌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원한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평등한 공정한 나라.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 위해 애써왔다. 저 이재명을 기대해 주십시오. <br/><br/><br/><br/>문재인=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직은 절반에 승리이다. 촛불민심은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더불어사는 따뜻한 공동체,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겠나. 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 저 문재인이 자랑스런 국민들과 만들어 나가겠다. 저 문재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br/><br/><br/><br/>안희정 = 광화문 광장에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란 시가 걸려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가야한다. 국론분열과 대립으로는 정권교체도 시대교체도 이룰 수 없다. 탄핵 위해 달려온 100일 만큼, 새로운 세대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길에 안희정이 앞장 서겠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br/><br/><박용필·주영재·정희완·김한솔·박송이 기자 phil@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4.txt

제목: 한국인 위암 예방수칙 나왔다···“가공·훈제식 줄이고 싱겁게”  
날짜: 20170313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3105042001  
ID: 01100101.20170313105042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한국 전체 암 발병률 2위인 위암을 줄이기 위한 ‘한국인 맞춤형 위암 예방 건강수칙’이 제정됐다. <br/><br/>최대한 싱겁게 먹고, 가공·훈제식품·불에 태운 고기·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br/><br/>대한암예방학회(회장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Cancer Prevention Day)을 맞아 한국인 위암 예방 건강수칙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br/><br/>암 예방의 날은 암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함께 예방·치료·관리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원으로 국제암예방연합(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이 제정했다. 대한암예방학회는 국내 식품영양학과·예방의학과·약학과·소화기내과·외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암예방 전문 학술단체로, 지난해부터 이날에 맞춰 암 예방수칙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장암 예방수칙을 내놨다.<br/><br/>이번에 만든 위암 예방수칙은 위암 발생과 관련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인 특유의 생활패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회는 국내에 유독 위암 환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암 수술 후 식사수칙’도 별도로 마련했다.<br/><br/>성미경 회장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남자 1위, 여자 4위를 차지하는 위암은 평소 식습관과 관련이 커 이를 예방하려면 유발 요인과 예방수칙을 미리 알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약 1년간에 걸쳐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물인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도 좋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학회는 17일 오후 2시 연세대 세브란스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위암 예방과 위암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br/><br/><br/><br/>◇한국인 위암 예방 건강수칙<br/><br/>① 싱겁게 먹어라.<br/><br/>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 음식 조리 시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를 보고 나트륨 함량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선택한다.<br/><br/><br/><br/>② 가공식품과 훈제식품 섭취를 줄인다.<br/><br/>건조, 훈제, 염장 식품, 방부제 사용 식품에 함유된 아질산염 및 질산염은 장기간 섭취 시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 <br/><br/><br/><br/>③ 불에 태운 고기 섭취를 줄인다.<br/><br/>숯불구이나 바비큐처럼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이러한 물질의 섭취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br/><br/><br/><br/>④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br/><br/>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백합과 채소(파, 마늘, 양파 등)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다.<br/><br/><br/><br/>⑤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br/><br/>하루 3잔(알코올 45g) 이상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위 점막에 손상을 주고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br/><br/><br/><br/>⑥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br/><br/>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자는 습관은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포만감, 더부룩함 등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br/><br/><br/><br/>⑦ 개인 접시를 사용한다.<br/><br/>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약 2.8∼6배 증가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타액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접시 사용을 권장한다.<br/><br/><br/><br/>◇ 위암 수술 환자를 위한 식사 수칙<br/><br/><br/><br/>위암은 수술 후 적응 정도에 따라 식사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br/><br/><br/><br/> ▲ 수술 1개월 이후<br/><br/>·고춧가루, 후추, 겨자 등을 첨가한 매운 음식의 섭취는 피한다.<br/><br/>·찌개, 젓갈, 장아찌 등 염장음식의 섭취를 주의한다.<br/><br/>·덤핑증후군(위암수술 후 급격한 혈당변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탕, 꿀 등 단순당을 함유한 음식을 제한한다.<br/><br/>·섬유소가 많거나 질긴 음식(잡곡, 억센 채소류) 혹은 말린 음식(오징어, 멸치 등)은 피한다.<br/><br/>·식사량을 천천히 늘리며 부족 시 영양보충 음료를 권장한다.<br/><br/> <br/><br/>▲ 수술 3개월 이후<br/><br/>·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제한한다.<br/><br/>·아주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한다.<br/><br/>·술, 커피, 홍차 등의 음료는 계속 제한한다.<br/><br/>·건강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량을 보충해주며 부족 시 영양보충음료를 권장한다.<br/><br/>·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균형 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한다. <br/><br/><br/><br/>▲ 수술 6개월∼1년<br/><br/>·적응 정도에 따라 잡곡 등의 섭취가 가능하다.<br/><br/>·아주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의 섭취는 피한다.<br/><br/>·술, 커피, 홍차 등의 음료는 계속 제한한다.<br/><br/>·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습관을 유지한다.<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5.txt

제목: [민주당 경선 후보 탐구](1)문재인 - 강직한 원칙주의자…융통성 아쉬워…지지층 두껍지만 ‘확장성’은 숙제로  
날짜: 20170312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2221615001  
ID: 01100101.20170312221615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ㆍ사시 면접 때도 소신 답변 청와대 재직하던 당시엔 동창·친척 모임 안 나가 국정 경험 ‘준비된 후보’ 참여정부 민정수석 때 현안 매끄럽게 못 풀어 함께한 정치 파트너들 매번 앙금 못 풀고 결별 원인엔 ‘패권주의’ 지적<br/><br/><br/><br/> ■문재인<br/><br/>1952년 경남 거제 출생 /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사시 합격 / 1982년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시작 / 1987년 부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95년 법무법인 부산 설립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 선거대책본부장 / 2003·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 /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2010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 2012년 19대 국회의원,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7년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br/><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4)는 정직한 이미지와 강력한 지지층이 지지율 원천이다. 하지만 정치인의 장점은 단점이 되기도 한다. 강직한 성품은 원칙주의와 리더십 문제로도 연결된다. 야권 성향의 확고한 지지층 못지 않게 비토층도 분명해 중도·보수 확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도 있다.<br/><br/>■ 원칙주의자의 명과 암 <br/><br/>문 전 대표는 원칙주의자다. 인생철학이 “어려울 땐, 무조건 원칙적으로”다. <br/><br/>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선인 시절 서울 사직동 한 한정식 집에서 문 전 대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제안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한 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원리·원칙을 지키는 일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span>”라고 말하며 노 전 대통령 제안을 수용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동창회나 친·인척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br/><br/>1980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때 안전기획부 요원은 사전 면접에서 ‘지금도 옛날 데모할 때와 생각이 변함없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최종 합격증을 받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위험한 답변’을 한 셈이다. 원칙을 우선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품이 그의 인생을 인권·노동변호사로 이끌었다. 사사롭지 않다는 이미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br/><br/>하지만 융통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이 ‘정치인 문재인’의 단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현 자유한국당 의원)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당시 “<span class='quot0'>서청원 대표도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과 상관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span>”고 방어했다. <br/><br/>하지만 검찰 칼날이 노 전 대통령을 죄어 오던 때다. 서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변호사로서 원칙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치인 문재인’의 판단을 우선해야 했다는 지적이 컸다. <br/><br/>원칙주의자는 자칫하면 외골수, 고집불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기자들 사이에선 문 전 대표가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1급 공무원을 최근 캠프에서 만났는데 지지자인 줄 알고 악수했다고 한다. <br/><br/><br/><br/>■ 노무현 정부 국정 운영 참여<br/><br/>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 재수생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br/><br/>문 전 대표는 2003년 2월부터 1년,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년4개월 동안 두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하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듣는다. <br/><br/>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세종증권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이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돈을 건넨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 전 대표는 <문재인의 운명>에서 “<span class='quot0'>기업 쪽과 형님(노건평씨)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고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span>”고 해명했다. <br/><br/>노무현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비정규직법,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갈등 현안을 매끄럽게 풀어내는 데 실패했다. 당시 노동계 등에선 “참여정부 인사 중 그래도 문재인이 가장 낫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공과에서 문 전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br/><br/>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해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다. 문 전 대표 등 친노그룹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FTA는 착한 FTA,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한 FTA는 나쁜 FTA’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br/><br/>■ 여진 계속되는 ‘호남’<br/><br/>호남은 문 전 대표에겐 치유해야 할 생채기다. 2006년 ‘부산정권’ 발언은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그해 5월 민정수석을 사임한 문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부산 사람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정권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span>”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후 “<span class='quot0'>부산정권 같은 오해 소지가 많은 말을 내 입으로 한 것이 후회됐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지역감정 피해자인 우리가 영남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span>”이라고 해명했다.<br/><br/>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송금 특검은 호남 홀대론의 시초로 통용된다.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맡았다. 문 전 대표는 <문재인의 운명>에서 “<span class='quot0'>노 전 대통령 결단으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수사해선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검토했다</span>”고 밝혔다. ‘통치행위’라는 점을 내세워 실정법 위반 문제를 돌파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통치행위를 주장하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사전 보고를 받고 묵인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데 김 전 대통령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span>”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span class='quot1'>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새누리당의 요구,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검을 강행했다</span>”고 반박했다.<br/><br/>지난해 4·13 총선 때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호남에선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호남에서 민주당은 패배했다. 이후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았다.<br/><br/>문 전 대표는 최근 호남 홀대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수를 방문해 “참여정부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한꺼번에 호남 인사를 기용하고 호남 KTX 조기 착공, 여수박람회 유치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인사도 확실하게 탕평 위주로 해 전국적인 통합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br/><br/>■ 리더십과 패권주의<br/><br/>문 전 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인으로 홀로서기 한 이후 문 전 대표는 리더십 부재와 패권주의 논란에 시달렸다.<br/><br/>함께했던 정치 파트너들과 앙금을 풀지 못한 채 헤어졌다. 2011년 문 전 대표 등이 주축인 ‘혁신과 통합’을 끌어들여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에 복귀하면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문 전 대표와 단일화한 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한 몸’이 됐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2016년 1월 문 전 대표가 영입한 김종인 전 대표도 1년2개월 만에 당을 떠났다.<br/><br/>이별사는 하나같이 문 전 대표의 ‘패권주의’였다. 문 전 대표를 비판하는 쪽은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동을 ‘친문 패권주의’의 단적인 사례로 꼽는다. 문 전 대표 측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비문 성향 대선주자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린 사건이다. 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정치인이라면 지지자의 어떤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span>”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br/><br/>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당선된 것을 ‘친문패권’과 결부짓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표 측의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지원으로 두 사람이 선출됐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2015년 6월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을 총선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도 패권주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 전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강행은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br/><br/>문 전 대표는 ‘패권주의 논란’을 반대 세력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치부한다. SBS 국민면접에선 “사람을 먼저 내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지난 1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친문패권’ 논란에 대해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문 전 대표에게 ‘패권논란’은 양날의 칼이다. 당 안팎 강력한 지지층의 존재는 ‘대선주자 문재인’의 가장 큰 자산이다. 반면 지지세력의 ‘배타성’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의 거부감을 굳히고 키우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 2월 4주차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 전 대표의 호감도(47%)는 비호감도(46%)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패권주의 논란’은 ‘확장성’ 측면에서 문 전 대표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6.txt

제목: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작가 로버트 제임스 월러 별세  
날짜: 2017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2205325001  
ID: 01100101.2017031220532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중년의 로맨스를 그린 베스트셀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작가 로버트 제임스 월러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레데릭스버그의 자택에서 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br/><br/>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월러는 모교인 노던아이오와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가 아이오와주 매디슨 카운티에서 사진을 찍던 도중에 영감을 얻어 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1992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br/><br/>이 소설은 한적한 삶을 살고 있던 주부 프란체스카 존슨과 촬영차 마을을 찾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렸다. <br/><br/>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3년 이상 자리를 지켰으며, 전 세계 40개 국어로 번역돼 120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br/><br/>이 소설로 무명의 작가였던 월러는 백만장자가 됐으며, 아이오와주의 매디슨 카운티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br/><br/>또 이 소설은 1995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극장 수입이 1억8000만달러를 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br/><br/>2014년에는 뮤지컬로도 제작돼 같은 해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상에서 최우수 작곡상과 편곡상을 받았다.

언론사: 경향신문-2-397.txt

제목: 초기치료 중요한 대장암...옻나무제제 ‘한방 면역항암제’ 각광  
날짜: 2017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10174019001  
ID: 01100101.2017031017401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암 발병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편이다. 특히 대장암 발병률은 유독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질병으로 발전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 184개국 중 3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이처럼 한국인들의 대장암 발병 증가 이유는 식습관 변화 탓이 크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붉은색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회식 등의 여파로 술 소비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소 대장암 예방을 위해 3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 등으로 장 건강을 챙겨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br/> <br/>한편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뚜렷한 초기증상이 없는 탓에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br/> <br/>실제 건강심사평가원 통계 결과, 조직 검사 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전체 수술 환자의 36.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대장암은 초기 발견이 힘들고 재발률과 전이 위험성이 커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암의 재발, 전이에 대비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 <br/>대장암은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른 편이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 치료이며,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전이 재발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br/> <br/>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기력과 면역력이 모두 저하된다.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치료는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환자 본인에게도 고통스런 과정이 될 수 있다.<br/> <br/>최근 한방암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대장암의 높은 재발률 때문이다. 대장암은 수술 후에도 20~50%의 확률로 재발률이 높은 질병이다.<br/> <br/>특히 대장암은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국소 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이 발생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이때 받게 되는 항암치료 역시 큰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 1차 암치료 시 사용됐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재발암 치료과정에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br/> <br/>강남푸른숲한의원(구 하나통합한의원) 이준엽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치료의 고통과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한방암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 <br/>현재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는 항암치료로 면역체계가 무너진 환자에게 한방 면역항암제를 함께 병행한 이중병행암치료를 진행하고 있다.<br/> <br/>이중병행암치료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주고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법으로 암환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한방암치료제를 통한 암세포 사멸 효과는 국제 유명저널 SCI급 논문에 등재되어 효과가 입증된 적도 있다.<br/> <br/>대표적인 한방암치료제로는 강남푸른숲한의원에서 자체개발한 옻나무제제II(티버스터)가 있다. 이 치료제는 옻나무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천연 한방면역항암제로 자체 조사한 분석 결과, 현대의학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처방 시 30%에 그치던 항암유효반응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주며, 신생혈관 생성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br/> <br/>이준엽 원장은 "<span class='quot0'>이중병행암치료는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대장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의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 <br/>한편 강남푸른숲한의원은 지난 23년간 암 치료에 매진한 하나통합한의원이 상호를 변경한 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청평에 입원 집중치료를 진행하는 자매병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중 제3병원 가평푸른숲요양병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언론사: 경향신문-2-398.txt

제목: 폐암 등 ‘직업성 암’ 발병 1년 새 40% ↑  
날짜: 20170309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9215758002  
ID: 01100101.2017030921575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ㆍ노동부 작년 산재 발생현황…건설업 사망자 가장 많아<br/><br/>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중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폐암, 백혈병 등 ‘직업성 암’으로 나타났다.<br/><br/>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9만656명이며 이 중 사고 재해자를 제외한 질병 재해자 수는 7876명이었다.<br/><br/>질병 종류별로 보면, 직업성 암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총 137명으로 2015년의 98명보다 39.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직업성 암은 작업 현장에서 석면, 벤젠, 방사선 따위의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폐암, 백혈병 등을 이른다.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2015년 56명에서 지난해 74명으로 32.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br/><br/>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한 질병은 2737명인 ‘허리 통증’이었고 ‘신체 부담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20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 사망자는 폐에 분진이 쌓여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진폐증’이 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심질환이 3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br/><br/>이번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재해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 사망자는 1777명으로 여전히 많았다. 사망자는 건설업(554명·31.2%)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 재해 가운데 81.8%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399.txt

제목: 5060 은퇴자 노후, ‘성인자녀·질병’이 위협  
날짜: 20170309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9214125001  
ID: 01100101.20170309214125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ㆍ창업 실패·황혼이혼 등 경제적 타격…5대 리스크 직면 <br/>ㆍ금융사기는 6.2% 당해…평균 피해액은 1억1845만원<br/><br/><br/>50~60대 은퇴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결혼·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성인자녀와 중대 질병 등이 꼽혔다. 창업 실패와 황혼이혼은 경제적 타격이 큰 리스크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9일 발간한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50~60대 은퇴자들이 성인자녀, 금융사기, 중대 질병, 창업 실패, 황혼이혼 등 5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지난해 11월 50~60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2%가 5대 은퇴리스크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은퇴자들이 입은 손실은 평균 8701만원에 달했으며 이후 생활비를 31.2%나 줄였다.<br/><br/>은퇴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리스크는 성인자녀였다. 은퇴자 2명 중 1명(55.5%)은 학업을 마친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중 51.8%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및 취업,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1억2852만원이나 됐다.<br/><br/>중대 질병의 발생빈도도 높았다. 은퇴자 4명 가운데 1명(23.7%)은 이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암·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대 질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자산 손실은 평균 2340만원이었다. 창업 실패는 경제적 손실이 큰 리스크였다. 은퇴자 10명 중 3명(28.8%)은 은퇴 이후 창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들 중 2명꼴로 휴·폐업했다. 이에 따른 자산 손실은 평균 7023만원에 달했다. 은퇴자들은 이후 생활비를 평균 41.3%나 줄였다.<br/><br/>금융사기를 당한 은퇴자들도 있었다. 100명 중 6명(6.2%)이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됐던 경우도 19%나 됐다. 평균 피해액은 1억1845만원으로, 피해자들은 금융사기 이후 생활비를 평균 27.8% 줄였다. 황혼이혼도 발생빈도는 낮지만 경제적 타격이 컸다. 50세 이후 은퇴한 100명 중 3명(2.9%)은 이혼했으며 배우자와 결별하며 분할한 자산은 평균 9444만원이었다. 이들은 생활비(부부가 아닌 본인 1인 생활비 기준)를 이혼 전보다 46.2%나 줄였다.<br/><br/>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황혼이혼과 금융사기 리스크는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하고, 무리한 창업보다는 소규모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의 보장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중대 질병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거자녀의 생활비 분담 및 결혼자금 계획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경향신문-2-400.txt

제목: 서강대 공학부, 나노부터 로봇까지 첨단연구 성과 화제  
날짜: 2017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70309164205001  
ID: 01100101.201703091642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강대학교(총장 박종구) 공학부의 연구 성과들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화제다.<br/><br/>지난해 12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 연구팀은 인체에 투입돼 암 등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소재 ‘무독성 나노인공세포’에서 독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공정과정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br/><br/>주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나노 물질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복잡한 과정과 비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br/><br/>강 교수 연구팀은 기존 보다 10배 이상 전달력이 강하고, 100배 이상 순도를 높인 무독성 나노인공세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질병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게 됐다.<br/><br/>또 지난 해 7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최정우 교수는 제14회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에서 ‘바이오전자 소자 제작 기술’로 연구부문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br/><br/>이 기술은 바이오컴퓨터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을 뿐 아니라, 유방암 및 에이즈 등 질병을 혈액 내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칩의 상용화도 앞당겼다는 평이다.<br/><br/>한편, 최 교수는 서강대와 하버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서강-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면서, 생체세포와 무기물이 결합한 가오리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가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으로 실리기도 했다.<br/><br/>지난 12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이광순 교수팀은 기존 기술보다 1.5배 빠르고, 2.5배 많은 세계 최고 효율의 CO₂(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개발했다.<br/><br/>2015년 '파리협정서' 채택 이후 세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이 교수팀은 에너지 사용량을 40% 이상, 공정 플랜트 구축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를 달성했다.<br/><br/>서강대 공학부는 로봇 연구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0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로봇대회 ‘사이배슬론’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br/><br/>‘사이배슬론(CYBATHLON)’은 장애인 보조로봇 기술 등 의/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겨루는 대회로, 공경철 교수팀은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된 착용 로봇 ‘워크온(Walk-On)’을 선보여 한국 로봇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했다.<br/><br/>공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애인을 행복하게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span>”며, “<span class='quot0'>공학자로서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br/><br/>서강대 공학부의 연구 성과들은 기존 학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던 한계를 극복한 결과물들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네 개의 전공으로 나눠지는 서강대 공학부는 서강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학 본연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 중이다.